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 부 자 교수 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한 · 중 이음절 동자이의어 대조 연구

201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李 丹



# 한·중 이음절 동자이의어 대조 연구

박 부 자 교수 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4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李 丹





# 인 준 서


李丹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8년 4월

심사위원장 김성주 (서명인) 

심사위원 노영희 (서명인) 

심사위원 김일환 (서명인) 

심사위원 김은희 (서명인) 

심사위원 박부자 (서명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는 한·중 2음절 동자이의어(同字異義語)의 차이, 특히 의미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 한자어와 중국어는 역사적 유연성으로 인하여 형태·통사·의미 특성에 있어서 공통점이 많다. 그러나 서로 다른 역사적 변천을 겪고 다른 사회 환경에서 발달해 온 두 언어의 현대어는 문법적 특성, 특히 의미적 특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이점을 밝히는 것을 동기로 하여 한·중 동자이의어를 대조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립국어원 2002년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결과>의 58,437 개 어휘를 대상으로 사전에 등재된 의미를 기준으로 동자이의어를 추출하였다.

Ⅱ장은 한자어의 범위를 한자로 적힐 수 있고 한국 한자음으로 읽힐 수 있는 단어로 규명하고, 동자이의어의 판별 기준을 제시하였다. 동자어(同字語)는 같은 글자를 가진 단어의 대립쌍이다. 현대어를 대조하는 연구이므로 현대어에 쓰이지 않는 어휘는 대조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이의어(異義語)에 대한 판별을 논의하였는데 의미가 다른 부분이 물론 있어야 되지만 의미가 일치하는 부분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한편, 의미를 대조할 때에는 사전에 등재된 의미를 중심으로 하였는데 중국어는 『現代漢語詞典』, 한국어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의미를 중심으로 대조하였다.

Ⅲ장은 한·중 동자이의어의 품사를 중심으로 대조였다. 한국 2음절 한자어는 주로 명사로 나타나고 일부 부사나 대명사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중국어는 형태의 변화 없이 품사 전환이 가능하므로 품사가 유동적으로 나타난다. 이에 한국어 2음절 한자어가 명사인 경우와 부사인 경우로 나누어 각각 대응되는 동자이의 중국어와 품사를 대조하였다.

IV장은 동자이의어의 의미를 대조하였다. 의미 영역에 따라서 동자 완전이의어(同字 完全異義語)와 동자 부분이의어(同字 部分異義語)로 나누었다. 먼저 1절에서 완전이의어를 대조하였다. 완전이의어는 의미가 일치하는 부분이 없이 완전히 다른 동자어를 말한다. 동자 완전이의어의 의미 차이의 양상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특징적인 어휘들의 부류를 묶어서 지시 대상의 차이와 지시 행위·상태의 차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동자 부분이의어의 대조는 의미 영역에 따라 한국어의 의미 영역이 더 큰 경우, 중국어의 의미 영역이 더 큰 경우, 그리고 한국어와 중국어 의미 영역이 교집합을 이루는 경우를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앞의 두 부류는 같은 상하관계에서 지시 대상의 차이, 지시 행위·상태의 차이와 의미 확장 양상의 차이로 유형화를 해서 대조하였다. 3절은 한·중 동자이의어의 가치 의미(價值 意味)를 대조해 보았다. 이는 주로 어휘의 결합관계와 문맥에 따라 긍정적 가치 의미나 부정적 가치 의미인지를 판단하였다.

키 워드: 한·중 동자이의어의, 이음절, 한·중 동형이의어, 품사 대조, 의미 대조, 가치 의미, 지시 대상, 지시 행위, 지시 상태, 의미 확장 양상, 파생 의미.

# 목 차

논문개요 .....	i
I. 서론 .....	1
1.1. 연구 목적 .....	1
1.2. 선행연구 .....	2
1.3. 연구 대상 및 자료 .....	6
1.3.1. 연구 대상 .....	6
1.3.2. 연구 자료 .....	8
II. 한자어의 범위와 동자이의어의 판별 .....	12
2.1. 한자어의 범위 .....	12
2.2. 동자이의어의 판별 .....	15
2.2.1. 동자어(同字語)에 대한 판별 .....	15
2.2.2. 이의어(異義語)에 대한 판별 .....	23
III. 한·중 동자이의어 품사 대조 .....	30
3.1. 한국어 명사와 중국어 동자이의어 품사 대조 .....	31
3.1.1. 한·중 모두 명사인 경우 .....	31
3.1.2. 한국어 명사이고 중국어 동사인 경우 .....	34
3.1.3. 한국어 명사이고 중국어 형용사인 경우 .....	38
3.1.4. 한국어 명사이고 중국어 부사인 경우 .....	40
3.1.5. 한국어 명사이고 중국어 명사·동사인 경우 .....	41
3.1.6. 한국어 명사이고 중국어 명사·형용사인 경우 .....	48

3.1.7. 한국어 명사이고 중국어 명사·부사인 경우 .....	50
3.1.8. 한국어 명사이고 중국어 동사·형용사인 경우 .....	53
3.2. 한국어 부사와 중국어 동자이의어 품사 대조 .....	59
3.3. 소결 .....	63
IV. 한·중 동자이의어 의미 대조 .....	66
4.1. 동자 완전이의어(同字 完全異義語) .....	66
4.1.1. 지시 대상의 차이 .....	67
4.1.2. 지시 행위·상태의 차이 .....	86
4.2. 동자 부분이의어(同字 部分異義語) .....	111
4.2.1. 한국어의 의미 영역이 더 큰 경우 .....	113
4.2.1.1. 지시 대상의 차이 .....	113
4.2.1.2. 지시 행위·상태의 차이 .....	129
4.2.1.3. 의미 확장 양상의 차이 .....	139
4.2.2. 중국어의 의미 영역이 더 큰 경우 .....	146
4.2.2.1. 지시 대상의 차이 .....	146
4.2.2.2. 지시 행위·상태의 차이 .....	155
4.2.2.3. 의미 확장 양상의 차이 .....	170
4.2.3. 한국어와 중국어 의미 교집합을 이루는 경우 .....	182
4.3. 동자이의어 가치 의미(價値 意味) 대조 .....	210
4.3.1. 한국어 긍정이고 중국어 부정인 경우 .....	213
4.3.2. 한국어 부정이고 중국어 긍정인 경우 .....	217
4.4. 소결 .....	227
V. 결론 .....	230

참 고 문 헌 .....	234
ABSTRACT .....	241



# I. 서론

## 1.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중 2음절 동자이의어(同字異義語)의 차이, 특히 의미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한국과 중국은 역사적으로 그 문자의 유연성이 보인다. 한국이 漢字를 처음 대한 때는 漢四郡이 設置된 108B.C.의 어름이 아닐까 싶다(심재기 1989: 91). 그 후 한자는 한국의 문자생활에 큰 영향을 미쳐 왔고, 고유어·한자어·외래어로 구성된 현대 한국어의 어휘 체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자어는 기원적으로 차용어이다. 그러나 심재기(1989: 89)에서 “한자어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외래어의 일종이지만 한국 고유의 한자음으로 읽힌다는 점에서 고유어로의 귀화성이 인정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漢字로 적힌다는 점 때문에 한자어라는 명칭을 붙여 주로 서양말을 기원으로 하는 외래어와도 구별하고 고유어와도 구별한다.”라고 한 바와 같이 한국어의 어휘 체계에 착상되어 귀화된 모습도 나타난다. 현대 중국어와 한국 한자어는 기원적으로 유연성이 있더라도 역사적 변천을 겪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니 완전히 같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문법이나 의미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본고의 한·중 대조 연구는 2음절 동자어(同字語)를 대상으로 한다. 동자어는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같은 한자를 가지는 어휘를 가리키는데 ‘출판(出版)-出版’, ‘연구(研究)-研究’와 같다. 물론 현대 중국어에서 간체화(簡體化)된 한자를 사용하고 있어서 한국에서 쓰이는 한자의 자형이 다를 때도 있지만 본 연구는 ‘還-还’과 같이 자형이 달라도 동자어로 본다.<sup>1)</sup> 한·중 동자어는 같은 한자로

---

1) 이에 대해서 II장의 ‘동자에 대한 판별’에서 상세히 논의하겠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법이나 의미도 같다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국인이나 중국어를 학습하는 한국인은 한자어나 중국어의 학습 과정에서 이러한 착각으로 인하여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에 한·중 동자어의 대조 연구가 필요하며, 그 중 의미에 대한 대조가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본고는 의미 대조에 치중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1.2. 선행연구

한·중 동자어의어 연구는 한·중 한자어 연구라고 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는 1970년대 成元慶(1977)에서부터이다. 成元慶(1977)은 한·중 양 국어에서 현용하는 어휘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한국에서 쓰이는 한자어는 중국의 고전에서 유래된 것이 많으나 중국어에는 더 이상 쓰이지 않는 어휘들이 많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국어와 중국어의 어휘의 형태는 같으나 의미가 다른 것이 많고, 또한 형태에 있어서도 어순이 반대인 것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고사성어(故事成語)의 한·중 의미 차이도 살펴보았다. 또한 程崇義(1987)은 한·중 한자어의 어휘소 구성이 같지만 의미의 확대나 축소, 전이 등의 변화로 인해 다르게 이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그 다음으로 宋敏(1990)은 한·중 한자어의 이질화 원인에 관한 연구로 시대적 전환점을 배경으로 해서 한국어 어휘 체계의 변화를 논하면서 갑오경장 이후에 한국 한자어는 일본어의 영향을 많이 받아 기존의 중국어에서 차용된 한자어의 많은 것은 일본식 한자어로 대체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연구는 한국 한자어의 이질화 원인에 대한 역사적인 추적이라고 본다. 즉 근대 일본식 한자어의 영향으로 한국 한자어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득춘(1994)는 구조적 및 의미적으로 한·중 한자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혔다. 그 중 차이점을 두 가

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하나는 한국어로 수용된 후에도 중국어와 뜻이 같 으면서 구조적으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조적으로 변화가 없지만 의미적으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른 시기에 한자어와 중국어의 대조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방법론을 제공해 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 다음으로 鄭恩惠(1998)은 한·중 한자어의 형태와 의미의 이질화에 대한 연구인데 먼저 이질화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질화의 원인을 밝혀내었다. 그 중 의미의 이질화는 한국에서의 의미 변화로 인한 이질화, 중국에서의 의미 변화로 인한 이질화, 양국에서의 의미 변화로 인한 이질화 및 양국에서 본의 자체가 다른 경우로 유형화하였다. 한편, 이질화의 원인에 대해 검토한 점은 매우 유의미한 논의라고 본다. 이와 같이 이른 시기의 한·중 동자어의 대조 연구는 주로 이질성, 즉 차이에 초점을 두었다.

2000년대 이후에 한·중 한자어 대조 연구는 수적으로 많아졌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증가와 더불어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한·중 어휘 대조 연구, 특히 의미 대조와 관련된 연구가 많아졌다. 연구 대상은 형태가 일치하는 동자어나 동형어(同形語)에서 이형어(異型語), 이순어(異順語)까지가 있다.

우선 연구 대상의 범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기존 연구를 유형화해 볼 수 있다. 각 기관의 한국어 교재에서 나타난 한자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왕배배(2011), 馬今善(2012), 맹흔(2014), 반굉위(2016), 왕페이(2017)를 들 수 있고, 한국 고등학교 중국어 교과서에서 나타난 한자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尙佳寧(2017)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기관이나 개인의 어휘 목록 연구 보고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채옥자(2004), 文蓮姬(2007), 유서천(2011), 이용교(2014), WANG XINLE(2016)이 있다. 한편, 방대한 사전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그중의 2음절 한자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崔娟華(2008), 姜漢植(2008), 尹翥翠(2009), 유림(2009), 곽박림(2013), 임배리(2013), 엄성호(2015)가 있다. 그 외에, 한어수평고시(HSK)에서 나타난 한자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김경숙

(2014)가 있고, 신문 자료를 대상으로 한 範晨星(2017)이 있다. 연구 대상 자료의 범위에서 그 연구의 포괄성 및 지향성을 볼 수 있다. 한·중 한자어의 대조 연구는 대상 자료의 포괄성이 요구된다. 그 지향성을 논한다면 순수한 한·중 한자어 대조 연구는 있으나, 중국인 학습자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에서 한자어 교수·학습 전략이나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도 적지 않다. 우선 순수한 대조 연구는 李海慈(2001), 范琦慧(2002), 文蓮姬(2007), 崔娟華(2008), 姜漢植(2008), 왕배배(2011), 이용교(2014), 곽박림(2014), 範晨星(2017)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대조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 방안을 제시한 연구로는 유서천(2012), 이쌍건(2012), 馬今善(2012), 임배리(2013), 맹흔(2014), 반굉위(2014), 왕페이(2017)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 한자어에 대한 연구에 비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중국어 교육에서의 중국어와 한국 한자어에 대한 대조 연구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주로 중국 대학교에서 대외 중국어 교육을 연구하는 한국인들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는데, 金珍玉(2008), 金蓮正(2009)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는 중국어 교육을 다루는 연구이므로 본고에서는 이들 논문을 검토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한다.

한·중 한자어 연구는 동형어·이형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고, 동형어만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연구는 文蓮姬(2007), 馬今善(2012)를 살펴보겠다. 文蓮姬(2007)은 한·중 한자어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한 뒤, 한·중 한자어를 동형동의어, 동형이의어, 동소역순동의어(同素逆順同義語), 일반 이형동의어를 위주로 의미 대조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동형동의어를 감정적인 의미의 차이, 사용 문맥의 차이, 적용 대상의 차이로 나누어 대조하였다. 그리고 동형 완전이의어의 의미를 대조할 때 중고(中古) 중국어 문헌에서 나타난 의미를 기준으로 한국어가 의미 변화 했는지, 중국어가 의미 변화 했는지, 아니면 양 국어 모두 의미 변화 했는지를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조분석은 그 의미의 변화를 엿볼 수 있지만 개별 어휘의 중고 중국어와 현대 한국 한자

어의 계승 관계를 밝히지 않는 이상, 의미 변화를 논하는 것은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馬今善(2012)에서는 형태에서의 동순(同順)이나 이순(異順)의 대조, 의미에 있어서 현대 중국어 기준으로 한국어의 의미 확대, 축소, 전이의 대조, 그리고 화용적인 측면의 뉘앙스를 대조하였다. 그런데 의미 대조에 있어서 현대 중국어 기준으로 한국어의 의미 확대나 축소라는 대조 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확대나 축소라는 것은 어떤 기존의 범위에서 사물의 변화하는 추세를 기술하는 용어인데 보통 한 언어를 대상으로 한 통시적인 연구에서 사용된다. 현대 중국어를 기준으로 한국어 의미의 변화를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연구 방법으로 보인다.

그리고 동형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崔娟華(2008), 왕배배(2011), 멩흔(2014), 尙佳寧(2017), 範晨星(2017)을 살펴보자. 崔娟華(2008)은 의미, 품사, 가치 의미에 대해 연구하였고, 특히 의미 대조에 있어서 사물 이름의 적용대상 차이, 지시대상의 구체성과 추상성의 차이,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표현하는 어휘의 적용대상 차이, 사람의 동작이나 행위를 표현하는 어휘의 적용범위 차이로 의미가 다른 양상을 유형화 하였다. 한편, 동자이의어의 이와 같은 차이가 생기게 된 원인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왕배배(2011)은 의미와 뉘앙스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멩흔(2014)는 품사와 의미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尙佳寧(2017)은 품사, 의미, 구성을 위주로 대조하였다. 그리고 範晨星(2017)은 『조선일보』에 나타난 한자어를 대상으로 의미범위의 확대나 축소, 뜻풀이 수의 증가나 감소, 의미전이, 어감에 따라서 한·중 동형 한자어를 대조하였다. 이런 연구들은 모두 의미 대조 시에 의미 범위의 차이에 착안하여 연구하였다. 즉 완전이의와 부분이의로 나누어 대조하였다.

위와 같이 한·중 한자어의 대조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지만 연구 대상 자료의 포괄성, 대상 어휘 수량의 제한성으로<sup>2)</sup> 인해 그 연구 결과의 신빙성은 문

2) 기존의 연구에서 연구 대상인 동자이의어의 수량은 십여개에서 300개까지가 균일하지 않았다. 예컨대 文蓮姬(2007)은 약 40개, 崔娟華(2008)은 약 220개, 유림(2009)은 약 50개, 왕배배

제가 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연구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750여 개의 동자이의어를 추출하고 그 중 특징적인 어휘를 대상으로 자세히 대조·연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동자(同字)’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기존의 한·중 한자어 대조 연구들에서 ‘동형(同形)’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과 구별된다.<sup>3)</sup> 한편, 의미 대조에서 참조한 사전의 권위성으로 인해 의미 대조의 결과도 그만큼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sup>4)</sup> 본 연구는 근대어나 고대어의 의미 양상도 검토함으로써 현대 한국어와 중국어의 의미 차이가 일어난 시점이나 과정을 추적하는 시도도 해보았다. 이런 점도 본 연구의 가치로 보인다.

### 1.3. 연구 대상 및 자료

#### 1.3.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 한국 한자어는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결과(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을 위한 기초 조사)〉 보고서에서 선정되었다. 이 자료는 1990년대에 생산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주로 각 분야의 문헌에서 어휘를 추출하였지만 구어 자료도 포함되어 있고, 교과서와 한국어 교재도 조사 자료에 일부 포함되었다(조남호2002 :2-3.) 본고에서 이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이 보고서는 한국어 학습용 어휘에 대한 조사로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를 학습하면서 보다 쉽게 접하게 되는 어휘들을 담고 있고, 특히 이 중의 한·중 동자이의어는 모어인 중국어의 간섭이 크기 때문에 사용 오류를 쉽게 범하는 부분이 때문이다. 그만큼 중국어와 대조 연구될 가치가 많아 이 자료를 바탕으로

---

(2011)는 약 150개, 광박림(2013)은 약 70개, 이용교(2014)는 약 60개, 김경숙(2014)는 약 80개를 대상으로 대조하였다.

3)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동자(同字)’라는 용어의 합리성 및 기존 ‘동형(同形)’이라는 용어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Ⅱ장 2.1. 참조.

4) 사전에 관련 구체적인 논의는 본장 3.2.를 참조.

연구 대상을 선정하였다.

동자이의어 추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자료는 조사 184개, 어미 702개, 고유 명사 16,855개와 단어 58,437개의 단어를 포함한다. 본고는 어휘 연구이어서 조사와 어미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고유 명사는 주로 인명이나 지명이라 중국어 어휘와의 대조에서 큰 의미는 없다고 판단하여 역시 제외하였으므로 58,437개의 단어를 대상으로 해서 한자어를 추출하였다. 이 자료에서는 ‘풀이’라는 열은 어원을 표시한 것이다. 즉 한자어이면 대응 한자를 표시하고, 외래어이면 대응되는 영어나 프랑스어 등 원어를 표시하였다. 이에 한자어는 ‘풀이’ 열에 한자가 나타난 것을 선정하였다. 추출한 부분에서 ‘유한마담(有閑&프madame)’와 같은 한자어와 외래어 통합한 언어를 제외시키고, 총 41,413개의 한자어가 남았다. 이 중에서 ‘가능’, ‘가능하다’, ‘가능해지다’의 어근은 모두 ‘가능’이어서 이들은 중복값으로 제거한 뒤, 32,045개의 한자어가 추출되었다. 그 다음으로 이 중에서 중국어와 같은 한자<sup>5)</sup>로 구성되어 있는 한자어, 즉 한·중 동자어는 29,989개가 추출되었고 중복값을 제거한 후 한·중 동자어는 총 20,378개로 추출되었다. 한·중 동자어는 1음절어에서 7음절어까지 분포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2음절어는 10,074개이다. 본 연구는 2음절어를 대상으로 동자이의어를 뽑아내고자 한다. 동자이의어는 주로 한·중 2음절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1음절어는 현대 중국어에서는 단어로서의 자격이 약하기 때문에 한국 한자어와 대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3음절어는 주로 사물의 명칭으로 나타나고, 4음절어는 고사성어인 경우가 많다. 이런 단어들은 중국어와 의미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본다. 그리고 5~7음절어는 비중이 지극히 적고 ‘인신매매범(人身賣買犯)’, ‘자본주의적(資本主義的)’, ‘일거수일투족(一舉手一投足)’과 같은 단어들인데 중국어에 대응하는 동자어가 없거나 있어도 의미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본

---

5) ‘같은 한자’에 대한 판정은 본고 II장 ‘2.1. 동자어에 대한 판별’을 참조.

고에서 이런 단어들도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 최종적으로 2음절 동자어의 어는 약 750 개가 추출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면 표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표1〉 연구 대상 자료 각 어휘 범주의 어휘수

어휘 범주		어휘 수
총 어휘		58,437
한자어	합계	41,413
	한자어 어근	32,045
한·중 동자어		20,378
2음절 동자어		10,074
2음절 동자어의어		750

### 1.3.2. 연구 자료

본 논문에서 연구 자료로 삼은 현대어 사전은 다음과 같다.

〈표2〉 한·중 현대어 사전

서명	초판 발행	현재판 (발행)	저자	편찬처	발행처
『표준국어대사전』	1999	2016	-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2009	2009	-	고려대민족문화 연구원	고려대민족 문화연구원
『现代汉语词典』 제7판	1978	2016	吕淑湘·丁声树	中国社会科学院语 言研究所	商务印书馆

한국어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중국어는 『现代汉语词典』 제7판을 우선적으로 참조하였고, 그 외에, 『고려대 한국어대사전』도 참조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은 표준어 규정, 한글 맞춤법 등의 어문 규정을 준수하여 국가에서 최초로 직접 편찬한 국어사전이다. 1999년 국립국어원이 펴낸 것이고, 2016년까지 511,282개의 어휘가 수록되었다.<sup>6)</sup> 따라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사전 중에 수록된 어휘가 가장 많은 사전이므로 언론, 출판의 기준 역할을 다 해왔다. 본고에서 한국 한자어의 의미는 이 사전을 참조하였고 예문도 주로 이 사전에 등재된 것을 가져왔다. 『現代漢語詞典』은 중국의 언어학자 呂淑湘·丁聲樹가 편집을 주관하였고 13,000 개의 한자, 총 69,000 개의 표제어를 수록한 것으로 중국 각 대학교의 중국어학과에서 널리 사용되는 사전이다.<sup>7)</sup>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은 2009년에 발간한 국어사전으로서 그때까지의 한국어 연구 성과를 담고 있고 총 386,889 개의 표제어를 담고 있으며 현존의 국어사전 중에서 수록된 어절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사전이다.

한편, 본고는 현대 한·중 동자이의어에 대한 연구이나 이의어가 된 과정을 살피기 위해 가능한 한 근대나 고대의 의미도 추적하고자 한다. 이에 한국어와 중국어 현대어 사전 외에, 중국어 고대어 사전 및 한국 근대어에 관련 사전 자료도 참조하겠다. 고대 중국어 사전은 『古代漢語辭典』을 참조할 것이다.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3〉 한·중 고어 사전

서명	출판 연도	저자	편찬처	발행처
『한불족년』	1880	펠릭스 클레르 리텔 지음.	파리외방전교회	Yokohama: C Lévy Imprimeur-Libraire
		『현대 한국어로 보는 한불사전』,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이은령·김영주·윤애선 옮김, 2014, 소명출판		
『한영족년』	1890	언더우드	-	Yokohama: Kelly & Walsh; Trübner & Co.
		『한국어의 근대와 이중어사전』, 황호덕·이상현 편, 2012, 박문사		
『15세기 한자어 조사』	1993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6) 숫자로 살펴보는 우리말 십표 마침표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7) 이상의 수치는 『現代漢語詞典』(P12)에서 가져왔음.

연구』				
『17세기 국어사전』	1995	홍윤표 외 저	한국정신문학연구원	대학사
『필사본 고어대사전』	2010	박재연 주필	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	학교방
『조선시대 한글편지 어휘사전』	2017	황문환·김주필· 배영환·신성철· 이래호·조정아· 조항범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역락
『古代汉语词典』	2014	陈复华·楚永 安·张双棣·殷 国光 외	商务印书馆辞书研 究中心·中国人民 大学	商务印书馆

『15세기 한자어 조사 연구』는 15세기에 간행된 한문 원전이나 언해본을 대상으로 하여 한자어를 조사하여 한자어의 목록 및 용례를 작성하였다. 이를 통해서 15세기 한국 한자어의 실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근대 어휘의 의미를 검토하기 위하여 『한불즈뎐』, 『한영즈뎐』, 『17세기 국어사전』, 『고어대사전』, 『조선시대 한글편지 어휘사전』을 참조할 것이다. 『한불즈뎐』은 19세기에 한국어 어휘를 프랑스어로 번역한 사전이고 19세기 한국어 양상을 살펴보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인다. 『17세기 국어사전』은 17세기 근대국어어휘를 정리, 수록한 방대한 국어사전이다. 한편, 『필사본 고어대사전』은 한글이 창제된 이후부터 20세기 초까지 각종 한글 필사 문헌에 나타나는 낱말과 문법적 요소들을 통합하여 표제어를 추출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용례를 보여줌으로써 한국어 고어의 총체적 모습을 구현하였다. 『한영즈뎐』은 근대 한국을 형성한 주요 개념들의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고 한국어의 변화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조선시대 한글편지 어휘사전』은 한글편지 자료에 나타나는 어휘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언해 자료와 달리 번역의 영향에서 벗어나 일상에서 사용되는 어휘를 보다 풍부하게 보여 주고 있다. 『古代漢語辭典』은 중국인민대학교

와 상무인서관이 함께 편찬한 사전이고 중국에서 고대 중국어 연구에 대표적인 사전이다.

한편, 사전 자료 외에, 어휘의 실제로 사용된 모습을 보여주는 대규모인 전산 자료도 참조하였다. 한국어는 <21세기 세종계획> 현대문어 원시 말뭉치 자료를 참조했는데 <21세기 세종계획>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구축한 한국어 말뭉치 자료이다. 원시 말뭉치, 형태분석 말뭉치, 형태의미 분석 말뭉치, 구문 분석 말뭉치로 구성되었는데 2007년까지 총 7530만 어절이 구축되었다. 본 연구가 참조한 현대 문어 원시 말뭉치는 인문, 사회, 예술 등 여러 영역을 걸친 텍스트 자료를 기초한 것이다. 그리고 중국어의 <北京語言大學語料庫中心(북경 언어 대학 코퍼스 중심)> (BLCU Corpus Center, BCC로 줄임. 이하 <BCC>로 부름)은 중국어를 위주로 하여 기타 어종도 구축한 온라인 코퍼스이다. <BCC>는 백억 어절이나 되는 빅 데이터로서 언어 기초 연구와 언어 응용 연구에 바탕 자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荀恩东 외 2016: 93). 본 연구는 현대 중국어 어휘의 실제 사용 양상을 살피기 위하여 『現代漢語詞典』 이외에, <BCC>도 참조하기로 하겠다.

## Ⅱ. 한자어의 범위와 동자어의 판별

본 장에서는 한·중 동자어의 중 한국 한자어의 범위에 대하여 규명하고 한·중 동자어(同字語)와 이의어(異義語)의 판별 기준을 기술하고자 한다.

### 2.1. 한자어의 범위

한자어의 범위 문제는 그동안 많이 논의되어 왔다. 기존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沈在箕(1987: 26-27)는 한자어를 “우리말 가운데에서 한자로 적을 수 있는 모든 단어”라고 정의하고 시대적 한계는 대체로 19세기 말까지로 제한하였는데 이와 같이 시대를 제한한 이유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에서 만들어져서 고유어를 표기하려는 수단으로 쓰인 한자를 한자어의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주로 향찰(鄉札)과 이두(吏頭)로 기록된 단어를 말하는 것이다.

노명희(1990: 12)에서는 한자어를 “그 기원이 중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지 관계없이 국어 어휘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자로 표기될 수 있으며 한국 한자음으로 읽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즉, 언중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간에 한자로 표기할 수 있고 한국 한자음으로 읽히면 한자어에 속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차피(於此彼)’, ‘모습(模襲)’, ‘사돈(查頓)’ 등에 대응되는 고유어 쌍이 존재하지 않는 까닭은 언중들에게 한자어라는 인식이 거의 사라져 가기 때문인데 이런 것도 모두 한자어로 포함시켰다.

한편, 宋基中(2007:322)에서는 “한자어는 개별 음절이 어떤 특정 한자의 자음(字音)과 일치하는 어휘”라고 정의하였다. 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한자어가 아니라는 것이다. ‘가지<茄子, 다홍<大紅, 보배<寶貝, 비단<匹緞’과 같이 한 개

의 음절이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이것은 한자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고영근·구본관(2008:244)는 한자어의 정의는 내리지 않았지만, 한자어의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한하였다. “어디에서 차용되었느냐보다는 ‘한자로 표기할 수 있고 이를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단어’가 한자어에 포함되느냐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붓>筆’, ‘먹>墨’ 등과 같은 형태 변화를 겪은 단어 및 ‘자장(炸醬)’과 같은 한국 한자음으로 읽히지 않는 단어들은 한자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러한 범위의 한정은 노명희(1990)에서 제시하는 한자어의 정의와 일치한다.

위의 논의를 살펴보면 한자어의 범위 설정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를 초점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표기의 문제로, 한자로 적을 수 있는 것만을 한자어로 보는지의 문제이다. 문제되는 어휘는 ‘배추(<白菜)’와 같이 형태적인 변화를 겪은 단어들이다. 이런 단어들이나 단어를 구성하는 개별 형태소는 한자로 적을 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기존 논의에서 이런 형태적 변화를 겪은 단어를 한자어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다.

둘째, 읽히는 방법의 문제로, 한국 한자음으로 읽히는 것만을 한자어로 인정하는가의 문제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명희(1990), 宋基中(2007), 고영근·구본관(2008)은 모두 한국 한자음으로 읽혀야 한다고 제한하였다. 한자를 사용하는 나라가 많은데 각 나라에서 한자를 본국 언어의 독음으로 읽는 것이 있고, 일본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자를 자훈으로 읽는 경우도 있으며, 외국의 한자음, 특히 중국 한자음으로 읽는 것이 있다. 한국 한자어는 한국어 어휘 체계에 귀화된 어휘로서 한국 한자음으로 읽혀야 된다고 생각한다. 즉 ‘퀘자(<褸子)’와 같이 중국 백화문에서 차용된 중국 한자음으로 읽히는 단어는 한자어로 볼 수 없다.

셋째, 기원의 문제로 보통 중국에서 차용된 것으로 인식해 왔지만 근대에 일

본에서 온 것과 한국어에서만 쓰이는 것도 한자어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기존연구에서는 한자어의 기원 문제를 따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沈在箕(1987)은 한국에서 만들어져서 고유어를 표기하려는 수단으로 쓰인 한자, 즉 향찰과 이두를 한자어의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이와 달리 金亮鎭(2011)은 그 중의 이두식 표기는 ‘이두식 한자어’라고 하여 한자어로 보았다. 이두는 역사적으로 한국 고유어를 표기하기 위하여 생겼으나 공식적인 입장에서 한자의 훈을 나타내고 한국 한자음으로 읽히므로 한자어로 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고는 한자로 적힐 수 있고 한국 한자음으로 읽힐 수 있는 것은 모두 한자어로 보고자 한다. 따라서 ‘창문(窓門)’, ‘춘추(春秋)’는 한자로 표기할 수 있고 한국 한자음으로 읽히는 것이므로 한자어 범위에 포함시킨다. 이런 단어들은 한자어로 볼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고 기존 논의에도 이견이 없다. 그러나 ‘배추(〈白菜〉)’, ‘상추(〈生菜〉)’, ‘김치(〈沈菜〉)’ 등과 같은 단어는 차용되던 당시의 모습과 달라져 형태의 변화를 겪은 것들이다. 이런 단어들은 한국어 어휘 체계에 들어오면서 고유어와 함께 음운적, 형태적 변화를 겪었으므로 거의 고유어로 인식되고 있어 흔히 ‘귀화어(歸化語)’라고 불린다. 이 부류의 단어들은 한자로 적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자어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투(〈上頭〉), 쾌자(〈褌子〉), 자장(〈炸醬〉)’은 일부 음절(‘투(〈頭〉), ‘쾌(〈褌〉), ‘자(〈炸〉)’이 한국 한자음으로 읽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한자음(‘투[tʰou]’, ‘쾌[ku ä]’, ‘자[tʂä]’)로 읽히므로 한자어로 보기 어렵고 서구 외래어와 같은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 들이다(고영근·구본관 2008:244.) 그리고 ‘도척(刀尺)’은 이두식 표기로 굳어진 단어이다. 金亮鎭(2011: 71~72)는 『표준국어대사전』의 ‘도척(刀尺)’의 “칼자”라는 의미항은 다른 두 의미와 구별하고 사전에서 동음이 의어로 등재돼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즉 “칼자”라는 의미인 ‘도척(刀尺)’은 이두식 한자어라 일반 한자어인 ‘도척(刀尺)’과 구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역사적으로 ‘도척(刀尺)’과 같은 단어들은 이두식 표기로 생겼으나 공식적인 입장으로

보면 이들은 한자로 적힐 수 있고 한국 한자음으로 읽히기 때문에 한자어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 2.2. 동자이의어의 판별

### 2.2.1. 동자어(同字語)에 대한 판별

기존의 한·중 한자어 대조 연구에서는 ‘동형(同形)’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채옥자(2004: 271)에서는 “同型·異義의 한자어는 한국 한자어와 중국 現代漢語에서 같은 한자의 형태소 구성을 보이지만 그 의미가 전혀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다른 한자어”로 정의하였다. 왕배배(2011: 19)도 이런 정의에 따라 “동형어란 같은 형태소로 구성된 단어를 가리킨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金洪振(2007: 19)에서도 “동형이란 대비되는 어휘의 형태가 같음을 말하며, 동형어란 같은 형태소로 구성된 단어를 가리킨다.”라고 하였다. 한편 崔金丹(2007: 361)에서는 ‘同形同素語’라는 용어가 쓰였는데 “同形이라 함은 서로 다른 언어계열에 속하는 어휘의 대조에 있어서 대조되는 어휘의 한자 어근 형태소와 한자 어근 형태소의 배열순서가 동일하여 외형적 형태가 같음을 말하고...”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형태의 같음’을 의미하는 ‘同形’이라는 용어가 쓰인 연구로는 崔娟華(2008), 姜漢植(2008), 尹翡翠(2009), 곽박림(2013) 등을 더 들 수 있다. 한편, 文蓮姬(2007: 37~38)은 “同形語는 韓國과 中國에서 역사상 발생하여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는 글자와 어순이 같은 한組의 어휘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중국어의 簡體字와 한국어의 正字는 다만 글을 쓰는 형식에서 차이가 나타날 뿐이지 字形의 본질적인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하여 同形으로 다룬다.”라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정리해 보면 ‘형태의 같음’이나 ‘구성된 형태소의 같음’이라고

하여 ‘동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崔娟華(2008), 姜漢植(2008), 尹翡翠(2009), 곽박림(2013)은 ‘형태의 같음’을 의미하는 ‘同形’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다음과 같은 어휘는 ‘형태의 같음’이라는 기준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동형어로 보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본다.

(1) 饅頭(崔娟華(2008: 20))

[韓]: 밀가루 따위를 반죽하여 소를 넣어 빚은 음식. 삶거나 찌거나 기름에 튀겨 만드는데, 떡국에 넣기도 하고 국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  
(예: 김치를 다져 만두에 넣다.)

[中]: 만두. 찐빵. [소가 없는 것을 말함]

(2) 【結實·결실】(강한식2008: 23)

韓: ① 식물이 열매를 맺음. 또는 그 맺은 열매가 여물.

例) 結實의 계절.

② 일의 결과가 보람 있게 잘 맺어짐.

例) 결혼은 사랑의 結實이다.

中: ① [形] 단단하다. 질기다.

例) 这石头很结实。(저 돌은 매우 단단하다.)

② [形] (신체가) 건강하다. 튼튼하다.

例) 他本来身體很瘦弱, 现在结实多了。

(그는 본래 몸이 아주 약했는데 이제는 많이 건강해졌다.)

(3) 归还 guīhuán (尹翡翠2009)<sup>8)</sup>

---

8) 尹翡翠(2009)는 쪽수 표시가 없다. ‘귀환(歸還)-归还’은 제3장 동형어의어 품사 차이의 ‘한국어의 품사가 명사 혹은 명사·동사인 경우’의 (6)번에 해당하는 어휘이다.

(动) 把借来的钱或物还给原主。

如) 借图书馆的书要按时归还/捡到东西要归还失主。

귀환 (歸還)

(名) 다른 곳으로 떠나 있던 사람이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거나 돌아감.

예) 할머니는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 놓고 파병 나간 삼촌의 무사한 귀환을 빌었다.

(4) 경력 (經歷) (곽박림2013: 31~32)

가. 중국어: n 자기 겪어 지내 온 여러 가지 일.

v ‘겪다, 경험하다’의 동사로 쓰인다.

나. 한국어: n 겪어 지내 온 일들. 온갖 일을 겪어 지내 음.

(1)~(4)는 기존연구에서 동형이의어로 판단한 어휘들이다. 崔娟華(2008), 姜漢植(2008), 곽박림(2013)은 ‘만두(饅頭)’, ‘결실(結實)’, ‘경력(經歷)’이라는 한국어만 제시했으나 대응되는 ‘동형’인 중국어 ‘馒头’, ‘结实’, ‘经历’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중국어에서 한국어와 같은 ‘饅頭’, ‘結實’, ‘經歷’이라는 형태를 사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단 이와 같은 자형의 차이에 초점을 두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尹翡翠(2009)는 (3)과 같이 한국어 ‘歸還’과 중국어 ‘归还’을 제시했는데도 그 형태적 차이에 대해 전혀 논의한 바 없었다. 이는 ‘동형’이라는 기준의 정확성에 대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한편 ‘구성된 형태소가 같음’의 기준으로 동형이라고 하면 ‘후배(後輩)-后辈’의 대립쌍 중에 ‘뒤 後’와 ‘임금 后’는 같은 형태소로 볼 수 없어서 동형어로 보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왕배배(2011: 73)에서 ‘후배(後輩)-后辈’는 동형어로 보았고 대조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의 ‘동형’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한 기준 설정이 문제가 있었다. 본고는 동일한 글자라는 초점을 맞추어 ‘동자(同字)’라는 용어를 선택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동자(同字)’라는 용어는 한 언어 내부의 같은 글자를 가리킬 때 쓰인 용어로서 두 언어의 대조에서 많이 쓰이지 않았다. 한국 한자어 중에 ‘構成하는 漢字의 자형이 모두 같지만 發音이 다른 漢字語’를 同字異音 漢字語라고 한다(金亮鎭2013: 35). 예를 들어 金亮鎭(2013: 36)에서 ‘喝’자가 나타난 ‘喝食’은 [갈식]과 [할식]이라는 두 가지의 음으로 읽히는 것은 同字異音이라는 것이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어휘 대조 연구에서 ‘동자’라는 용어를 쓴 연구는 韓在均(2013)을 들 수 있다. 韓在均(2013)은 한국어 ‘女子’와 중국어 ‘子女’를 ‘同字異義反序詞(동자이의반서어)’라고 하였다. 그런데 중국어 ‘約請’과 한국어 ‘請約’과 같은 동자이의반서어의 자형 차이에 대해서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어 ‘還’과 한국어 ‘還’, 중국어 ‘机’와 한국어 ‘機’, 중국어 ‘学’과 한국어 ‘學’, 그리고 중국어 ‘后’와 한국어 ‘後’는 자형이 다르거나 같은 형태소가 아니어도 현대 중국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일한 한자이다.<sup>9)</sup> 즉 ‘還’, ‘機’, ‘學’, ‘後’는 간략화(簡略化)된 현대 중국 한자 ‘还’, ‘机’, ‘学’, ‘后’와 같은 한자로 인식되어 동자로 본다.

한국어는 正字, 즉 중국어의 繁體字에 해당하는 글자를, 중국어는 簡體化를 거친 簡體字<sup>10)</sup>를 사용하지만 이들은 같은 한자를 나타내는 글자이기 때문에 동형(同形)이라기보다는 동자(同字)라는 용어가 더 마땅하다. 현대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한자와 현대 중국어에서 사용되는 한자는 正字(正字)와 俗字(俗字)의 관계로 봐도 좋다. 正字는 한 시대에서 주류가 된 자형으로 국가적으로 규범화된 한자인 반면, 俗字는 민간에서 쓰이는 주류가 되지 않는 글자이며 정체자의

9) 본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시점에서 중국어와 동일한 한자를 가진 한국 한자어와 해당 중국어 어휘의 혼동 현상을 줄이기 위한 대조한 것으로 현대 중국어의 입장에서 동자(同字)를 판정한다.

10) 중국 홍콩·마카오·대만에서는 번체(繁體) 한자를 사용한다. 이는 역사적인 식민지나 전쟁의 원인으로 인하여 중국의 한자 간화 방안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필법과 부합하지 않는 글자이다. 정자는 시대와 국가의 문자 정책에 따라서 변할 수 있고 속자는 정자와의 경쟁에서 우세되면 정자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 글자가 한·중 두 나라의 언어에서 정자나 속자로 다르게 인정되기 때문에 자형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변체자를 정자로 인정하고 간체자인 글자는 속자로 인정하나, 현대 중국어에서는 간체자를 정자로 인정하고 변체자인 글자는 속자로 인정한다. 본고는 한·중 정체자를 대상으로 대조하기 때문에 자형상의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고는 한·중에서 같은 글자(자형이 같지 않아도 됨)를 가진 단어 대립쌍을 동자어라고 하여 이를 연구 대상을 삼고자 한다.

본고의 한·중 동자어는 현대 중국어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어휘를 대상으로 한다. 현대 한국어 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나 고대나 근대 중국어 문헌에서만 나타나고 현대 중국어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어휘는 본고의 한·중 동자어의 범주에 넣지 않겠다. 현대 중국어의 어휘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중국어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어휘는 한·중 동자어로 논의된 연구가 있었다. 예를 들어, 맹흔(2014: 49)은 ‘가난(家難)-家難’은 한국어에는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하여 몸과 마음이 괴로운 상태에 있다”라는 의미이고, 중국어에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사고”라는 의미로 해석하여 한·중 동형이의어로 보았다. 그러나 중국어 ‘家難’의 예문을 들지 않았다. ‘家難’은 현대 중국어 사전<sup>11)</sup>에서 등재되어 있지 않고 현대 중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어휘이다. 고대 중국어 전적에서 “家中遭遇的重大不幸事故(집안에서 크고 불행한 사고를 당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5) 成王作頌，推己懲艾，悲彼家難，可何謂戰戰恐懼，善守善終哉？ - 《史記·樂書》

11) 본 연구의 기준으로 삼은 『現代漢語詞典』뿐만 아니라, 다른 현대어 사전에서도 등재되어 있지 않다.

(주성왕이 《송》을 지었을 때 자기가 여태껏 한 실수를 그 당시 집안이 겪었던 화에 비통하는데 어찌 전전공공하고 소심하지 않겠느냐? - 《사기·약서》)

또한 文蓮姬(2007: 51)에서 ‘양복(洋服)-洋服’은 “서양 옷”이라는 의미로 남녀의 옷을 모두 가리켜 ‘她洋服穿得挺讲究(그녀가 양복 입는 데에 무척 신경을 쓴다)’라는 예문을 들었다. 이를 한국어 “서양의 의복, 특히 남성 정장을 이르는 말”이라는 의미와 대조하여 동형부분어의어로 보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1930년대에는 “서양의 옷”을 지칭하는 말로 ‘洋服’가 쓰였으나 현대 중국어 사전에는 등재되지 않았고 현대 중국어에서는 ‘西裝’이라는 말이 쓰인다.

(6) 江泰穿一件洋服坎肩, 袁任敢还是那件棕色衬衣. - 曹禺《北京人》第二幕  
(강태가 양복 조끼 하나를 입었고, 원임감은 여전히 그 갈색 셔츠를 입었다. - 조우 《북경인》 제2막)

이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 동자어로 본 어휘는 다음과 같다.

〈표4〉 고대나 근대 문헌에 나타난 어휘

한국 한자어	동자어로 본 기존논의	기존논의의 분석
極盛	왕배배(2011: 106)	의미: 지극히 왕성하다. 전성하다. 예문: 없음.
	임배리(2013: 30~31)	의미: 지극히 왕성하다. 예문: 極盛時代(황금시대, 극성기)
問病	곽박림(2013: 47)	의미: 고어에서 병을 고치러 병원에 가다, 진찰 받다. 예문: 없음.
	반굉위(2016: 25)	의미: 방세를 묻다. 예문: 없음.
勿論	맹훈(2014: 51)	

	范晨星(2017: 145) 范琦慧(2002: 23) 채옥자(2004: 271)	의미: 추궁하지 않다. 예문: 없음.
俗談	명흔(2014: 57)	의미: 예로부터 민간에 전하여 오는 쉬운 격언이나 잠언. 예문: 없음.
賃金	范 晨 星 ( 2 0 1 7 : 152~153)	의미: 租金(임대료). 예문: 없음.

〈표4〉의 어휘들은 현대 중국어에는 나타나지 않고 고대나 근대의 문헌에서  
만 나타난 어휘들이다.

(7) 가. 斂威揚德, 愷悌之風。聖德極盛, 騶虞乃彰。- 汉 蔡邕《五靈頌》

(무력을 거두어들이고 덕행을 고취시켜 태도가 겸손하고 온화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풍조를 추진하다. 덕행이 지극할 때 추우가 나타난다(황제의 인의를 드러낸다). -한 채옹 《오령송》)

나. 四月十七日神誕, 畫舫笙歌, 禱賽極盛雲。- 清 梁紹壬《兩般秋雨齋隨筆·金花夫人》

(사월 십칠일은 신탄일이라 화방은 반주에 맞추어 노래하고,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기도하는 광경이 매우 성대하다. - 청 양소임 《양반추우암수필·금화부인》)

‘極盛’은 고대 중국어 문헌에서 “지극하다. 매우 성대하다”라는 의미로 현대 한국어 ‘극성’의 의미와 비슷해 보인다.

(8) 가. 太子入問病, 文帝使啗癰, 啗癰而色難之。- 《史記·佞幸列傳》

(태자가 병문안하러 들어오고 문제가 태자더러 자기의 피고름을 빨아 먹으라고 했더니 태자가 빨아먹으면서 얼굴에 난색을 띠었다. -

《사기·영행열전》)

나. 谁知我伯母病了, 伯父正在那里纳闷, 少不免到上房去问病。- 《二十年目睹之怪现状》第十五回

(생각지도 못하게 나의 큰어머니가 아프시고, 마침 그곳에서 큰아버지가 답답해하고 계셔서, 안채에 가서 병문안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이십년목도지괴현상》 제15회)

고대와 근대 중국어에서 ‘問病’은 “병문안하다”라는 의미로 나타났다. 이는 현대 한국어 ‘문병’의 “앓는 사람을 찾아가 위로함”이라는 의미와 일치해 보인다.

(9) 가. 上曰：‘前事勿論，直言此時如何處置。- 《舊唐書·裴度傳》

(황제왈: ‘이전의 일은 따지지 말거라.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직접 말하라.’ - 《구당서·배도전》)

나. 姑勿论提倡出甚么道理, 先问他被提倡的懂得不懂, 再提倡不迟。

- 《二十年目睹之怪现状》第四九回

(어떤 도리를 제창했는지 잠시 논의하지 않고, 먼저 제창하는 사람더러 제대로 아는지를 물어본 뒤 제창해도 늦지 않다. - 《이십년목도지괴현상》 제9회)

고대와 근대 문헌에서 나타난 ‘勿論’은 “따지지 않거나 이야기하지 않다”로 해석된다. 이는 현대 한국어 “말할 것도 없음/없어”라는 의미와 비슷해 보인다.

(10) 《樂府》‘雙行纏’, 蓋婦人以襯襪中者, 即今俗談‘裏腳’也。- 明 胡應麟  
《少室山房筆叢·丹鉛新錄八·雙行纏》

(《악부》 속의 ‘쌍행전’이라는 것은 부녀자들이 양말을 신는 것, 오늘의 ‘전족’을 속칭하는 것이겠지. - 명 호응린 《소실산방필총·단연신록팔·

쌍행전》)

고대 문헌에서 나타난 ‘俗談’은 “당시의 속된 말”이라는 뜻이다. 이는 현대 한국어 ‘속담’의 “예로부터 민간에 전하여 오는 쉬운 격언이나 잠언”이라는 의미와 다르다.

(11) 富家巨室, 競造房廊, 賃金日增。- 宋 趙彥衛 《雲麓漫鈔》卷四

(돈 많은 대가댁은 서로 다투어 가옥을 짓는데 임대료가 날로 많아진다.

- 송 조언위 《운록만초》 권4)

고대 문헌에서 나타난 ‘賃金’은 “임대료”라는 의미이고 이는 현대 한국어 ‘임금(賃金)’의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받는 보수”라는 의미와 다르다.

이상의 어휘들은 현대 한국어에는 나타나나 현대 중국어에는 쓰이지 않고 고대나 근대 중국어에서 나타난 어휘들이다. 이런 어휘들을 기존의 연구에서 한중 동자어로 보고 대조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현대어를 대상으로 한 대조 연구로서 이런 어휘들을 동자어로 보지 않겠다.

## 2.2.2. 이의어(異義語)에 대한 판별

기존의 한·중 한자어 대조 연구에 관련된 연구 중에 동자(동형)이의어나 동자(동형)동의어의 기준에 대하여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그나마 관련 내용이 언급된 몇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范琦慧(2002: 16)는 동형이의어에 대한 분류 기준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동형동의어의 판정 기준을 “절대(絶對) 동의관계는 주로 번역 과정을 통해 반영되는데, 두 어휘의 개념적 의미가 같으며 거의 모든 문장에서 그대로 번역해도

의사소통을 하는 데 별 문제가 없을 때 그들이 절대 동의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김수희(2004:77)는 “동형이의어는 한국어 한자 어휘와 중국의 어휘가 형태가 같으나 그 의미에 있어 일치하는 부분이 없는 어휘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汽車, 約束, 新聞, 洗手’ 등의 예를 들었는데 이때의 ‘동형이의어’는 의미가 일치하는 부분이 없는 이른바 ‘동형완전이의어’로 이해해야 한다. 동형어 중 일부 의미만 일치하는 경우, 즉 의미가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어휘들은 동형이의어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金洪振(2007:19-20)은 “동일 어소로서 일부 혹은 전체 의미가 달라진 동형어를 동형이의어라고 한다. 동형이나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을 동형-완전이의어라 하고, 의미가 서로 다르면서도 공통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동형-부분이의어로 분류한다.”라고 하였다. 한편, 한·중 한자어 대조 연구에 관련된 연구들에는 동형이의어나 동형동의어의 기준에 대하여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동자이의어는 서로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의미가 다른 부분이 물론 있어야 되지만 의미가 일치하는 부분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의미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와 의미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내일(來日)-來日’의 의미 중 “오늘의 바로 다음 날”이라는 의미는 한국어에 있고 중국어에 없는 의미이지만, “앞날”이라는 의미는 한국어와 중국어에 모두 있는 의미라 한·중이 일치하는 부분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내일(來日)-來日’는 한·중 일치하는 의미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의미도 있는 어휘인데, 본고에서는 이러한 경우도 동자이의어에 속한다고 본다.

본고에서 동자이의어의 선정 및 대조·분석은 사전의미를 기준으로 한다. 중국어는 『現代漢語詞典』, 한국어는 『표준국어대사전』<sup>12)</sup>의 의미를 기준으로 다루

12) 편의를 위해 이후로는 이를 각각 『現漢』과 『표준』이라는 약호를 사용하겠다.

고자 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 의미 기준으로 삼은 사전은 본고와 다르거나, 사전의 의미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동자이의어에 대한 분류가 본고와 다른 경우가 많다. 예컨대 엄성호(2015)에서는 ‘원활(圓滑)’의 한국어와 중국어의 의미를 대조할 때, 중국어 ‘圓滑’는 사전 의미 외에 “통통하고 매끄럽다”라는 의미를 더 제시하였기에 대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의미는 현대 중국어에서 흔히 쓰이지 않는 의미이고 『現漢』에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의미이므로 본고의 의미 대조에서 제시하지 않겠다. 이와 같은 어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더 있다. ‘진열(陳列)-陈列’는 『표준』와 『現漢』에 따르면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12) 한국어 ‘진열(陳列)’

의미: (명) 여러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물건을 죽 벌여 놓음.

예문: 진열이 잘되어 있는 가게는 물건을 고르기가 편리하다.

(13) 중국어 ‘陈列’

의미: (动) 把物品摆出来供人看。(물건을 나열하여 사람에게 보여준다.)

예문: 商店里陈列着许多新到的货物。(매점 안에 새롭게 들어온 물건이 진열되어 있다.)

본고가 참조된 사전에 등재된 의미에 따르면 ‘진열(陳列)-陈列’를 동자동의어로 본다. 그러나 멩흔(2014)는 위와 같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의미를 공통 의미로 보면서 이런 의미 외에도 중국어에 “열거하다”라는 의미를 더 추가해서 ‘진열(陳列)-陈列’를 동자이의어로 보았다. 그러나 본고는 『現漢』을 기준으로 하여 위의 (13)의 의미만 대상으로 대조한다. 이러한 차이는 역시 의미의 기준으로 삼은 사전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집중(集中)-集中’은 『표준』과 『現漢』에 따르면 그 의미가 다음과 같

다.

(14) 한국어 ‘집중(集中)’

가. 의미: (명) 한곳을 중심으로 하여 모임. 또는 그렇게 모임.

예문: 대도시로 인구 집중 현상이 일어난다.

나. 의미: (명)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쏟아부음.

예문: 분위기가 산만해서 집중이 되지 않는다.

(15) 중국어 ‘集中’

가. 의미: (动) 把分散的人、事物、力量等聚集起来。(흩어진 사람·사물·힘 등을 모으다.)

예문: 把大家的建议集中起来。(여러분의 의견을 모았다.)

나. 의미: (形) 专注; 不分散。(전념하다. 분산되지 않다.)

예문: 精神很集中。(정신이 매우 집중된다.)

한국어 (14가)와 중국어 (15가), 한국어 (14나)와 중국어 (15나)의 의미가 대응된다고 본다. 한국어 “한곳을 중심으로 하여 모임”이라는 의미로 나타난 ‘권력 집중’, ‘시선 집중’은 중국어 ‘权力集中’, ‘视线集中’에 대응되고,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쏟아부음”이라는 의미로 나타난 ‘정신 집중’, ‘주의 집중’, ‘집중 연구’는 중국어 ‘精神集中’, ‘注意集中’, ‘集中研究’와 같이 쓰임도 대응될 수 있다. 따라서 ‘집중(集中)-集中’은 한·중 동자동의어로 보인다. 그러나 반광위(2016: 43)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미를 제시하였다.

공통: 한 곳을 중심으로 하여 모임. 또는 그렇게 모임.

중국어: 1. 집중하다. 2. 집약하다. 3. 중앙집권화하다

그리고 김경숙(2014: 33)의 의미 제시는 아래와 같다.

공통의미: 집중하다. 모으다

중국어: 가. “모이다. 집결하다”

나. “중앙집권화하다”

두 연구에서 제시된 중국어 의미는 본고와 다르다. 김경숙(2015)의 중국어의 의미가 『現漢』과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출판한 『중한사전』, 네이버 중국어 사전을 참고하였다고 하였다(김경숙2015: 7). 이 세 개의 사전 중에 구체적인 어휘 의미 제시할 때 주된 참고 사전이 무엇인지 언급하지 않았는데 위의 중국어 ‘集中’의 의미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중한사전』을 참고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반굉위(2016)은 “앞으로 나오는 각 단어들의 정의는 국어사전, 네이버 국어사전을 참조하였다(반굉위 2016: 21, 각주25)”고 언급하였을 뿐이다. 위의 중국어 ‘集中’의 의미는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등재된 의미가 아니다. 이와 같이 의미 제시에 참조된 사전의 통일성과 명확성을 보이지 않았다. 본고는 어휘의 의미를 제시할 때 한 가지의 사전, 즉 한국어는 『표준』, 중국어는 『現漢』을 참고할 것이다. 하나의 사전에 등재된 의미를 참조하는 것은 여러 사전에서 의미의 제시가 다를 때 의미 선택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기도 한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 중한사전에 등재된 의미를 그대로 가져온 연구가 많은데 “모국어로 목표언어 의미를 표시하는 이중언어사전인 바, 한국어 대응어로 중국어의 의미를 표현한다. 하지만 대응어는 의미상의 등가물인 것은 아니어서, 의미 해석은 자주 오차가 나타난다(맹주익 2005: 402).”라고 지적한 바 있었다. 따라서 의미 대조 연구에서 중한사전의 의미 해석을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사전에 등재된 의미를 기준으로 하되, 사전에서 간혹

현재는 쓰이지 않는 의미가 등재된 경우에 한·중 의미 대조에는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現漢』에서 <方>으로 나타난 의미 항목은 방언으로 쓰이는 의미인데 본 연구는 표준어를 중심으로 한 연구이므로 한국어와의 대조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불교 용어나 특정한 영역에서만 나타나고 일반 언증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의 뜻풀이 항목도 제외한다. 예컨대 ‘功課’라는 중국어의 4개 뜻풀이 중 네 번째 뜻풀이가 불교 신도가 매일 경을 외우며 염불하는 것인데 이러한 뜻풀이 항목을 제시하지 않겠고 역시 대조 연구에서 제외한다. 한편, 한국어에서 현재 쓰이지 않는 의미에 대한 판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우선 『표준』을 기준으로 한 의미 항목에는 해당 용례가 나타나지 않으면 『고려대 한국어대사전』<sup>13)</sup> 등 다른 사전의 해당 의미 항목의 용례를 검토한다. 다른 사전에서도 용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말뭉치 검색을 통해 용례 사용을 검토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해당 뜻풀이로 쓰인 예문을 찾아낼 수 없으면 현재 쓰이지 않는 의미로 판정한다. 이러한 의미는 본 연구의 의미 대조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어 ‘야채(野菜)’의 “들에서 자라나는 나물”이라는 의미는 『표준』에서 등재되어 있으나 예문 제시는 따로 없다. 그리고 『고려』에서도 이런 의미에 예문이 등재되지 않았다. 따라서 말뭉치 자료를 통해서 조회하는데 역시 이 의미로 쓰이는 용례가 없다. 이에 이 의미는 현대 한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의미로 판단하고 중국어 ‘野菜’와의 의미 대조에서 이 의미 항목을 제외한다.

한편, 사전에 『북한어』 표시로 되어 있는 뜻풀이 항목도 대조 연구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전문용어 의미 항목은 대조·분석의 필요에 따라 흔히 쓰이는 법률 용어, 예컨대 ‘섭외’, ‘검찰’, ‘구속’ 등 어휘의 법률 용어 의미 항목은 언어 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것이라 적용될 것이고, 구체적인 어휘 대조에서 언급하겠지만 중국어에도 쓰이지 않고, 한국어에서도 흔히 나타나지 않는 전문 용어

---

13) 앞으로 편의를 위해 이를 『고려』라고 하겠다.

의미 향은 제외하기로 한다.

한편, 본고에서 나타난 한국어 예문은 일차적으로 『표준』에서 가져오고 해당 예문이 없거나 문학작품에 나타난 예문인 경우에 『고려』나 <21세기 세종계획> 현대문어 말뭉치에서 가져오기로 한다. 그리고 중국어 예문은 주로 『現漢』에서 가져오고, 해당 예문이 없는 경우에 <BCC>에서 가져오기로 하겠다.

### Ⅲ. 한·중 동자이의어 품사 대조

본 장은 품사 대조를 중심으로 한·중 동자이의어의 문법적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맹주억(2005: 410)에서 지적했듯이 “품사는 한국어에서 상당히 고정적인 반면 중국어에서는 매우 유동적이다”. 한국 한자어는 형용사의 어근으로 자립적인 품사의 자격을 가지지 않는 것을 제외하면 대다수는 명사로 나타나고, 소수 부사나 대명사로 나타나기도 한다. 중국어 어휘의 품사는 한국어보다 유동적이다. 예를 들어 ‘보관(保管)-保管’이라는 한·중 동자이의어는 한국어에는 명사로만 나타나지만 중국어에는 명사, 동사, 부사의 여러 품사로 나타난다. 즉 한국어 ‘보관(保管)’은 기능동사 ‘하다’나 ‘되다’와 결합해야 동사로 기능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중국어 ‘保管’은 형태 변화를 겪지 않아도 명사, 동사, 부사의 구실을 할 수 있다.

기존의 한·중 한자어 대조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품사 대조를 다룬 연구는 맹주억(2005), 崔娟華(2008), 尹翡翠(2009), 이용교(2014)를 들 수 있다.<sup>14)</sup> 맹주억(2005)는 한국어에서는 명사, 중국어에서는 형용사로 쓰이는 한자어, 한국어에서는 형용사, 중국어에서는 부사로 쓰이는 한자어, 한국어에서는 명사, 중국어에서는 명사·동사로 사용되는 단어의 품사를 대조하였다. 崔娟華(2008)은 한국어를 일반명사, 행위명사, 상태명사, 형용사 어근으로 나누어 각각 대응되는 중국어 어휘를 명사 : 동사, 명사 : 형용사, 명사 : 부사, 명사 : 명사·동사, 명사 : 명사·형용사, 명사 : 명사·대명사, 명사 : 명사·부사, 명사 : 동사·형용사, 명사 : 형용사·부사, 명사 : 형용사·수량사, 명사 : 명사·형용사·부사, 명사 : 명사·형용사·동사, 명사 : 명사·동사·부사 등 양상으로 나누어 대조하였다. 이외에도 尹翡翠(2009), 尙佳寧(2017) 등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14) 기타 연구에서는 단지 뜻풀이에다가 품사를 단 것에 그치므로 본격적인 품사 대조 연구로 볼 수 없다.

한·중 동자어의 품사를 대조하였다. 尹翡翠(2009)는 ‘하다’ 통합형의 품사까지 대조했는데 예컨대 중국어 ‘非常’은 형용사이자 부사이지만, 한국어 ‘비상’은 명사이고 ‘비상하다’라는 통합형이 형용사이다. 그러나 ‘하다’ 통합형이 있어도 품사 대조를 하지 않은 것도 있어서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가령 ‘유념(留念)’, ‘사정(事情)’은 ‘하다’ 통합형도 제시하여 명사·동사로 본 반면, ‘조심(操心)’, ‘공부(工夫)’의 ‘하다’ 통합형인 ‘조심하다’, ‘공부하다’는 품사 대조에 넣지 않고 모두 명사로 보았다. 한편, 이용교(2014)는 13개 동형이의어를 대상으로 품사 대조를 하였는데 한국어 ‘생활(生活)’, ‘연구(研究)’, ‘변화(變化)’ 등 명사 어근을 가지고 중국어와 대조해 보았다.

한국어 2음절 한자어는 명사, 부사, 그리고 어근으로 나타나는데 어근은 품사 논의에서 다루지 않겠다. 왜냐하면 ‘어색(語塞)’과 같은 어근은 접미사 ‘하다’와 결합해야 문법 기능을 할 수 있고 어근 자체는 품사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sup>15)</sup>

따라서 다음으로 2음절 한국 한자어를 명사와 부사로 나누어 각각 중국어 동자어의어와 품사 대조를 하겠다. 품사 대조를 하면서 가급적 한국어 용어를 쓰고자 하나 한국어에 없고 중국어에만 있는 품사의 명칭은 중국어 용어를 쓰기로 한다.

### 3.1. 한국어 명사와 중국어 동자어의어 품사 대조

#### 3.1.1. 한·중 모두 명사인 경우

---

15) ‘강구(講究)’, ‘충실(充實)’과 같은 한자어는 명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강구하다’, ‘충실하다’의 어근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尹翡翠(2009)는 ‘하다’ 결합형을 중국어와의 품사 대조에 넣었다. 그러나 본고는 ‘하다’ 결합형의 품사, 예컨대 ‘강구하다’는 동사, ‘충실하다’는 형용사인 것은 어근인 ‘강구’나 ‘충실’의 문법적 특성으로 볼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어근+하다’의 형식은 품사대조에서 제외하고 자립적으로 명사로 쓰인 용법만 가지고 품사 대조를 하겠다.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모두 명사로 나타난 동자이의어는 다음과 같다.

- (1) 강의(講義)-讲义, 공부(工夫)-工夫, 공사(工事)-工事, 교통(交通)-交通, 근무(勤務)-勤务, 기교(技巧)-技巧, 기능(機能)-机能, 기호(嗜好)-嗜好, 내재(內在)-内在, 대면(對面)-对面, 사정(事情)-事情, 외면(外面)-外面, 위치(位置)-位置, 인사(人事)-人事, 차별(差別)-差別, 착오(錯誤)-错误, 파탄(破綻)-破綻, 혐의(嫌疑)-嫌疑

이 중의 몇 가지 예를 들어 대조해 보겠다.

- (2) 가. 그녀는 이번 학기에 김 선생님의 언어학 개론 강의를 듣는다. <고려>

나. 有一天, 本级的学生会干事到我寓里来了, 要借我的讲义看。

(어느 날, 같은 학년의 학생회 간사가 내 숙소에 와서 나한테 강의 자료를 빌려 달라고 했다.) <BCC>

한국어 ‘강의(講義)’는 (2가)의 ‘언어학 개론 강의’, ‘강의를 듣다’처럼 나타날 때 “학문이나 기술의 일정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가르침”을 의미하는 명사이다. 중국어 ‘课程’이나 ‘课’라는 말에 대응된다. 중국어 ‘讲义’는 명사이지만 “교재나 강의용 자료”라는 의미로, ‘英语讲义’라고 하면 “영어 수업에서 쓰는 교재나 강의 자료”를 가리켜 한국어 ‘강의(講義)’와는 의미가 다르다.

- (3) 가. 그들은 뜻밖의 대면에 할 말을 잃었다. <표준>

나. 他家就在我家对面。(그의 집은 바로 우리 집 맞은편에 있다.) <現

漢: P331>

한국어 ‘대면(對面)’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대함”이라는 의미로 (3가)의 ‘뜻밖의 대면’처럼 명사로 쓰인다. 중국어 ‘對面’도 명사이지만 “맞은편”이라는 의미로 ‘我家對面(우리집 맞은편)’, ‘馬路對面(길 맞은편)’과 같이 흔히 어떤 장소 뒤에 붙어서 나타난다.

(4) 가. 공부가 뒤떨어진다. <표준>

나. 他三天工夫就学会了游泳。(그는 수영을 배우는 데 삼일만 걸렸다.)  
<現漢: P448>

한국어 ‘공부(工夫)’는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힘”이라는 의미인데 ‘어학 공부’, ‘영어 공부’처럼 쓰이는 명사인데 중국어 ‘學習’라는 말에 대응된다. 그런데 중국어 ‘工夫’도 명사이지만 “소요되는 시간”을 가리키고 ‘三天工夫(삼일이 걸리는 시간)’이나 ‘沒工夫(~을 할 시간이 없다)’와 같이 쓰인다.

(5) 가. 그 회사는 대중의 기호에 맞추어 상품을 개발하였다. <표준>

나. 他没有别的嗜好, 就喜欢喝点儿酒。(그는 별다른 취미는 없고, 단지 술을 조금씩 먹는 것을 좋아한다.) <現漢: P1199>

한국어 ‘기호(嗜好)’는 “즐기고 좋아함”이라는 의미로 ‘대중의 기호’, ‘각자의 기호’처럼 나타나는 명사이다. 이는 중국어 ‘喜好’라는 말에 대응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어 ‘嗜好’는 명사이지만 “안 좋은 취향이나 습관, 버릇”이라는 의미로 한국어와 구별된다.

(6) 가. 빗쟁이들은 김 씨의 사정을 들어주지 않았다. <고려>

나. 事情多, 忙不过来. (일이 많아 실새 없이 바쁘다.) <現漢: P1194>

한국어 ‘사정(事情)’은 “어떤 일의 형편이나 까닭을 남에게 말하고 무엇을 간청함”이라는 의미로 (6가)에서 ‘김 씨의 사정’과 같이 나타나는 명사이다. 이는 중국어 ‘求情’이라는 말에 대응될 수 있다. 중국어 ‘事情’은 “일”을 뜻하며 ‘好事情(좋은 일)’과 같이 명사로 나타난다.

### 3.1.2. 한국어 명사이고 중국어 동사인 경우

한국어에서는 명사로만 나타나고 중국어에서는 동사로 나타난 동자이의어는 아래와 같다.

(7) 관문(關門)-关门, 기사(記事)-記事, 납입(納入)-纳入, 담임(擔任)-担任, 병고(病故)-病故, 상념(想念)-想念, 설화(說話)-说话, 유념(留念)-留念, 착상(著想)-着想, 참견(參見)-参见, 충당(充當)-充当, 부서(部署)-部署, 해당(該當)-該當, 행사(行事)-行事

(8) 가. 부산은 한반도의 관문이다. <표준>

나. 五点图书馆关门。(5시에 도서관 문을 닫는다.) <BCC>

한국어 ‘관문(關門)’은 “국경이나 요새 따위를 드나들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이라는 기본의미를 갖는 명사이다. 그러나 중국어 ‘关门’의 (8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을 닫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동사이다.<sup>16)</sup>

16) 중국어 ‘关门’도 고대 중국어에서 한국어와 같이 명사로 쓰인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런 의미는 현대 중국어에서 쓰이지 않아 본고의 대조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9) 가. 신문에 강도 사건에 대한 기사가 났다. <표준>

나. 我五岁才记事儿。(나는 다섯 살이 되어서야 일을 가려보고 기억할 줄 알게 되었다.) <現漢: P615>

한국어 ‘기사(記事)’는 “신문이나 잡지 따위에서, 어떠한 사실을 알리는 글”이라는 의미로 중국어 ‘报道’라는 단어에 대응되는 명사이다. (9나)의 중국어 ‘记事’는 동사로 쓰이는 것인데 “일을 가려보고 기억할 줄 알다”라는 의미이다. 흔히 ‘記事早’나 ‘記事晚’과 같은 표현으로 나타난다.

(10) 가. 지금 이 차를 사시면 일정 기간 동안 할부금 납입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고려>

나. 很快他就把那一习惯纳入他的生活常规了。(그는 빠르게 이 습관을 자신의 일상 속에 넣었다.) <BCC>

한국어 ‘납입(納入)’은 “세금이나 공과금 따위를 내는 것”을 가리키는 명사이다. 중국어 ‘纳入’는 동사인데 어떤 계획에 “넣다”나 어떤 궤도에 “올리다”라는 의미이다.

(11) 가. 단 한 사람의 병고도 없이 모두 건강하게 여행에서 돌아왔다. <표준>

나. 作家鲁迅, 于昨晚在沪病故。(저명한 작가 노신이 어젯밤에 상하이에서 병으로 돌아가셨다.) <BCC>

(12) 가. 그는 의자에 앉아 한동안 상념에 잠겨 있었다. <표준>

나. 他在国外, 时时想念着祖国。(그는 해외에 있을 때 늘 조국을 그리

워했다.) <現漢: P1433>

(13) 가. 우리는 설화를 채집하기 위하여 마을 노인정을 찾았다. <표준>

나. 他想开口说话, 却不能张口。(그는 입을 열어서 말하고 싶지만, 끝내 입을 열 수가 없었다.) <BCC>

한국어 ‘병고(病故)’는 명사로 “병에 걸리는 일”이라는 의미이다. 이와 달리 중국어 ‘病故’는 “병으로 죽다”라는 뜻이고 흔히 존경을 나타낼 때 쓰이는 동사이다. 그리고 한국어 ‘상념(想念)’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라는 뜻이고 명사인 반면, 중국어 ‘想念’은 “보고 싶다”라는 의미로 동사이다. 한편, 한국어 ‘설화(說話)’는 흔히 문학 장르의 일종으로 ‘선녀와 나무꾼의 설화’와 같이 쓰이는 명사이다. 그러나 중국어 ‘说话’는 “말하다, 이야기하다”라는 뜻의 동사이다.

(14) 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발한 착상이 떠올랐다. <표준>

나. 他是为你着想才劝你少喝酒的。(그는 너를 생각해서 술을 적당히 먹으라고 한 것이다.) <現漢: P1731>

한국어 ‘착상(著想)’은 “어떤 일이나 창작의 실마리가 되는 생각이나 구상 따위를 잡음. 또는 그 생각이나 구상”이라 풀이되어 ‘기발한 착상’, ‘착상을 받다’, ‘악상의 착상’과 같이 나타나는 명사인데 중국어 ‘构思’, ‘立意’라는 어휘에 대응될 수 있다. 중국어 ‘着想’은 동사인데 “다른 사람이나 일의 이익을 위해 생각하다”라는 의미로 ‘为孩子着想(자식을 위해 생각하다)’, ‘为别人着想(남을 위해 생각하다)’와 같이 쓰이고 부사어를 가지는 2자리 서술어이다.

(15) 가. 주제넘은 찰견은 이제 그만두시지. <고려>

나. 参见海明威的另一篇小说《两代父子》。(헤밍웨이의 다른 한 편의 소설 《아버지와 아들》 참조. <BCC>

한국어 ‘참견(參見)’은 명사인데 “자기와 별로 관계없는 일이나 말 따위에 끼어들어 쓸데없이 아는 체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함”이라는 의미이다. 중국어 ‘参见’은 “참조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이고 (15나)와 같이 목적어를 취하는 2자리 서술어이다.

(16) 가. 철수는 여행비의 충당을 위해 부업을 가졌다. <고려>

나. 珍妮也不得不充当一个有经验的女主人了。(제니는 어쩔 수 없이 경력이 있는 여주인 역할을 하였다.) <BCC>

‘충당(充當)’은 “모자라는 것을 채워 메움”이라는 의미이고 (16가) ‘여행비의 충당’처럼 쓰이는 명사이다. 그러나 중국어 ‘充当’은 “어떤 역할을 하거나 어떤 직무를 하다”라는 뜻으로 동사로만 기능한다.

(17) 가. 우리는 관청의 태만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고려>

나. 刚才怠慢了她们, 我也有责任。(방금 그녀들을 홀대한 것은 나한테도 책임이 있다.) <BCC>

한국어 ‘태만(怠慢)’은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없고 게으름”이라는 의미로 (17가) ‘관청의 태만’과 같이 나타나는 명사이다. 중국어 ‘怠慢’은 한국어와 달리 “홀대하다”라는 의미이고 (17다)와 같이 목적어 ‘客人(손님)’을 취하는 동사로 나타난다.

한편, 한국어는 명사이고 중국어는 조동사인 경우도 있는데 ‘해당(該當)-该

当'이 그러하다.

(18) 가. 법률이 정한 조건에 해당 사항 없음. <표준>

나. 大伙儿的事, 我该当出力。(여러분의 일이니 나는 힘써야 한다.) <現漢: P416>

(18가)의 한국어 '해당(該當)'은 명사인데 “어떤 범위나 조건 따위에 바로 들어맞음”이라는 뜻이다. 중국어 '该当'은 (18나)와 같이 “应当, 应该(마땅히 ~해야 하다)”라는 의미로 조동사이고 동사 앞에 붙어서 나타난다.

### 3.1.3. 한국어 명사이고 중국어 형용사인 경우

한국어에는 명사이고 중국어에는 형용사인 경우에 해당하는 동자이의어는 많은데 아래와 같다.

(19) 가관(可觀)-可觀, 간이(簡易)-簡易, 개별(個別)-個別, 근신(謹慎)-謹慎, 기아(飢餓)-飢餓, 낭만(浪漫)-浪漫, 대의(大意)-大意, 미관(美觀)-美觀, 방편(方便)-方便, 신기(神氣)-神氣, 실재(實在)-實在, 실제(實際)-實際, 야만(野蠻)-野蠻, 우호(友好)-友好, 일상(日常)-日常, 자동(自動)-自動, 체면(體面)-體面, 풍취(風趣)-風趣, 필수(必需)-必需, 하류(下流)-下流, 허위(虛僞)-虛偽, 호도(糊塗)-糊塗

(20) 가. 나는 간이 우체국에서 편지를 부칠 것이다. <고려>

나. 没有什么簡易的办法。(간단하면서 쉬운 방법 따위는 없다.)  
<BCC>

다. 那家伙进入一家简易旅馆。(그놈은 한 초라한 여관에 들어갔다.)

〈BCC〉

한국어 ‘간이(簡易)’는 명사인데 ‘간이 상수도’, ‘간이 숙박소’, ‘간이 화장실’, ‘간이 휴게소’처럼 흔히 다른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 이때 의미는 “간편하고 편이함”으로 해석된다. 중국어 ‘簡易’는 형용사인데 “간단하고 쉽다”라는 뜻으로 나타날 때 (20나) ‘簡易的办法(간단한 방법) 이외에, ‘簡易支付(간편결제)’, ‘簡易健康检查(간단한 건강검사)’와 같이 나타난다. “시설이 미비하다”라는 뜻으로 (20다)의 ‘簡易旅馆(초라한 여관)’과 같이 나타난다. 이는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한국어 ‘간이’의 문법적 기능과 같다.

(21) 가. 잘난 체하는 꼴이 정말 가관이다. 〈표준〉

나. 他每年盈利非常可观。(그의 해마다의 이윤은 볼 만하다.) 〈BCC〉

(22) 가. 여기 있는 상자들은 한꺼번에 포장하지 말고 개별 포장해 주세요.

〈고려〉

나. 这种情况极其个别。(이런 상황은 극히 드물다.) 〈現漢: P442〉

한국어 ‘가관(可观)’은 흔히 ‘이다’와 결합해서 쓰이는 명사인 반면, 중국어 ‘可观’은 (21나)처럼 자립적으로 서술어로 기능하는 형용사이다. 그리고 ‘개별 포장’의 한국어 ‘개별(個別)’은 주로 명사 앞에 나타나 “여럿 중에서 하나씩 따로 나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명사이다. (22나)의 중국어 ‘个别’는 “드물다”라는 의미인데 형용사로 쓰이는 것이다.

(23) 가. 그는 상중이라서 근신 생활을 했다. 〈표준〉

나. 你是一个作事谨慎、头脑清醒的人。(당신은 일을 신중하게 하고,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이다.) <BCC>

(24) 가. 그녀는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재의 인물이다. <고려>

나. 工作做得很实在。(일을 착실하게 잘 했다.) <現漢: P1187>

(25) 가. 흐지부지 넘기는 걸 호도라고 하는 건 알겠지? <표준>

나. 他越解释, 我越糊涂。(그는 해명하면 할수록 나는 더 헛갈린다.)  
<現漢: P551>

한국어 ‘근신(謹慎)’은 명사이고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함”이라는 의미로 ‘근신 생활’처럼 쓰이고, 또한 “별로 일정 기간 동안 출근이나 등교, 집무 따위의 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말이나 행동을 삼감”이라는 의미로 ‘근신 처분’, ‘근신 기간’처럼 쓰인다. 이와 달리 중국어 ‘謹慎’은 형용사로만 나타나는데 “신중하다”라는 의미로 ‘謹慎的人(신중한 사람)’처럼 사용된다. 그리고 한국어 ‘실재(實在)’는 명사로 “실제로 존재함”이라는 의미인데 ‘실재의 인물’처럼 나타난다. 그러나 중국어 ‘实在’는 “착실하다”라는 의미의 형용사이다. 한편, 한국어 ‘호도(糊塗)’는 명사이고 “풀을 바른다는 뜻으로, 명확하게 결말을 내지 않고 일시적으로 감추거나 흐지부지 덮어 버림”이라는 의미와 달리, 중국어 ‘糊涂’는 형용사로 “헛갈리다. 흐리터분하다”라는 의미이다.

#### 3.1.4. 한국어 명사이고 중국어 부사인 경우

한국어는 명사이고 중국어는 부사인 동자이의어는 ‘일동(一同)-一同’, ‘일미(一味)-一味’를 들 수 있다.

(26) 가. 그는 전교생 일동을 대표하여 선생님께 선물을 드렸다. <표준>

나. 一同欢度新年。(함께 새해를 즐겁게 보낸다.) <現漢: P1538>

한국어 ‘일동(一同)’은 “어떤 단체나 모임의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로 명사로 기능하지만 중국어는 “同时同地做某件事, 一起(동시에 같은 곳에서 어떤 일을 한다. 함께)”라는 의미로 나타나 (26나) ‘一同去(함께 가다)’와 같이 동사 ‘去(가다)’를 수식하는 부사이다.

(27) 가. 그 집의 음식 맛은 천하 일미이다. <표준>

나. 经济增长停滞, 物价却一味上涨。(경제성장이 정체되었지만 물가가 줄곧 올라간다.) <BCC>

한국어 ‘일미(一味)’는 “첫째가는 좋은 맛”이라는 의미로 ‘천하 일미’처럼 명사이지만 중국어 ‘一味’는 “总是那么样(늘, 덮어놓고)”라는 의미로 (27나) ‘一味迁就(덮어놓고 따르다)’와 같이 동사 ‘迁就(따르다)’를 수식하는 부사의 기능을 한다.

### 3.1.5. 한국어 명사이고 중국어 명사·동사인 경우

한국어는 명사로 나타나고 중국어는 명사와 동사로 모두 나타난 동자이의어는 아래와 같다.

(28) 경지(耕地)-耕地, 공작(工作)-工作, 과거(過去)-过去, 과년(過年)-过年, 번역(翻譯)-翻译, 생기(生氣)-生气, 언어(言語)-言语, 영도(領導)-领导, 의사(意思)-意思, 입구(入口)-入口, 작업(作業)-作业, 재판(裁判)-裁判, 출구(出口)-出口, 출입(出入)-出入, 하수(下水)-下水, 합동(合同)-合同, 효력(效力)-效力, 회포(懷抱)-怀抱

이 중 몇 개의 동자이의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9) 가. 물 공급이 용이한 이곳은 경지로 적당하다. <표준>

나. 不能隨意占用耕地。(함부로 경지를 점용해서는 안 된다.) <現漢: P 446>

다. 現代農民用拖拉機耕地。(현대의 농민은 트랙터로 밭을 간다.) <BBC>

한국어 ‘경지(耕地)’는 “경작지”라는 의미의 명사인데 중국어 ‘耕地’도 같은 의미인 명사로 쓰인다. 그런데, 중국어에서는 ‘耕地’가 “밭을 갈다”라는 의미의 동사로도 나타난다.

(30) 가. 나는 과거에 교사 생활을 한 적이 있다. <표준>

나. 我要讓你知道我的過去。(나는 너로 하여금 내 과거를 알게 할 것이다.) <BBC>

다. 門口剛過去一輛汽車。(문 앞에 방금 차 한 대 지나갔다.) <現漢: P 503>

한국어 ‘과거(過去)’는 “이미 지나간 때”라는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중국어 ‘過去’도 (30나)처럼 한국어와 같은 의미의 명사로 쓰이면서, (30다)와 같이 “지나가다”라는 의미의 동사로도 나타난다.

(31) 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여전히 생기 있고 발랄한 모습이었다. <표준>

나. 青年是最有生气的。(청년은 가장 활력이 차다.) <現漢: P1169>

다. 孩子考试成绩很差, 妈妈非常生气。(아이가 시험 성적이 매우 나빠서 엄마가 아주 화가 났다.) <現漢: P1168>

한국어 ‘생기(生氣)’는 “싱싱하고 힘찬 기운”이라는 의미인데 중국어 ‘生氣’도 같은 의미의 명사로 쓰인다. 그런데, (31나)처럼 중국어 ‘生气’는 “화나다”라는 의미의 동사로도 나타난다.

(32) 가.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요소 가운데 하나는 바로 언어를 가졌다는 사실이다. <표준>

나. 你走的时候言语一声儿。(갈 때 얘기 좀 해 줘라.) <現漢: P1506>

다. 言语粗鲁。(하는 말이 거칠다.) <現漢: P1506>

한국어 ‘언어(言語)’는 명사이다. 중국어 ‘言語’도 명사로 쓰이는데 (32다)처럼 “하는 말”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중국어 ‘言語’는 (32나)와 같이 동사로도 기능하데 주로 구어에서 나타나 “말하다. 이야기하다”를 의미한다.

(33) 가. 그녀와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다. <표준>

나. 要正确地了解这篇文章的中心意思。(이 글의 중심 의의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現漢: P1556>

다. 大家受累了, 得买些东西意思一下。(다들 수고가 많으니까 뭐를 좀 사서 마음을 표시해야겠다.) <現漢: P1556>

‘의사(意思)’는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모두 명사로 쓰이나 중국어에는 (33다)와 같이 동사로도 사용된다. 명사로 나타난 한국어 (33가)의 의미와 중국어

(33나)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라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이와 달리 중국어 동사 ‘意思’는 “마음을 표시하다”라는 의미인데 주로 구어에서 나타난다.

(34) 가. 회의장 입구가 사람들로 북적이다. <표준>

나. 停车时别堵住入口。(주차할 때 입구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BBC>

다. 肉像是棉花糖一样地入口即化。(고기가 솜사탕처럼 입에 넣자 녹는다.) <BBC>

(34가) 한국어 ‘입구(入口)’는 “들어가는 통로”를 의미하는 명사인데 중국어에서도 (34나)처럼 이런 의미의 ‘入口’가 쓰인다. 그러나 (34다)와 같이 중국어에서는 “입에 넣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쓰이기도 하는 것이 한국어와 다르다.

(35) 가. 건물에 불이 나서 옥상으로 나가려던 사람들이 출구를 찾지 못해 우왕좌왕 해맸다. <표준>

나. 从一楼的出口出去。(일층의 출구로 나간다.) <BBC>

다. 他一直想讲, 却觉得难以出口。(그는 내내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다.) <BBC>

라. 向墨西哥等中南美国家出口。(멕시코 등 중남미의 나라들에 수출한다.) <BBC>

한국어 ‘출구(出口)’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라는 의미로 명사로만 나타난다. 중국어 ‘出口’도 이런 의미를 지니는 명사로 사용되는 것은 한국어와 일치한다. 중국어 ‘出口’는 그 외에도 동사로도 사용되는데 (35다)의 ‘出口’는 “말을 꺼내다”라는 의미이고 (35라)의 ‘出口’는 “수출하다”라는 의미이다.<sup>17)</sup> 두

17) 중국어 ‘出口’는 “수출”이라는 의미의 명사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糧食出口(농작물 수출)”과 같다.

‘出口’는 동음이의어인데 모두 명사 겸 동사로 쓰인다.

(36) 가. 강으로 하수가 그대로 흘러들어 오염이 심각하다. <표준>

나. 以前我特别讨厌吃猪下水。(예전에 나는 돼지 내장을 먹기가 몹시 싫었다.) <BBC>

다. 今天下午我们公司有一条新船下水。(오늘 오후에 우리 회사의 새로운 배 한척을 진수한다.) <BBC>

한국어 ‘하수(下水)’는 “빗물이나 집, 공장, 병원 따위에서 쓰고 버리는 더러운 물”이라는 명사이다. 중국어 ‘下水’도 명사로 나타나지만 (36나)처럼 “내장”을 의미하므로 한국어 ‘하수’와는 의미가 다르다. 그리고 중국어 ‘下水’는 (36다)에서 보듯이 “물속으로 들어가다. 진수하다”라는 동사로 나타나기도 한다.

(37) 가. 진통제의 효력이 떨어져 환자가 진통을 호소했다. <표준>

나. 这种药的效力很大。(이 약의 효력이 크다.) <現漢: P1447>

다. 为教育事业效力。(교육 사업을 위해 충성을 다한다.) <現漢: P1447>

(38) 가. 십 년 만에 만난 나와 내 친구는 술을 마시며 회포를 나누었다. <표준>

나. 睡在母亲的怀抱里。(어머니의 품 속에서 잔다.) <現漢: P565>

다. 怀抱着远大的理想。(원대한 이상을 품고 있다.) <現漢: P565>

‘효력(效力)-效力’, ‘회포(懷抱)-怀抱’는 한국어에는 모두 명사인데 중국어에서 명사와 동사로 모두 쓰인다. 한국어 ‘효력’은 (37가)에서 “약 따위를 사용한 후에 얻는 보람”이라는 명사이고 중국어 ‘效力’도 (37나)와 같이 동일한 의미의

명사로 쓰인다. 그리고 (37다)의 중국어 ‘效力’는 “충성을 다하다”라는 동사로 쓰인 것이다. 한국어 ‘회포(懷抱)’는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나 정(情)”이라는 뜻으로 명사로만 나타난다. ‘회포를 나누다’, ‘회포를 풀다’와 같이 쓰인다. 중국어 ‘懷抱’가 명사와 동사로 두루 기능하는데 (38나)처럼 명사로 나타날 때는 “품”이라는 뜻이고 동사로 나타날 때 (38라)처럼 “품다”라는 의미의 2자리 서술어이다.

(39) 가.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되었지만 일본 말 번역으로 된 걸 보았어요.

〈표준〉

나. 他曾当过三年翻译。(그는 통역을 삼년 했다.) 〈現漢: P358〉

다. 翻译外国小说。(외국 소설을 번역한다.) 〈現漢: P358〉

한국어 ‘번역(翻譯)’은 “어떤 언어로 된 글을 다른 언어의 글로 옮김”이라는 의미로 ‘번역 출판물’과 같이 명사로 나타난다. 중국어 ‘翻译’는 (39나)처럼 “통역”이라는 의미의 명사로 한국어 ‘번역’과 의미가 다르다. 그리고 (39다)의 ‘翻译’는 동사로 쓰인 예로 한국어 ‘번역하다’와 ‘통역하다’의 의미를 모두 가진다.

(40) 가. 그들의 작업은 오후 늦게까지 계속되었다. 〈표준〉

나. 队伍开到野外去作业。(부대가 야외로 이동하여 작업한다.) 〈現漢: P1757〉

다. 现在他可以利用这些时间看书和写作业。(지금 그는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책을 읽고 숙제를 할 수 있다.) 〈BBC〉

한국어 ‘작업(作業)’은 ‘준비 작업’, ‘작업 시간’과 같이 쓰일 때 “일을 함”이라는 의미이고 명사이다. 중국어 ‘作业’ (40나)는 한국어 ‘작업’과 같은 의미로

동사로 쓰이는 것이다. 그리고 (40다)는 “숙제”라는 의미의 명사이다. 즉 한국어 ‘작업’은 명사로만 쓰이지만 중국어 ‘作业’는 명사와 동사로 모두 나타난다. 그리고 중국어에서 동사로 쓰일 때만 한국어와 일치한다.

(41) 가. 외부인의 출입을 삼간다. <표준>

나. 出入随手关门。(드나드는 김에 문을 닫는다.) <現漢: P191>

다. 你俩说的话有出入。(너희 둘이 하는 말에 어긋난 점이 있다.) <現漢: P191>

(41가)한국어 ‘출입(出入)’은 “어느 곳을 드나듦”을 의미하는 명사이다. 중국어 ‘出入’도 한국어 ‘출입(出入)’과 같은 의미로 (41나)와 같이 동사로 쓰인다. 그 외에, 중국어 ‘出入’는 (41다)와 같이 “어긋난 점”이라는 명사로 쓰이는 것이 한국어와 구별된다.

이상의 ‘경지(耕地)-耕地’, ‘생기(生氣)-生气’, ‘입구(入口)-入口’, ‘효력(效力)-效力’ 등은 중국어에서 명사로 쓰일 때의 의미가 한국어 명사로 쓰이는 의미와 일치하였다. 이와 달리, ‘작업(作業)-作业’, ‘출입(出入)-出入’는 중국어에서 동사로 쓰일 때의 의미가 한국어 명사로 쓰이는 의미와 일치하였다. 이는 한국어 ‘작업(作業)’, ‘출입(出入)’은 ‘경지(耕地)’, ‘생기(生氣)’ 등과 달리 술어 명사<sup>18)</sup>이기 때문이다. 술어 명사는 사건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 동자어인 중국어가 동사로 기능할 때의 의미와 일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18) 이에 대해 ‘서술성 명사’, ‘행위성 명사’ 등으로 불리는데 이선웅(2005: 107)은 술어는 “사건이나 행위, 또는 상태나 속성, 관계 등의 의미적 실체를 나타내는 언어 형식”이라고 정의하고 ‘술어 명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동사의 경우 술어는 바로 서술어가 될 수 있으나 술어 명사는 기능동사와 통합되거나 자신의 논항을 실현시켜 명사구를 구성하여야만 서술어로 기능할 수 있다”고 하였다.

### 3.1.6. 한국어 명사이고 중국어 명사·형용사인 경우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모두 명사로 나타나고 중국어에서는 형용사로도 나타난 경우가 있는데 아래와 같은 동자이의어가 이에 해당한다.

(42) 광채(光彩)-光彩, 규범(規範)-规范, 당시(當時)-当时, 문명(文明)-文明, 영웅(英雄)-英雄, 의외(意外)-意外, 장관(壯觀)-壮观, 편의(便宜)-便宜, 평상(平常)-平常,

(43) 가. 그는 시인의 광채 있는 눈을 들여다보았다. <표준>

나. 橱窗里面摆着光彩夺目的各色丝绸。(쇼윈도에는 눈부신 비단이 진열되어 있다.) <現漢: P485>

다. 他被凭上杰出青年, 全厂都很光彩。(그는 걸출한 청년으로 뽑혔으니 전 공장 사람들도 체면이 섰다.) <現漢: P485>

(44) 가.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입원하여 치료 중이다. <표준>

나. 当时他还是个娃娃, 如今都长成小伙子了。(그 당시 그는 아이였는데 지금은 이미 총각이 되었다.) <現漢: P260>

다. 他现在这个年龄, 对画家来说应该是正当时。(그의 나이는 화가로서 적합한 시기이다.) <BBC>

한국어 ‘광채(光彩)’, ‘당시(當時)’가 명사로만 쓰이는 것과 달리, 중국어 ‘光彩’, ‘当时’는 한국어와 같은 의미의 명사로도 나타나지만 형용사로 나타나기도 한다. 형용사로 쓰일 때 ‘光彩’는 (43나)와 같이 “체면이 서다”라는 뜻이고, (44나)의 ‘当时’는 “체철이다”라는 의미이다.

- (45) 가. 할아버지는 옛 영웅의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다. <고려>  
 나. 你是她心目中的英雄。(당신은 그녀 마음속의 영웅이다.) <BBC>  
 다. 他觉着自己挺英雄。(그는 자신이 참 영웅적이라고 생각한다.)  
 <BBC>
- (46) 가. 제 체면을 봐서라도 그 아이를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표준>  
 나. 他应当顾全体面。(그는 체면을 돌봐야 된다.) <BBC>  
 다. 这种做法不够体面。(이렇게 하면 떳떳하지 않다.) <BBC>
- (47) 가. 이 책은 설명의 편의를 위해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고려>  
 나. 谁都没有占到便宜。(아무도 공짜를 얻지 못했다.) <BBC>  
 다. 由于价钱便宜, 所以一上市就被抢光了。(가격이 저렴한 까닭에 출시  
 되자마자 바로 매진되었다.) <BBC>
- (48) 가. 요즘 언니는 평상대로 잘 지내고 있어요. <고려>  
 나. 他虽然身体不好, 但平常很少请假。(그는 비록 건강이 좋지 않지만  
 평상시에는 휴가 신청을 잘 하지 않는다.) <現漢: P1006>  
 다. 话虽平常, 意义却很深刻。(말은 평범하지만 의의가 깊다.) <現漢:  
 P1006>

한국어 ‘영웅(英雄)’, ‘체면(體面)’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중국어 ‘英雄’, ‘体面’은 명사이지만 (45다), (46다)처럼 형용사로도 쓰인다. 이때 ‘英雄’은 “용기 있다”라는 뜻이고, ‘体面’은 “떳떳하다”라는 뜻이다. 그리고 한국어 ‘편의(便宜)’는 명사인데 “형편이나 조건 따위가 편하고 좋음”이라는 의미이다. 중국어 ‘便宜’도 명사로 나타나지만 “공짜. 이익”이라는 의미이고 흔히 ‘占便宜(공짜를 얻다)’와 같이 나타난다. 그 외에, (47다)와 같이 형용사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저렴하다”라는 의미이다. 한편, 한국어 ‘평상(平常)’은 명사로 “평상시”라는 의미인데, 중국어 ‘平常’도 같은 의미의 명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형용사로도 나타난

다. 이때는 (48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평범하다”라는 의미로 보인다.

### 3.1.7. 한국어 명사이고 중국어 명사·부사인 경우

한국어에서는 명사로만 쓰이지만 중국어에서는 명사와 부사로 두루 쓰이는 동자이의어는 ‘결과(結果)-结果’, ‘기본(基本)-基本’, ‘보관(保管)-保管’, ‘보험(保險)-保險’, ‘이상(異常)-異常’을 들 수 있다.

(49) 가. 이 경기의 승리는 노력의 결과이다. <표준>

나. 优良的成绩, 是长期刻苦学习的结果。(우수한 성적은 오랫동안 열심히 공부한 결과이다.) <現漢: P666>

다. 经过一番争论, 结果他还是让步了。(한바탕 논쟁을 한 끝에 결국 그는 양보하였다.) <現漢: P666>

한국어 ‘결과(結果)’는 “어떤 원인으로 결말이 생김. 또는 그런 결말의 상태”라는 의미로 ‘노력의 결과’, ‘연구 결과’와 같이 쓰이는 명사이다. 중국어 ‘结果’는 (49나)에서 한국어 ‘결과’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명사이다. 그러나 복문의 후행문 앞에 나타난 ‘结果’는 (49다)와 같이 문장부사로 쓰여 “어떤 일을 한 끝에”라는 의미를 갖는다.

(50) 가. 이 물건은 보관이 간편하다. <표준>

나. 这个粮库有两个保管。(이 곡창에는 보관인 두 명이 있다.) <現漢: P45>

다. 只要肯努力, 保管你能学会。(열심히만 하면 반드시 습득하게 될 것이다.) <現漢: P45>

라. 这个仓库的粮食保管得很好。(여기 창고의 곡식이 잘 보관되어 있다.) <現漢: P45>

한국어 ‘보관(保管)’은 명사인데 “물건을 맡아서 간직하고 관리함”이라는 의미이다. 중국어 ‘保管’은 (50나)에서 보듯이 명사로 쓰이지만 “보관인”이라는 뜻으로 한국어 명사인 ‘보관(保管)’의 의미와 다르다. 그리고 (50다)는 부사로 나타난 것인데 “틀림없이. 자신있게 장담하다. 꼭. 어김없이”라는 의미이다. 한편, 중국어 ‘保管’은 (50라)처럼 동사로 쓰이기도 하는데 한국어 명사 ‘보관(保管)’의 의미와 일치한다.

다음의 동자이의어는 중국어에서는 명사, 부사 이외에 형용사로도 나타나는 것들이다.

(51) 가. 인간 존중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표준>

나. 人民是国家的基本。(국민은 나라의 근본이다.) <現漢: P603>

다. 这些是文学的基本条件。(이것들이 문학의 기본 조건이다.) <BBC>

라. 大坝工程已经基本完成。(댐 공사는 거의 완성되었다.) <現漢: P603>

한국어 ‘기본(基本)’은 “사물이나 현상 · 이론 · 시설 따위의 기초와 근본”이라는 의미로 ‘민주주의의 기본’과 같이 쓰이는 명사이다. 중국어 ‘基本’은 “근본”이라는 의미로 (51나)와 같이 ‘国家的基本(나라의 근본)’과 같이 명사로 쓰인다. 그 외에, “거의. 기본적으로. 대체로”라는 의미로 (51라)와 같이 나타나 부사로 쓰이기도 하여 ‘基本完成(대강 완공되다)’처럼 동사를 수식하는 문법적 기능을 한다. 한편, 중국어 ‘基本’은 (51다)와 같이 형용사로도 쓰여 “主要的(주요하다)”라는 의미인데 ‘基本條件(주요한 조건)’과 같이 나타난다. 이는 尹翡翠

(2009)도 ‘기본(基本)’은 한국어는 명사이고 중국어는 명사, 형용사, 부사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52) 가. 이런 사고는 무조건 보험 처리 될 거니까 걱정 마. <고려>

나. 失业之后又可以享受失业保险。(실직이 되고 나면 실업보험을 받을 수 있다.) <BBC>

다. 这样做可不保险。(이렇게 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現漢: P47>

라. 你按我说的办, 保险不会出错。(너는 내 말대로 하면 절대로 잘못 되지 않는다.) <現漢: P47>

한국어 ‘보험’은 명사인데 ‘보험 가입’, ‘보험 처리’ 등과 같이 나타난다. 중국어 ‘保险’도 (52나)와 같이 한국어와 같은 의미의 명사로 나타난다. 그 외에, (52다)는 “안전하다”라는 의미로 형용사로 나타날 때도 있고 (52라)처럼 “반드시; 틀림없이(뒤에 부정인 경우는 ‘절대로’)”라는 의미로 부사로 나타날 때도 있다.

(53) 가. 그는 몸에 이상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다. <표준>

나. 新生婴儿目前没有任何异常。(신생아는 현재 아무 이상이 없다.) <BBC>

다. 我热烈地爱上一个异常美丽而迷人的姑娘。(나는 아주 예쁘고 매력적인 여자를 열렬히 사랑하게 되었다.) <BBC>

라. 里面的气氛有点异常。(안쪽의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BBC>

(53가, 나)는 ‘이상(異常)-异常’이 한·중 명사로 쓰인 예인데 이때 모두 “정상적인 상태와 다름”이라는 뜻이다. 이런 의미로 중국어 (53라)와 같이 형용

사로 쓰이기도 한다. 그 외에, 중국어는 (53다) ‘異常美丽(몹시 예쁘다)’와 같이 쓰여 “몹시”라는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로 쓰이기도 한다.

### 3.1.8. 한국어 명사이고 중국어 동사·형용사인 경우

한국어는 명사와 동사 어근으로 쓰이지만 중국어는 동사와 형용사로 나타나는 동자이의어는 ‘가능(可能)-可能’, ‘강구(講究)-讲究’, ‘긍정(肯定)-肯定’, ‘돌출(突出)-突出’, ‘부족(不足)-不足’, ‘자각(自覺)-自觉’, ‘충실(充實)-充实’ 등을 들 수 있다.

(54) 가. 그는 앞니의 돌출이 심해 치아 교정을 받았다. <고려>

나. 他学习成绩一般, 表现并不突出。(그는 성적이 평범하고,品行 역시 돋보이지 않다.) <BBC>

다. 高个子, 宽肩膀, 前额突出。(키가 크고 어깨가 넓으며 이마가 돌출되었다.) <BBC>

한국어 ‘돌출(突出)’은 (54가) ‘앞니의 돌출’에서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쭉 나오거나 불거짐”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명사이다. 중국어 ‘突出’은 동사와 형용사로 모두 나타나는데 (54나)는 “돋보이다. 뛰어나다”라는 형용사로 쓰인 것이고, (54다)는 “부각시키다”라는 동사로 쓰인 것이다.

(55) 가. 민주화 운동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자각을 갖게 하였다. <표준>

나. 肺结核的初期, 病症不很显著, 病人常不自觉。(폐결핵 초기에는 증상이 두드러지지 않아 환자가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한다.) <現漢: P1737>

다. 自觉地遵守纪律。(스스로 규칙을 지킨다.) <現漢: P1737>

한국어 ‘자각(自覺)’은 “현실을 판단하여 자기의 입장이나 능력 따위를 스스로 깨달음”이라는 의미로 (55가) ‘주인이라는 자각’처럼 쓰이는 명사이다. 중국어 ‘自覺’는 동사와 형용사로 모두 나타나는데 (55나)의 ‘自覺’가 “스스로 알아차리다”라는 동사이고, (55다)의 ‘自覺’는 “스스로. 자각적이다”라는 형용사이다.

(56) 가. 정부는 국가 재정의 충실을 기해야 한다. <표준>

나. 文字流畅, 内容充实。(문장이 매끈하고 내용이 충실하다.) <現漢: P181>

다. 选拔干部充实基层。(간부를 뽑아 기층을 보강한다.) <現漢: P181>

한국어 ‘충실(充實)’은 (56가) ‘국가 재정의 충실’과 같이 나타날 때 “내용이 알차고 단단함”을 뜻하는 명사이다. 중국어 ‘充实’도 (56나)와 같이 한국어와 같은 의미의 형용사로 나타난다. 그러나 (56다)와 같이 “보강하다”라는 의미로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로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 한국어는 명사이고 중국어는 동사, 형용사, 명사로 모두 나타나는 것도 있는데 ‘가능(可能)-可能’, ‘강구(講究)-讲究’, ‘부족(不足)-不足’를 들 수 있다.

(57) 가. 타인 명의를 계좌 개설 가능 여부를 물어 보도록 하자. <고려>

나. 提前完成任务是完全可能的。(임무를 앞당겨서 완성하는 것이 완전히 가능하다.) <現漢: P738>

다. 根据可能和需要給予安排。(가능성과 수요에 따라 계획한다.) <現漢: P738>

라. 他可能开会去了。(그는 아마도 회의하러 갔을 것이다.) <現漢:  
P738>

한국어 ‘가능(可能)’은 ‘연결 가능’, ‘주차 가능’, ‘사용 가능’, ‘취소 가능’ 등과 같이 쓰이는데 “할 수 있거나 될 수 있음”이라는 의미의 명사이다. 중국어 ‘可能’은 (57나)는 “이룰 수 있다”라는 의미의 형용사이고, (57다)는 “가능성”이라는 의미로 명사이다. 한편, (57라)에서 나타난 ‘可能’은 조동사<sup>19)</sup>에 해당한다. 이렇게 한국어 ‘가능(可能)’은 명사로, 중국어 ‘可能’은 명사, 형용사, 조동사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尹翡翠(2009)도 본고의 견해와 일치하지만 한국어 ‘가능(可能)’은 기능동사 결합형 ‘가능하다’의 형용사라는 품사도 함께 대조하였다.

(58) 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법적 조치 강구만이 능사는 아니다.  
<고려>

나. 翻译的技术大有讲究。(번역의 기교에는 이것저것 생각하고 따질  
것이 많다.) <現漢: P646>

다. 我们一向讲究实事求是。(우리는 항상 실사구시함을 중히 여긴다.)  
<現漢: P646>

라. 房间布置得讲究极了。(방이 아주 깔끔하게 꾸며져 있다.) <現漢:  
P646>

한국어 ‘강구(講究)’는 (58가) ‘법적 조치 강구’에서 “좋은 대책과 방법을 궁리하여 찾아내거나 좋은 대책을 세움”이라는 의미이고 명사이다. 중국어 ‘讲究’도 (58나)와 같이 명사로 나타나는데 “이것저것 생각하고 따지다”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58다)처럼 동사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중히 여기다”라는 의미이다.

---

19) 중국어에서는 조동사는 동사의 하위부류인 ‘能願動詞’라고 칭한다.

한편, (58라)는 형용사인데 “생활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 정미함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59) 가. 수질 오염으로 인한 산소 부족으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 <표준>

나. 工作中还存在着一些不足。(업무 중에 있어서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 <現漢: P114>

다. 这部法律的本身就是先天不足。(이 법률 자체가 선천적으로 부족하다.) <BBC>

라. 这是小事, 不足挂齿。(사소한 일이니 거론할 것이 없다.) <BBC>

(59가, 나)는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부족(不足)-不足’가 명사로 쓰인 것인데 모두 “필요한 양이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충분하지 아니함”이라는 의미이다. 같은 의미로 중국어에서는 (59다)와 같이 형용사로도 쓰인다. 한편, (59라)는 “不值得(~할 만하지 않다)”라는 의미인데 동사로 쓰인 것이다.

또한, 한국어는 명사이고 중국어는 동사, 형용사, 부사로 모두 나타난 것도 있는데 ‘긍정(肯定)-肯定’을 들 수 있다.

(60) 가. 내 의견을 듣고 친구는 긍정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표준>

나. 肯定成绩。(성적을 인정한다.) <現漢: P743>

다. 他今天来不来还不能肯定。(그가 오늘 오는지 안 오는지 확정지을 수 없다.) <現漢: P743>

라. 情况肯定是有利的。(상황은 틀림없이 이로운 것이다.) <現漢: P743>

‘긍정(肯定)-肯定’은 (60가, 나)와 같이 한국어와 중국어에서는 모두 명사로 나타난다. 이때 모두 “그러하다고 생각하여 옳다고 인정함”이라는 의미이다. 중국어는 이런 의미로 나타날 때 동사로도 가능한데 (60다) ‘肯定成績(성적을 인정하다)’와 같다. 한편, 중국어에서는 (60라)와 같이 부사로 쓰이기도 하여 “一定, 无疑问(틀림없다)”라는 의미로 ‘肯定有利(틀림없이 이롭다)’처럼 용언을 수식한다. 한편, (60다)와 같이 “承认的, 确定(긍정적이다, 확정하다)”라는 의미로 형용사로 쓰이기도 한다.<sup>20)</sup>

이상의 부류 외에, 한국어가 명사로 나타나고 중국어는 형용사와 부사로 모두 나타난 동자이의어는 ‘전문(專門)-专门’을 들 수 있다.

(61) 가. 이 음식점에서는 불고기를 전문으로 한다. <표준>

나. 像这样埋没专门人才这种事, 在这儿绝对不会有。(이와 같이 전문가가 묻히는 일은 여기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BBC>

다. 这次会议专门讨论了资金问题。(이번 회의는 오로지 자금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겠다.) <現漢: P1719>

(61가)의 한국어 ‘전문(專門)’은 명사인데 “어떤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오직 그 분야만 연구하거나 맡음. 또는 그 분야”라는 의미이다. ‘전문 용어’, ‘전문 분야’와 같이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도 한다. 중국어에서 이와 같은 의미로 쓰인 ‘专门’은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인데 ‘专门用語(전문용어)’나 ‘专门人才(전문인재)’와 같이 쓰인다. 한편, 중국어에서 (61다)처럼 부사로 쓰이기도 하는데 “일부러. 오로지”라는 의미로 동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

한편, 한국어에서 명사와 대명사로 나타나는 한자어 ‘자기(自己)’는 중국어에

20) 尹蕤翠(2009)는 한국어 ‘긍정’은 명사, ‘긍정적’은 ‘관형사·명사’로 나타나고, 중국어 ‘肯定’은 동사, 형용사, 부사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단, 명사로 쓰이는 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본고와 다르다. 본고는 최대한 모든 품사로 나타난 쓰임을 제시하기 위하여 동사나 형용사가 명사로 기능할 수 있으면 명사라는 품사를 인정하기로 한다.

서는 인칭 대명사이다.

(62) 가. 김 교수는 인문학이 자기에 대해 성찰하는 학문이라고 말했다. <고려>

나. 그는 뭐든지 자기 고집대로 한다. <표준>

(63) 가. 他的生命又重新属于他自己。(그의 생명은 다시 그 자신에 소속되었다.) <BBC>

나. 直到现如今才明白我自己。(이제서야 비로소 내 자신을 알게 되었다.) <BBC>

다. 这个问题最好问你自己。(이 문제는 너 자신에게 묻는 것이 좋다.) <BBC>

라. 自己弟兄还用得着说这个? (형제지간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겠나?) <BBC>

한국어 ‘자기(自己)’는 명사와 대명사로 쓰인다. (62가)의 ‘자기’는 명사인데 “그 사람 자신”이라는 의미이다. (62나)의 ‘자기’는 대명사로 쓰인 것인데 앞의 ‘그’를 도로 가리키는 재귀대명사<sup>21)</sup>이다. 이러한 의미와 용법은 중국어 (63가, 나, 다)와 유사해 보이지만 차이점이 있다. 한국어의 재귀대명사 ‘자기’는 3인칭 뒤에서만 나타나는 반면에 중국어에서는 3인칭뿐만 아니라 1인칭과 2인칭 뒤에서도 나타난다. 예컨대 1인칭을 도로 가리킨 “我自己”, 2인칭을 도로 가리킨 “你自己”와 같다. ‘자기(自己)’와 관련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이 많이 범하는 오류는 재귀대명사로 쓰일 때 1인칭과 2인칭도 ‘자기’를 쓰는 것이다. 모국어의 용법 그대로 한국어에 적용해서 일어난 오류로 보인다. 한편, 중국어 ‘自己’는 (63라)와 같이 역시 대명사로 나타나기도 하며 친밀한 사이를 표현하기 위한

---

21) 선행사를 다시 가리킬 때 일반 대명사와는 구별되는 특별한 형태로 나타나는 대명사를 말한다 (이익섭·채완 1999: 155).

것이다.

### 3.2. 한국어 부사와 중국어 동자이의어 품사 대조

한국어는 부사이고 중국어는 대명사인 동자이의어는 ‘일절(一切)-一切’를 들 수 있다.

(64) 가. 그는 고향을 떠난 후로 연락을 일절 끊었다. <표준>

나. 夜深了, 田野里的一切都是那么静。(밤이 깊었고, 들판의 모든 것들이 조용하다.) <現漢: P1537>

(64가) 한국어 ‘일절(一切)’은 “아주, 전혀, 절대로”라는 의미로 흔히 행위를 그치게 하거나 어떤 일을 하지 않을 때에 쓰는 부사이다. (64나) 중국어 ‘一切’는 “全部的事物(모든 것)”을 지시하는 지시 대명사이다.

한국어와 중국어는 모두 부사로 나타난 동자이의어는 ‘종래(從來)-从来’를 들 수 있다.

(65) 가. 그는 종래의 윤리 원칙인 삼강오륜을 부정한 사람이다. <표준>

나. 그놈은 산속에만 박혀 있는지 종래 하산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표준>

다. 他从来不失信。(그는 여태껏 약속을 어긴 적 없다.) <現漢: P218>

중국어 ‘从来’는 부사로 쓰이고 “이전부터 지금까지”라는 뜻이다. 한국어 ‘종래(從來)’도 중국어와 같은 의미로 부사로 쓰인다. ‘종래 하산할 기미를 보이지 않다’라는 것은 ‘从来不曾看到要下山的迹象(여태껏 하산하는 기미를 본 적이

없다)’에 대응시킬 수 있다. 그 외에, 한국어 ‘종래(從來)’는 명사로 쓰이기도 하는데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부터 지금까지에 이르기. 또는 그런 동안”이라는 의미이다. ‘종래의 윤리’, ‘종래의 관습’과 같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품사의 차이로 한국어의 사용영역이 중국어보다 넓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어는 부사이고 중국어는 부사와 접속사로 모두 쓰이는 동자어의 ‘불과(不過)-不过’를 들 수 있다.

(66) 가.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불과 몇 명뿐이었다. <표준>

나. 当年她参军的时候不过十七岁。(그해 그녀가 입대했을 때 불과 17살이었다.) <現漢: P108>

다. 再好不过。(더없이 좋다.) <現漢: P108>

라. 病人精神还不错, 不过胃口不太好。(환자의 기력은 괜찮다. 다만 식욕이 좋지 않다.) <現漢: P108>

한국어 ‘불과(不過)’는 “그 수량에 지나지 아니한 상태임을 이르는 말”로 (66가)와 같이 부사로 나타나고, 중국어 ‘不过’는 “~에 불과하다. ~에 지나지 않다”라는 의미로 (66나)와 같이 역시 부사로 나타난다. 그 외에, 중국어 ‘不過’는 부사로 쓰일 때 (66다)와 같이 형용사 뒤에 나타나 補語(보어)로 쓰여 “정도가 더 나아갈 수 없다”라는 의미인데 ‘聰明不过(가장 똑똑하다)’, ‘再好不过(더 좋을 수 없다)’ 등 표현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66라)의 ‘不过’는 접속사로 사용된 것으로 “그러나; 그렇지만”이라는 의미이다. 이상으로 한국어 ‘불과’는 부사로만 쓰이는데 중국어 ‘不过’는 부사나 접속사로 쓰인 것을 보았다. 이는 尹翡翠(2009)와 같은 견해이지만 尹翡翠(2009)에서는 ‘불과하다’라는 형용사도 함께 대조하였다.

한편, 한국어는 부사와 명사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동자

이의어는 ‘결국(結局)-結局’, ‘원래(原來)-原來’, ‘다소(多少)-多少’를 들 수 있다.

(67) 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결국에 가서는 마찬가지이다. <표준>

나. 나는 결국 그의 간청을 뿌리치지 못했다. <표준>

다. 結局出人意料(결말은 뜻밖이다.) <現漢: P666>

한국어 ‘결국(結局)’은 명사와 부사로 두루 쓰인다. 명사로 쓰인 ‘결국(結局)’은 “일이 마무리되는 마당이나 일의 결과가 그렇게 돌아감을 이르는 말”인데 중국어 명사인 ‘結局’의 의미와 같다. 그러나 한국어에는 (67나)와 같이 명사로 쓰일 때와 같은 의미로 문장부사로 나타난다. 중국어 ‘結局’는 명사로만 쓰여 한국어 ‘결국’과 품사적 차이를 보인다.

(68) 가. 원래의 가격보다 훨씬 싸다. <표준>

나. 나는 원래 아침잠이 없다. <고려>

다. 现在的日子比原来好多了。(지금의 삶이 이전보다 많이 나왔다.)

<現漢: P1610>

라. 我说夜里怎么这么冷, 原来是下雪了。(내가 밤이 왜 이렇게 추운지 했는데 눈이 왔구나.) <現漢: P1610>

마. 他还住在原来的地方。(그는 여전히 원래 곳에서 살고 있다.) <現漢: P1610>

한국어 ‘원래’는 명사와 부사 두 품사로 나타나는데 명사로 쓰이는 경우는 “사물이 전하여 내려온 그 처음”이라는 뜻으로 ‘원래의 가격’, ‘원래의 모습’과 같이 나타나고, 부사로 쓰이는 경우는 “처음부터 또는 근본부터”라는 뜻인데

주로 문장부사로 쓰인다. 중국어 ‘原來’는 (68다)에서 명사로 쓰이는 것인데 “애초. 이전”이라는 뜻이고, (68라)는 문장부사인데 전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쓰인다. 한편, 중국어 ‘原來’는 명사와 부사 이외에, (68마)처럼 형용사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원래의. 그대로의”라는 의미로 한국어 ‘원래’가 명사로 기능할 때의 의미와 유사하다.

(69) 가.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어려운 상황이다. <표준>

나. 그는 다소 과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표준>

다. 多少不等, 长短不齐。(수량이 같지 않고 길이가 같지 않다.) <現漢: P336>

라. 这句话多少有点儿道理。(이 말은 어느 정도 도리가 있다.) <現漢: P336>

마. 这个村子有多少人家?(이 마을에는 인가가 얼마나 있니?) <現漢: P336>

‘다소(多少)-多少’는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모두 명사와 부사로 두루 나타난다. 그런데 중국어에서는 의문대명사<sup>22)</sup>로 나타나기도 한다. (69가)의 ‘다소’는 명사이고 “분량이나 정도의 많음과 적음”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중국어 (69다) ‘多少’의 품사 및 의미와 일치한다. 그리고 한국어 (69나)는 “어느 정도로”라는 부사로 쓰이는 것이다. 이는 중국어 (69라)의 품사와 의미에 대응된다. 그 외에, 중국어 ‘多少’는 (69마)와 같이 중국어 의문대명사로 나타나 “얼마”라는 의미로 묻는 표현이다.

한편, 한국어는 부사로, 중국어는 형용사로 나타난 동자이의어로 ‘보통(普通)-普通’을 들 수 있다.

22) 중국어에서 疑問代詞라고 칭한다.

(70) 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표준>

나. 그는 보통 일곱 시에는 일어난다.

다. 这种款式很普通。(이런 스타일은 평범하다.) <現漢: P1018>

한국어 ‘보통(普通)’은 명사와 부사로 두루 쓰이지만 중국어 ‘普通’은 형용사이다. 한국어 (70가)는 명사인데 ‘보통 실력’, ‘보통 사람’, ‘보통 솜씨’, ‘보통 때’에서 보듯이 다른 명사 앞에서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흔히”라는 뜻으로 (70나)와 같이 문장부사로 나타나기도 한다. 중국어 ‘普通’은 “평범하다”라는 형용사로 “款式普通(스타일이 평범하다)”와 “不是普通人(평범한 사람이 아니다)”와 같이 한국어 명사로 쓰인 ‘보통’의 용법에 대응될 수 있다.

### 3.3. 소결

본 장은 한·중 동자이의어의 품사 대조를 하였다. 2음절 한국 한자어가 주로 명사나 부사인 것과 달리, 대응되는 동자이의 중국어의 품사는 유동적이고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는 중국어가 한국어와 달리 형태 변화가 없어도 품사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한국어 명사인 경우와 부사인 경우에 대응되는 중국어 다양한 품사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한국어가 명사이고 중국어도 명사인 것은 ‘강의(講義)-讲义’, ‘대면(對面)-对面对面’, ‘공부(工夫)-工夫’, ‘기호(嗜好)-嗜好’, ‘사정(事情)-事情’ 등이 있는데 모두 명사로만 기능하지만 의미가 달랐다. 그리고 한국어는 명사이고 중국어는 동사인 것은 ‘관문(關門)-关门’, ‘기사(記事)-記事’, ‘납입(納入)-纳入’, ‘병고(病故)-病故’, ‘착상(著想)-着想’, ‘참견(參見)-参见’, ‘충당(充當)-充当’, ‘태만(怠慢)-怠慢’, ‘해당(該當)-该当’ 등을 살펴보았다. 이들 동자이의어는 중

국어에서 동사로만 기능하기 때문에 한국어와의 품사나 의미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어는 명사이고 중국어는 형용사인 것은 ‘간이(簡易)-簡易’, ‘가관(可觀)-可觀’, ‘개별(個別)-個別’, ‘근신(謹慎)-謹慎’, ‘실재(實在)-實在’, ‘호도(糊塗)-糊塗’ 등을 살펴보았다. 이 부류에 해당하는 동자이의어는 많은데 한국어에서 명사로만 기능하고 명사성만 나타나지만 중국어에서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로 기능한다. ‘간이(簡易)-簡易’와 같이 의미가 유사한 것이 있지만, 대부분은 의미가 다른 것이었다. 한편, 한국어는 명사이고 중국어는 부사인 것에 해당하는 동자이의어 ‘일동(一同)-一同’, ‘일미(一味)-一味’도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 중국어가 다양한 품사적 양상이 띠는 동자이의어를 살펴보았다. 우선 한국어는 명사이고 중국어는 명사와 동사로 나타난 것은 ‘경지(耕地)-耕地’, ‘과거(過去)-過去’, ‘생기(生氣)-生氣’, ‘의사(意思)-意思’, ‘입구(入口)-入口’ 등이 있다. 이들 동자이의어가 중국어도 명사일 때는 한국어와 의미가 일치하지만 중국어가 동사일 때는 한국어와 의미가 달랐다. 그리고 한국어는 명사이고 중국어는 명사와 형용사인 것에 ‘광채(光彩)-光彩’, ‘당시(當時)-當時’, ‘영웅(英雄)-英雄’, ‘체면(體面)-體面’, ‘편의(便宜)-便宜’, ‘평상(平常)-平常’ 등이 있다. 이들도 중국어로 명사일 때 한국어와 의미가 같지만(‘편의(便宜)-便宜’는 다름), 중국어에서는 형용사로 쓰일 수 있고 한국어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 다음으로 좀 복잡한 대응인데 한국어는 명사이고 중국어는 명사, 부사 등으로 나타난 것은 ‘결과(結果)-結果’, ‘보관(保管)-保管’, ‘기본(基本)-基本’, ‘보험(保險)-保險’, ‘이상(異常)-異常’ 등이 있다. 그리고 중국어는 명사, 한국어는 명사와 형용사 등으로 나타난 것이 ‘돌출(突出)-突出’, ‘자각(自覺)-自覺’, ‘충실(充實)-充實’, ‘가능(可能)-可能’, ‘강구(講究)-講究’, ‘부족(不足)-不足’, ‘긍정(肯定)-肯定’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중국어의 품사 양상은 복잡하고 다양하게 띠고 한국어보다 넓은 의미 영역을 가지고 있다.

한국어가 부사로 기능하는 2음절 한자어는 ‘일절(一切)-一切’, ‘종래(從來)-

从来’, ‘불과(不過)-不过’를 들었는데, 이에 대응하는 중국어는 각각 대명사, 부사, 부사와 접속사로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국어는 명사와 부사로 모두 나타나는 ‘결국(結局)’, ‘원래(原來)’, ‘다소(多少)’, ‘보통(普通)’이 있다. 중국어 ‘結局’은 명사로, ‘原來’는 명사, 부사, 형용사로, ‘多少’는 명사, 부사, 대명사로, 그리고 ‘普通’은 형용사로 나타난다.

## Ⅳ. 한·중 동자이의어 의미 대조

본장에서는 한·중 동자이의어의 의미를 중심으로 대조를 할 것이다. 어휘 의미에 대한 분류가 다양한데 본고는 어휘의 의미를 크게 개념적 의미, 문법적 의미, 부가적 의미의 구성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기로 한다.<sup>23)</sup> 이종의 개념적 의미(conceptual meaning)는 어떤 낱말 스스로가 지닌 논리적·인지적·외연적 내용으로서 언어전달의 중심된 요소를 이룬다(임지룡 2011: 36). 개념적 의미는 어떤 언어 형식이 상황이나 언어 사용자가 달라져도 언제나 인지할 수 있는 의미이다. 이 의미는 언어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며, 의사소통 과정에서 핵심 요소이다(신현숙·김영란(2012: 7)). 개념적 의미는 어휘의 핵심적 요소로서 보통 추상적으로 언어 사용자의 인지에 존재한다. 본 장 1절과 2절에서는 사전에서 등재된 어휘의 의미를 중심으로 한·중 동자이의어를 대조하고 3절에서는 부가적 의미로서인 가치 의미(價値 意味)를 대조하겠다.

동자이의어는 의미 영역에 따라서 동자 완전이의어(同字完全異義語)와 동자 부분이의어(同字部分異義語)로 나누어진다. 본고에서도 이 두 부류로 의미를 대조·분석하도록 한다.

### 4.1. 동자 완전이의어(同字 完全異義語)

우선 의미가 일치하는 부분이 없고 완전히 다른 경우인 한·중 동자어의어를 살펴보겠다. 기존의 명칭에 따라 이를 완전이의어(完全異義語)라고 부를 것이

23) 이는 楊文奎(2010)에서 제시된 어휘 의미의 분류인데 한국어의 어휘 의미의 분류는 흔히 가치 의미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중국어의 어휘 의미의 분류에 따를 것이다. 이 책에서 어휘 의미는 概念義(개념적 의미), 語法義(문법적 의미), 附加義(부가적 의미)로 나누었는데, 이중에 개념적 의미는 內涵義(내포적 의미)와 外延義(외연적 의미)를 포함하고, 부가적 의미는 色彩意義(색채의미)라고도 하는데 評價義(평가적 의미), 즉 본고 4장에 논의할 가치 의미에 해당하는 것과, 語體義(문체적 의미), 形象義(형상적 의미), 搭配義(연어적 의미), 文化義(문화적 의미)를 포함한다. (楊文奎 2010: 228 참조)

다. 동자 완전이의어는 본고에서 추출한 전체 동자이의어의 750개의 어휘 중의 약 12%를 차지하였으며 부분이의어보다 비율이 낮다. 文蓮姬(2007)은 上古文獻(주나라~한나라)에서 나온 한자어의 의미를 본의(本義)로 삼아 한·중 한자어의 의미 변화의 유형을 한국에서의 의미 변화로 인한 차이, 중국에서의 의미 변화로 인한 차이, 양국에서의 의미 변화로 인한 차이 등 세 가지의 경우로 분류하고 어휘 의미를 대조하였다. 불과 10개의 어휘를 가지고 대조 연구를 한 것은 상고 문헌 자료의 결핍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다른 연구에서는 완전이의어를 가지고 유형을 나누어 검토하지 않았다.

본고는 한·중 동자어의 의미가 공시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다른지를 보일 것이다. 이에 특징적인 어휘들의 부류를 묶어서 지시 대상의 차이와 지시 행위·상태의 차이가로 나누어서 유형별로 대조·분석하였다.

#### 4.1.1. 지시 대상의 차이

한·중 동자어는 같은 한자로 구성되기 때문에 의미는 다르다고 해도 흔히 같은 상하관계에 있다. 지시하는 대상의 차이로 의미에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동자이의어는 아래와 같다.

- (1) 가사(家事)-家事, 가요(歌謠)-歌谣, 각오(覺寤)-觉悟, 공과(功課)-功課, 기차(汽車)-汽车, 노파(老婆)-老婆, 동양(東洋)-东洋, 문장(文章)-文章, 사정(事情)-事情, 생수(生水)-生水, 서방(書房)-书房, 세대(世代)-世代, 신문(新聞)-新闻, 야채(野菜)-野菜, 여아(女兒)-女儿, 의미(意味)-意味, 이면(裏面)-里面, 처자(妻子)-妻子, 항렬(行列)-行列

- (2) 한국어 ‘가사(家事)’

가. 의미: (명) 살림살이에 관한 일. <표준>

예문: 아내는 요즘 육아와 가사에 전념하고 있다. <고려>

나. 의미: (명) 한 집안의 사사로운 일. <표준>

(3) 중국어 ‘家事’

의미: (名)<sup>24</sup> 家庭的事情。(가정 안의 일.) <現漢: P624>

예문: 一切家事, 都是两个人商量着办。(모든 가정의 일은 두 사람이 상의해서 처리한다.) <現漢: P624>

한국어 ‘가사(家事)’는 두 가지의 의미로 풀이되지만 그 중에는 “한 집안의 사사로운 일”이라는 의미는 『표준』과 『고려』 등 사전에서 모두 뜻풀이만 등재되어 있고 예문 제시는 없으며 말뭉치 검색에서도 예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본고에서 한·중 대조의 의미로 삼지 않겠다. 한국어에서 ‘가사’는 ‘가사 노동’, ‘가사 서비스’와 같이 주로 “살림살이에 관한 일”이라는 의미로 나타난다. 중국어 ‘家事’는 “가정 안의 일”이라는 의미로 집안 이외의 일이나 나라의 일 등과 상대되어 쓰이는 말이다. 이에 한국어 ‘가사(家事)’와 중국어 ‘家事’는 지시하는 대상이 다르다.

동자이의어 ‘가사(家事)-家事’가 이와 같이 의미 차이를 갖게 된 것은 현대 이전의 자료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4) 『17세기 국어사전』(P.21)의 ‘가스’

다만 宗事를 고터 家事라 헉라<家禮4:14b>

大夫士 | 公事를 니르코 家事를 니르디 마를디니라<家禮9:37a>

(4)는 17세기에 ‘가사<가스>’의 뜻풀이와 그 용례인데 그 시기에 ‘公事(공적인

24) 『現代漢語詞典』에서 등재된 중국어 품사 표시이다. ‘名’은 명사를 일컫고, ‘动’은 동사를 일컫는데, ‘形’은 형용사를, ‘副’는 부사를 일컫는다.

일)’과 상대되는 “집안의 사사로운 일”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5) 『조선시대 한글편지 어휘사전』(P.113)의 ‘가스(家事)’

네 집 {가스느} 직영의 편지의 흐거니와 누웨도 녁신과 혼가지로 잘되어  
명지 필이나 나홀 듯흐다 흐니 ㄹ이업시 깃거흐노라<월성이씨-2, 1716  
년, 월성이씨(어머니)→권순경(아들)>

(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8세기의 ‘가스(家事)’ 역시 17세기 ‘가스’와 같은 의미로 보인다.

(6) 『현대 한국어로 보는 한불사전』(P.48)의 ‘가스[KA-Sǎ] (家事)’

불 : Les affaires de la maison

한 : 집안일

19세기 ‘가사’는 “집안일”로 뜻풀이되었는데 ‘집안일’은 “살림을 꾸려 나가면서 하여야 하는 여러 가지 일”과 “자기 집이나 가까운 친척 집에 생기는 일이나 행사”라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그러면 19세기 ‘가사’가 이미 현대 한국어 ‘가사’의 두 가지의 의미를 모두 가진다고 할 수 있다.

(7) 한국어 ‘가요(歌謠)’

가. 의미: (명) 『음악』=대중가요. <표준>

예문: 라디오에서 가요가 흘러나왔다. <표준>

나. 의미: (명) 민요, 동요, 유행가 따위의 노래를 통틀어 이르는 말. <표준>

다. 의미: (명) 악가(樂歌)와 속요(俗謠)를 아울러 이르는 말. <표준>

라. 의미: (명) 『역사』=교방가요(敎坊歌謠.) <표준>

(8) 중국어 ‘歌谣’

의미: (名) 指随口唱出, 没有音乐伴奏的韵语, 如民歌、民谣、儿歌等。

(악기 반주가 없이 부르는 노래. 민가·민요·동요 따위를 가리킨다.) <現漢: P439>

예문: 小时候妈妈哼唱的歌谣还在我的记忆中。(어렸을 때 엄마가 흥얼거리시던 노래는 아직도 기억한다.) <現漢: P439>

한국어 ‘가요(歌謠)’가 흔히 쓰이는 의미는 “대중가요”이고 중국어의 ‘歌曲’라는 말에 대응된다. (7나, 다, 라)의 의미는 『표준』과 『고려』 등 사전에서 모두 뜻풀이만 등재되어 있고 예문 제시는 없다. 말뭉치 자료에서 ‘고려가요’라는 예가 나타났지만 ‘고려가요’는 이미 전문용어로서 굳어져 “고려 시대, 민중들에 의해 창작, 구전되다가 조선 시대에 문헌에 정착된 노래”를 가리킨다. 따라서 본고는 (7나, 다, 라)를 대상 의미로 삼지 않기로 한다.<sup>25)</sup> 중국어 ‘歌谣’는 “악기 반주가 없이 부르는 노래”를 이르는 말로 한국어 “대중가요”라는 의미와 지시하는 대상이 완전히 다르다.

(9) 한국어 ‘각오(覺悟)’

가. 의미: (명) 앞으로 해야 할 일이나 겪을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 <표준>

예문: 군인들은 싸움터에서 죽을 각오로 싸웠다. <표준>

나. 의미: (명) 도리를 깨쳐 앎. <표준>

(10) 중국어 ‘觉悟’

가. 의미: (动) 由迷惑而明白; 由模糊而认清; 醒悟。(미혹하다가 깨닫

---

25) 왕배배(2011)에서도 ‘가요(歌謠)’는 완전이의어로 봤지만 이 세 의미는 아예 제시하지 않았다.

다. 막막하다가 인식하게 되다. 각성하다.) <現漢: P713>

예문: 经过老师的帮助, 他终于觉悟了。(선생님의 도움으로 그는 드디어 깨달았다.) <現漢: P713>

나. 의미: (名) 一定的政治认识。(일정한 정치의식.) <現漢: P713>

예문: 经过学习, 大家的政治觉悟都提高了。(다들 학습을 통해서 정치의식을 향상시켰다.) <BCC>

한국어 ‘각오(覺悟)’는 ‘비장한 각오’, ‘죽을 각오’, ‘각오를 다지다’ 등의 표현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나 겪을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도리를 깨쳐 앎”이라는 의미는 『표준』과 『고려』 등 사전에서 모두 뜻풀이만 제시되어 있고 예문 제시는 없으며 말뭉치 자료에도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본고에서 한·중 의미 대조에서 제외하겠다. 중국어 ‘觉悟’는 “일정한 정치의식”이라는 의미인데 지시하는 대상이 한국어와 완전히 다르다. ‘政治觉悟(정치의식)’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나타난다. 그 외에, 중국어 ‘觉悟’는 “깨달다”라는 의미도 지닌다.

(11) 한국어 ‘공과(功課)’

의미: (명) 진행하고 있는 일이나 사업의 성과(成果). <표준>

예문: 현재까지의 공과를 검토한 후에 다음 단계의 계획을 추진하기로 합시다. <표준>

(12) 중국어 ‘功课’

가. 의미: (名) 学生按照规定学习的知识、技能。(학생이 규정에 따라 학습하는 지식이나 기능. ≒수업. 학과목. 교육과정.) <現漢: P454>

예문: 他每门功课都很好。(그는 과목마다 성적이 좋다.) <現漢: P

454>

나. 의미: (名) 指教师给学生布置的作业。(교사가 학생에게 내주는 숙제를 지칭한다.) <現漢: P454>

예문: 做完功课再看电视。(숙제를 다 하고 텔레비전을 본다.) <現漢: P454>

다. 의미: (名) 泛指做某项事情之前所做的必要的准备工作。(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한 필요한 준비.) <現漢: P454>

예문: 采访前, 他翻阅了大量有关资料, 做足了功课。(인터뷰 전에 그는 대량의 관련 자료를 읽었고, 충분한 준비를 하였다.) <現漢: P454>

한국어 ‘공과(功課)’는 “진행하고 있는 일이나 사업의 성과”라는 의미인 것과 달리 중국어 ‘功课’는 두 의미가 있는데 “학생이 규정에 따라 학습하는 지식이나 기능”, “교사가 학생에게 내주는 숙제”,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 전의 준비”를 가리킨다. 한국어는 ‘성과’라는 대상을 지시하나 중국어는 ‘지식이나 기능’, 또는 ‘숙제’라는 대상을 지시하여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한·중 ‘공과(功課)-功课’의 의미 투명성이 다르다. 한국 한자어의 의미 투명성(transparency)에 대해 노명희(2008)에서 체계적으로 논의한 바 있는데 개별 한자의 의미와 전체 한자어의 의미적 관련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적용하였다. 구성 성분인 개별 한자의 자훈(字訓)은 전체 한자어의 의미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의미가 반영된 정도에 따라 노명희(2008:99)는 의미가 투명한 경우, 반투명한 경우와 불투명한 경우로 나누어 보았다.

① 투명한 경우: [A]+[B]→[A+B]

② 반투명한 경우: <1> [A]+[B]→[A'+B], <2> [A]+[B]→[A+B]<sup>26)</sup>,

<3> [A]+[B]→[A+B+a]

③ 불투명한 경우: [A]+[B]→[C]

이에 따라 개별 한자의 훈<sup>27)</sup>과 전체 한자어의 의미의 연관성으로 한·중 동자어의 투명성을 판단할 것이다. 단, 투명성에 대한 판단은 어휘의 기본의미를 대상으로 할 것이고 파생의미는 제외할 것이다.

‘공적 功’과 ‘공부할 課/과정 課’라는 구성성분의 자훈과 전체 한자어 “진행하고 있는 일이나 사업의 성과”라는 의미의 상관성을 살펴보면, ‘공(功)’자의 훈은 투명하게 나타나지만 ‘과(課)’자의 훈은 투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한국어 ‘공과’의 의미 투명성 유형은 ‘반투명한 경우 <2> [A]+[B]→[A+B]’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러나 중국어 ‘功課’는 “수업”과 “숙제”라는 의미로 풀이되는데 ‘功’자의 의미가 투명하지 않고 ‘課’자의 의미는 투명하게 나타내므로 ‘반투명한 경우: <1> [A]+[B]→[A'+B]’에 해당한다. 이에 한국어 ‘공과’와 중국어 ‘功課’는 의미의 투명성이 달라 완전이의어가 되었다.

(13) 한국어 ‘노파(老婆)’

의미: (명) 늙은 여자. <표준>

예문: 험클어진 머리칼과 날카로운 눈매 때문에 난 그이를 괴팍한 노파로 생각했었다. <고려>

(14) 중국어 ‘老婆’

가. 의미: (名) ‘老婆儿’, 年老的妇女(多含亲热意)。(‘老婆儿’로 나타나 늙은 여자를 가리킨다. 흔히 친절한 말투를 표한다.) <現漢>

26) A'나 B'는 의미가 투명하지 않다는 뜻이다.

27) 본고는 한자의 복수훈(複數訓)을 인정하는데 개별 한자의 훈에 대한 선택은 중국어를 참고하기도 하고 전체 한자어 어휘의 의미에 의하여 판단하기도 한다.

P784>

나. 의미: (名) 妻子(아내) <現漢: P784>

예문: 他已经有六个老婆了。(그 남자는 이미 아내 여섯이나 있다.)

<BCC>

한국어 ‘노파(老婆)’는 “늙은 여자”라는 의미로 나타난다. 중국어 ‘老婆’는 주로 ‘我老婆(우리 마누라)’, ‘娶老婆(장가가다)’과 같이 나타나 “마누라”라는 의미로 쓰인다. (14가)처럼 “늙은 여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兒話音<sup>28)</sup>인 ‘老婆兒’로 나타난다. 이런 의미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만 예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어의 (14가)의 의미는 대조의 대상 의미로 보지 않겠다. 한국어 ‘허리가 구부러진 노파’의 ‘노파’는 중국어 ‘老太婆’라는 말로 표현한다. ‘노파(老婆)-老婆’는 范琦慧(2002), 文蓮姬(2007), 姜漢植(2008)도 완전이의어로 인식했으나 崔娟華(2008)은 중국어 “늙은 여자”라는 의미도 대조에 나타나 부분이의어로 파악했다. ‘這老婆兒很能打架-이 할머니는 싸움을 잘 한다.’와 같은 예문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본고는 동자어 연구 같은 글자를 가진 두 언어를 대조하는데 중국어 ‘老婆兒’로 나타날 때 한국어 ‘노파(老婆)’와 동자어로 보지 않겠다. 따라서 (14가)의 뜻풀이는 대상 의미로 보지 않는다. 이에 ‘노파(老婆)-老婆’는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각각 다른 지시 대상을 가리키고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고 본다.

(15) 한국어 ‘문장(文章)’

가. 의미: (명) =문장가 <표준>

예문: 당대의 문장으로 이름이 나다. <표준>

나. 의미: (명) 『언어』 생각이나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

28) ‘아화음’이라는 것은 韻母(운모)(한국어 모음 해당)나 韻尾(운미) 뒤에 [r] 발음이 붙어 권설음화된 발음 현상이다.

용을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 <표준>

예문: 퇴고를 하면서 문법에 어긋난 문장을 고쳤다. <표준>

(16) 중국어 ‘文章’

가. 의미: (名) 篇幅不很长的单篇作品。泛指著作。(편폭이 길지 않는 단편 작품. 넓은 의미에서 저작을 이른다.) <現漢: P1373>

예문: 每日邮报上有一篇很长的关于这个的文章。(데일리 포스트에는 이것에 관련된 긴 글이 있다.) <BCC>

나. 의미: (名) 指暗含的意思、复杂的情况。(숨어 있는 뜻, 복잡한 상황.) <現漢: P1373>

예문: 这件事背后大有文章。(이 일의 배후에는 속뜻이 있다.) <現漢: P1373>

다. 의미: (名) 指做事请的方法、计划等。(일을 하는 방법이나 계획 등을 가리킨다.) <現漢: P1373>

예문: 这里很有文章可做的。(이 방면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現漢: P1373>

한국어 ‘문장(文章)’은 “문장가”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주로 (15나)라는 의미로 쓰인다. (15나)는 ‘좋은 문장’, ‘문장을 만들다’와 같이 나타나는데 중국어 ‘句子’라는 말에 대응된다. 이와 달리 중국어 ‘文章’은 “저작”이라는 의미 외에, “숨어 있는 뜻”, “일을 하는 방법이나 계획”이라는 파생적 의미로도 쓰이는데 이 세 가지의 의미는 모두 한국어의 의미와 같지 않다. 이와 같이 ‘문장(文章)-文章’은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모두 다의어이지만 지시하는 대상은 동일한 것이 없다.

동자이의어 ‘문장(文章)-文章’의 의미 차이와 관련해 현대 이전의 자료를 살펴보자.

(17) 『한영즈던』(P.85)의 ‘문장’

문장, 文章, A savant. a literary man.

19세기 『한영즈던』에서는 ‘문장<문장’은 “학자, 문학가”로 번역되어 있었는데<sup>29)</sup> 이는 현대 한국어의 “문장가”라는 의미로 발달되었다고 본다. 현대어에서 흔히 쓰이는 (15나)의 ‘문장’의 의미는 19세기 이후에 생성된 의미로 추측된다.

(18) 한국어 ‘사정(事情)’

가. 의미: (명) 일의 형편이나 까닭. <표준>

예문: 집안 사정으로 조퇴를 했다. <표준>

나. 의미: (명) 어떤 일의 형편이나 까닭을 남에게 말하고 무엇을 간청함. <표준>

예문: 빗쟁이들은 김 씨의 사정을 들어주지 않았다. <고려>

(19) 중국어 ‘事情’

가. 의미: (名)人类生活中的一切活动和所遇到的一切社会现象。(인간생활에서의 모든 활동과 사회적 현상. ≍일.)<sup>30)</sup> <現漢: P1194>

예문: 事情多, 忙不过来。(일이 많아 쉴 새 없이 바쁘다.) <現漢: P1194>

나. 의미: (名) 事故; 差错。(사고, 착오.) <現漢: P1194>

예문: 不能马虎, 出了事情就麻烦了。(등한히 하다가 사고가 나면 큰일이다.) <現漢: P1194>

다. 의미: (名) 职业; 工作。(직업, 일, 업무.) <現漢: P1194>

29) 고대 중국어 ‘文章’은 “학자, 문학가”라는 의미는 없다. 즉 이런 의미는 고대 중국어에서 차용된 의미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30) 부호 ‘≍’는 대강 같음이라는 의미로 여기서 해당 의미가 대강 대응되는 한국어 어휘를 제시하는 용도로 쓰였다.

예문: 在公司里找了一个事情。(회사에서 업무를 하나 찾았다.)

〈現漢: P1194〉

한국어 ‘사정(事情)’은 “일의 형편이나 까닭”이라는 의미로 ‘피치 못할 사정’, ‘사정이 딱하다’, ‘사정에 밝다’, ‘사정을 모르다’와 같은 표현으로 나타난다. 중국어 ‘事情’의 (19가) “일”이라는 의미는 한국어의 (18가)와 비슷해 보이지만 지시하는 대상이 다르다. 중국어 ‘事情’은 ‘일’ 자체를 가리키는 반면, 한국어 ‘사정’은 일의 ‘형편이나 까닭’을 강조하여 중국어의 ‘情況’이라는 말에 대응될 수 있다. 그 외에, 한국어 ‘사정’은 “어떤 일의 형편이나 까닭을 남에게 말하고 무엇을 간청함”이라는 행위를 지시하기도 하는데 ‘하다’와 결합하여 ‘사정하다’로 많이 나타난다. 이때 중국어 ‘懇求’라는 말에 대응된다. 그리고 중국어 ‘事情’은 “사고나 차지”, “직업. 일, 업무”라는 의미를 더 가지고 있다.

동자이의어 ‘사정(事情)-事情’은 이와 같이 의미 차이를 갖게 된 것과 관련하여 현대 이전의 자료를 살펴보자.

(20) 『17세기 국어사전』(P.1477)의 ‘事情’

事情 (명) 사정 ① 일의 곡절 ② 처지, 또는 정상(情狀)

【事情의】古에 거리긴 則 事情의 소闊 訶고<家禮10:8b>

(21) 『한영증보』(p.159)의 ‘스정’

스정, 事情, Affairs; condition of things, manner of work.

‘사정’은 17세기에 “일의 곡절”, “처지, 또는 정상”으로 해석되었고, 19세기에는 “사무, 일의 상황, 일하는 방식”으로 번역되었다. 이런 의미들은 현대 한국어의 (18가)의 의미와 유사해 보이지만 (18나)의 의미와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한국어 (18가)의 의미는 근대에서 발달해 온 의미로 추정되고 (18나)의

의미는 19세기 이후에 새로 생성된 의미로 추정된다.

(22) 한국어 ‘생수(生水)’

의미: (명) 샘구멍에서 솟아 나오는 맑은 물. <표준>

예문: 수돗물을 마시지 않고 생수를 직접 떠다 먹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 <고려>

(23) 중국어 ‘生水’

의미: (名) 没有烧开过的水。(끓이지 않은 물.) <現漢: P1169>

예문: 生水喝不得, 要喝必须是煮沸过的水。(끓이지 않은 물을 마시면 안 되고 반드시 끓인 물을 먹어야 한다.) <BCC>

한국어 ‘생수(生水)’와 중국어 ‘生水’는 모두 ‘물’이라는 상위어에 속한다. 그러나 한국어는 “샘구멍에서 솟아 나오는 맑은 물”을 가리키고 중국어는 “끓이지 않은 물”을 가리킨다. 한국어 ‘생수’는 중국어 ‘泉水’에 해당되고 중국어 ‘生水’는 한국어 ‘냉수’에 해당된다.

(24) 한국어 ‘서방(書房)’

가. 의미: (명) 남편을 낮잡아 이르는 말. <표준>

예문: 저 여자는 자기 서방이 아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군.  
<표준>

나. 의미: (명) 성에 붙여 사위나 매제, 아래 동서 등을 이르는 말. <표준>

예문: 요즈음 정 서방은 회사 잘 다니니? <표준>

다. 의미: (명) 벼슬이 없는 사람의 성 뒤에 붙여 이르는 말. <표준>

예문: 윗마을 김 서방과 아랫마을 이 서방은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

다. <고려>

(25) 중국어 ‘书房’

의미: (名) 读书写字用的房间。(독서하거나 글쓰는 용도로 독립된 방.  
능서재.) <現漢: P1209>

예문: 书房并不大, 但明亮而洁静。(서재는 넓지 않지만 환하고 청정하  
다.) <BCC>

한국어 ‘서방(書房)’과 중국어 ‘书房’은 의미의 관련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  
한국어 ‘서방’은 남편, 사위나 매제, 아래 동서, 또는 ‘이 서방’과 같이 사람을  
이르는 말인데 중국어 ‘书房’은 “서재”라는 공간을 이르는 말이어서 지시 대상  
이 완전히 다르다.

(26) 한국어 ‘신문(新聞)’

가. 의미: (명) 새로운 소식이나 견문. <표준>

나. 의미: (명) 사회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사실이나 해설을 널리 신속  
하게 전달하기 위한 정기 간행물. <표준>

예문: 어제의 대형 사고에 관한 기사가 신문에 보도되었다. <표준>

다. 의미: (명) 신문지. <표준>

예문: 신문을 펴서 바닥에 깔다. <표준>

(27) 중국어 ‘新闻’

가. 의미: (名) 媒体报道的消息。(대중 매체가 보도하는 소식.) <現漢:  
P1459>

예문: 每天看新闻广播。(매일 뉴스방송을 시청한다.) <BCC>

나. 의미: (名) 泛指社会上最近发生的新事物。(사회에서 최근 일어난  
새로운 일이나 물건.) <現漢: P1459>

예문: 有什么新闻给大家听听。(무슨 새 소식이 있는지 우리에게 이야기 좀 해 줘.) <現漢: P1459>

한국어 ‘신문(新聞)’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이 중에는 “새로운 소식이나 견문”이라는 의미는 『표준』에 등재되었 있지만 예문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고려』에서는 이 의미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말뭉치 자료에서도 이런 의미로 나타난 예문이 없으므로 본고의 의미 대조에서 제외하겠다. 따라서 한국어는 “간행물”과 “신문지”라는 두 의미만 보겠다. 중국어 ‘新闻’은 “대중 매체가 보도하는 소식”과 “새로운 일이나 물건”을 이른다. 이 두 의미는 한국어 ‘신문’과 일치하는 부분이 없고 지시하는 대상이 완전히 다르다.

동자이의어 ‘신문(新聞)-新闻’의 의미 차이에 대해 현대 이전의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8) 『17세기 국어사전』 (P.1709)의 ‘新聞’

新聞 (명) 신문. 새로운 소식. 새로운 견문

【新聞이】 선생이 모습 신문이 잇느뇨<朴通下:56b> 아므란 新聞이 업서  
그저 高麗人 新事를 드린노라<朴通下:56b>

(28)과 같이 17세기 국어자료에서 ‘新聞’은 “새로운 소식. 새로운 견문”이라는 뜻으로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의미는 현대 한국어에 와서 거의 쓰이지 않는 의미가 되었고, 근대화를 겪으면서 신문이라는 새로운 문물이 나타남에 따라 원래 ‘신문’이라는 어휘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9) 한국어 ‘야채(野菜)’

가. 의미: (명) 들에서 자라나는 나물. <표준>

나. 의미: (명) ‘채소(菜蔬)’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표준>

예문: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철이 아닐 때에도 싱싱한 야채를 먹을 수 있어 좋은데요. <표준>

(30) 중국어 ‘野菜’

의미: (名) 可以做蔬菜的野生植物. (채소가 되는 야생식물.) <現漢: P1528>

예문: 从第四天早饭开始, 大家吃野菜汤生活. (나흘째 아침부터 다들 야생채소국을 먹으면서 산다.) <BCC>

‘야채(野菜)-野菜’의 기본의미는 “들에서 자라나는 나물”인데 중국어에서는 이런 기본의미를 가지고 쓰이고 있으며 ‘蔬菜(채소)’라는 인공으로 재배하는 나물과 구별한다. 한국어에서 이런 의미는 『표준』과 『고려』에서 모두 등재되어 있지만 예문은 없다. 그리고 말뭉치 자료에서도 이런 의미로 나타난 예가 없기 때문에 본고는 이 의미를 대조에서 제외하겠다. 대신, 한국어에서는 “들에서 자라나는 식물”은 ‘들나물’이라는 말을 쓰고 ‘야채’는 “채소”라는 의미를 더 갖게 되어 ‘채소’가 일상적인 말로 쓰이게 되었다. 이에 한국어 ‘야채(野菜)’와 중국어 ‘野菜’는 완전히 다른 지시 대상, 또는 반대 의미인 대상을 가리키게 되었다. 그러나 채옥자(2004), 왕페이(2017)에서 모두 부분의의어로 본 것은 한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의미도 대조 연구에 넣었기 때문이고, 崔娟華(2008)에서 부분의의어로 본 것은 한국어 ‘야채’의 뜻풀이는 “식용 초본(草本) 식물의 총칭”이라고 해석하였고 이 중의 들에서 자라나는 나물을 제외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31) 한국어 ‘여아(女兒)’

가. 의미: (명) =여자아이. <표준>

예문: 그녀는 건강한 여아를 분만했다. <표준>

나. 의미: (명) ‘딸’이라는 뜻으로, 직접 본인에게나 남에게 대하여 이르는 말. <표준>

(32) 중국어 ‘女儿’

의미: (名) 女孩子(对父母而言)。 (부모의 여자아이의. ≍딸.) <現漢: P964>

예문: 他的女儿很可爱。 (그의 딸은 아주 귀엽다.) <BCC>

한국어 ‘여아(女兒)’는 “여자아이”와 “딸”이라는 두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딸”이라는 의미는 『표준』과 『고려』에서는 뜻풀이 이외에 예문 제시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말뭉치 자료에서도 이런 의미로 쓰이는 예가 없기 때문에 이 의미는 본 대조 연구에서 제외하겠다. 흔히 사용되는 “여자아이”라는 의미는 ‘여아 살해범’, ‘여아용 스키복’ 등에서 보듯이 주로 문어적인 문체에서 나타난다. 중국어 ‘女儿’는 여자아이라는 뜻이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말하는 여자아이이기 때문에 ‘아들’과 상대되는 “딸”이라고 풀이된다. 이에 한국어 ‘여아(女兒)’와 중국어 ‘女儿’는 각각 다른 대상을 지시하고 있다고 본다.

(33) 한국어 ‘의미(意味)’

가. 의미: (명) 말이나 글의 뜻. <표준>

예문: 두 단어는 같은 의미로 쓰인다. <표준>

나. 의미: (명) 행위나 현상이 지닌 뜻. <표준>

예문: 그녀는 오늘 그와의 만남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표준>

다. 의미: (명) 사물이나 현상의 가치. <표준>

예문: 의미 있는 삶을 산다. <표준>

(34) 중국어 ‘意味’

가. 의미: (名) 情调; 情趣; 趣味. (정서. 정취. 흥취) <現漢: P1556>

예문: 富于文学意味. (문학적 정서를 담고 있다.) <現漢: P1556>

나. 의미: (名) 含蓄的意思. (함축된 의미.) <現漢: P1556>

예문: 话里含有讽刺意味. (말 속에 풍자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現漢: P1556>

한국어 ‘의미(意味)’는 “말이나 글의 뜻”이라는 의미로 ‘단어의 의미’와 같이 나타나고 중국어 ‘숨义’나 ‘意义’, ‘意思’라는 말에 대응된다. 그 외에, “행위나 현상이 지니는 뜻”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만남의 의미’, ‘삶의 의미’, ‘역사적 의미’ 등과 같이 나타나 중국어 ‘意义’에 대응된다. 한편, “사물이나 현상의 가치”라는 의미도 있는데 ‘의미 있는 삶’은 중국어 ‘有意義的生活’에 대응될 수 있어 역시 중국어 ‘意义’라는 말에 대응된다. 이와 같이 한국어 ‘의미’는 중국어 ‘意义’라는 어휘의 의미가 일치하여 서로 대응이 되는데, 중국어 동자어 ‘意味’와는 의미가 다르다. 중국어 ‘意味’는 ‘文学意味(문학적 정서)’에서의 “정서, 정취, 취미”라는 뜻과 ‘有讽刺的意味(풍자적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함축된 의미”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와 같이 ‘의미(意味)’는 한국어와 중국어에는 모두 다의어이지만 일치하는 의미가 없고 지시하는 대상들이 완전히 다르다.

(35) 한국어 ‘이면(裏面)’

가. 의미: (명) =뒷면. <표준>

예문: 형식이 얼른 그 벡타이의 이면을 뒤집어 보았다. <표준>

나. 의미: (명) 겉으로 나타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표준>

예문: 그의 나약한 이면에는 섬뜩한 독기가 있었다. <표준>

(36) 중국어 ‘里面’

의미: (名) 方位词. 里边. (방위 명사. 안. 속.) <現漢: P799>

예문: a. 衣服放在箱子里面。(옷은 상자 속에 넣는다.) <現漢: P799>

b. 这句话里面有很深刻的含义。(이 말 속에 깊은 뜻을 담고 있다.) <現漢: P799>

한국어 ‘이면(裏面)’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우선 “뒷면”라는 의미는 중국어 ‘里面’이 없는 의미이다. (35나) “겉으로 나타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는 의미는 ‘나약한 이면’, ‘한국어 정치사의 이면’과 같이 주로 추상적인 것을 가리키는데 중국어 ‘內心’이나 ‘內情’이라는 말에 대응된다. 반면, 중국어 ‘里面’은 “일정한 시간이나 공간, 또는 일정한 범위 안”이라는 의미인데 주로 방위 명사(方位名詞)로 쓰여 일반 명사나 대명사 뒤에 붙어서 많이 나타난다. 예컨대 ‘箱子里面(상자 속)’, ‘话里面(말 속)’과 같다. 이에 ‘이면(裏面)-里面’은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지시하는 대상이나 그 대상의 영역이 다르다.

(37) 한국어 ‘처자(妻子)’

의미: (명) 아내와 자식을 아울러 이르는 말. <표준>

예문: 그는 처자를 거느리고 만주 땅으로 떠났다. <표준>

(38) 중국어 ‘妻子’<sup>31)</sup>

의미: (名) 男女结婚后, 女子是男子的妻子。(남여가 결혼한 후, 여자는 남자의 아내가 된다.) <現漢: P1020>

예문: 他认为她是理想的妻子。(그는 그녀를 이상적인 아내라고 여긴다.)

<BCC>

한국어 ‘처자(妻子)’는 ‘아내 처(妻)’와 ‘자식 자(子)’로 구성된 “아내와 자식”

---

31) 『現漢』에서 ‘妻子’는 “<书>妻子和儿女”라는 의미도 등재되어 있지만 <书>라는 표시는 서면에서만 나타나고 실제 언어 사용에서 쓰이지 않는 의미로 본고에서 실용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뜻풀이는 대조연구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을 가리키는 말이다. 중국어 ‘妻子’는 “아내”라는 의미이기에 이때 ‘아내 妻’의 의미는 한국어와 같지만 ‘子’는 ‘男子’, ‘士子’와 같이 접미사로 한국어 ‘자식 자’와 의미가 다르다. 이에 ‘子’의 의미 취사의 차이로 인하여 한·중 ‘처자(妻子)-妻子’가 지시하는 대상이 달라 완전이의어가 되었다.

그런데 고대 중국어 ‘妻子’는 “아내와 자식”이라는 의미와 “아내”라는 의미를 모두 지니고 있었다.

### (39) 고대 중국어 ‘妻子’

예문: a. 身兼妻子都三口, 鶴與琴書共一船。(白居易《自喜》) (나와 처자는 총 세 식구이니 두루미, 거문고 및 책과 함께 배 한 척에 실을 수 있다. -백거이 《자희》)

b. 妻子好合, 如鼓琴瑟。(《詩·小雅·常棣》) (아내와 마음이 맞고 뜻이 통하면 거문고와 비파를 타듯이 화목하다. -《시·소아·상채》)

따라서 고대 중국어의 “아내와 자식”이라는 의미는 현대 중국어에 와서 소멸되었고 “아내”라는 의미는 남아서 주로 쓰이고 있다.

### (40) 한국어 ‘항렬(行列)’

의미: (명) 같은 혈족의 직계에서 갈라져 나간 계통 사이의 대수 관계를 나타내는 말. 형제자매 관계는 같은 항렬로 같은 돌림자를 써서 나타내다. <표준>

예문: 그는 나보다 항렬이 높다. <표준>

### (41) 중국어 ‘行列’

의미: (名) 人或物排成的直行或橫行的形式。(사람이나 사물이 세로줄이

나 가로줄로 배열하는 형식) 〈現漢: P516〉

예문: 他站在行列的最前面。(그는 줄의 맨 앞에 서 있다.) 〈現漢: P1020〉

‘세로줄’을 ‘行’이라고 하고, ‘가로줄’은 ‘列’이라고 하는데 중국어 ‘行列’은 “사람이나 사물이 세로줄이나 가로줄로 배열하는 형식”이라는 의미이다. ‘行列的最前面’은 ‘줄의 맨 앞’이라고 해석하는데 중국어 ‘行列’은 이런 기본의미로만 쓰인다. 그러나 한국어 ‘행렬(行列)’은 가족 계통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게 되었다. ‘할아버지 행렬’, ‘아버지 행렬’ 등과 같이 세대를 갈라지는 말로 쓰이게 되는데 중국어 ‘輩分’이라는 말에 대응된다. 이와 같이 ‘행렬(行列)-行列’는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지시하는 대상이 다르다.

지시 대상이 다른 동자이의어는 다음과 같이 더 들 수 있다.

한국어 ‘기차(汽車)’는 “기관차에 여객차나 화물차를 연결하여 궤도 위를 운행하는 차량”을 이르는데 중국어 ‘火車’에 해당된다. 중국어 ‘汽车’는 “내연기관 장치가 설치된 육상 교통수단”인데 한국어 ‘자동차’에 해당된다.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모두 ‘차’라는 의미 범주에 속하지만 다른 대상을 일컫는다.

또한 ‘동양(東洋)-东洋’은 지리학적 지역이라는 범주에 속하는데 한국어에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부 지역. 아시아의 동부 및 남부를 이르는데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미얀마, 타이, 인도네시아”라고 정의되고 지리적 범주가 넓다. 그러나 중국어 ‘东洋’은 “일본”을 가리켰고 중국 고대 사람들의 지리적인 개념으로서 많이 썼던 말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는다.

#### 4.1.2. 지시 행위·상태의 차이

같은 상하관계에 속하지만 지시하는 행위·상태가 다른 동자이의어도 있는데

아래와 같다.

(42) 가공(架空)-架空, 간병(看病)-看病, 검거(檢擧)-检举, 경주(競走)-竞走, 과년(過年)-过年, 교대(交代)-交代, 구인(求人)-求人, 귀환(歸還)-归还, 기여(寄與)-寄与, 기절(氣絶)-气绝, 납입(納入)-纳入, 도망(逃亡)-逃亡, 등록(登録)-登录, 방학(放學)-放学, 병고(病故)-病故, 산발(散發)-散发, 섭외(涉外)-涉外, 세수(洗手)-洗手, 실재(實在)-实在, 실직(失職)-失职, 작성(作成)-作成, 제시(提示)-提示, 주선(周旋)-周旋, 진출(進出)-进出, 질문(質問)-质问, 청구(請求)-请求, 출산(出產)-出产, 편벽(偏僻)-偏僻

(43) 한국어 ‘가공(架空)’

가. 의미: (명) 어떤 시설물을 공중에 가설함. <표준>

나. 의미: 이유나 근거가 없이 꾸며 냄. 또는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나 상상으로 꾸며 냄. <표준>

예문: 해태는 가공의 동물이다. <표준>

(44) 중국어 ‘架空’

가. 의미: (动) 房屋, 器物等下面用柱子等撑住而离开地面。(가옥, 기물 등의 아래에서 기둥으로 받쳐 공중에 떠 있게 하다.) <現漢: P629>

예문: 竹楼是架空的。(대나무 건물은 가설된 것이다.) <現漢: P629>

나. 의미: (动) 比喻没有基础(바탕이 없는 것에 비유하다.) <現漢: P629>

예문: 没有相应的措施, 计划就会成为架空的东西。(상응하는 조치가 없으면 계획은 허황된 것이 되고 만다.) <現漢: P629>

다. 의미: (动) 比喻表面推崇, 暗中排挤, 使失去实权。(겉으로는 찬성하고 암중에는 배제하여 실권을 잃게 하다.) <現漢: P629>

예문: 架空领导, 独揽大权。(윗사람을 배제하고 혼자 권력을 독차지하다.) <BCC>

‘가공(架空)-架空’의 기본의미는 “공중에 떠 있게 하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에 이런 의미는 『표준』과 『고려』에서 모두 뜻풀이만 등재되어 있고 예문 제시는 없으며 말뭉치 자료에서도 예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는 한국어의 기본의미인 (43가)는 의미 대조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 중국어에서 ‘架空’는 기본의미도 쓰이고 파생의미도 쓰인다. 그런데 두 언어에서 ‘가공(架空)-架空’의 파생의미가 다르다. 한국어는 (43나)의 “이유나 근거가 없이 꾸며 냄”이라는 의미로 ‘가공의 세계’, ‘가공의 인물’로 쓰이고, 중국어는 “바탕이 없다”와 “겉으로 찬성하고 암중에 배제하다”라는 두 가지의 파생의미를 가지는데 한국어의 파생의미가 지시하는 행위와 다르다.

(45) 한국어 ‘간병(看病)’

의미: (명) 앓는 사람이나 다친 사람의 곁에서 돌보고 시중을 들. <표준>

예문: 자식들의 효성스러운 간병으로 아버지의 병세가 차츰 좋아졌다.

<표준>

(46) 중국어 ‘看病’

가. 의미: (动) (医生)给人或动物治病。(의미사 사람이나 동물에게 병을 치료하다) <現漢: P729>

예문: 王大夫不在家, 他给人看病去了。(왕 의사님은 집에 안 계신데 진료 나가셨다.) <現漢: P729>

나. 의미: (动) 治病; 就诊。(병을 치료하다. 진료를 받다.) <現漢: P729>

예문: 我下午到医院看病去。(오후에 진료받으러 병원에 간다.) <現

漢: P729〉

한국어 ‘간병(看病)’은 “앓는 사람이나 다친 사람의 곁에서 돌보고 시중을 들”이라는 의미인데 중국어 ‘看護’나 ‘護理’라는 말에 대응된다. 이때 ‘看’자는 “지키다”라는 뜻으로 보인다. 중국어 ‘看病’은 “병을 치료하다”와 “진료를 받다”로 해석되며 ‘看’자는 “진료”라는 뜻이다. 하나의 한자가 하나의 뜻을 가지는 경우도 있으나 흔히 여러 개의 뜻을 가진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동자로 이루어진 어휘는 각자 한자의 다른 뜻을 취하여 의미 차이가 나타난 경우가 있는데 이런 유형에 해당하는 동자이의어는 한자 의미 취사(取捨)의 차이로 본다. 따라서 ‘간병(看病)-看病’은 ‘看’자의 한·중 의미의 취사의 다름으로 각자 지시하는 행위가 다른 것이다.

(47) 한국어 ‘검거(檢擧)’

의미: (명) 『법률』 수사 기관이 범죄의 예방, 공공 안전의 유지,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용의자를 일시적으로 억류하는 일. <표준>

예문: 탈옥수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 기관이 동원되었다. <표준>

(48) 중국어 ‘检举’

의미: (动) 向司法机关或其他有关部门揭发违法、犯罪行为。(사법 기관이나 다른 관련 부서에 불법이나 범죄를 고발하다.) <現漢: P635>

예문: 写检举信告发他。(투서를 써서 그 사람을 고발한다.) <BCC>

‘검거(檢擧)-检举’는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모두 법률 용어로 쓰이지만 지시하는 행위가 다르다. 한국어는 ‘탈옥수 검거’, ‘범인 검거’와 같이 “억류함”이라

는 뜻으로 중국어 ‘逮捕’라는 어휘에 대응된다. 그러나 중국어는 “불법이나 범죄를 적발하다”라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래서 ‘检举信’은 “사법 기관에 보내는 투서”를 일컫는 말이다.

(49) 한국어 ‘경주(競走)’

의미: (명) 사람, 동물, 차량 따위가 일정한 거리를 달려 빠르기를 겨루는 일. 또는 그런 경기. <표준>

예문: 그는 오래달리기 경주에서 우승을 하였다. <표준>

(50) 중국어 ‘竞走’

의미: (名) 径赛项目之一。(경보 경기) <現漢: P694>

예문: 我曾是竞走运动员。(나는 경보 선수였다.) <BCC>

한국어 ‘경주(競走)’와 중국어 ‘竞走’를 대조해 보면 한국어는 “달리기의 빠르기를 겨루는 일”을, 중국어는 “걸음의 빠르기를 겨루는 일”을 이른다. 한국어에는 ‘오래달리기 경주’, ‘자동차 경주’와 같이 ‘사람, 차량’ 심지어 동물도 ‘경주’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중국어에는 주로 ‘사람’만 대상으로 하고 경기 항목으로 굳어져 한국어 ‘경보’에 해당된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의미 차이는 ‘走’자의 여러 의미 중 서로 다른 의미를 취하여 생긴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 ‘경주’는 ‘走’의 본의인 “달리기”라는 의미를 취하였다. ‘走’는 『康熙字典(강희자전)』에서 “走, 趨也”라고 해석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달리다”라는 것이다. ‘走’자의 갑골문 모양은 보면 사람이 달리는 모양을 본떠서 만든 會意(회의) 문자이다. 그러나 중국어 ‘竞走’의 ‘走’자는 현대 중국어 ‘走’자의 “걷다”라는 의미를 취하였다. 현대 중국어에서 ‘走’자가 “달리다”라는 기본의미에서 “걷다”라는 의미로 변화되었는데 한국어 ‘경주(競走)’는 아직도 “달리다”라는 뜻으로 나타나므로 한·중 ‘경주(競走)-竞走’가 지시하는 행위가 다르게 되었다.

(51) 한국어 ‘구인(求人)’

의미: (명) 일할 사람을 구함. <표준>

예문: 김 사장은 궁여지책으로 직업소개소에 구인을 의뢰했다. <고려>

(52) 중국어 ‘求人’

의미: (动) 请求别人帮助。(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다.) <現漢: P1074>

예문: 要靠自己努力, 不能事事求人。(자기가 노력해야지 매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 안 된다.) <現漢: P1074>

중국어 ‘求人’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다”라는 의미인데 ‘求’자의 “빌다. 청하다”라는 의미를 취한 것이다. 이와 달리 한국어 ‘구인(求人)’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다”라는 의미인데 ‘구(求)’자가 “구하다”라는 의미로 봐야 한다. 그래서 한국어에는 ‘구인 광고’, ‘구인 조건’과 같은 표현이 가능하지만 중국어에는 쓰이지 않는다. 이에 ‘求’자의 의미 차이로 인하여 한·중 동자어 ‘구인(求人)-求人’이 지시하는 행위가 달라 완전이의어가 되었다.

(53) 한국어 ‘귀환(歸還)’

의미: (명) 다른 곳으로 떠나 있던 사람이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거나 돌아감. <표준>

예문: 할머니는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 놓고 파병 나간 삼촌의 무사한 귀환을 빌었다. <표준>

(54) 중국어 ‘归还’

의미: (动) 把钱或物归还给原主。(돈이나 물건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다. 능반납하다) <現漢: P489>

예문: 借图书馆的书要按时归还。(도서관 책을 대출하면 기간 내에 반  
납해야 한다.) <現漢: P489>

한국어 ‘귀환(歸還)’은 ‘삼촌의 귀환’, ‘기자의 모국 귀환’과 같이 사람이 “돌  
아오거나 돌아감”이라는 행위를 표현하지만 중국어 ‘归还’은 “빌려온 돈이나 물  
건을 돌려주다”라는 행위를 일컫고 ‘归还图书(책을 반납하다)’와 같이 쓰인다.  
崔娟華(2008)에서는 한국어에 ‘사람의 동작이나 행위를 표현하는 어휘의 적용  
범위 축소’로 보아 부분이의어로 보았다. 그러나 본고는 한국어 “돌아오다”라는  
의미와 중국어 “반납하다”라는 의미가 지시하는 행위가 겹치는 부분이 없고 완  
전히 다르다고 본다.

(55) 한국어 ‘기여(寄與)’

의미: (명)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함. <표준>

예문: 그는 팀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선수이다. <표준>

(56) 중국어 ‘寄与’<sup>32)</sup>

가. 의미: (动) 寄托。(기대·희망·감정 따위를) 걸다.) <現漢: P620>

예문: 国家对青年一代寄与极大的希望。(나라가 청년들에게 큰 희망  
을 걸었다.) <現漢: P620>

나. 의미: (动) 给予。(주다. 보내다.) <現漢: P620>

예문: 寄与无限同情。(다정한 관심을 보낸다.) <現漢: P620>

한국어 ‘기여(寄與)’는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함”이라는 의미로 ‘세계 평화에  
대한 기여’, ‘문학에 대한 기여’ 등과 같이 나타난다. 그러나 중국어 ‘寄与’는  
“(기대·희망·감정 따위를) 걸다”, “주다. 보내다”라는 행위를 가리키고 ‘寄与希

32) 『現漢』에는 ‘寄与’라는 표제어가 없고, ‘寄予(寄与)’로 등재되어 있다. 즉 ‘寄与’는 ‘寄予’라  
는 말과 동일하고 교체해서 쓰인다는 의미이다.

달(희망을 걸다), ‘寄与矣怀(관심을 보내다)’와 같이 나타난다. 따라서 한·중 ‘기여(寄與)-寄与’가 지시하는 행위가 완전히 다르다.

(57) 한국어 ‘기절(氣絶)’

가. 의미: (명) 두려움, 놀람, 충격 따위로 한동안 정신을 잃음. <표준>

예문: 그녀는 남편의 사망 소식에 충격을 받아 기절을 하고 말았다.

<고려>

나. 의미: 병든 사람이 숨이 끊어져 죽음. <표준>

다. 의미: 갑자기 몹시 놀람. <표준>

(58) 중국어 ‘气绝’

의미: (动) 呼吸停止。(숨지다.) <現漢: P1032>

예문: 气绝身亡(숨져서 죽었다.) <現漢: P1032>

중국어 ‘气绝’는 “숨지다”라는 의미로 ‘气绝身亡(숨져서 죽었다)’와 같이 나타난다. 그러나 한국어 ‘기절(氣絶)’은 세 의미를 가지는데 그 중에 (57가)의 의미만 현대 한국어에서 실제로 쓰이며 중국어 ‘昏厥’라는 말에 대응된다. (57나, 다)의 의미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사용된 예는 제시하지 않고 말뭉치에서도 실제로 쓰이지 않는다고 나타나기 때문에 대조의 대상 의미로 삼지 않겠다. 따라서 한국어 ‘기절(氣絶)’과 중국어 ‘气绝’는 완전이의어이고 지시하는 행위가 완전히 다르다.

(59) 한국어 ‘납입(納入)’

의미: (명) 세금이나 공과금 따위를 내는 것. <표준>

예문: 지금 이 차를 사시면 일정 기간 동안 할부금 납입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고려>

(60) 중국어 ‘納入’

의미: (动) 放进; 归入。多用于抽象事物。(넣다. 포함시키다. 주로 추상적인 사물을 대상으로 쓰인다) <現漢: P934>

예문: 很快他就把那习惯纳入他的生活常规了。(그는 빠르게 이 습관을 자신의 일상 속에 넣었다.) <BCC>

한국어 ‘납입(納入)’은 ‘납(納)’자의 “납부하다”라는 의미를 취하여 ‘소득세 납입’, ‘보험료 납입’ 등과 같이 “세금이나 공과금 따위를 내는 것”을 이른다. 이와 달리 중국어 ‘納入’은 ‘納’자의 “거두어 넣다”라는 의미를 취하여 ‘納入计划(계획에 넣다)’, ‘納入版图(영토에 넣다. 점령하다)’와 같이 쓰인다. 따라서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納-納’자의 의미 취사의 다름에 따라 지시하는 행위가 다르게 되고 완전이의어가 되었다.

(61) 한국어 ‘도망(逃亡)’

의미: (명) 피하거나 쫓기어 달아남. <표준>

예문: 벽에 낙서하던 아이들은 선생님을 보자 모두 도망을 해 버렸다.  
<표준>

(62) 중국어 ‘逃亡’

의미: (动) 逃走而流浪在外。(도주하여 유랑하다.) <現漢: P1277>

예문: 从那时开始就四处逃亡。(그때부터 여기저기로 도주하여 떠돌아다니기 시작했다.) <BCC>

한국어 ‘도망(逃亡)’은 “피하거나 쫓기어 달아남”이라는 의미로 풀이되어 중국어 ‘逃走’에 대응된다. 그러나 중국어 ‘逃亡’은 “逃走而流浪在外(도주하여 유랑하다)”라는 의미인데 한국어 ‘도망하다’의 의미와 함께 “떠돌아다니다”라는

의미를 추가로 나타내므로 한국어와 구별되고 ‘逃亡生活’, ‘逃亡国外’와 같이 쓰인다. 따라서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지시하는 행위가 다르다.

(63) 한국어 ‘등록(登錄)’

가. 의미: (명)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단체나 학교 따위에 문서를 올림. <표준>

예문: 지자체 기초의회 의원 후보 등록 결과는 2.35 대 1의 경쟁률로 그치고 말았다. <조선일보 칼럼(90)>

나. 의미: (명) 『법률』 일정한 법률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증하기 위하여 행정관서나 공공 기관 따위에 비치한 법정(法定)의 공부(公簿)에 기재하는 일. <표준>

예문: 무국적자란 외국인 등록 국적 난에 조선이라고 적혀 있는 사람을 뜻한다.<시사저널>

(64) 중국어 ‘登录’

가. 의미: (动) 登记。(체크인하다.) <現漢: P275>

예문: 现在这个电子号码簿已经登录了500万个用户的有关资料。  
(현재 이 전화번호부에는 500만 명 사용자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BCC>

나. 의미: (动) 在计算机领域内常指通过输入用户名和密码进入一个系统。<sup>33)</sup>(컴퓨터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는 일을 이르다. ≒로그인하다.) <現漢: P1715>

예문: 这个网站输入密码登录进去就可以购物了。(이 사이트는 비밀번호를 입력해 로그인하면 쇼핑할 수 있다.) <BCC>

33) 『現漢』에서 ‘登录’의 ②번 뜻풀이는 ‘注册②’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뜻풀이는 ‘注册②’의 뜻풀이이다.

한국어 ‘등록(登錄)’은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단체나 학교 따위에 문서를 올림”이라는 의미로 ‘신입생 등록’, ‘후보 등록’과 같이 나타난다. 이는 중국어 ‘注册’라는 말에 대응된다. 그 외에 (63나)와 같이 법률 전문용어로서 ‘외국인 등록’, ‘사업자 등록’과 같이 법적 사실을 공증하기 위해 기재하는 것을 이른다. 중국어 ‘登录’은 “체크인하다, 기록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登录用户资料’는 “고객 정보를 체크인하고 기록하다”로 해석된다. 이런 의미 외에 컴퓨터 용어로 “로그인하다”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인다. ‘사이트에 로그인하다’는 중국어로 ‘登录网站’라고 한다. 이와 같이 한국어 ‘등록(登錄)’과 중국어 ‘登录’는 지시하는 행위가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다.

(65) 한국어 ‘방학(放學)’

의미: (명) 일정 기간 동안 수업을 쉬는 일. 또는 그 기간. <표준>

예문: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벌었다. <표준>

(66) 중국어 ‘放学’

의미: (动) 学校里上午或下午课业完毕, 学生回家。(학교에서 오전이나 오후에 수업이 끝나고 학생이 집에 가다.) <現漢: P373>

예문: 每逢放学回家, 他就到地里去锄草。(수업 끝나고 집에 가자마자 그는 밭에 나가 김을 땀다.) <BCC>

한국어 ‘방학(放學)’은 “일정 기간 동안 수업을 쉬는 일. 또는 그 기간”을 가리키고 ‘여름 방학’, ‘겨울 방학’으로 사용된다. 중국어 ‘放假’라는 말에 대응된다. 중국어 ‘放学’는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고 학생이 집에 가다”라는 의미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한·중 ‘방학(放學)-放学’는 지시하는 행위가 다르다.

(67) 한국어 ‘병고(病故)’

의미: (명) 병에 걸리는 일. <표준>

예문: 단 한 사람의 병고도 없이 모두 건강하게 여행에서 돌아왔다. <표준>

(68) 중국어 ‘病故’

의미: (动) 因病去世。(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現漢: P95>

예문: 作家鲁迅, 于昨晚在沪病故。(저명한 작가 노신이 어젯밤 상하이에서 병으로 돌아가셨다.) <BCC>

한국어 ‘병고(病故)’는 “병에 걸리는 일”이라고 풀이되므로 ‘고(故)’자는 “의외로 생긴 일”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이런 의미로 사용된 어휘는 ‘사고(事故)’, ‘고장(故障)’을 더 들 수 있다. 중국어 ‘病故’는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라는 의미로 ‘故’자는 “죽다”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나타난 단어는 ‘故去’, ‘先故’ 등을 더 들 수 있다. 따라서 중국어 ‘爷爷病故’는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의미이지만 한국어 ‘할아버지 병고’라고 하면 “할아버지 아프신 일”을 이른다. 이와 같이 ‘故’의 다른 의미를 취했으므로 한국어 ‘병고’와 중국어 ‘病故’가 지시하는 행위가 다르게 되었다.

(69) 한국어 ‘산발(散發)’

의미: (명) 때때로 일어남. <표준>

예문: 우리 팀은 8안타를 쳤으나 산발에 그쳐서 집중 3안타를 친 상대 팀에게 2 대 1로 패했다. <고려>

(70) 중국어 ‘散发’

의미: (动) 发出, 分发(내뿜다. 배포하다) <現漢: P1126>

예문: a. 散发传单。(전단지를 배포한다.) <現漢: P1126>

b. 桂花散发着阵阵芳香。(계수나무 꽃은 간간이 향기가 내뿜고

있다.) 〈現漢: P1126〉

한국어 ‘산발(散發)’은 “때때로 일어남”이라는 의미로 ‘산(散)’자의 의미는 “흩어지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흩어지게 일어나다’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때때로 일어나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산발’이라는 단어의 내부구성은 ‘부사어(散)+중심어(發)’이라는 수식구성으로 보인다.<sup>34)</sup> 그러나 중국어 ‘散发’은 병렬적 합성동사로서 ‘散’은 동사이고 (70a)에서의 “배포하다”라는 의미와 (70b)에서의 “내뿜다”라는 의미로 보인다. 이는 한국어 ‘산발(散發)’의 ‘산(散)’의 “흩어지다”라는 의미와 다르다. 따라서 한국어와 중국어가 ‘散’자의 다른 의미를 취했기 때문에 동자어 ‘산발(散發)-散发’는 지시하는 행위가 다르게 되어 의미가 다르게 되었다.

(71) 한국어 ‘세수(洗手)’

의미: (명) 손이나 얼굴을 씻음. 〈표준〉

예문: 너무 바빠서 세수도 못하고 출근하였다. 〈표준〉

(72) 중국어 ‘洗手’

가. 의미: (动) 用水洗掉手上的污染物。(물로 손에 있는 오염물질을 씻어내다.) 〈現漢: P1405〉

예문: 流感多发期间要认真洗手。(독감 다발기에 손을 꼼꼼히 씻으세요.) 〈現漢: P1405〉

나. 의미: (动) 比喻盗贼赌徒等改邪归正。(도둑이나 노름꾼들이 개과천선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現漢: P1405〉

예문: 小人以前原也作些小道儿上的买卖, 后来洗手不干了。(소인은

34) 중국어 ‘散’도 한국어와 같은 의미, 즉 “흩어지다”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이때의 성조는 3성이 다. ‘散’자는 중국어에서 다음자(발음이 두 개 이상인 한자)인데 후술한 중국어 ‘散发’는 4성으로 발음되어 그 의미도 3성과 발음할 때와 다르다. 이와 같이 하나의 한자가 여러 개의 발음을 가지는 것은 그의 다양한 의미를 구별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래 보잘것없는 도둑질을 했었는데 나중에 그만하였다.)  
〈BCC〉

다. 의미: (动) 比喻不再干某项职业。(어떤 직업을 그만 둔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 〈現漢: P1405〉

예문: 洗手改行(하는 일을 그만두고 전업한다.) 〈現漢: P1405〉

한국어 ‘세수(洗手)’는 “손이나 얼굴을 씻음”이라는 의미로 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으나 “손을 씻음”이라는 의미의 예문은 없다. 심지어 『고려』에서는 “낮을 씻음”으로 뜻풀이되어 있고 “손을 씻음”이라는 의미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말뭉치 검색으로도 “손을 씻음”이라는 의미로 나타난 예문이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어 ‘세수’의 의미는 “얼굴을 씻음”으로 보고 중국어와 대조하겠다. 중국어 ‘洗手’는 “손을 씻다”라는 기본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파생의미인 (72나, 다)로 쓰이기도 한다. 따라서 ‘세수(洗手)-洗手’는 한·중 완전이의어로 본다. ‘씻다’라는 행위는 같으나, 그 대상은 한국어는 ‘손’, 중국어는 ‘얼굴’로 차이가 있다. 范琦慧(2002)는 한국어 ‘세수’는 “얼굴을 씻음”으로 뜻풀이하면서 한국어 의미확대로 인한 한·중 동형 완전이의어로 보았고, 채옥자(2004)는 한국어에서 “손을 씻다”라는 본의로부터 “얼굴을 씻다”라는 전의(轉義)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한·중 부분이의어로 보았으며, 유서천(2011)은 한국어와 중국어는 모두 “손을 씻다”라는 의미의 교체가 있는 부분이의어로 보았다. 그러나 崔娟華(2008)은 한국어는 “손이나 얼굴을 씻음”이라는 의미, 중국어는 “손을 씻음”이라는 의미로 대조하여 부분이의어로 파악하였다.

한국어 ‘세수’는 “손을 씻음”에서 “얼굴을 씻음”이라는 의미로 변한 것은 심재기 외(2011:213)에서는 언어 전수가 비지속적으로 진행되어 발생한 의미 변화로 설명한 바 있기도 하다. 즉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과정에서 의미상 오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잡히지 못하고 그대로 전수됨에

따라 생긴 의미 변화라는 것이다.

동자이의어 ‘세수(洗手)-洗手’가 이와 같이 의미 차이를 갖게 된 것에 대해 현대 이전의 자료를 살펴보자.

(73) 『한영조역』 (P.126)의 ‘세슈호오’

세슈호오, 洗手, To wash one's face and hands.

(74) 『17세기 국어사전』 (P.1598)의 ‘세슈’

세슈 소라(洗臉盆) 〈譯語下:13a〉

17세기에 이미 “얼굴을 씻음”이라는 의미로 나타났고, 19세기에는 “얼굴이나 손을 씻음”이라고 번역되었다. 그러면 ‘세수’의 의미 전수의 비지속성은 17세기에 이미 생겼다고 볼 수 있다. 후세에 이런 의미가 계속 사용되고 심지어 잘못된 전수된 의미인 “얼굴 씻음”이라는 의미가 주된 의미로 자리잡게 되었다.

(75) 한국어 ‘실직(失職)’

의미: (명) 직업을 잃음. 〈표준〉

예문: 아버지의 실직으로 우리 가족의 생계가 암담해졌다. 〈표준〉

(76) 중국어 ‘失職’

의미: (动) 没有尽到职责。(직무상에 책임을 다하지 않다.) 〈現漢: P 1177〉

예문: 由于值班人员的失职, 造成了严重的后果。(당직자의 직무상의 과실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現漢: P1177〉

한국어 ‘실직(失職)’은 글자 그대로의 의미인 “직업을 잃음”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실직을 당하다’, ‘아버지가 실직하였다’와 같이 나타난다. 그러나

중국어 ‘失職’는 “직무상에 책임을 다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值班人员的失職’는 ‘당직자의 직무상의 과실’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한국어와 중국어는 지시하는 행위가 다르다.

(77) 한국어 ‘작성(作成)’

가. 의미: (명) 서류, 원고 따위를 만들. <표준>

예문: 이 소프트웨어는 문서 작성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제품이다. <고려>

나. 의미: (명) 운동 경기 따위에서, 기록에 남길 만한 일을 이루어 냄. <표준>

예문: 이번 대회에서 수많은 대회 신기록이 작성되었다. <표준>

(78) 중국어 ‘作成’

의미: (动) 成全。(성사시키다.) <現漢: P1756>

예문: 作成他俩的亲事。(둘의 혼사를 성사시킨다.) <現漢: P1756>

한국어 ‘작성(作成)’은 ‘시간표 작성’, ‘보고서 작성’, ‘계약서 작성’과 같이 나타날 때 “만들”이라는 의미이고, ‘신기록 작성’과 같이 나타날 때 “운동 경기 따위에서, 기록에 남길 만한 일을 이루어 냄”이라는 의미이다. 후자의 의미로 명사 ‘작성’으로 나타난 경우가 드물고 흔히 기능동사 결합형 ‘작성되다’나 ‘작성하다’로 나타난다. 그러나 중국어 ‘作成’은 이 두 개의 의미를 쓰이지 않고 “성사시키다”라는 의미로 ‘作成亲事(혼사를 성사시키다)’와 같이 나타난다. 따라서 ‘작성(作成)-作成’은 한국어와 중국어가 각각 다른 행위를 지시한다.

(79) 한국어 ‘제시(提示)’

가. 의미: (명) 어떠한 의사를 말이나 글로 나타내어 보임. <표준>

예문: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가 없이 정책이 걸돌고 있다. <표준>

나. 의미: (명) 검사나 검열 따위를 위하여 물품을 내어 보임. <표준>

예문: 그들은 병장을 가볍게 들어다 백차 위에 싣고 나서 내게 신분  
증 제시를 요구했다. <표준>

(80) 중국어 ‘提示’

의미: (动) 把对方没有想到或想不到的提出來, 引起对方注意。(상대방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제기해서 상대방의 주의를 끌다.) <現漢:  
P1285>

예문: 经他提示, 我才想起这件事。(그의 힌트로 나는 이 일을 생각났  
다.) <BCC>

한국어 ‘제시(提示)’는 두 의미로 사용된다. “어떠한 의사를 말이나 글로 나타내어 보임”이라는 의미로 “대안 제시”, “조건 제시”로 나타나고, “검사나 검열 따위를 위하여 물품을 내어 보임”이라는 의미로 “영장 제시”, “증거 제시”, “신분증 제시”와 같이 나타난다. 한국어의 두 의미는 모두 “보임”으로 볼 수 있는데 ‘끌 提’와 ‘보일 示’의 혼과의 연관성은 노명희(2008)의 ‘반투명한 경우: <1> [A]+[B]→[A'+B]’에 해당한다. 즉 ‘끌 提’의 혼은 전체 의미에 투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중국어에서 ‘提示’는 “상대방이 생각하지 않은 것을 제기해서 상대방의 주의를 끌다”라고 해석되는데 “보임”이라는 의미가 없고 “일러주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한국어 ‘제시(提示)’와 지시하는 행위가 달라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이때 ‘提’는 ‘提醒’에서도 나타난 “일러주다”라는 파생적 의미로 보이는데 ‘提示’에서 투명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示’자의 “보이다”라는 의미는 전체 어휘의 의미와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중국어 ‘提示’의 투명성은 노명희(2008)의 ‘반투명한 경우 <2> [A]+[B]→[A+B]’에 해당한다.

(81) 한국어 ‘주선(周旋)’

의미: (명) 일이 잘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힘씀. <표준>

예문: 그녀는 친척 어른의 주선으로 선을 보았다. <표준>

(82) 중국어 ‘周旋’

가. 의미: (动) 回旋, 盘旋. (멤돌다.) <現漢: P1705>

예문: 蝴蝶在花丛中来回周旋。(나비가 꽃밭에서 멤돌고 있다.)  
<BCC>

나. 의미: (动) 交际应酬, 打交道. (교제하고 접대하다.) <現漢: P1705>

예문: 成天跟人周旋, 真累人。(하루 종일 사람을 접대하느라 너무 피곤하다.) <現漢: P1705>

다. 의미: (动) (与敌人)较量, 相机进退. ((적)과 겨루면서 기회를 봐서 전진이나 후퇴를 하다.) <現漢: P1705>

예문: 游击队在山区同敌军周旋了好几个月。(유격대는 산간 지역에서 적과 몇 달 동안 겨루었다.) <BCC>

‘주선(周旋)-周旋’의 원의미는 “멤돌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에는 이런 의미가 쓰이지 않고 “일이 잘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힘씀”이라는 파생의미로 나타나 ‘친척 어른의 주선’, ‘주선을 받다’와 같이 나온다. 중국어에는 한국어와 같은 의미가 쓰이지 않고 “교제하여 접대하다”라는 의미로 ‘和客人周旋了几句(손님과 의례적으로 몇 마디를 인사했다)’와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적과 겨루어 진퇴를 하다”라는 의미로 ‘同敌军周旋(적과 겨루다)’와 같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한국어 ‘주선’과 중국어 ‘周旋’은 지시하는 행위가 다르다.

(83) 한국어 ‘진출(進出)’

가. 의미: (명) 어떤 방향으로 활동 범위나 세력을 넓혀 나아감. <표준>

예문: 여성의 사회 진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표준>

나. 의미: (명) 앞으로 나아감. <표준>

예문: 일본군과 경군은 거기 유리한 지대에다 진을 치고 동학군의  
진출을 기다렸다. <표준>

(84) 중국어 ‘进出’

가. 의미: (动) 进来和出去。(드나들다) <現漢: P680>

예문: 住在这个院的人都由这个门进出。(다들 이 문으로 드나든다.)  
<現漢: P680>

나. 의미: (动) 收入和支出。(수입하고 지출하다.) <現漢: P680>

예문: 这个商店每天要进出几万元。(이 매점은 매일 수입과 지출은  
몇 만위엔이나 된다.) <現漢: P680>

한국어 ‘진출(進出)’은 주로 “어떤 방향으로 활동 범위나 세력을 넓혀 나아감”이라는 의미로 쓰여 ‘사회 진출’, ‘영화 산업 진출’과 같이 나타난다. “앞으로 나아감”이라는 의미도 쓰이지만 실제 사용에서 (83가)의 의미만큼 많이 쓰이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어 ‘进出’는 “드나들다”와 “수입하고 지출하다”라는 의미를 가져 한국어 ‘진출(進出)’이 지시하는 행위와 완전히 다르다.

(85) 한국어 ‘질문(質問)’

의미: (명) 알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해 물음. <표준>

예문: 질문이 있으신 분은 발표가 끝난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

(86) 중국어 ‘质问’

의미: (动) 依据事实问明是非, 责问。(사실에 의거하여 분명하게 따져

문다.) 〈現漢: P1690〉

예문: 他质问我为什么中途改变主意。(그는 나보고 왜 중도에 마음이 바뀌었는지를 따져 묻는다.) 〈BCC〉

한국어에서 ‘질문(質問)’은 “알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해 물음”이라는 의미인데 구성 한자 ‘質’의 의미는 투명하지 않다. 따라서 이는 노명희(2008)의 ‘반투명한 경우: <1> [A]+[B]→[A'+B]’에 해당하고 ‘문(問)’의 의미를 투명하게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중국어 ‘质问’은 “사실에 의거하여 분명하게 따져 묻다”라는 의미인데 한국어 ‘질문’과 대조해 보면 지시하는 행위가 다르다. ‘质’과 ‘问’의 의미가 모두 드러나 있다. ‘问’자는 동사로 쓰일 때 “따져 묻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현대 중국어에는 ‘质疑’, ‘质询’, ‘对质’ 등의 어휘에서도 나타난다. 따라서 중국어 ‘质问’은 노명희(2008)의 ‘투명한 경우: [A]+[B]→[A+B]’에 해당한다.

(87) 한국어 ‘청구(請求)’

의미: (명) 남에게 돈이나 물건 따위를 달라고 요구함. 〈표준〉

예문: 거래하는 회사에서 물품 대금 청구가 들어왔다. 〈고려〉

(88) 중국어 ‘请求’

가. 의미: (动) 说明要求, 希望得到满足。(요구를 만족하게 하도록 이야기하다.) 〈現漢: P1070〉

예문: 他请求上级给他最艰巨的任务。(그는 가장 어렵고도 무거운 임무를 부여 해 줄 것을 상급 기관에 요청했다.) 〈現漢: P1070〉

나. 의미: (名) 所提出的要求。(제기한 요구) 〈現漢: P1070〉

예문: 领导接受了他的请求。(상사가 그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現

漢: P1070>

한국어 ‘청구(請求)’는 “남에게 돈이나 물건 따위를 달라고 요구함”라고 풀이되어 ‘대금 청구’, ‘배상 청구’, ‘술값 청구’와 같이 쓰인다. 그러나 중국어 ‘請求’가 가리키는 바가 한국어와 완전히 다르고 “요구를 만족하게 하도록 이야기하다. 또는 제기한 요구”이라는 의미로 ‘請求原諒(용서를 빌었다)’나 ‘接受請求(요구를 받아들이다)’와 같이 쓰인다. 이에 한국어와 중국어는 서로 다른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89) 한국어 ‘출산(出產)’

가. 의미: (명) 아이를 낳음. <표준>

예문: 아내는 출산 예정일보다 이삼일 늦게 첫아이를 낳았다. <고려>

나. 의미: (명) 만들어 내거나 생겨남. 또는 그 물건. <표준>

(90) 중국어 ‘出产’

가. 의미: (动) 天然生长或人工生产。(천연적으로 자라거나 인공적으로 생산하다.) <現漢: P188>

예문: 云南出产大理石。(운남성은 대리석을 생산한다.) <現漢: P188>

나. 의미: (名) 生产的物品。(생산되는 물품.) <現漢: P188>

예문: 这些瓷器是景德镇的出产。(이 도자기들은 징더전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다.) <現漢: P188>

한국어 ‘출산(出產)’은 “아이를 낳음”이라는 의미로 ‘아이 출산’과 같이 쓰이는데 중국어 ‘生产’이나 ‘生’이라는 말에 대응된다. 그리고 “만들어 내거나 생겨남. 또는 그 물건”이라는 의미도 『표준』과 『고려』에 제시되어 있지만 예가 없고, 말뭉치에서도 이런 의미로 나타난 예문이 없다. 따라서 이 의미는 대조의

대상 의미로 보지 않겠다. 중국어 ‘出产’은 “아이를 낳음”이라는 의미가 없고 “천연적으로 자라거나 인공적으로 생산하다. 또는 생산하는 물품”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出产人参(인삼을 생산하다)’, ‘出产大米(쌀을 생산하다)’, 또는 ‘出产丰富(생산되는 물품이 풍부하다)’와 같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한국어 ‘출산’과 중국어 ‘出产’은 서로 다른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91) 한국어 ‘타점(打點)’

가. 의미: (명) 붓이나 펜 따위로 점을 찍음. <표준>

예문: 목록을 적은 종이에 타점을 찍었다. <고려>

나. 의미: (명) 마음속으로 정하여 둠. <표준>

예문: 명련이는 전부터 타점을 하여 두었던 산부인과를 찾아갔다.  
<표준>

(92) 중국어 ‘打点’

가. 의미: (动) 收拾, 准备(礼物, 行装等)。((선물이나 여행짐 등) 꾸리다. 준비하다. 마련하다.) <現漢: P233>

예문: 舅母正在为舅舅打点衣物。(외숙모는 옆에서 외삼촌을 위해 옷과 일상 용품을 준비해 주고 있다.) <BCC>

나. 의미: (动) 送人钱财, 请求照顾。(돈을 주어 배려해 달라고 하다.) <現漢: P233>

예문: 咱从中间拿一成介绍费, 还得再返一部分给介绍人, 他也还要上下打点。(우리는 중간에서 1할의 중개비용을 가져가고, 일부는 소개인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개도 윗아래 사람들에게 주어 배려해 달라고 할 것이다.) <BCC>

중국어 ‘打点’은 ‘打点行李(짐을 꾸리다)’와 같이 쓰이는데 “선물이나 짐 등

을 준비하고 꾸리다”라는 의미가 있고 “뇌물을 주다”라는 파생의미도 있는데, 자면상의 의미는 ‘꾸리고 검사하다’로 본다. 이 의미에서 ‘打’는 “뒤편다”라는 의미로, ‘点’은 “조사하다. 검사하다”라는 의미이고 단어의 구성 방식은 병렬구성이다. 그러나 한국어 ‘타점(打點)’은 “붓이나 펜 따위로 점을 찍음”이라는 기본 의미와 “마음속으로 정하여 둠”이라는 파생의미가 있다. 기본의미에서 ‘打’는 “찍다”라는 의미, ‘點’은 ‘점’이라는 의미로 단어의 구성 방식은 술목구성(술어+목적어)이다. 따라서 한국어 ‘타점(打點)’과 중국어 ‘打点’이 지시하는 행위가 다른 것은 한자의 다른 의미를 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지시하는 상태가 다른 동자이의어는 ‘막연(漠然)-漠然’을 들 수 있다.

(93) 한국어 ‘막연(漠然)’

‘막연하다’의 어근이다.

가. 의미: (명) 갈피를 잡을 수 없게 아득하다. <표준>

예문: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연하다. <표준>

나. 의미: (명) 뚜렷하지 못하고 어렵풋하다. <표준>

예문: 나는 막연하나마 이모를 이해할 것 같았다. <표준>

(94) 중국어 ‘漠然’

의미: (形) 不关心, 不在意的样子。(관심이 없거나 신경이 쓰이지 않는 모양.) <現漢: P923>

예문: 对这些现象, 我们绝不能漠然视之。(이런 현상에 대해 우리는 무관심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BCC>

한국어 ‘막연(漠然)’은 형용사 ‘막연하다’의 어근이다. ‘갈 길이 막연하다’라고 할 때의 “갈피를 잡을 수 없게 아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막연한 기대’와 ‘막연한 생각’이라고 할 때의 “뚜렷하지 못하고 어렵풋하다”라는 의미도 가진

다. 중국어 ‘漠然’은 “무관심하다”라는 의미로 ‘漠然的神情(무관심한 표정)’과 같이 나타나는데 한국어 ‘막연하다’와 지시하는 상태와 다르다.

그 외에, 한국어에서 상태를, 중국어에서 행위를 지시하는 동자이의어도 있는데 ‘과년(過年)-过年’을 들 수 있다.

(95) 한국어 ‘과년(過年)’

의미: (명) 주로 여자의 나이가 보통 혼인할 시기를 지난 상태에 있음.

〈표준〉

예문: 과년한 처녀가 그렇게 경망스럽게 행동해서야 되겠느냐? 〈고려〉

(96) 중국어 ‘过年’

가. 의미: (动) 在新年或春节期间进行庆祝活动。(설날 기간에 축제를 하다.) 〈現漢: P503〉

예문: 小时候最喜欢过年。(어릴 적에 설날 보내기를 좋아했다.)

〈現漢: P503〉

나. 의미: (动) 指过了新年或过了春节。(새해나 설을 지내다.) 〈現漢: P503〉

예문: 这事不急, 等过年再说。(급한 일이 아니니까 설을 보내고 이야기하자.) 〈現漢: P503〉

다. 의미: (名) 明年(내년) 〈現漢: P503〉

예문: 这孩子过年该上学了。(얘는 내년에 학교를 다닐 나이가 된다.) 〈現漢: P503〉

한국어 ‘과년(過年)’은 “여자의 나이가 보통 혼인할 시기를 지난 상태에 있음”을 뜻하는데 주로 ‘하다’와 결합하여 형용사 ‘과년하다’로 나타나고 ‘과년한 처녀’이면 혼인할 나이를 지난 여자를 이르는 말이다. 이때 ‘과(過)’자의 의미는

“(시간을) 지났다”이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로 “때를 지났다”라는 의미인 ‘과시(過時)’를 더 들 수 있다. 반면, 중국어 ‘過年’의 세 의미의 ‘過’는 “지내다. 보내다”라는 의미를 취한다고 본다. ‘過年’은 “설날을 보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過-过’자의 한국어와 중국어 의미 취사의 차이로 인하여 한국어 ‘과년(過年)’이 상태를 지시하고 중국어 ‘過年’이 행위를 지시하면서 의미의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어에서 행위를 중국어에서 상태를 지시하는 동자이의어는 ‘섭외(涉外)-涉外’, ‘실재(實在)-实在’를 들 수 있다.

(97) 한국어 ‘섭외(涉外)’

의미: (명) 연락을 취하여 의논함. <표준>

예문: 나는 기자라는 간판 덕분에 섭외의 일을 맡아보게 되었다. <표준>

(98) 중국어 ‘涉外’

의미: (形) 涉及与外国有关的。(외국 관계와 관련되는 것.) <現漢: P 1156>

예문: 这里是涉外部门。(여기는 외국과 관계되는 부처이다.) <BCC>

한국어 ‘섭외(涉外)’는 ‘섭외 부장’, ‘섭외 전무’ 등에 나타난 것과 같이 ‘교섭’과 같은 의미이다. 중국어 ‘涉外’는 “외국 관계와 관련되는 것”이라고 풀이되는 형용사이다. 따라서 주로 명사를 수식해서 ‘涉外部门(섭외부서)’와 같이 나타나 “외국 관계와 관련되는 부서”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지시하는 행위·상태가 다르다는 것은 각각 ‘外’자의 다른 의미를 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에서는 ‘外’자의 “외부”라는 의미를 취하기 때문에 ‘자가 속한 집단이나 단체의 외부의 집단이나 단체’와의 교섭을 이른다. 그러나 중국어는 ‘外’자가 “외국”이라는 의미를 취하여 ‘다른 나라와의 교섭’을 이르는 것

이다. 이에 ‘섭외(涉外)-涉外’는 한·중 이의어가 된 것이다.

(99) 한국어 ‘실재(實在)’

의미: (명) 실제로 존재함. <표준>

예문: 그녀는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재의 인물이다. <고려>

(100) 중국어 ‘实在’

가. 의미: (形) 诚实, 不虛假。(실하다, 성실하다) <現漢: P1187>

예문: 学到了实在的本事。(실속있는 능력을 배웠다.) <現漢: P1187>

나. 의미: (形) (工作, 活儿)扎实, 地道, 不马虎(일을 착실하게 하다)

<現漢: P1187>

예문: 工作做得很实在。(일은 착실하게 잘 했다.) <現漢: P1187>

다. 의미: (副) 的确。(참으로, 정말) <現漢: P1187>

예문: 实在太好了。(정말 잘 됐다.) <現漢: P1187>

한국어 ‘실재(實在)’는 “실제로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과 달리 중국어 ‘实在’는 “실하다, 성실하다”, “일을 착실하게 하다”, “참으로, 정말”이라는 의미를 지녀 상태를 나타낸다. 한국어 ‘실재(實在)’의 의미에는 ‘실(實)’자의 “실제로”라는 훈과 ‘재(在)’자의 “존재하다”라는 훈을 그대로 나타내 노명희(2008)의 ‘투명한 경우: [A]+[B]→[A+B]’에 해당한다. 그러나 중국어 ‘实在’의 의미에는 ‘实’자의 의미만 나타났고 ‘在’자의 의미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어 ‘实在’는 노명희(2008)의 ‘반투명한 경우 <2> [A]+[B]→[A+B]’에 해당한다.

#### 4.2. 동자 부분이의어(同字 部分異義語)

한·중 동자어 중에서 의미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를 부분이의어(部分

異義語)라고 한다. 다시 말해 한국어와 중국어 동자어의 뜻풀이에 있어서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이다. 부분이의어는 본고의 연구 대상인 동자어의 전체의 88%를 차지하여 그 비중이 완전이의어보다 현저히 높다. 민영란(2002), 崔娟華(2008), 사운(2012), 이용교(2014), 範晨星(2017)에서 부분이의어를 한국어의 의미확대나 축소에 따라 유형화한 바가 있다. 예를 들어, 민영란(2002), 崔娟華(2008)은 부분이의어를 중국어 어휘의 의미에 준하여 의미의 확대와 의미의 축소 및 의미의 중첩으로 나누었다.<sup>35)</sup> 그리고 의미의 확대와 축소는 사물의 이름의 적용대상의 확대나 축소, 지시대상의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차이,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표현하는 어휘의 적용대상의 확대나 축소, 사람의 동작이나 행위를 표현하는 어휘의 적용범위의 확대나 축소로 의미가 다른 양상을 유형화 하였다. 그러나 ‘확대’나 ‘축소’라는 용어는 통시적인 시점으로 한 언어를 대상으로 쓰이는 용어이어서 두 언어의 공시적인 대조에서 쓰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대신에, 두 언어의 의미 영역을 대조하는데 어느 쪽의 영역이 크거나 작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sup>36)</sup> 따라서 본고에서 동자 부분이의어를 검토할 때 한·중 동자어 의미 영역에 따라 한국어의 의미 영역이 더 큰 경우, 중국어의 의미 영역이 더 큰 경우, 그리고 한국어와 중국어 의미 영역이 교집합을 이루는 경우를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중 동자어의 뜻풀이 수의 차이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의미가 지시하는 범위의 차이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차이들을 포괄적으로 영역 차이로 보겠다.

35) ‘확대’와 ‘축소’라는 용어 사용의 적합성에 대하여 崔娟華(2008:34)에서 “언어의 의미의 확대, 축소, 중첩, 향상, 저하, 상반은 동일 언어 내의 통시적 연구에서 변화의 과정을 말할 때 이르는 말이다... 본고에서 취하게 되는 논의 방법 역시 공시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상술한 용어를 쓰는 것은 합당하지는 않지만 한·중 한자어를 대조하여 분석해 본 결과 한국 한자어의 의미가 중국어보다 넓거나 좁은 것이 많았다. 그러므로 논의의 편리에 따라 본고에서는 이를 중국어 어휘에 준한 한국어 한자어의 의미의 확대, 의미의 축소, 의미의 중첩 등으로 보고 논의를 전개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었다.

36) 맹주역(2004), 왕배배(2011), 맹흔(2014), 김경숙(2014), 왕페이(2017)에서는 이러한 분류 방법을 취하였다.

#### 4.2.1. 한국어의 의미 영역이 더 큰 경우

한국어의 의미 영역이 더 큰 경우는 중국어의 의미가 한국어의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즉 한국어에 중국어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어에 없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동자 이의어를 지시 대상의 차이, 지시 행위·상태의 차이와 의미 확장 양상의 차이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 4.2.1.1. 지시 대상의 차이

의미의 같은 상하관계에서 한국어가 지시하는 대상이 중국어보다 많은 동자 이의어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어휘는 아래와 같다.

(101) 거실(居室)-局室, 건재(健在)-健在, 고장(故障)-故障, 기능(機能)-机能, 기세(氣勢)-气势, 남자(男子)-男子, 내일(來日)-来日, 대가(代價)-代价, 도구(道具)-道具, 병원(病院)-病院, 사고(事故)-事故, 성격(性格)-性格, 식당(食堂)-食堂, 신랑(新郎)-新郎, 애정(愛情)-爱情, 인연(因緣)-因缘, 주문(注文)·주문(注文)-注文, 평일(平日)-平日

##### (102) 한국어 ‘거실(居室)’

가. 의미: (명) 거처하는 방. <표준>

예문: 요즘 책을 집필 중이신 아버지의 거실은 지하 서재이다. <고려>

나. 의미: (명) 가족이 일상 모여서 생활하는 공간. <표준>

예문: 가족 모두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표준>

(103) 중국어 ‘居室’

의미: (名) 居住的房间。(거처하는 방.) <現漢: P703>

예문: 这套房有三间居室, 还有一个过厅。(이 집은 방이 세 개 있고 또  
대청이 하나 있다.) <現漢: P703>

한국어 ‘거실(居室)’은 “거처하는 방”과 “가족이 일상 모여서 생활하는 공간”을 두루 가리키는데 후자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아 보인다. 그러나 중국어 ‘居室’는 한국어 ‘거실(居室)’의 (102가)의 의미와 일치한다. 한국어 (102나)의 의미인 ‘거실(居室)’은 중국어의 ‘客厅’이라는 공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국어 ‘거실(居室)’은 중국어 ‘居室’보다 지시하는 대상이 더 많다.

(104) 한국어 ‘건재(健在)’

의미: (명) 힘이나 능력이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있음. <표준>

예문: a. 이번 콘서트의 성공을 통해 우리는 그 가수의 건재를 확인했다. <고려>

b. 신라 때의 건물이 아직 건재함을 자랑한다. <표준>

(105) 중국어 ‘健在’

의미: (动) 健康地活着, 多指上年纪的人。(주로 나이든 사람이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가리킨다.) <現漢: P642>

예문: 父母都健在。(부모님이 모두 건재하시다.) <現漢: P642>

‘건재(健在)-健在’의 한국어 “힘이나 능력이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있음”이라는 의미와 중국어 “나이든 사람이 건강하게 살고 있다”라는 의미를 대조해 보면, 중국어에서는 ‘나이든 사람’을 전제로 하여 적용 대상의 영역이

더 좁다. 중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등만 ‘健在’의 적용 대상이 된다. 반면에, 한국어 ‘건재’의 적용 영역은 중국어보다 넓어 사람과 사물에 모두 적용된다. (104a)의 ‘할아버지’는 사람이고, (104b)의 ‘신라 때의 건물’은 사물이다. ‘미술시장의 건재’, ‘그 브랜드가 건재하다’와 같이 사물을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건재(健在)-健在’는 중국어에서 의미의 지시 대상의 영역이 한국어보다 좁다.

(106) 한국어 ‘고장(故障)’

가. 의미: (명) 기구나 기계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기능상의 장애. <표준>

예문: 라디오가 고장이 났는지 소리가 나지 않는다. <표준>

나. 의미: (명) 사람의 몸에 생긴 탈을 속되게 이르는 말. <표준>

예문: 머리가 고장 난 사람처럼 왜 그리 멍하게 있어? <표준>

(107) 중국어 ‘故障’

의미: (名)(机械, 仪器等)发生的障碍或毛病。(기계나 기구 등이 발생한 장애나 문제.) <現漢: P472>

예문: 机器老了, 容易出故障。(기계가 오래돼서 고장나기 쉽다.) <BCC>

한국어 ‘고장(故障)’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106가)는 ‘기구나 기계’의 ‘장애’를 이르고 (106나)는 ‘사람의 몸’의 ‘탈’을 이른다. 따라서 한국어에는 ‘라디오가 고장나다’와 ‘머리가 고장나다’가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중국어 ‘故障’은 ‘기계나 기구’만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 (106가)의 의미와 일치한다. 즉 한국어 ‘고장(故障)’의 지시 대상의 영역이 중국어 ‘故障’보다 넓다.

(108) 한국어 ‘기능(機能)’

가. 의미: (명) 하는 구실이나 작용을 함. 또는 그런 것. <표준>

예문: a. 로봇 청소기는 자동청소 기능, 인터넷으로 제어하는 네트워킹 기능, 자기 위치 인식 기능, 소형카메라를 통해 가정 내부를 감시할 수 있는 보안 기능 등을 가지고 있다. <주간조선 1736호>

b. 이런 이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후 골반 기능 회복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성중앙21>

나. 의미: (명) 권한이나 직책, 능력 따위에 따라 일정한 분야에서 하는 역할과 작용. <표준>

예문: 환 거간은 자금을 알선하는 중간 역할뿐 아니라 그때그때의 금리의 시가를 정하는 기능까지도 겸했다. <표준>

#### (109) 중국어 ‘机能’

의미: (名) 细胞, 器官等的作用和活动能力。(세포와 기관 등의 구실이나 활동능력.) <現漢: P599>

예문: 生殖机能障碍。(생식기능 장애.) <BCC>

중국어 ‘机能’의 의미는 한국어 ‘기능(機能)’의 (108가)의 의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어에는 생리적인 구실만을 의미하지만 한국어는 그보다 의미의 지시대상의 영역이 훨씬 넓다. 예컨대 (108가a)의 ‘청소 기능’, ‘인식 기능’, ‘보안 기능’ 뿐만 아니라 (108가b)의 ‘골반 기능’도 가능하다. 중국어에서는 ‘生殖机能(생식기능)’과 같이 생리적인 기능만 지시하는 것과 달리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생리적인 기능을 포함한 구실이나 작용 외에, (108나)의 의미를 더 가지고 있는데 중국어 ‘职能(직능)’이라는 어휘의 일부 의미에 대응된다. 따라서 중국어 ‘机能’은 한국어 ‘기능(機能)’보다 지시 대상의 영역이 훨씬 작다고 볼 수 있다.

(110) 한국어 ‘기세(氣勢)’

가. 의미: (명) 기운차게 뻗치는 모양이나 상태. <표준>

예문: 그녀의 상냥함에 그의 기세가 누그러지는 것 같았다. <표준>

나. 의미: (명) 남에게 영향을 끼칠 기운이나 태도. <표준>

예문: 그는 조금도 양보할 기세가 없었다. <표준>

(111) 중국어 ‘氣勢’

의미: (名) (人或事物)表现出的某种力量和形势。(사람이나 사물이 나타나는 어떤 힘과 형세.) <現漢: P1033>

예문: 氣勢磅礴。(기세가 드높다.) <現漢: P1033>

한국어 ‘기세(氣勢)’는 “기운차게 뻗치는 모양이나 상태”라는 의미로 ‘당당한 기세’, ‘기세를 떨치다’와 같이 쓰여 중국어 ‘氣勢’의 “사람이나 사물이 나타나는 힘세고 기운찬 모양”이라는 의미와 같아 보인다. 그러나 한국어는 이 의미 외에도 “남에게 영향을 끼칠 기운이나 태도”라는 의미도 있는데 중국어 ‘架势’라는 말에 대응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어 ‘기세(氣勢)’의 의미 영역이 중국어 ‘氣勢’보다 넓게 나타난다.

(112) 한국어 ‘남자(男子)’

가. 의미: (명) 남성으로 태어난 사람. <표준>

예문: 한 젊은 남자가 가게 문을 밀고 들어왔다. <표준>

나. 의미: (명) 사내다운 사내. <표준>

예문: 그분이야 남자 중에 남자였지. <표준>

다. 의미: (명) 한 여자의 남편이나 애인을 이르는 말. <표준>

예문: 그녀는 아직 남자가 없다. <표준>

(113) 중국어 ‘男子’

의미: (名) 男性的人. (남성으로 태어난 사람.) <現漢: P936>

예문: 男子排球赛直播. (남자배구경기 생방송) <BCC>

한국어 ‘남자(男子)’가 ‘남자 화장실’, ‘남자 탈의실’의 “남성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고, ‘남자 중에 남자’, ‘남자다운 남자’의 “사내다운 사내”라는 의미가 있으며 ‘그녀는 아직 남자가 없다’의 “한 여자의 남편이나 애인”이라는 의미도 있다. 한국어 ‘남자’의 모든 의미에 대응될 수 있는 중국어 어휘는 ‘男人’이다. ‘남자 중에 남자(男人中的男人)’, ‘남자다운 남자(很男人的男人)’, 또한 ‘그녀는 아직 남자가 없다((她还没有男人)’과 같다. 단, ‘남자 화장실’, ‘남자 탈의실’은 ‘男人’을 쓰지 않고 ‘男’ 한 글자만 쓰여 여성과 구별하는데 ‘男洗手间’, ‘男换衣间’과 같다. 그런데 중국어 동자어 ‘男子’는 지시하는 대상의 영역은 한국어보다 좁은 것으로 보인다. 단지 여성과 구별할 때 글말에서 나타나는데 ‘男子排球赛(남자배구경기)’와 같이 경기 종목의 남녀 차이를 구별할 때 쓰이고, 또한 뉴스나 신문에서 ‘男子手术后失忆(남자가 수술 후 기억 상실)’라는 기사 제목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 이외로 나타나는 경우는 많지 않다.

(114) 한국어 ‘내일(來日)’

가. 의미: (명) 오늘의 바로 다음 날. <표준>

예문: 약속한 날이 내일이다. <표준>

나. 의미: (명) 다가올 앞날. <표준>

예문: 내일을 꿈꾸며 살아간다. <표준>

다. 의미: (명) 오늘의 바로 다음 날에. <표준>

예문: 오늘은 이만하고 내일 다시 시작합시다. <표준>

(115) 중국어 ‘来日’

의미: (名) 未来的日子, 将来。(앞날. 미래.) <現漢: P772>

예문: 來日方長。(앞날이 길다.) <現漢: P772>

한국어 ‘내일(來日)’은 “오늘의 바로 다음 날”이라는 의미로 명사와 부사로 두루 쓰이고 중국어 ‘明天’이라는 말에 대응된다. 그 외에, “다가올 앞날”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는 중국어 ‘來日’의 의미와 동일하다. 중국어 ‘來日’는 고어(古語)적인 표현으로 현대 중국어에서 ‘來日方長(앞날이 길다)’와 같은 사자성어에서만 나타날 정도로 사용빈도가 매우 낮다. 따라서 한국어 ‘내일(來日)’의 지시 대상의 영역이 중국어 ‘來日’보다 넓다.

고대 중국어 ‘來日’은 “오늘의 바로 다음 날”이라는 의미가 있었다.

#### (116) 고대 중국어 ‘來日’

가. 年皆過半百, 來日苦無多。-唐 韓愈《除官赴闕至江州寄鄂岳李夫人》  
(나이는 50세를 넘어서 앞날이 많지 않을 것이다. - 당 한유 《제관부궐지강주기악악이부인》)

나. 今日明, 來日又明, 若說兩明, 却是兩個日頭。-《朱子語類》卷七一  
(오늘은 내일 한다고 하고, 내일 또 내일 한다고 하며, 둘 다 내일이지만 태양 두 개다. - 《주자어류》 권71)

고대 중국어 ‘來日’는 (116가)와 같이 “앞날”이라는 의미도 있고, (116나)는 “오늘의 다음 날”이라는 의미도 있다. 그 중의 후자는 현대 중국어에 와서 소멸되었는데, 대신에 ‘明天’이라는 말이 새로 생겨서 ‘來日’의 소멸된 “오늘의 바로 다음 날”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게 된 것으로 본다.

#### (117) 한국어 ‘대가(代價)’

가. 의미: (명) 물건의 값으로 치르는 돈.

예문: 물품의 대가를 지불하다.

나. 의미: (명) 일을 하고 그에 대한 값으로 받는 보수.

예문: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다.

다. 의미: (명) 노력이나 희생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결과. 또는 일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하는 노력이나 희생.

예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이다.

(118) 중국어 ‘代价’

가. 의미: (名) 获得某种东西所付出的钱。(어떤 물건을 받는데 치르는 돈.) <現漢: P249>

예문: 买东西哪有不花代价的。(물건을 사는데 대가를 안 치를 리가 어디 있나.) <BCC>

나. 의미: (名) 为达到某种目的所耗费的物质或精力。(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모되는 물건이나 정력.) <現漢: P249>

예문: 用最小的代价办更多的事情。(최소한의 대가로 더 많은 일을 본다.) <現漢: P249>

‘대가(代價)-代价’는 “물건의 값으로 치르는 돈”이라는 기본의미를 지닌다. 한국어와 중국어에는 모두 이런 기본의미가 쓰인다. 그 외에, 한국어에는 (117나) “일을 하고 그에 대한 값으로 받는 보수”라는 의미도 가져 ‘노동의 대가’, ‘노력한 대가’와 같이 나타나는데 중국어 ‘回报’라는 말에 대응될 수 있지만 중국어 ‘代价’에는 이런 의미가 없다. 한편, 한국어에서는 (117다) ‘대가를 치르다’와 같이 나타나는데 이는 중국어 ‘付出代价’에 대응되어 중국어 (118나)와 일치한다. 따라서 한국어 ‘대가(代價)’는 중국어 ‘代价’보다 지시하는 대상이 더

많다.

(119) 한국어 ‘도구(道具)’

가. 의미: (명) 일을 할 때 쓰는 연장을 통틀어 이르는 말. <표준>

예문: 나는 일요일만 되면 낚시 도구를 챙겨 바다로 가곤 했다.  
<고려>

나. 의미: (명)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 <표준>

예문: 언어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이다. <고려>

(120) 중국어 ‘道具’

의미: (名) 演剧或摄制电影电视剧时表演用的器物。(연극하거나 영화나 드라마 촬영할 때 연기 용 기구.) <現漢: P270>

예문: 准备拍摄用的道具。(촬영할 때 쓰는 소품을 준비한다.) <BCC>

한국어 ‘도구(道具)’는 “일을 할 때 쓰는 연장”이라는 기본의미로 ‘낚시 도구’, ‘제설 도구’와 같이 나타나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라는 파생의미로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 ‘출세의 도구’와 같이 나타난다. 중국어 ‘道具’는 한국어 (119가)에 포함되어 “연극하거나 영화나 드라마 촬영할 때 연기용 기구”를 가리키는데 한국어의 ‘소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국어 ‘道具’가 지시하는 대상의 영역이 한국어보다 좁은 것이다.

(121) 한국어 ‘병원(病院)’

의미: (명) 병자(病者)를 진찰,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놓은 곳. <표준>

예문: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다. <표준>

(122) 중국어 ‘病院’

의미: (名) 专治某种疾病的医院。(전문적으로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병원.) <現漢: P96>

예문: 精神病院。(정신병원) <現漢: P96>

‘병원(病院)-病院’은 병자를 치료하는 곳으로서 한국어와 중국어는 같은 의미 범주에 있다. 단 중국어는 ‘精神病院(정신병원)’, ‘传染病院(전염병을 치료하는 의원)’과 같이 “전문적으로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병원”이라는 제한을 가지고 있어 지시 대상의 영역이 한국어보다 좁다.

(123) 한국어 ‘사고(事故)’

가. 의미: (명)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 <표준>

예문: 그분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 <표준>

나. 의미: (명) 사람에게 해를 입혔거나 말썽을 일으킨 나쁜 짓. <표준>

예문: 저놈은 허구한 날 사고만 내고 다닌다. <표준>

다. 의미: (명) 어떤 일이 일어난 까닭. <표준>

예문: 그가 결근한 사고를 알아보아라. <표준>

(124) 중국어 ‘事故’

의미: (名) 意外的损失或灾祸。(뜻밖에 일어난 손해나 재앙.) <現漢: P 1194>

예문: 交通事故频发地带。(교통사고 잦은 구역) <BCC>

(123가)한국어 ‘사고(事故)’는 중국어 ‘事故’의 의미와 일치하는데 ‘자동차 사고(汽车事故)’, ‘교통사고(交通事故)’와 같이 용법도 대응된다. 그 외에, 한국어 ‘사고’는 (123나)의 의미로 ‘사고를 치다’, ‘사고를 저지르다’로 나타나고 (123

다)의 의미로 ‘부득이한 사고’, ‘결근한 사고’와 같이 쓰이기도 한다. 이 두 의미는 중국어 ‘事故’에는 없다. 이에 한국어 ‘사고(事故)’는 지시하는 대상이 더 많으므로 그 의미 영역은 중국어 ‘事故’보다 넓은 것이다.

(125) 한국어 ‘성격(性格)’

가. 의미: (명)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나 품성. <표준>

예문: 그는 성격이 모가 나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 <표준>

나. 의미: (명) 어떤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이나 본성. <표준>

예문: 실학에는 근대 지향적인 성격이 있다. <표준>

(126) 중국어 ‘性格’

의미: (名) 在为人处世方面所表现出来的心理特点。(남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심리적인 특징.) <現漢: P1470>

예문: 性格内向。(성격이 내성적이다.) <BCC>

한국어 ‘성격(性格)’은 ‘성격이 쾌활하다’, ‘대범한 성격’과 같이 사람이 가지는 “고유의 성질이나 품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책의 성격’, ‘학교의 성격’, ‘실학의 성격’ 등과 같이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이나 본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따라서 한국어 ‘성격’은 사람, 사물 및 현상이 모두 그 지시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국어 ‘性格’는 ‘性格内向(내성적 성격)’, ‘性格暴躁(성질이 모질다)’ 등과 같이 그 지시 대상이 사람에만 해당되는데 “남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심리적인 특징”으로 풀이되며 한국어의 ‘성격’이나 ‘성질’에 대응될 수 있다.

(127) 한국어 ‘식당(食堂)’

가. 의미: (명) 건물 안에 식사를 할 수 있게 시설을 갖춘 장소. <표준>

예문: 그 회사 건물에는 넓은 직원 식당이 갖추어져 있다. <표준>

나. 의미: (명) 음식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파는 가게. <표준>

예문: 이 식당은 음식 가격도 저렴하지만 음식 맛이 좋아 늘 손님들로 북적인다. <표준>

(128) 중국어 ‘食堂’

의미: (名) 机关, 团体中供应本单位成员吃饭的地方。(기관이나 단체 중 내부 직원이 식사할 수 있게 마련한 곳.) <現漢: P1188>

예문: 每天下课后在食堂吃饭。(매일 수업 끝나고 학교식당에서 식사한다.) <BCC>

중국어 ‘食堂’은 ‘员工食堂’, ‘学校食堂’과 같이 쓰이는데 각각 한국어로 ‘직원식당’, ‘학교식당’에 해당된다. 따라서 한국어 (127가)는 중국어 의미와 같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 한국어는 “음식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파는 가게”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런 의미로 쓰인 ‘식당(食堂)’은 중국어 ‘餐厅’이나 ‘饭店’이라는 말에 대응된다. 따라서 한국어에서는 한정된 ‘건물 안’의 ‘식당’과 모든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을 아울러 이르는 반면에, 중국어에서는 한정된 ‘건물 안’의 ‘식당’만 이른다. 이에 한국어에서 지시 대상의 영역이 중국어보다 넓다.

(129) 한국어 ‘신랑(新郎)’

가. 의미: (명) 갓 결혼하였거나 결혼하는 남자. <표준>

예문: 혼인날 신랑을 구경하려고 많은 마을 사람이 모여 들었다.  
<표준>

나. 의미: (명) 신혼 초의 남편을 이르는 말. <표준>

예문: 새댁 신랑은 가정적이다. <표준>

(130) 중국어 ‘新郎’

의미: (名) 结婚时的男子。(결혼하는 남자.) <現漢: P1458>

예문: 那女子结婚了, 新郎不是他。(그녀가 결혼을 했는데 신랑은 그가 아니었다.) <BCC>

한국어 ‘신랑(新郎)’은 “갓 결혼하였거나 결혼하는 남자”와 “신혼 초의 남편”을 이르는 말이다. 현대 중국어 ‘新郎’은 결혼식에서 결혼하는 남자만을 가리킨다. 한국어 ‘신랑(新郎)’의 의미보다 지시 대상의 영역이 좁은 것이다. 한국어 ‘신랑’의 의미 영역이 넓은 것은 근대의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131) 『현대 한국어로 보는 한불사전』 (P.751)의 ‘신랑’

신랑 [SIN-RANG, -l] (新郎)

불 : Le scrotum, les bourses.

한 : 약혼자. 새신랑. 결혼할 젊은이

위와 같이 19세기에 ‘신랑’은 “약혼자, 새신랑, 결혼할 젊은이”를 가리켜 결혼하기 전에도 ‘신랑’이라고 하였다. 현대 한국어에 와서는 ‘신혼 초의 남편’도 ‘신랑’이라 부르게 되었다.

(132) 한국어 ‘애정(愛情)’

가. 의미: (명) 사랑하는 마음.

예문: a.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점에 큰 애정을 가지고 있다. <표준>

b. 옛 그림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찬찬히 살펴보면서, 그 속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끄집어내 보여준다. <조선일보 2003년 기사: 문화>

나. 의미: (명) 남녀 간에 서로 그리워하는 마음. 또는 그런 일. <표준>

예문: 그들은 직장 동료로 만나서 서로 애정을 느끼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표준>

(133) 중국어 ‘爱情’

의미: (名) 男女相爱的感情.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 <現漢: P5>

예문: 这爱情故事让人感动. (이 사랑 이야기는 감격스럽다.) <BCC>

중국어 ‘爱情’은 한국어 ‘애정(愛情)’과 대조해 보면 그 의미 영역이 작다. 중국어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만 가리키지만 한국어에서는 이런 의미 외에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의미로 ‘서점에 대한 애정’, ‘그림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살펴보다’ 등 표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나 사물을 대상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국어 ‘애정(愛情)’은 지시 대상의 영역이 중국어 ‘爱情’보다 넓다고 할 수 있다.

(134) 한국어 ‘인연(因緣)’

가. 의미: (명)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 <표준>

예문: 그 여자의 생명을 구해 준 인연으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표준>

나. 의미: (명) 어떤 사물과 관계되는 연줄. <표준>

예문: 권력과는 인연이 없다. <표준>

다. 의미: (명) 일의 내력 또는 이유. <표준>

예문: 인화가 그 괴인을 놓아 보낸 것이라 하면 인화는 무슨 인연으로 그런 일을 하였나? <표준>

(135) 중국어 ‘因缘’

의미: (名) 缘分. (인연.) <現漢: P1559>

예문: 这也是因缘, 两人在这偏僻的山区又相遇了。(인연으로 두 사람이 외진 지역에서 또 만났다.) <BCC>

중국어 ‘因缘’은 “缘分”으로 뜻풀이되는데 ‘缘分’은 “사람들 사이 또는 사람과 사물 사이에 관계가 맺어지는 가능성”이라는 뜻이다. 한국어 ‘인연(因緣)’은 (134가)의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 및 (134나)의 “어떤 사물과 관계되는 연줄”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모두 중국어 ‘因缘’의 의미에 내포된다고 본다. 즉 한국어 (134가)와 (134나)는 중국어 ‘因缘’의 의미와 일치하는 것이다. ‘권련과의 인연’과 ‘与权利的因缘’, ‘두 사람의 인연’과 ‘二人的因缘’이 대응되는 것처럼 용법도 일치한다. 한국어 ‘인연’은 이 두 의미 외에 “일의 내력 또는 이유”라는 의미도 있는데 ‘무슨 인연으로 그 일을 했을까’와 같이 많이 쓰이는데 중국어에는 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 ‘인연(因緣)’이 지시하는 대상이 더 많으므로 의미의 영역이 중국어 ‘因缘’보다 더 넓다.

(136) 한국어 ‘주문(注文)’

가. 의미: (명) 어떤 상품을 만들거나 파는 사람에게 그 상품의 생산이나 수송,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청구함. 또는 그 요구나 청구. <표준>

예문: 손님의 주문에 따라 점원은 여러 색깔의 손수건을 대여섯 장 진열대 위에 올려놨다. <표준>

나. 의미: (명)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부탁함. 또는 그 요구나 부탁. <표준>

예문: 주인 부부는 그때까지도 내게 아무런 주문도 해 오지 않았다. <표준>

(137) 한국어 ‘주문(注文)’

의미: (명) 문장 따위에 주(註)를 붙여 쉽게 풀이한 글. <표준>

(138) 중국어 ‘注文’

의미: (名) 注释的文字。(주석한 글.) <現漢: P1715>

예문: 古代典籍注文不足, 很难理解。(고전은 주석한 글이 부족하여 이해하기가 힘들다.) <BCC>

한국어 ‘주문’은 동음이의어로서 ‘주문(注文)’과 ‘주문(註文)’이 있다. 이에 대응하는 중국어 동자어는 ‘注文’인데 이는 현대 중국어의 간략화에 따라 본래 자형이 다른 ‘注’와 ‘註’는 한 글자 ‘注’로 합치게 된 것이다. 중국어 ‘注文’이 지시하는 대상이 한국어 ‘주문(注文)’과 ‘주문(註文)’보다 적으므로 의미 영역이 더 좁다.

한국어 ‘주문(注文)’의 두 의미는 중국어 ‘注文’과 다르지만 한국어 ‘주문(註文)’의 의미는 중국어와 동일하다. 이는 현대 중국어 ‘注文’이 간체화되기 전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의미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註’자는 “用文字解释词句(글로 단어나 문장을 해석하다)”라는 의미이고, ‘注’자는 “注入(주입하다. 부어 놓다)”라는 의미이다. 현대 중국어 ‘注文’은 “주석한 글”을 가리키기 때문에 간체화되기 전의 자형은 ‘注文’이 아니라 ‘註文’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 ‘주문(註文)’의 의미와 같지만 ‘주문(注文)’과 다르다. 이와 같이 ‘주문(注文)·주문(註文)-注文’의 한·중 의미 차이는 중국어의 한자 간략화와 관련해서 추측해 볼 수도 있다.

(139) 한국어 ‘평일(平日)’

가. 의미: (명) 특별한 일이 없는 보통 때. 평상시. <표준>

예문: 인민들은 모두 다 고향으로 찾아들어서 평일과 같이 농사를 짓고 태평한 살림을 누리게 되었다. <표준>

나. 의미: (명)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아닌 보통 날. <표준>

예문: 이 가게는 평일보다 주말에 손님이 많다. <표준>

(140) 중국어 ‘平日’

의미: (名) 一般的日子(区别于特定的时候或特指的日子)。(보통의 날. 특별한 날이나 특정한 날과 구별된다.) <現漢: P1007>

예문: 平日他总在六点左右到家。(그는 평상시에는 늘 6시쯤에 집에 온다.) <BCC>

‘평일(平日)-平日’는 한국어와 중국어가 일치하는 의미는 (139가)와 (140)이다. 즉 “평상시”라는 의미는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모두 쓰인다. 단, 중국어에서는 글말에서 주로 나타날 뿐이다. 이런 공통된 의미 외에, 한국어는 “주말, 공휴일이 아닌 보통 날”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평일보다 주말에 손님이 많다’와 같이 나타난다. 이에 한국어 ‘평일(平日)’의 지시 대상이 중국어 ‘平日’보다 많다.

#### 4.2.1.2. 지시 행위·상태의 차이

한국어에서 지시하는 행위나 상태가 중국어보다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어휘는 아래와 같다.

(141) 감격(感激)-感激, 검색(檢索)-检索, 내정(內定)-内定, 무리(無理)-无理, 반대(反對)-反对, 상관(相關)-相关, 시험(試驗)-试验, 원만(圓滿)-圆满, 응원(應援)-应援, 절실(切實)-切实

(142) 한국어 ‘감격(感激)’

가. 의미: (명) 마음에 깊이 느끼어 크게 감동함. 또는 그 감동. <표준>

예문: 우승의 감격을 맛보았다. <표준>

나. 의미: (명) 고마움을 깊이 느낌. <표준>

예문: 작은 친절에도 고마워하고 감격까지 하니 기분이 묘하다.  
<표준>

(143) 중국어 ‘感激’

의미: (动) 因对方的好意或帮助而对他产生好感。(상대방의 호의나 도움으로 호감이 생기다. ≍ 감격하다.) <現漢: P424>

예문: 非常感激你给我的帮助。(당신이 저에게 주신 도움에 감격한다.)  
<現漢: P424>

한국어 ‘감격(感激)’은 “고마움을 깊이 느낌”이라는 의미로 중국어 ‘感激’의 의미와 일치한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다’는 중국어 ‘留下了感激的眼泪’라는 표현에 대응되기도 한다. 한국어는 이런 의미 외에, “마음에 깊이 느끼어 크게 감동함. 또는 그 감동”이라는 의미로 ‘우승의 감격’, ‘해방의 감격’으로 나타나는데 중국어 ‘激动’이라는 어휘에 대응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어에서는 ‘고마운 느낌’과 ‘감동’이라는 대상이나 행위를 지시하지만 중국어에서는 전자만 지시하므로 한국어의 사용 영역이 더 넓다는 것이다.

(144) 한국어 ‘검색(檢索)’

가. 의미: (명) 범죄나 사건을 밝히기 위한 단서나 증거를 찾기 위하여 살펴 조사함. <표준>

예문: 경찰은 도주범을 색출하느라 검문과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고려>

나. 의미: (명) 책이나 컴퓨터에서, 목적에 따라 필요한 자료들을 찾아

내는 일. <표준>

예문: 이 프로그램은 음절 단위뿐만 아니라 음소 단위의 검색도 가능하다. <표준>

(145) 중국어 ‘检索’

의미: (动) 查检寻找(资料, 图书等)。 (자료나 책 등을 검색하고 찾다.)

<現漢: P635>

예문: 资料按音序排列, 便于检索。 (자료가 음운 순서로 배열하면 검색하기가 편하다.) <現漢: P635>

한국어 ‘검색(檢索)’은 (144나)의 의미로 ‘자료 검색’, ‘파일 검색’과 같이 쓰여 중국어 ‘检索’의 의미와 일치하고 중국어 ‘资料检索’, ‘文件检索’와 같은 용법도 대응된다. 그 외에, 한국어에서는 ‘검색에 걸리다’, ‘검색을 당하다’와 같이 쓰여 법적인 ‘조사함’이라는 행위를 가리키기도 한다. 이는 중국어 ‘搜查’라는 말에 대응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검색(檢索)’이 지시하는 행위가 중국어 ‘检索’보다 많은 것이다.

(146) 한국어 ‘내정(內定)’

가. 의미: (명)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정함. <표준>

예문: 각자 자기 마음속의 내정 인물을 종이에 써서 내시오. <표준>

나. 의미: (명) 정식 발표가 나기 전에 이미 내부적으로 인사를 정함. <표준>

예문: 김 의원은 상임 위원장 내정에서 밀렸다. <표준>

(147) 중국어 ‘內定’

의미: (动) 在内部决定(多指人事安排)。 (내부에서 결정되다. 인사 안배

를 많이 가리킨다.) 〈現漢: P943〉

예문: 出场队员已经内定了。(출장할 대원이 이미 내정되었다.) 〈現漢: P943〉

한국어 ‘내정(內定)’의 기본의미는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정함”인데 ‘내정 인물’이라는 표현은 중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한국어 (146나)의 “정식 발표가 나기 전에 이미 내부적으로 인사를 정함”이라는 의미는 중국어 ‘內定’의 의미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고 ‘후임 내정-內定候选人’과 같이 그 용법도 대응된다. 따라서 한국어 ‘내정(內情)’이 지시하는 행위가 중국어 ‘內定’보다 많아 보인다.

(148) 한국어 ‘무리(無理)’

의미: (명) 도리나 이치에 맞지 않거나 정도에서 지나치게 벗어남. 〈표준〉

예문: a. 그렇게 화를 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표준〉

b. 너무 오래 가동시켰더니 차의 엔진에 무리가 갔다. 〈표준〉

c. 그건 내 능력으로는 무리이다. 〈표준〉

(149) 중국어 ‘无理’

의미: (动) 没有道理。(이치에 맞지 않다.) 〈現漢: P1383〉

예문: a. 拒绝客人的无理要求。(손님의 이치에 맞지 않은 요구를 거절한다.) 〈BCC〉

b. 无理取闹。(이유 없이 소란을 피운다.) 〈現漢: P1383〉

중국어 ‘无理’는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의미인데 현대어에서는 소수의 문맥에서 나타난다. 주로 ‘无理取闹(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다)’, ‘蛮横无理(무지막지

하다)’와 같은 사자성어로 굳어진 표현으로 사용되고, ‘无理要求(이치에 맞지 않은 요구)’와 같이 다른 명사를 수식하여 쓰이기도 한다. 한국어 ‘무리’는 중국어와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어 보인다. “도리나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의미로 (148a)와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정도에서 지나치게 벗어남”이라는 의미로 (148b, c)와 같이 나타난다. 그리고 후자의 의미는 중국어 ‘无理’가 가지지 않는 의미이다. 한국어 ‘무리(無理)’가 지시하는 상태가 중국어와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더 많은 것이다.

(150) 한국어 ‘반대(反對)’

가. 의미: (명) 두 사물이 모양, 위치, 방향, 순서 따위에서 등지거나 서로 맞섬. 또는 그런 상태. <표준>

예문: 집 방향의 반대로 간다. <표준>

나. 의미: (명) 어떤 행동이나 견해, 제안 따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맞서 거스름. <표준>

예문: 그는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진학을 포기했다. <표준>

(151) 중국어 ‘反对’

의미: (动) 提出否定的意见; 不赞成; 不同意。(부정하는 의견을 제기하다. 찬성하지 않다. 동의하지 않다.) <現漢: P361>

예문: 有反对的意见没有?(반대하는 의견이 있나?) <現漢: P361>

한국어 ‘반대(反對)’는 ‘반대 방향’, ‘반대로 돌다’로 나타날 때는 (150가)의 의미로 중국어 ‘相反’이라는 말에 대응될 수 있지만 중국어 ‘反对’는 이런 의미가 없다. (150나) “어떤 행동이나 견해, 제안 따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맞서 거스름”이라는 의미는 중국어 ‘反对’의 “찬성하지 않다. 동의하지 않다”라는 의미와 일치하고 ‘부모님의 반대’라는 표현은 ‘父母的反对’라는 표현에 대응되듯이

그 용법도 일치한다. 이와 같이 한국어 ‘반대’가 지시하는 행위는 중국어보다 많다고 볼 수 있다.

(152) 한국어 ‘상관(相關)’

가. 의미: (명) 서로 관련을 가짐. 또는 그런 관계. <표준>

예문: 읍내에서 어떤 사고가 나든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표준>

나. 의미: (명) 남의 일에 간섭함. <표준>

예문: 그녀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상관을 하지 않겠다. <표준>

(153) 중국어 ‘相关’

의미: (动) 彼此关联, 有关系。(서로 관련을 가지거나 관련성이 있다.)  
<現漢: P1428>

예문: 体育事业和人民健康密切相关。(체육 사업은 인민의 건강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現漢: P1428>

한국어 ‘상관(相關)’의 “서로 관련을 가짐, 또는 그런 관계”라는 의미는 중국어 ‘相关’과 같다. 그러나 ‘밀접히 상관되다’는 ‘密切相关’과의 대응이 가능하지만 ‘나와 상관 없다’라고 할 때는 중국어 ‘关系’라는 말에 더 적합해 ‘与我没有关系’로 옮기지 ‘与我没有相关’은 비문이다. 중국어 ‘相关’은 동사이어서 명사로 쓰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상관(相關)-相关’은 의미는 같지만 언어 관계, 또는 나타나는 문맥이 다른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그 외, 한국어 ‘상관’은 “남의 일에 간섭함”이라는 행위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상관 하지 마’와 같이 쓰인다. 이때 중국어 ‘干涉’ 또는 ‘管’이라는 말에 대응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상관(相關)’은 지시하는 행위가 중국어 ‘相关’보다 많다.

(154) 한국어 ‘시험(試驗)’

가. 의미: (명)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 <표준>

예문: 그는 같은 시험에서 벌써 네 번째 떨어졌다. <고려>

나. 의미: (명) 사물의 성질이나 기능을 실지로 증험(證驗)하여 보는 일. <표준>

예문: 1877 년에 첫 글라이더를 만들어 시험 비행과 연구를 거듭한 끝에 곡면 날개가 평면 날개보다 유효한 것을 발견하였다. <계몽사학생백과사전(CD판)>

다. 의미: (명) 사람의 됄됨이를 알기 위하여 떠보는 일. 또는 그런 상황. <표준>

예문: 감히 네가 나를 시험에 들게 하다니. <고려>

(155) 중국어 ‘试验’

의미: (动) 为了察看某事的结果或某物的性能而从事某种活动。(어떤 일의 결과나 어떤 물건의 성능을 살피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한다.)  
<現漢: P1196>

예문: 新办法试验后推广。(새로운 방법은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보급한다.) <現漢: P1196>

한국어 ‘시험(試驗)’은 세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는 반면, 중국어 ‘试验’은 하나의 의미만 가지고 있다. “시험 비행”은 “试验飞行(또는 飞行试验)”에 대응되듯이 중국어 ‘试验’의 의미는 한국어 (154나)와 일치한다. 그 외에, 한국어 ‘시험’이 ‘입사 시험’, ‘수능 시험’과 같이 쓰이는 의미는 중국어에는 없고 ‘考試’라는 말에 대응된다. 또한 한국어에는 ‘사람을 시험하다’와 같이 (154다) “사람의 됄됨이를 알기 위하여 떠보는 일”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중국어 ‘试验’에는 없는

의미이고 흔히 ‘考驗’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시험(試驗)-试验’은 한국어에서 지시하는 행위가 중국어보다 많다.

‘시험에 떨어지다’와 ‘시험 문제’의 ‘시험’은 한국어에서 흔히 쓰이는 의미이지만 현대 중국어에는 없다. 그러나 고대 중국어에서는 한국어 (154가)에 해당되는 의미가 나타났다.

(156) 고대 중국어 ‘試驗’

是時，劉晏年八歲，獻東封書，上覽而奇之，命宰相出題，就中書試驗。－唐 鄭棨《開天傳信記》(이때, 유안이 팔세이며 동봉서를 바쳤더니 잇사람이 이를 보고 놀라우며 재상으로 하여금 출제하게 하여서 그를 중서 시험에 참석하게 하였다. -당 정계 《개천전신기》)

위의 예에 나타난 ‘試驗’은 “고시”라는 의미이다. 이런 의미는 현대 중국어에서 소멸되었다.

(157) 한국어 ‘응원(應援)’

가. 의미: (명) 운동 경기 따위에서, 선수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노래, 손뼉치기 따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표준>

예문: 양교 학생들의 응원 소리가 운동장에 진동한다. <고려>

나. 의미: (명) 곁에서 성원함. 또는 호응하여 도와줌. <표준>

예문: 아군은 적군을 치려고 동맹국의 응원까지 얻어 군사 십만을 동병하였다. <표준>

(158) 중국어 ‘应援’

의미: (动) (军队)接应。((군대가) 지원해 주다.) <現漢: P1575>

예문: 友軍前來應援。(우군이 와서 응원해 준다.) <BCC>

한국어 ‘응원(應援)’은 흔히 (157가)의 의미로 나타나는데 ‘응원 소리’, ‘응원을 보내다’와 같이 쓰이고 중국어 ‘助威’나 ‘加油라’는 말에 대응되는데 ‘應援’은 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곁에서 성원함. 또는 호응하여 도와줌”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응원 부대’, ‘응원을 얻다’와 같이 나타나 중국어 ‘應援’의 “지원해 주다”라는 의미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중국어에서는 주로 군대에서 적용되어 ‘友軍的應援(우군의 응원)’과 같이 쓰이는데 이는 한국어 (157나)의 “호응하여 도와줌”이라는 의미와 일치한다. 이에 한국어 ‘응원(應援)’은 중국어 ‘應援’보다 지시하는 행위가 더 많아 보인다.

한편,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지시하는 상태가 다른 동자이의어는 아래와 같이 살펴보겠다.

(159) 한국어 ‘원만(圓滿)’

‘원만하다’의 어근.

가. 의미: (형) 성격이 모난 데가 없이 부드럽고 너그럽다. <표준>

예문: 그는 성격이 원만해서 친구가 많다. <표준>

나. 의미: (형) 일의 진행이 순조롭다. <표준>

예문: 일을 원만하게 처리한다. <표준>

다. 의미: (형) 서로 사이가 좋다. <표준>

예문: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 <표준>

(160) 중국어 ‘圓滿’

의미: (形) 沒有缺欠、漏洞, 使人滿意。(모자람과 빈틈이 없다. 만족하게 하다.) <現漢: P1612>

예문: 會議圓滿結束。(회의가 원만하게 마쳤다.) <現漢: P1612>

한국어 ‘원만(圓滿)’은 형용사 ‘원만하다’의 어근인데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 ‘원만한 성품’과 같이 나타난 (159가), ‘일을 원만하게 처리하다’의 (159나), 그리고 ‘원만한 부부생활’과 같이 나타난 (159다)이다. 중국어 ‘圓滿’은 주로 ‘圓滿的答案(원만한 답안)’, ‘圓滿的結局(원만한 결말)’과 같이 결과물의 성격을 띤 명사 ‘答案’이나 ‘結局’ 등을 수식한다. 한국어 (159나)는 중국어 ‘圓滿’의 의미와 일치한다. “일을 원만하게 처리하다”는 ‘事情处理得很圆满’과, ‘원만한 합의’는 ‘圆满协议’와 같이 그 연어 관계도 같다. 일치하는 의미 외에 한국어에서는 (159가)와 (159다)의 의미를 더 가지고 있으므로 한국어 ‘원만’은 지시하는 상태가 중국어 ‘圓滿’보다 많다.

한편, 19세기에 ‘원만’의 의미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61) 『현대어로 보는 한불사전』 (P.922)의 ‘원만’

원만 [OUEN-MAN] (圓滿)

불 : Rempli, plein(se dit de la lune)

한 : 가득 차다, 가득하다(달에 대해 쓴다)

19세기의 의미는 중국어의 “모자람과 빈틈이 없다”라는 의미와 비슷하다. 하지만 현대 한국어에는 이런 의미가 소멸되었다. 즉 근대 한국어 ‘원만’의 의미가 사라졌고 현대에 와서 새로운 의미들이 생성되었다고 추정된다.

(162) 한국어 ‘절실(切實)’

‘절실하다’의 어근.

가. 의미: (형) 느낌이나 생각이 뼈저리게 강렬한 상태에 있다. <표준>

예문: 그는 배우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절실했다. <표준>

나. 의미: (형) 매우 시급하고도 긴요한 상태에 있다. <표준>

예문: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술의 첨단화가 절실하다.

<표준>

다. 의미: (형) 적절하여 실제에 꼭 들어맞다. <표준>

예문: 절실한 표현. <표준>

(163) 중국어 ‘切实’

의미: (形) 切合实际, 实实在在。(실제에 맞다.) <現漢: P1055>

예문: 切实地做好工作。(일을 실제에 맞게 잘 한다.) <現漢: P1055>

한국어 ‘절실(切實)’은 형용사 ‘절실하다’의 어근이다. ‘절실하다’는 세 개의 의미를 가지는데 중국어 ‘切实’는 하나의 의미만 가진다. 그 중에서 “실제에 들어맞다”라는 의미가 한국어와 중국어의 공통적인 의미로 보인다. ‘절실한 표현’은 ‘切实的表现’으로, ‘절실한 방법’은 ‘切实的办法’과의 용법 대응도 가능하다. 그 외에, 한국어 ‘절실하다’는 ‘절실한 그리움’, ‘절실한 눈빛’의 “느낌이나 생각이 뼈저리게 강렬한 상태에 있다”라는 의미와 ‘절실한 과제’처럼 “매우 시급하고도 긴요한 상태에 있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절실(切實)-切实’는 지시하는 상태가 중국어보다 한국어가 더 많은 것이다.

#### 4.2.1.3. 의미 확장 양상의 차이

“모든 언어, 모든 단어는 제각기의 뜻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어떤 단어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를 基本意味라 한다. 그리고 이 기본의미로부터 인간의 言語行爲를 통해 새로운 의미가 사회적 약속의 기반 위에서 형성하는데, 이 새로이 획득되는 의미를 派生意味라고 한다(유승국 2012:35).” 그러나 다의어의 여러 의미 중에 어떤 의미를 기본의미로 볼 것인가라는 문제

가 따른다. 본고에서는 동자어의 기본의미에 대한 판정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뜻풀이를 참고하기로 한다.<sup>37)</sup> 한·중 동자어는 중국어에서는 기본의미만 가지고 한국어에서는 기본의미와, 이 기본의미에서 파생된 파생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고, 중국어에서는 파생의미만 쓰이고 한국어에서는 기본의미와 파생의미가 모두 쓰이는 경우가 있으며, 두 언어에서 모두 기본의미를 사용하지 않고 파생의미만 사용하는데 중국어에서 파생된 의미의 수가 한국어보다 적은 경우가 있다. 이 세 가지의 경우를 한·중 의미 확장 양상의 차이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어휘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64) 독물(毒物)-毒物, 내용(內容)-内容, 선수(選手)-选手,  
양보(讓步)-让步, 자세(姿勢)-姿势, 측면(側面)-側面

위와 같은 동자어의어들은 앞 절의 의미의 지시 대상·행위·상태의 차이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한 차이보다는 기본의미와 파생의미의 의미 확장의 양상 차이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 보인다. 한 조의 동자어의어 의미 차이가 다른 것은 여러 측면에서 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물(毒物)-毒物’는 한국어에 “독이 들어 있는 물질”과 “성미가 악독한 사람이나 짐승”이라는 두 의미를 가지나 중국어는 “독이 들어 있는 물질”이라는 하나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한국어의 지시 대상의 범위가 더 많다는 의미 차이 양상으로 파악해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한국어 두 의미의 관계를 보면 후자는 전자의 의미에서 파생된 의미로 볼 수 있다. 이 두 의미의 연계성을 가지고 중국어와 대조한 결과, 한국어의 의미 확장으로 인하여 한중 의미 차이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 차이의 양상은 지시 대상의 차이 양상보다 더 두드러지고 특징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하의 동자어의어는 이러한 양상으로 살펴보겠다.

37)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뜻풀이에는 다의어인 경우 대다수의 어휘에 기본의미가 표시되어 있다.

(165) 한국어 ‘내용(內容)’

가. 의미: (명) 그릇이나 포장 따위의 안에 든 것. <표준>

예문: 선생님께서 가방의 내용을 검사하셨다. <표준>

나. 의미: (명) 사물의 속내를 이루는 것. <표준>

예문: 형식과 내용이 조화를 이룬다. <고려>

다. 의미: (명) 말, 글, 그림, 연출 따위의 모든 표현 매체 속에 들어 있는 것. 또는 그런 것들로 전하고자 하는 것. <표준>

예문: 나는 그 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겠다. <표준>

라. 의미: (명) 어떤 일의 내막. <표준>

예문: 소문에서 사실의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고려>

(166) 중국어 ‘內容’

의미: (名) 事物内部所含有的实质或存在的情况。(사물 내부의 본질이나 실재의 상황.) <現漢: P945>

예문: 这次谈话的內容牽涉的面很广。(이번 담화의 내용은 영향을 미치는 면이 매우 넓다.) <現漢: P945>

한국어 ‘내용(內容)’은 (165가)의 의미가 기본의미이고 ‘상자의 내용’, ‘선물 꾸러미의 내용’, ‘내용물’과 같이 나타나며 중국어로는 ‘內裝物品’에 해당한다. 중국어 ‘內容’은 이런 기본의미로 쓰이지 않고 “사물 내부의 본질이나 실재의 상황”을 이르는데 ‘通話內容(통화 내용)’이나 ‘談話內容(담화 내용)’과 같이 쓰여 한국어 (165나)와 (165다)에 대응된다. ‘生產要素的內容-생산 요소의 내용’, ‘預算的內容和規模-예산의 내용과 규모’와 같이 한국어 “사물의 속내를 이루는 것”이라는 의미의 용법에 대응되기도 하고, ‘信的內容-편지의 내용’, ‘演說的內容-연설의 내용’, ‘報道的具體內容-기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같이 한국어 (165

다)의 용법에 대응되기도 한다. 한편, 한국어 (165라)와 같이 “어떤 일의 내막”이라는 의미도 가져 ‘사건의 자세한 내용’과 같은 문맥에서 쓰이기도 한다. 이와 같이 한국어 ‘내용(內容)’은 중국어 ‘內容’이 가지고 있지 않는 기본의미로도 쓰이고 파생의미도 중국어보다 많으므로 한중 의미의 확장 양상에 의한 차이로 본다.<sup>38)</sup>

(167) 한국어 ‘선수(選手)’

가. 의미: (명) 운동 경기나 기술 따위에서, 기량이 뛰어나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대표로 뽑힌 사람. 또는 스포츠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 <표준>

예문: 그는 기술 올림픽에 선수로 출전하였다. <표준>

나. 의미: (명) 어떤 일을 능숙하게 하거나 버릇으로 자주 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표준>

예문: 그는 자취 생활 삼 년에 빨래하는 데도 선수가 되었다. <표준>

(168) 중국어 ‘选手’

의미: (名) 被选参加体育比赛的人。(대표로 뽑혀 운동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 <現漢: P1486>

예문: 我中学还是长跑选手。(나는 중학교 때 장거리 경주 선수였다.) <BCC>

중국어 ‘选手’는 “대표로 뽑혀 운동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이는 한국어 (167가)의 의미와 대조해 보면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에는 이런 의미 외에 “스포츠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이르기도 하는데 이

38) 한편, 한국어 ‘내용’이 구체적인 대상과 추상적인 대상을 모두 가리키는데 중국어 ‘內容’은 추상적인 것만 가리킨다는 점을 봤을 때, 한·중 지시 대상의 차이로 볼 수도 있다.

때 중국어 ‘选手’가 아니라 ‘运动员’에 대응된다. 한편, 한국어는 (167나)와 같이 “어떤 일을 능숙하게 하거나 버릇으로 자주 하는 사람”을 ‘선수’라고 하는데 이는 (167가)의 의미에서 파생된 의미로 보인다. 이와 같은 파생적인 의미는 중국어에서 쓰이지 않으므로 중국어의 의미영역이 한국어보다 훨씬 많이 좁은 것이다.<sup>39)</sup>

(169) 한국어 ‘양보(讓步)’

가. 의미: (명) 길이나 자리, 물건 따위를 사양하여 남에게 미루어 줌.

〈표준〉

예문: 난 앞에 서 있던 사람의 양보로 먼저 택시를 타고 허겁지겁 공항에 도착했다. 〈고려〉

나. 의미: (명) 자기의 주장을 굽혀 남의 의견을 좇음. 〈표준〉

예문: 그는 자기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에 한 치의 양보가 없었다.

〈표준〉

다. 의미: (명) 남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희생함. 〈표준〉

예문: 저자들은 항상 백성들의 양보를 굴종으로 보고 예절을 아침으로밖에는 볼 줄 모르는 놈들입니다. 〈표준〉

(170) 중국어 ‘让步’

의미: (动) 在争执中放弃自己的意见或利益。(논쟁에서 자기의 의견이나 이익을 포기하다.) 〈現漢: P1092〉

예문: 在原则问题上决不让步。(원칙적인 문제에 있어서 결코 양보하지 않는다.) 〈現漢: P1092〉

한국어 ‘양보(讓步)’의 “길이나 자리, 물건 따위를 사양하여 남에게 미루어

39) 한편, 한국어 ‘선수’가 체육 ‘선수’ 말고 어떤 일을 능숙하게 하는 사람도 이르는 것은 중국어 ‘选手’보다 지시 대상이 많은 것이다. 따라서 이는 지시 대상의 차이로 봐도 된다.

춤”이라는 의미는 한·중 ‘양보(讓步)-让步’의 공통적인 기본의미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어에서는 이러한 기본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없어지고,<sup>40)</sup> 파생의미만 쓰이고 있다. 즉 “논쟁에서 자기의 의견을 포기하다”라는 의미이다. 중국어의 이런 의미는 한국어 (169나)의 의미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한국어 ‘양보’는 “남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함”이라는 파생의미도 있는데 (169나)만큼 많이 쓰이는 의미는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양보(讓步)-让步’는 한국어에서 기본의미와 파생의미가 모두 쓰이는 반면에, 중국어에서는 한국어의 파생의미 중 일부만 사용되고 있다.<sup>41)</sup>

(171) 한국어 ‘자세(姿勢)’

가. 의미: (명) 몸을 움직이거나 가누는 모양. <표준>

예문: 잘못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굽는다. <표준>

나. 의미: (명) 사물을 대할 때 가지는 마음가짐. <표준>

예문: 학생 본연의 자세로 돌아간다. <표준>

(172) 중국어 ‘姿勢’

의미: (名) 身体呈现出的样子。(신체가 나타나는 모양.) <現漢: P1731>

예문: 她跳舞的姿势很优美。(그녀가 춤추는 자세가 우아하고 아름답다.) <BCC>

한국어 ‘자세(姿勢)’의 (171가) 의미는 중국어 ‘姿勢’ (172)와 일치한다. 예를 들어, ‘잘못된 자세’는 ‘错误的姿势’라고 하고 ‘跳舞的姿势’는 ‘춤추는 자세’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한국어와 중국어의 의미와 용법은 완전히 대응된다. 일치된 의미 외에 한국어에서는 (171나)의 “사물을 대할 때 가지는 마음자세”라는 의미

40) 중국어에서는 이런 기본의미로 쓰일 때는 ‘让’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예컨대 ‘자리 양보’는 ‘让座’라고 한다.

41) 그리고 한국어 ‘양보’가 지시하는 행위가 중국어 ‘让步’보다 많기 때문에 이는 지시 행위의 차이로 볼 수도 있다.

를 더 가지고 있는데 ‘정신 자세’, ‘학자로서의 자세’ 등과 같이 나타난다. 이런 의미는 (171가)의 기본의미에서 파생된 의미로 보인다. 이런 의미는 중국어 ‘姿忞’라는 말에 대응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는 기본의미와 파생된 의미가 모두 쓰이므로 중국어의 의미영역보다 넓다.<sup>42)</sup>

(173) 한국어 ‘측면(側面)’

가. 의미: (명) 옆면. <표준>

예문: 미관과 측면 보호를 위해 기둥에 외측 마감캡을 끼운다. <월간 하우스피씨 98년 6월호>

나. 의미: (명) 사물이나 현상의 한 부분. 또는 한쪽 면. <표준>

예문: 자유와 평등은 모순적으로 보이면서도 서로서로를 보완하는 측면 또한 가지고 있다. <논술의 정석>

(174) 중국어 ‘側面’

의미: (名) 旁边的一面。(옆면.) <現漢: P131>

예문: 从侧面打击敌人。(옆면에서 적을 공격한다.) <現漢: P131>

‘측면(側面)’의 기본 의미는 “옆면”인데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모두 이 기본의미가 쓰인다. ‘측면 돌파’, ‘측면 지원’은 중국어 ‘側面突破’, ‘側面支援’과의 대응에서 보듯이 그 결합관계도 대응된다. 그러나 한국어는 기본의미 외에 파생 의미도 쓰인다. “사물이나 현상의 한 부분. 또는 한 쪽 면”이라는 의미는 기본 의미에서 파생된 의미로 보인다. ‘사회적 측면’, ‘교육적 측면’ 등과 같이 쓰일 때 중국어의 ‘层面’이라는 말에 대응되며 ‘社会的层面’, ‘教育的层面’이라고 한다. 따라서 한국어는 이와 같이 기본 의미 외에 파생적 의미도 쓰이기 때문에 중국어의 사용 범위보다 넓다.<sup>43)</sup>

42) 한국어 ‘자세’가 ‘몸을 움직이거나 가누는 모양’과 ‘사물을 대할 때 가지는 마음가짐’이라는 지시 대상이 중국어 ‘姿勢’보다 많다. 따라서 이는 지시 대상의 차이로 볼 수도 있다.

## 4.2.2. 중국어의 의미 영역이 더 큰 경우

중국어의 의미 영역이 더 큰 경우는 한국어의 의미가 중국어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이다. 즉 중국어는 한국어와 일치하는 의미 이외에, 다른 의미를 추가적으로 더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앞 절과 같이 지시 대상의 차이, 지시 행위·상태의 차이와 의미 확장 양상의 차이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 4.2.2.1. 지시 대상의 차이

중국어 지시 대상이 한국어보다 많은 동자어의어는 아래와 같다.

(175) 교사(教師)-教师, 노인(老人)-老人, 단위(單位)-单位, 대상(對象)-对象, 소식(消息)-消息, 애인(愛人)-爱人, 예배(禮拜)-礼拜, 의사(意思)-意思, 품질(品質)-品质

(176) 한국어 ‘교사(教師)’

의미: (명) 주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따위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표준>

예문: 신학문을 가르치자면 정말 학교 출신인 전문 교사를 초빙해 와야 되겠습니다. <표준>

(177) 중국어 ‘教师’

의미: (名) 担任教学工作的专业人员。(교학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사

---

43) 한중 ‘측면(側面)-侧面’은 “옆면”이라는 대상을 모두 가리키는데 한국어 ‘측면’은 ‘사물이나 현상의 한 부분’이라는 추상적 대상을 가리키기도 한다. 따라서 이는 지시 대상의 차이로 파악할 수도 있다.

람.) 〈現漢: P659〉

예문: a. 她年轻时曾经当过小学教师。(그녀는 젊었을 때 초등학교 교사를 했었다.) 〈BCC〉

b. 我出国前是个大学教师。(나는 출국 전에 대학교 교수였다.) 〈BCC〉

한국어 ‘교사(教師)’는 (176)에서 풀이된 바와 같이 특정한 영역의 교원만 교사라고 하는 반면, 중국어 ‘教师’는 모든 교육기관의 교원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小学·中学·高中教师(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사)’, ‘大学教师(대학교 교수)’, ‘培训班教师(학원 강사)’ 등과 같다. 이와 같이 중국어 ‘教师’의 지시 대상은 한국어 ‘교사(教師)’보다 많다.

(178) 한국어 ‘노인(老人)’

의미: (명)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 〈표준〉

예문: 이제 더 이상 노인 문제를 노인 스스로 혹은 그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현대불교신문〉

(179) 중국어 ‘老人’

가. 의미: (名) 老年人。(늙은 사람.) 〈現漢: P784〉

예문: 这个村子老人比年轻人多。(이 마을에는 노인이 젊은이보다 많다.) 〈BCC〉

나. 의미: (名) 上了年纪的父母或祖父母。(늙은 부모, 또는 조부모. ≒ 집안 어른.) 〈現漢: P784〉

예문: 你到了天津来封信, 免得家里老人惦记着。(톈진에 도착하면 집안 어른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편지 보내 줘.) 〈現漢: P784〉

다. 의미: (名) 指机关、团体中工作时间长的人员。(기관이나 단체 중에

서 오래 근무한 사람. 耄耋.) 〈現漢: P784〉

예문: 老人老办法, 新人新办法. (고참은 오래된 방법이 있고, 신참은 새로운 방법이 있다.) 〈現漢: P784〉

‘노인(老人)-老人’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공통 의미는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 외에 중국어에서는 “나이가 많은 부모, 또는 조부모”를 특별히 지칭하기도 하는데 ‘家里有老人’이라고 하면 ‘집안에 부모님이나 조부모가 계시다’라는 의미이다. 또한 (179다)의 ‘고참’을 지칭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중국어 ‘老人’은 한국어 ‘노인(老人)’보다 지시하는 대상이 더 많다.

(180) 한국어 ‘단위(單位)’

가. 의미: (명) 길이, 무게, 수효, 시간 따위의 수량을 수치로 나타낼 때 기초가 되는 일정한 기준. 근, 되, 자, 그램, 리터, 미터, 초 따위가 있다. 〈표준〉

예문: 사람이 너무 많아 백이나 천 단위로는 그 수효를 헤아릴 수가 없다. 〈표준〉

나. 의미: (명) 하나의 조직 따위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한 덩어리. 〈표준〉

예문: 보수를 일주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표준〉

(181) 중국어 ‘單位’

가. 의미: (名) 计量事物的标准量的名称. (사물의 기준량을 계량하는 명칭.) 〈現漢: P254〉

예문: 立方米是体积单位. (세제곱미터는 부피의 단위이다.) 〈BCC〉

나. 의미: (名) 机关团体或属于一个机关, 团体的各个部门. (기관단체나 한 기관이나 단체의 각 부처.) 〈現漢: P254〉

예문: 参加竞赛的有许多单位。(시합에 참가하는 부서가 많다.) <現漢: P254>

기존연구에서 崔娟華(2008), 김경숙(2014), 왕페이(2017)은 ‘단위(單位)-單位’가 교집합이 있으면서 각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의의어로 보았다. 교집합으로 본 것은 대체로 (180가)와 (181가)를 공통된 의미로 보고 각자 (180나)와 (181나)의 의미를 더 가진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한국어 (180가)와 (180나)의 의미는 모두 중국어 (181가)의 의미에 포함된 의미로 보인다. 예컨대 (180나)의 의미로 나타난 ‘1년 단위로 계약하다’는 중국어 ‘以一年为单位签约’와, ‘보수를 일주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다’는 중국어 ‘报酬以周为单位支付’에 대응되듯이 (180나)는 중국어 ‘單位’의 “사물의 기준량을 계량하는 명칭”이라는 의미에 포함된다. 반광위(2016), 왕배배(2011)은 중국어 의미영역이 한국어보다 크다고 보았다. 이는 본고와 같은 견해이다. 중국어 ‘單位’는 그 외에 (181나)의 의미가 더 가지고 있어 ‘机关单位(기관 부처)’와 같이 쓰인다. 이에 중국어 ‘單位’는 한국어 ‘단위’보다 지시 대상이 많다고 할 수 있다.

(182) 한국어 ‘대상(對象)’

의미: (명) 어떤 일의 상대 또는 목표나 목적이 되는 것. <표준>

예문: 경계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 너의 친구이다. <표준>

(183) 중국어 ‘对象’

가. 의미: (名) 行动或思考时作为目标的人或事物。(행동하거나 사고할 때 목표로 하는 상대나 사물.) <現漢: P331>

예문: 这篇论文的研究对象是白血病。(이 논문의 연구 대상은 백혈병이다.) <BCC>

나. 의미: (名) 特指恋爱的对方。(연애하는 상대방.) <現漢: P331>

예문: 他有对象了。(그는 애인이 생겼다.) <現漢: P331>

‘대상(對象)’은 “어떤 일의 상대 또는 목표나 목적이 되는 것”이라는 의미는 한국어와 중국어는 공유한다. ‘경계할 대상’은 ‘要警惕的对象’이라고 하고 ‘논문의 연구 대상’은 ‘论文的研究对象’이라고 한다. 이런 의미 외에 중국어에는 “연애하는 상대방”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때는 한국어의 ‘애인’이라는 말에 대응된다. 이와 같이 중국어 ‘对象’은 지시하는 대상이 한국어 ‘대상’보다 많다.

(184) 한국어 ‘소식(消息)’

의미: (명)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사정을 알리는 말이나 글. <표준>

예문: 오랫동안 소식이 끊긴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표준>

(185) 중국어 ‘消息’

가. 의미: (名) 关于人或事物情况的报道。(사람이나 사물의 상황에 대한 보도. ≒뉴스.) <現漢: P1437>

예문: 财经消息(재정과 경제 뉴스) <現漢: P1437>

나. 의미: (名) 指人或事物的动向或变化的情况; 音信。(사람이나 사물의 동향이나 변화의 상황; 소식) <現漢: P1437>

예문: 去后再无消息。(떠나고 나서 소식이 없다.) <現漢: P1437>

한국어 ‘소식(消息)’은 ‘고향 소식’, ‘소식이 감감하다’와 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사정을 알리는 말이나 글”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중국어 ‘消息’의 “사람이나 사물의 동향이나 변화의 상황”이라는 의미로 한국어 ‘소식’의 의미보다 영역이 크다. 그리고 이런 의미 외에 중국어에는 특별히 “신문이나 방송 프로그램의 보도”를 이르기도 한다. 따라서 중국어 ‘消息’은 지시 대상이 한국어 ‘소식’보다 많다.

(186) 한국어 ‘애인(愛人)’

의미: (명) 서로 애정을 나누며 마음속 깊이 사랑하는 사람. 또는 몹시  
그리며 사랑하는 사람. <표준>

예문: 애인이 있어야 결혼을 하지요. <표준>

(187) 중국어 ‘爱人’

가. 의미: (名) 丈夫或妻子。(남편이나 아내) <現漢: P5>

예문: 她爱人在家等她。(그녀의 남편은 집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  
다.) <BCC>

나. 의미: (名) 指恋爱中男女的一方。(연애 중인 남녀 한쪽. ≍연인.)  
<現漢: P5>

예문: 她深切怀念那死去的爱人。(그녀는 죽은 연인을 깊이 그리워한  
다.) <BCC>

한국어 ‘애인(愛人)’은 “서로 애정을 나누며 마음속 깊이 사랑하는 사람. 또  
는 몹시 그리며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며 ‘애인 사이’, ‘애인이 생기다’와  
같이 나타나며 중국어 (187나)의 의미와 같아 보인다. 그러나 중국어에서 (187  
나)의 의미는 주로 글말에서 남아 있는 만큼 사용 영역이 넓지 않다. 중국어  
‘爱人’은 “남편이나 아내”가 대표적인 의미로 ‘我爱人(우리 남편이나 아내)’와  
같이 나타난다. 따라서 중국어에서 지시하는 대상이 한국어보다 많은 것이다.

(188) 한국어 ‘예배(禮拜)’

의미: (명) 신이나 부처와 같은 초월적 존재 앞에 경배하는 의식. 또는  
그런 의식을 행함. <표준>

예문: 그는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간다. <고려>

(189) 중국어 ‘礼拜’

가. 의미: (动) 宗教徒向所信奉的神行礼。(신도가 신봉하는 신에게 경배하고 절을 올리다.) <現漢: P797>

예문: 去教堂做礼拜。(교회에 가서 예배를 본다.) <BCC>

나. 의미: (名) 星期。(요일) <現漢: P797>

예문: 开学已经三个礼拜了。(개강된지 3주일이 되었다.) <現漢: P797>

다. 의미: (名) 一星期中间的某一天。 <現漢: P797>

예문: 礼拜一(일요일)

라. 의미: (名) 礼拜天。 <現漢: P797>

예문: 休礼拜(일요일을 쉰다.) <BCC>

‘예배(禮拜)-礼拜’의 “신도가 신봉하는 종교의 신에게 경배하다”라는 의미는 한국어와 중국어가 같다. 중국어 ‘做礼拜’는 한국어 ‘예배를 보다’라고 한다. 기독교의 전입에 따라 중국어로 일요일은 ‘礼拜天’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일요일에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보기 때문이다. 나중에 ‘星期(요일)’은 모두 ‘礼拜’로 바뀌어 부르게 되었다. ‘星期一(일요일)’을 ‘礼拜一’이라고 하여 현재 중국어에서는 표준어화까지 되어 있다. 이것은 중국어에서 ‘礼拜’라는 말의 의미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어에서 의미가 확대됨에 따라 그의 지시 대상이 한국어보다 많아진 것이다.

(190) 한국어 ‘의사(意思)’

의미: (명)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 <표준>

예문: 그녀와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다. <표준>

(191) 중국어 ‘意思’

가. 의미: (名) 语言文字的意义; 思想内容. (언어와 글의 의미. 생각하는 내용) <現漢: P1556>

예문: 要正确地了解这篇文章的中心意思。(이 글의 중심 의의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現漢: P1556>

나. 의미: (名) 意見; 愿望. (의견. 소망) <現漢: P1556>

예문: 大家的意思是一起去。(우리들의 의견은 같이 간다는 것이다.) <現漢: P1556>

다. 의미: (名) 指礼品所代表的心意. (선물이 대표하는 마음.) <現漢: P1556>

예문: 这不过是我的一点意思, 你就收下吧! (그저 제 작은 마음이니 꼭 받아 주세요.) <現漢: P1556>

라. 의미: (动) 表示一点儿心意. (마음을 표시하다.) <現漢: P1556>

예문: 大家受累了, 得买些东西意思一下。(다들 수고가 많으니까 뭐 좀 사서 마음을 표시해야겠다.) <現漢: P1556>

마. 의미: (名) 某种趋势或苗头. (어떤 추세나 기미.) <現漢: P1556>

예문: 天有点儿要下雨的意思。(비올 기미가 보인다.) <現漢: P1556>

바. 의미: (名) 情趣; 趣味. (정취. 재미.) <現漢: P1556>

예문: 那种聚会意思不大, 我不想去参加。(그런 모임은 별로 재미없는데 참석하러 가고 싶지 않다.) <現漢: P1556>

한국어 ‘의사(意思)’는 ‘의사 전달’, ‘의사 표시’ 등의 표현에서처럼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이른다. 이런 의미는 중국어 (191가) “생각하는 내용”과 일치하여 “误会我的意思(내 의사를 오해하다)”와 같이 쓰인다. 그 외에 중국어

에서는 “의견. 소망”, “선물이 대표하는 마음”, “마음을 표시하다”, “어떤 추세나 기미”와 “정취나 재미”라는 여러 의미를 더 가지므로 지시하는 대상이 한국어보다 훨씬 많다.

이와 같은 의미 영역의 차이에 대하여 范琦慧(2002)는 ‘중국어 의미 확대’로, 馬今善(2012)와 유서천(2011)은 ‘한국어 의미축소’로 인식하였으나 따로 근거 제시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현대 이전의 자료를 살펴보자.

(192) 『현대어로 보는 한불사전』 (P.948)의 ‘의스’

의스[EŪI-SĀ] (意思)

불 : Esprit, intelligence, intention, but.

한 : 지성, 지능, 의도, 목적

(193) 『한영즈뎨』 (P.16)의 ‘의스’

의스, 意思, Intention, desire, aim.

19세기에 ‘의스’는 “지성, 지능, 의도, 목적”이라는 말로 번역되었고, 『한영즈뎨』에서는 “의도, 욕망, 목표”라는 말로 번역되었다. 의미가 많았는데 현대에 와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라는 하나의 의미만 남게 되었다. 따라서 현대 한국어의 ‘의사’는 19세기 이후에 의미가 축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94) 한국어 ‘품질(品質)’

의미: (명) 물건의 성질과 바탕. <표준>

예문: 이 회사는 그 제품의 품질 개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고려>

(195) 중국어 ‘品质’

가. 의미: (名) 行为, 作风上所表现的思想、认识、品性等的本质。(행

위나 태도에 나타나는 생각, 인식, 품성 등의 본바탕.) 〈現漢: P1005〉

예문: 道德品质(도덕과 품성) 〈現漢: P1005〉

나. 의미: (名) 物品的质量。(물건의 질량.) 〈現漢: P1005〉

예문: 江西瓷品质优良。(강서 도자기의 품질이 우량하다.) 〈現漢: P1005〉

한국어 ‘품질(品質)’은 “물건의 성질과 바탕”이라는 의미인데 중국어 (195나)의 의미와 같다. 중국어 ‘品质’는 사람의 “행위나 태도에 나타나는 생각, 인식, 품성의 본바탕”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道德品质(도덕적 본바탕)’과 같이 쓰일 수 있다. 이에 중국어 ‘品质’의 지시 대상의 영역은 한국어 ‘품질(品質)’보다 넓다.

#### 4.2.2.2. 지시 행위·상태의 차이

중국어에서 지시하는 행위나 상태는 한국어보다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동자이의어는 아래와 같다.

(196) 각고(刻苦)-刻苦, 개방(開放)-开放, 검사(檢査)-检查, 고찰(考察)-考察, 긴장(緊張)-紧张, 방문(訪問)-访问, 설명(說明)-说明, 수출(輸出)-输出, 연구(研究)-研究, 인식(認識)-认识, 자동(自動)-自动, 재판(裁判)-裁判, 추구(追求)-追求, 편제(編制)-编制

(197) 한국어 ‘각고(刻苦)’

의미: (명)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어려움을 견디며 몸과 마음을 다

하여 무척 애를 씬. <표준>

예문: 그는 각고의 정성을 쏟아 조각상을 완성했다. <고려>

(198) 중국어 ‘刻苦’

가. 의미: (形) 肯下苦功夫; 很能吃苦. (힘을 다해 애쓰고 근면하다. 고달픔을 참을 수 있다.) <現漢: P740>

예문: 她是队里训练最刻苦、最自觉的人. (그녀는 팀에서 훈련을 가장 애쓰고, 자각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BCC>

나. 의미: (形) 俭朴(검소하다) <現漢: P740>

예문: 他生活一向很刻苦. (그의 생활은 매우 검소하다.) <現漢: P740>

한국어 ‘각고(刻苦)’는 ‘각고의 노력’, ‘각고의 정성’과 같이 쓰이는데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어려움을 견디며 몸과 마음을 다하여 무척 애를 씬”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중국어 ‘刻苦’의 “힘을 다해 애쓰고 근면하다. 고달픔을 참을 수 있다”라는 의미와 통하는데, 단 한국어에는 동사로 쓰이고 중국어에는 형용사로 쓰인다. 그 외에, 중국어에서는 “검박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여 ‘生活刻苦(생활이 검박하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국어 ‘刻苦’가 상태를 지시하고 한국어 ‘각고(刻苦)’는 행위를 지시하지만 중국어의 의미 영역이 더 넓다고 할 수 있다.

(199) 한국어 ‘개방(開放)’

가. 의미: (명) 문이나 어떠한 공간 따위를 열어 자유롭게 드나들고 이용하게 함. <표준>

예문: 이 도서관은 24시간 개방이다. <고려>

나. 의미: (명) 금하거나 경계하던 것을 풀고 자유롭게 드나들거나 교류

하게 함. <표준>

예문: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인해 우리 농산물의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 <고려>

(200) 중국어 ‘开放’

가. 의미: (动) (花)展开。(꽃이 피다.) <現漢: P722>

예문: 百花开放。(온갖 꽃이 만발하다.) <現漢: P722>

나. 의미: (动) 解除封锁、禁令、限制等, 允许进入或利用。(봉쇄·금지령·제한 등을 해제하여 진입을 허가하거나 이용하게 하다.) <現漢: P722>

예문: a. 机场关闭了三天, 至今才开放。(공항이 삼일 동안 폐쇄되었다가 지금 개방되었다.) <現漢: P722>

b. 公园每天开放。(공원이 날마다 개방한다.) <現漢: P722>

다. 의미: (形) 性格开朗; 思想开通, 不受拘束。(성격이 밝고 외향적이다; 생각이 개명하고 구속을 받지 않다.) <現漢: P722>

예문: 他性情开放豪爽。(그는 성격이 외향적이고 시원시원하다.) <BCC>

한국어 ‘개방(開放)’의 (199가)는 ‘개방 시간’, ‘등산로 개방’과 같이 쓰이는 말로 중국어 ‘开放时间’, ‘山路开放’에 대응된다. (199나)는 ‘문호 개방’, ‘시장 개방’, ‘개방 외교’, ‘수입 개방’과 같은 표현에서 나타나는데 중국어에서도 ‘门户开放’, ‘市场开放’, ‘开放外交’, ‘开放进口’와 같이 사용된다. 따라서 한국어 ‘개방(開放)’의 두 의미는 모두 중국어 ‘开放’에 대응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중국어 의미는 (200나)이다. “봉쇄·금지령·제한 등을 해제하다”라는 의미로 공원의 ‘개방’이나 공항, 항구, 도로의 통행 ‘개방’을 이룰 수 있는데 이는 한국어 ‘개방(開放)’의 의미와 일치한다. 중국어 ‘开放’은 이런 의미 외에, “꽃이 피다”

라는 의미와 “성격이 밝고 외향적이다”라는 의미를 더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어 ‘开放’은 한국어 ‘개방(開放)’보다 지시하는 행위와 상태가 더 많다.

(201) 한국어 ‘검사(檢査)’

의미: (명) 사실이나 일의 상태 또는 물질의 구성 성분 따위를 조사하여 옳고 그름과 낮고 못함을 판단하는 일. <표준>

예문: 철저한 검사를 통해 제품의 불량률을 줄였다. <표준>

(202) 중국어 ‘检查’

가. 의미: (动) 为了发现问题而用心查看。(문제점을 찾아내려고 열심히 살피다.) <現漢: P635>

예문: 逐个地检查行李。(짐을 하나하나 검사한다.) <BCC>

나. 의미: (名) 用口头或书面形式所做的检讨。(구두나 서면의 형식으로 하는 반성이나 반성문.) <現漢: P635>

예문: 写了一份检查。(반성문 한 편을 썼다.) <現漢: P635>

‘검사(檢査)-检查’의 기본의미는 한국어과 중국어는 비슷하게 풀이된다. 한국어는 “사실이나 일의 상태 또는 물질의 구성 성분 따위를 조사하여 옳고 그름과 낮고 못함을 판단하는 일”을 의미하고 ‘제품 검사’, ‘숙제 검사’와 같이 쓰인다. 중국어는 “문제점을 찾아내려고 열심히 살피다”라는 뜻으로 ‘检查行李(짐을 검사하다)’, ‘检查作业(숙제를 검사하다)’라고 하여 한국어와 같은 의미와 같은 용법으로 쓰인다. 이 때, 한국어 ‘검사(檢査)’와 중국어 ‘检查’의 대상은 모두 구체적 사물이다. 그 외에, 중국어 ‘检查’는 (202나)의 “반성이나 반성문”이라는 의미도 있다. 따라서 한국어 ‘검사(檢査)’가 지시하는 행위는 중국어 ‘检查’보다 적다.

(203) 한국어 ‘고찰(考察)’

의미: (명)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함. <표준>

예문: 문화에 대한 고찰 없이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표준>

(204) 중국어 ‘考察’

가. 의미: (动) 实地观察调查。(실지로 관찰하여 조사하다. ≍ 시찰하다)

<現漢: P732>

예문: 他们到各地考察水利工程。(그들은 각 지방에서 수리 공사를 시찰한다.) <現漢: P732>

나. 의미: (动) 细致而深入地观察。(세밀하고 철저하게 관찰하다.) <現

漢: P732>

예문: 进行科学研究, 必须勤于考察和思索, 才能有所成就。(과학 연구를 할 때 관찰과 사고가 늘 해야 성취가 있을 것이다.)

<現漢: P732>

한국어 ‘고찰(考察)’은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함”이라는 의미인데 ‘문학에 대한 고찰’, ‘중세국어 고찰’, ‘고대 소설 고찰’과 같이 쓰인다. 중국어 ‘考察’는 “세밀하고 철저하게 관찰하다”라는 의미는 한국어 ‘고찰(考察)’과 같아 보인다. 그 외에, 중국어 ‘考察’는 “실지로 관찰하고 조사하다”라는 의미로 ‘实地考察’와 같이 사용되고 한국어 ‘시찰하다’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국어 ‘고찰(考察)’보다 중국어 ‘考察’가 지시하는 행위가 더 다양한 것이다.

(205) 한국어 ‘긴장(緊張)’

가. 의미: (명) 마음을 조이고 정신을 바짝 차림. <표준>

예문: 오늘 경기는 온통 긴장과 흥분의 도가니였다. <표준>

나. 의미: (명) 정세나 분위기가 평온하지 않은 상태. <표준>

예문: 양국 간에 긴장이 높아 가고 있다. <표준>

(206) 중국어 ‘紧张’

가. 의미: (形) 精神处于高度准备状态, 兴奋不安。(정신적으로 고도의 준비 상태에 있다. 흥분하여 불안하다.) <現漢: P678>

예문: 第一次登台, 免不了有些紧张。(처음 무대에 올라가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現漢: P678>

나. 의미: (形) 激烈或紧迫。(격렬하거나 긴박하다.) <現漢: P678>

예문: 比赛已经进入紧张阶段。(시합은 이미 격렬하기 시작하였다.) <現漢: P678>

다. 의미: (形) 供应不足, 难于应付。(공급이 부족하여 대처하기 힘들다.) <現漢: P678>

예문: 电力紧张。(전력 공급이 부족하다.) <現漢: P678>

한국어 ‘긴장(緊張)’과 중국어 ‘紧张’의 의미는 중첩된 부분이 있다. ‘마음이 긴장하다’는 중국어 ‘心情紧张’에 대응되듯이 “마음이 조이고 정신을 바짝 차림”이라는 의미를 공유한다. ‘局势紧张’은 ‘분위기가 긴장되다’에 대응되며 “정세나 분위기가 평온하지 않은 상태”라는 의미도 일치한다. 그 외에, 중국어에서는 (206다) “공급이 부족하여 대처하기 힘들다”라는 의미로 ‘劳动力紧张(노동력 공급이 부족하다)’와 같이 쓰이기도 한다. 이와 같이 중국어 ‘紧张’의 지시행위가 한국어 ‘긴장’보다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07) 한국어 ‘방문(訪問)’

의미: (명) 어떤 사람이나 장소를 찾아가서 만나거나 봄. <표준>

예문: 롯데마트 역시 폭염이 시작된 지난주부터 오후 9시 이후 방문 고

객 비중이 이전의 8~9%에서 25% 이상으로 늘었다. <조선일보  
경제(2002)>

(208) 중국어 ‘访问’

가. 의미: (动) 有目的地去看人并和他谈话。(목적을 가지고 찾아가 이  
이야기를 나누다.) <現漢: P371>

예문: 我怀着崇敬的心情, 访问了这座英雄的城市。(나는 숭경한 마  
음을 가지고 이 영웅의 도시를 방문하였다.) <現漢: P371>

나. 의미: (动) 指进入计算机网络, 在网站上浏览信息、查阅资料。(컴  
퓨터 네트워크에 들어가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열람하고 자  
료를 검색하다. ≍조회하다) <現漢: P371>

예문: 这个网站建成后, 访问人数逐日上升。(이 웹사이트가 개방되  
자마자 조회 인원수가 날마다 올라간다.) <BCC>

한국어 ‘방문(訪問)’은 “어떤 사람이나 장소를 찾아가서 만나거나 봄”이라는  
의미로 ‘영국 방문’, ‘롯데마트 방문 고객’, ‘친구의 방문’, ‘방문을 허락하다’ 등  
과 같이 쓰인다. 중국어 ‘访问’은 “목적을 가지고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다”라는  
의미가 한국어 ‘방문’의 의미와 유사하다. 이런 의미 외에 중국어는 “인터넷을  
접속하다”라는 의미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网站访问量(웹사이트 조회수)”와 같  
이 쓰인다. 이에 ‘방문(訪問)-访问’은 중국어에서 지시하는 행위가 한국어보다  
많다고 할 수 있다.

(209) 한국어 ‘설명(說明)’

의미: (명) 어떤 일이나 대상의 내용을 상대방이 잘 알 수 있도록 밝혀  
말함. 또는 그런 말. <표준>

예문: 새 기획안에 대한 설명이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다. <표준>

(210) 중국어 ‘说明’

가. 의미: (动) 解释明白。(잘 알 수 있도록 밝혀 말하다.) <現漢: P 1233>

예문: 说明原因。(원인을 설명한다.) <現漢: P1233>

나. 의미: (名) 解释意义的话或文字。(의의를 설명하는 말이나 글.) <現漢: P1233>

예문: 图片下边附有说明。(그림 아래에 설명이 첨부되어 있다.) <現漢: P1233>

다. 의미: (动) 证明。(증명하다.) <現漢: P1233>

예문: 事实充分说明这种做法是正确的。(이런 방법이 옳다고 사실상 충분히 증명하였다.) <現漢: P1233>

한국어 ‘설명(說明)’은 ‘사실 설명’, ‘계획안 설명’, ‘원인 설명’ 등과 같이 나타나는데 중국어 (210가, 나)의 의미와 일치하여 ‘事实说明’, ‘企划案说明’, ‘原因说明’과 같이 동일하게 쓰일 수 있다. 중국어 ‘说明’은 이런 의미 외에, “증명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이는데 이런 의미로 쓰인 ‘说明’이 나온 문장은 흔히 안은문장이다. 즉 ‘说明’은 (210다) 예문과 같이 문장 목적어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시하는 행위는 중국어 ‘说明’이 더 많다.

(211) 한국어 ‘수출(輸出)’

의미: (명) 국내의 상품이나 기술을 외국으로 팔아 내보냄. <표준>

예문: 그 나라는 내수 시장의 한계를 수출로써 극복했다. <표준>

(212) 중국어 ‘输出’

가. 의미: (动) 从内部送到外部。(내부에서 외부로 내보내다) <現漢: P1213>

예문: 血液从心脏输出, 通过血管分送全身组织。(혈액은 혈관을 통해 심장에서 온몸의 조직으로 내보낸다.) <現漢: P1213>

나. 의미: (动) 商品或资本销售或投放到国外。(상품이나 자금이 외국으로 팔거나 투자하다) <現漢: P1213>

예문: a. 我们国家的商品输出大多是轻工业产品。(우리나라의 상품 수출은 주로 경공업제품이다.) <BCC>

b. 中国的资本输出方向主要在第三世界国家。(중국의 자본의 해외 투자는 주로 제3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BCC>

다. 의미: (动) 科学技术上指能量、信号等从某种机构或装置发出。(과학기술상으로 에너지나 신호 등은 어떤 기구나 장치에서 내보내다.) <現漢: P1213>

예문: 计算机输出信息。(컴퓨터가 정보를 내보낸다.) <現漢: P1213>

한국어 ‘수출(輸出)’은 “국내의 상품이나 기술을 외국으로 팔아 내보냄”이라는 의미로 ‘자동차 수출’, ‘농산물 수출’ 등과 같이 쓰이는데 이는 중국어 (212나)의 의미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중국어 (212나)는 “상품이나 자금을 외국으로 팔거나 투자하다”라는 의미인데 ‘상품의 수출’과 ‘자금의 투자’ 두 가지를 가리키는 것이다. 전자는 (212나a)과 같이 한국어 ‘수출’에 대응되지만 후자는 한국어 ‘수출’에 없는 의미이고 (212나b)와 같이 쓰인다. 한편, 중국어 ‘输出’는 (212가)의 “내부에서 외부로 내보내다”라는 기본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212다)의 ‘信号输出(신호를 내보내다)’와 같이 쓰여 특히 과학기술 영역의 “신호나 에너지 등을 내보내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이와 같이 중국어에서 지시하는 행위가 한국어보다 다양하다.

(213) 한국어 ‘연구(研究)’

의미: (명) 어떤 일이나 사물에 대하여서 깊이 있게 조사하고 생각하여 진리를 따져 보는 일. <표준>

예문: 임신부의 흡연은 태아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표준>

(214) 중국어 ‘研究’

가. 의미: (动) 探求事物的真相、性质、规律等。(사물의 진상·성질·규율 등을 탐구하다.) <現漢: P1507>

예문: 潜心研究语言(언어 연구에 몰두한다.) <BCC>

나. 의미: (动) 考虑或商讨(意见、问题)。(의견이나 문제 따위를 고려하고 의논하다.) <現漢: P1507>

예문: 今天的会议, 准备研究三个重要问题。(오늘의 회의는 세 가지의 문제를 의논하겠다.) <現漢: P1507>

‘연구(研究)-研究’는 ‘언어 연구(語言研究)’, ‘철학 연구(哲學研究)’와 같이 나타나 “깊이 있게 조사하고 생각하여 진리를 따져 보는 일”이라는 의미로 한국어와 중국어가 일치한다. 그 외에, 중국어는 “의견이나 문제 따위를 고려하고 의논하다”라는 의미를 더 가지고 있다.

(215) 한국어 ‘인식(認識)’

의미: (명)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앎. <표준>

예문: 역사에 대한 인식이 없다. <표준>

(216) 중국어 ‘认识’

가. 의미: (动) 能够确定某一人或事物是这个人或事物而不是别的。(다른 사람 혹은 사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알다.) 〈現漢: P1102〉

예문: a. 我认识他。(나는 그 사람을 안다.) 〈現漢: P1102〉

b. 他不认识这种草药。(나는 이 약초를 모른다.)〈現漢:P1102〉

나. 의미: (动) 通过实践了解、掌握客观事物。(실천을 통하여 객관적인 사물을 이해하고 파악하다. ≍알다.) 〈現漢: P1102〉

예문: 认识世界, 改造世界。(세상을 알고 세상을 개조한다.) 〈現漢: P1102〉

다. 의미: (名) 指人的头脑对客观世界的反映。(사람의 두뇌는 객관적인 세계의 반영을 가리킨다. ≍인식.) 〈現漢: P1102〉

예문: 加深对民族文化的认识。(자기 민족 문화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킨다.) 〈BCC〉

한국어 ‘인식(認識)’은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앎”이라는 의미로 ‘역사에 대한 인식’처럼 나타난다. 이런 의미는 중국어의 (216나, 다)의 의미와 일치한다. (216나)의 “실천을 통해 객관적인 사물을 이해하고 파악하다”라는 의미는 동사인데 ‘认识世界(세계를 인식하다)’와 같이 나타날 때 한국어 ‘인식’의 기능 동사 결합형 ‘인식하다’에 대응된다. 그리고 (216다)의 “사람의 두뇌가 객관 세계에 대한 반영”이라는 의미는 (216나)의 의미와 같은데 품사만 다를 뿐이다. ‘对民族文化的认识(민족 문화에 대한 인식)’처럼 나타나는 명사로 한국어 ‘인식’에 대응된다. 그 외에, 중국어 ‘不认识这种草药(이 약초를 모른다)’와 ‘认识他(그 사람을 알다)’의 ‘认识’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은 다른 사물이나 사람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고 한국어 ‘인식(認識)’과 구별되는 의미이다. 따라서 중국어 ‘认识’는 지시하는 행위가 한국어 ‘인식(認識)’보다 많다고 할 수 있다.

(217) 한국어 ‘자동(自動)’

가. 의미: (명) 기계나 설비 따위가 자체 내에 있는 일정한 장치의 작용에 의하여 스스로 작동함. 또는 그런 기계. <표준>

예문: 이 보일러는 일정한 온도가 되면 자동으로 꺼진다. <표준>

나. 의미: (명) 일, 행동 따위가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짐. 또는 어떤 절차 없이 바로 이루어짐. <표준>

예문: 세 번 이상 조장에게 체크되면 자동 해고였다. <표준>

(218) 중국어 ‘自动’

가. 의미: (副) 自己主动。(스스로) <現漢: P1736>

예문: 他自动把房子让出来。(그는 스스로 집을 내놓았다.) <BCC>

나. 의미: (副) 不凭借人为力量的。(인위의 힘을 의존하지 않다. ≒ 저절로) <現漢: P1736>

예문: 水自动地往下流。(물이 저절로 아래로 흐른다.) <現漢: P1736>

다. 의미: (形) 不用人力而用机械装置直接操作的。(인력이 아닌 기계 장치로 직접 조종하다.) <現漢: P1736>

예문: 自动装置。(자동 장치.) <現漢: P1736>

한국어 ‘자동(自動)’은 두 개의 의미로 풀이되는데 (217가)의 의미는 ‘자동 승강기’, ‘자동 조절’과 같이 나타난다. 이는 중국어 (218다)와 일치해 ‘自动装置’는 ‘자동 장치’로, ‘자동 조절’은 ‘自动调节’로 옮길 수 있다. 한국어 (217나)의 의미는 ‘자동 해고’, ‘자동 포기’와 같이 나타나는데 이는 중국어 ‘自动解雇’, ‘自动放弃’에 대응될 수 있다. 따라서 (217나)는 (218나)의 의미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어 ‘自动’은 한국어에 대응되는 이 두 의미 외에, (218가) “스스로”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이에 중국어 ‘自动’이 지시하는 행위가 한국어

보다 많다고 할 수 있다.

(219) 한국어 ‘재판(裁判)’

의미: (명) 『법률』구체적인 소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공권적 판단을 내리는 일. <표준>

예문: 변호인은 재판을 연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고려>

(220) 중국어 ‘裁判’

가. 의미: (动) 法院依据法律, 对案件做出的处理。(법원이 법률에 따라 소송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일.) <現漢: P119>

예문: 等着法院的裁判。(법원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BCC>

나. 의미: (动) 根据体育竞赛的规则, 对运动员竞赛的成绩和竞赛中发生的问题作出评判。(체육 경기의 규칙에 따라 선수의 경기 성적 및 경기 중의 문제에 대한 평가를 내리다. ≍심판하다.) <現漢: P119>

예문: 裁判对这个球的裁判不公。(이 골에 대한 레퍼리의 심판은 불공평하다.) <BCC>

다. 의미: (名) 裁判员。(레퍼리) <現漢: P119>

예문: 这是不需要裁判的比赛。(이는 레퍼리가 필요없는 경기이다.) <BCC>

한·중 동자어 ‘재판(裁判)-裁判’은 지시하는 행위의 영역이 다르다. 한국어에서는 ‘재판을 회부하다’, ‘재판을 받다’와 같이 법률 용어로만 쓰여 중국어(220가)와 일치한다. 단, 중국어 ‘裁判’은 (220가) 의미는 사용빈도가 높지 않는데 이런 의미로 주로 ‘判決’라는 말이 더 많이 쓰인다. 중국어에서는 법률 용어인 동시에 체육 경기 용어이기도 하다. “심판”이나 “심판이 심판하는 일”은

모두 ‘裁判’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중국어에서 지시하는 대상이나 행위가 한국어보다 다양하다.

(221) 한국어 ‘추구(追求)’

의미: (명) 목적을 이룰 때까지 뒤쫓아 구함. <표준>

예문: 기업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표준>

(222) 중국어 ‘追求’

가. 의미: (动) 用积极的行动争取达到某种目的。(적극적으로 행동하여 목적을 달성하다.) <現漢: P1727>

예문: 追求名利。(명예와 이익을 추구한다.) <現漢: P1727>

나. 의미: (动) 特指向异性求爱。(이성에게 구애한다고 특별히 가리킨다.) <現漢: P1727>

예문: 我头一次追求一个很可爱的小姐时, 已经十八岁了。(나는 처음으로 한 귀여운 아가씨에게 구애를 했을 때, 이미 열여덟 살이었다.) <BCC>

한국어에서 ‘추구(追求)’는 ‘이윤 추구’, ‘행복 추구’ 등과 같이 “목적을 이룰 때까지 뒤쫓아 구함”이라는 의미이다. 중국어 ‘追求’도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追求利润’, ‘追求理想’은 ‘이윤을 추구하다’, ‘꿈을 추구하다’에 대응된다. 그 외에, 중국어 ‘追求’는 “구애하다”라는 의미도 있어 지시하는 행위가 한국어 ‘추구’보다 많다.

(223) 한국어 ‘편제(編制)’

의미: (명) 어떤 조직이나 기구를 편성하여 체제를 조직함. 또는 그 기구나 체제. <표준>

예문: 이 회사의 편제는 대기업 못지않게 잘 짜여져 있다. <고려>

(224) 중국어 ‘编制’

가. 의미: (动) 把细长的东西交叉组织起来, 制成器物。(긴 재료를 가지고 엮어 짜서 물건을 만들다.) <現漢: P77>

예문: 这把椅子是用上好的竹藤编制成的。(이 의자는 최상급의 대나무 덩굴로 엮은 것이다.) <BCC>

나. 의미: (动) 根据资料做出(规程、方案、计划等)。(자료에 근거하여 규정·방안·계획 등을 만들어내다.) <現漢: P77>

예문: 他负责编制预算。(그는 예산 편성을 담당한다.) <BCC>

다. 의미: (名) 组织机构的设置及其人员数量的定额和职务的分配。(기관 단체 내부의 각 부서 인원수와 직무 편성.) <現漢: P77>

예문: 一个有正式编制的职位。(정식 편성이 있는 직위.) <BCC>

한국어 ‘편제(編制)’의 의미는 “어떤 조직이나 기구를 편성하여 체제를 조직함. 또는 그 기구나 체제”이며 ‘조직의 편제’와 같이 쓰인다. 이 의미는 중국어 동자어 ‘编制’의 (224다)의 의미와 일치해 보인다. 한국어 ‘회사의 편제’는 중국어 ‘公司的编制’와 같이 용법도 대응된다. 중국어는 이런 의미 외에 “자료에 따라 정리하고 배열하다”라는 의미와 “엮어 짜다”라는 의미도 가지므로 지시하는 행위가 한국어 ‘편제’보다 많다. 이와 같은 한·중 ‘편제(編制)-编制’의 의미 차이는 중국어의 간체화(簡體化)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어 ‘制’와 ‘製’ 두 글자가 간체화 되면서 하나의 글자, 즉 ‘制’자로 합쳐졌다. 간체화 전에는 ‘制’와 ‘製’의 의미가 달랐는데 이 중의 ‘製’는 “製造, 製作, 監製, 精製, 製版(제조하다, 제작하다, 감제하다, 정제하다, 제판하다)” 등으로 풀이되었다. 따라서 중국어 ‘编制’의 (224가)의 의미는 간략화 전의 ‘編製’의 의미여야 한다. 현재 중국어 ‘编制’가 한국어 ‘편제(編制)’와 의미 차이가 생긴

것은 중국어 ‘编制’에 ‘編製’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한다.

#### 4.2.2.3. 의미 확장 양상의 차이

중국어에서 기본의미와 파생의미를 가지지만, 한국어에서는 기본의미만 가질 때 한·중 의미의 확장 양상의 차이로 본다. 이에 해당하는 동자이의어는 아래와 같다.

(225) 공구(工具)-工具, 기후(氣候)-气候, 독서(讀書)-读书, 목욕(沐浴)-沐浴, 분해(分解)-分解, 안목(眼目)-眼目, 인가(人家)-人家, 재료(材料)-材料, 재배(栽培)-栽培, 질량(質量)-质量, 합계(合計)-合计, 해결(解決)-解決

(226) 한국어 ‘공구(工具)’

의미: (명) 물건을 만들거나 고치는 데에 쓰는 기구나 도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표준>

예문: 목재를 가공할 때에는 여러 가지 공구가 쓰인다.

(227) 중국어 ‘工具’

가. 의미: (名) 进行生产劳动时使用的器具。(생산적 노동을 할 때 사용되는 도구.) <現漢: P448>

예문: 把手工生产的工具改成半机械化。(수공 생산의 공구를 반기계화로 개량시켰다.) <BCC>

나. 의미: (名) 比喻用以达到某种目的的事物。(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現漢: P448>

예문: 语言是人们交流思想的工具。(언어는 인간이 의사소통의 도구이다.) <現漢: P448>

한국어 ‘공구(工具)’는 “물건을 만들거나 고치는 데에 쓰는 기구나 도구”라고 풀이되고 중국어의 (227가)의 의미 “생산적 노동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와 일치한다. ‘生产工具’는 ‘생산 공구’에 대응되듯이 용법도 대응된다. 중국어에서는 이 의미 외에 ‘交流思想的工具(의사소통의 도구)’에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물건이나 수단”이라는 파생의미도 있다. 중국어에서 이런 파생의미도 쓰이기 때문에 한국어보다 의미 영역이 더 넓다.<sup>44)</sup>

(228) 한국어 ‘기후(氣候)’

의미: (명) 기온, 비, 눈, 바람 따위의 대기(大氣) 상태. <표준>

예문: 환절기에는 기후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기 쉽다.

<고려>

(229) 중국어 ‘气候’

가. 의미: (名)一定地区里经过多年观察所得到的概括性的气象情况。(일정한 지역에 다년간의 관측에 의해 산출된 포괄적인 기상 상황.) <現漢: P1032>

예문: 气候恶劣。(기후가 열악하다.) <BCC>

나. 의미: (名)比喻动向或情势。(동향이나 정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現漢: P1032>

예문: 政治气候的影响很大。(정치적 동향의 영향이 크다.) <BCC>

다. 의미: (名)比喻结果或成就。(결과나 성취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現漢: P1032>

예문: 几个人瞎闹腾, 成不了气候。(몇몇 사람들이 마구 소란을 피

44) 한편, 한국어 ‘공구(工具)’가 구체적 대상을 가리키는 반면, 중국어 ‘工具’는 구체적인 생산적 도구와 추상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한 물건’을 모두 가리킨다. 따라서 이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지시 대상의 차이로 볼 수도 있다. 즉 중국어에서 지시하는 대상의 영역이 한국어보다 넓다.

위,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없다.) 〈現漢: P1032〉

한국어 ‘기후(氣候)’는 “기온, 비, 눈, 바람 따위의 대기(大氣) 상태”를 이르는 데 중국어 ‘气候’의 “자연계의 기상 상황”이라는 의미와 통하는 것이다. ‘기후 변화’는 ‘气候变化’와 같은 의미이다. 중국어에는 이 기본의미 외에 “동향이나 정세”, 또는 “결과나 성취”라는 파생의미도 있다. ‘政治气候’는 ‘정치적 동향’으로, ‘成气候’는 ‘좋은 결과를 이루다’로 본의가 아닌 파생적 의미로 풀이되어야 한다.<sup>45)</sup>

(230) 한국어 ‘독서(讀書)’

의미: (명) 책을 읽음. ‘책 읽기’로 순화. 〈표준〉

예문: (명) 독서는 간접 경험의 가장 좋은 방법이다. 〈표준〉

(231) 중국어 ‘读书’

가. 의미: (动) 看着书本, 出声地或不出声地读。(책을 보면서 소리나게 읽거나 속으로 읽다.) 〈現漢: P322〉

예문: 喜欢读书。(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 〈BCC〉

나. 의미: (动) 指学习功课。(어떤 과목이나 수업을 공부하다.) 〈現漢: P322〉

예문: 他读书很用功。(그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 〈現漢: P322〉

다. 의미: (动) 上学(학교를 다니다.) 〈現漢: P322〉

예문: 妈妈去世那年, 我还在读书。(어머니가 돌아가셨던 그 해에 나는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現漢: P322〉

---

45) 한국어 ‘기후(氣候)’는 단지 ‘대기 상태’라는 대상을 가리키지만 중국어 ‘气候’는 ‘기상 상황’, ‘동향이나 정세’, ‘결과나 성취’라는 대상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는 한·중 지시 대상의 차이로 볼 수도 있다.

“책 읽음”이라는 의미는 ‘독서(讀書)-读书’의 기본 의미이다. 중국어에서는 “어떤 과목을 공부하다”와 “학교를 다니다”라는 의미가 파생되어 쓰이기도 한다. ‘读书用功’은 “열심히 공부하다”를 의미하고, ‘在北京读书’는 “\*북경에서 책을 읽다”가 아니라 ‘북경에서 학교를 다니다’를 의미한다.<sup>46)</sup> 한국어에는 이러한 파생의미가 없다.<sup>47)</sup>

(232) 한국어 ‘목욕(沐浴)’

의미: (명) 머리를 감으며 온몸을 씻는 일. <표준>

예문: 공중목욕탕에 목욕 갔다 오다. <표준>

(233) 중국어 ‘沐浴’

가. 의미: (动) 洗澡。(목욕하다.) <現漢: P929>

나. 의미: (动) 借指受润泽。(혜택을 받다고 비유적으로 이르다.) <現漢: P929>

예문: 草木沐浴在阳光里。(꽃이 햇빛의 혜택을 받는다.) <現漢: P929>

다. 의미: (动) 比喻沉浸在某种环境中。(어떤 환경에 푹 빠지다고 비유적으로 이르다.) <現漢: P929>

46) 중국어 ‘读书’는 ‘책읽다’, ‘공부하다’, ‘학교를 다니다’라는 여러 행위를 가리키는데 한국어 ‘독서(讀書)’는 ‘책읽음’이라는 행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는 한국어와 중국어 지시 행위의 차이로 볼 수도 있다.

47) 『고어대사전』에서 ‘독서-ㅎ-’가 “어떤 수업이나 과목을 공부하다”라는 의미로 나타난 예문이 있다.

【독서-ㅎ-】(동) 독서(讀書)하다.

a. 뒤히 초당이 이셔 ㅁ장 조코 고요 ㅎ니 독서 ㅎ기 도흘디라<낙성 1:122>

b. 문득 작인의게세주고 남은 방옥을 굴하여 학교 네 곳을 배설 ㅎ고 각각인의 즈데를 명 ㅎ여 그 속의셔 독서게 ㅎ고(就佃戶租剩的空房內, 設立義學四處, 許各佃戶的弟子, 在內讀書.) <요화 6:2> (『고어대사전』633쪽)

예(a)의 ‘독서 ㅎ다’는 “책읽다”로 해석할 수 있는데 현대 한국어 의미와 동일하다. 예(b)는 “학교 공부를 하다”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예(b)는 중국 고전소설의 번역본으로 직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대 이전의 한국어에서 실제로 자연스러운 문장에서 쓰였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겠다.

예문: 他们沐浴在青春的欢乐中。(그들은 청춘의 즐거움 속에 폭 빠져 있다.) 〈現漢: P929〉

한국어 “머리를 감으며 온몸을 씻는 일”이라는 의미가 ‘목욕(沐浴)’의 기본의 미이다. 이는 고대 중국어에서 흔히 쓰인 의미였지만 현대 중국어에는 이런 의미로 거의 쓰이지 않고, 단, ‘沐浴露(바디 클렌저)’와 같이 고유 명사에서 굳어진 것에서 아직 그 흔적을 남아 있을 뿐이다. 현대 중국어에서 ‘沐浴’는 주로 (233나) “혜택을 받다”와 (233다) “어떤 환경에 폭 빠지다”라는 파생의미로 나타난다.<sup>48)</sup>

(234) 한국어 ‘분해(分解)’

의미: (명) 여러 부분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을 그 낱낱으로 나눔.  
〈표준〉

예문: 이 집은 조립식이라 필요에 따라 조립과 분해가 가능하다. 〈표준〉

(235) 중국어 ‘分解’<sup>49)</sup>

가. 의미: (动) 一个整体分成各个组成部分。(여러 부분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을 그 낱낱으로 나눔.) 〈現漢: P382〉

예문: 他的工作就是组装和分解。(그가 맡은 일은 조립과 분해이다.) 〈BCC〉

나. 의미: (动) 排解(纠纷), 调解。(분쟁을 해결하다. 화해시키다.) 〈現漢: P382〉

48) 한국어 ‘목욕’보다 중국어 ‘沐浴’가 지시하는 행위가 더 많아 보이므로 이는 한·중 지시 행위의 차이로 볼 수도 있다.

49) 〈現漢〉에서 ‘分解’의 6개의 의미 중, ②번 화학용어인 의미와 ⑥번 “解说(章回体小说用语)(해설, 장회소설 용어)”라는 문학 전문용어이고 현대중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뜻을 가져오지 않았다.

예문: 让他替你们分解分解。(분쟁은 화해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現漢: P382>

다. 의미: (动) 分化瓦解。(분열시키다) <現漢: P382>

예문: 促使敌人内部分解。(적 내부의 분열을 가속화한다.) <現漢: P382>

라. 의미: (动) 分辨; 解释。(분별하다. 해명하다.) <現漢: P382>

예문: 不容他分解, 就把他拉走了。(그에게 해명할 여지를 주지 않고 끌고 갔다.) <現漢: P382>

‘분해(分解)’는 ‘조립’과 대립되며 “날날으로 나눔”이라는 의미가 기본의미로 한국어 (234)와 중국어 (235가)가 일치한다. 그 외에, 중국어 ‘分解’는 (235나)의 “화해시키다”라는 의미, (235다)의 “분열시키다”라는 의미와 (235라)의 “분별하여 해설하다”라는 의미를 더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의미는 기본의미에서 파생된 의미로 보인다. 한국어에는 이와 같은 파생의미는 없고 기본의미만 나타난다.<sup>50)</sup>

(236) 한국어 ‘안목(眼目)’

의미: (명) 사물을 보고 분별하는 견식. <표준>

예문: 친구는 물건을 고르는 안목이 뛰어나다. <표준>

(237) 중국어 ‘眼目’

가. 의미: (名) 眼睛(눈) <現漢: P1510>

예문: 强烈的灯光炫人眼目。(강렬한 등불 빛이 눈이 부시다.) <現漢: P1510>

나. 의미: (名) 为人暗中探听侦察情况并通风报信的人。(다른 사람을

50) 한국어 ‘분해(分解)’보다 중국어 ‘分解’가 지시하는 행위가 훨씬 많다. 따라서 이는 한·중 지시 행위의 차이로 볼 수도 있다.

위하여 몰래 상황을 살펴주고 알려주는 사람. ㄴ밀정) 〈現漢: P1510〉

예문: 安插眼目。(밀정을 박아 놓았다.) 〈現漢: P1510〉

‘안목(眼目)-眼目’의 기본의미는 “눈”이다. 그러나 중국어에서 아직도 이런 기본의미가 남아 있으나 한국어에는 없다. 그 외에, 한국어와 중국어에서는 모두 파생의미가 쓰이고 있지만 그 파생의미는 서로 다르다. 한국어 ‘안목’은 “사물을 보고 변별하는 견식”으로 뜻풀이되어 ‘안목이 있다’, ‘안목이 없다’, ‘안목이 높다’, ‘안목이 낮다’, 또는 ‘안목을 기르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중국어 ‘眼光’이라는 말에 대응된다. 이러한 의미는 흔히 ‘보는 눈’이라는 표현처럼 역시 ‘눈’이라는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중국어 ‘眼目’은 “밀정”을 이르고 몰래 숨기는 눈이라는 의미이지만 사람을 이르는 말로 바뀌었다.<sup>51)</sup>

(238) 한국어 ‘인가(人家)’

의미: (명) 사람이 사는 집. 〈표준〉

예문: 한때 허허벌판이던 이곳에는 인가들이 뺏뺏이 들어왔다. 〈표준〉

(239) 중국어 ‘人家’

가. 의미: (名) 住户。(사람이 사는 집, 가구.) 〈現漢: P1097〉

예문: 这个村有百十户人家。(이 마을은 수 백 가구가 살고 있다.)

〈現漢: P1097〉

나. 의미: (名) 家庭(가정) 〈現漢: P1097〉

예문: 他们是勤俭人家。(그들은 모두 근검한 가정이다.) 〈現漢:

P1097〉

---

51) 한국어 ‘안목(眼目)’이 ‘견식’이라는 대상을 가리키는 바와 달리 중국어 ‘안목(眼目)’는 ‘눈’, ‘밀정’을 가리키는데 지시 대상이 한국어와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한중 지시 대상의 차이로 볼 수도 있다.

다. 의미: (名) 指女子未来的丈夫家。(여자가 시집갈 집안) 〈現漢: P1097〉

예문: 她已经有了人家了。(그녀는 이미 약혼했다.) 〈現漢:P1097〉

라. 의미: (代) 指自己或某人以外的人。(본인이나 어떤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른 사람.) 〈現漢: P1097〉

예문: 人家都不怕, 就你怕。(다른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지 않는 데 너만 두려워한다.) 〈現漢: P1097〉

마. 의미: (代) 指某个人或某些人。(어떤 한 사람 또는 어떤 사람들을 지칭. ≒그 사람. 그 사람들.) 〈現漢: P1097〉

예문: 你把东西快给人家送回去吧。(너 이 물건을 얼른 그 사람에게 갖다 주거라.) 〈現漢: P1097〉

바. 의미: (代) 我(나) 〈現漢: P1097〉

예문: 原来是你呀! 差点儿没把人家吓死。(너였구나! 하마터면 놀라서 죽을 뻔했잖아.) 〈現漢: P1097〉

‘인가(人家)-人家’의 기본의미는 “사람이 사는 집”인데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모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인가가 보이다’는 중국어 ‘能看见人家’에 대응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기본의미로만 쓰이는 것과 달리 중국어 ‘人家’는 “가정”, “여자가 시집갈 집안”이라는 파생의미로도 쓰인다. 그 외에, 동음이의어인 인칭 대명사 ‘人家’도 있는데 이때는 명사일 때 성조 일성<sup>52)</sup>의 ‘家’와 달리 경성으로 읽힌다. “다른 사람”, “그 사람/사람들”, “나”를 지칭한다. 이는 “사람 사는 집”이라는 ‘人家’의 파생의미로 볼 수 없지만 한국어 ‘인가(人家)’의 의미와 대조해 볼 때 중국어 ‘人家’의 의미 확장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중국어에서 지시 대상이 많은 것은 한국어와는 다른 점으로 지시 대상의 차이로 볼

52) 중국어의 성조는 1성, 2성, 3성, 4성, 경성으로 나타난다.

수도 있다.

(240) 한국어 ‘재료(材料)’

가. 의미: (명)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감. <표준>

예문: 재료가 부족하여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표준>

나. 의미: (명)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거리. <표준>

예문: 올챙이가 개구리로 변하는 과정을 관찰의 재료로 삼았다. <표준>

(241) 중국어 ‘材料’

가. 의미: (名) 可以直接制成成品的东西。(직접 완성품을 만들 수 있는 물품.) <現漢: P118>

예문: 做一套衣服, 这点儿材料不够。(옷 한 벌 만드는 데는 이만한 재료가 부족하다.) <現漢: P118>

나. 의미: (名) 写作、创作、研究等所依据的信息。(글짓기, 창작, 연구에 의거한 정보.) <現漢: P118>

예문: 他准备写一部小说, 正在搜集材料。(그는 소설 한 부를 쓸 준비를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중이다.) <現漢: P118>

다. 의미: (名) 适合做某事的人才。(어떤 일을 하기에 적합한 인재.) <現漢: P118>

예문: 我五音不全, 不是唱歌的材料。(나는 음치라서 노래하는 데에 적합한 인재가 아니다.) <現漢: P118>

한국어 ‘재료(材料)’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건축 재료’, ‘식품 재료’의 ‘재료’는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감”이라는 뜻이고 중국어 (241가)의 의미

에 대응된다. ‘강의 재료’, ‘논문의 주제와 재료’의 ‘재료’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거리”라는 뜻이고 중국어 (241나)의 의미에 대응된다. 그리고 중국어에는 이 두 가지의 의미 외에 “어떤 일을 하기에 적합한 인재”라는 파생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演戏的材料’는 ‘연예하는 데에 적합한 인재’라고 풀이된다. 이런 의미는 한국어 ‘재료’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어 ‘材料’는 한국어 ‘재료(材料)’와 의미가 겹치는 부분도 있으나 중국어에서는 파생의미도 쓰여 의미가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어와 차이가 있다.<sup>53)</sup>

(242) 한국어 ‘재배(栽培)’

의미: (명) 식물을 심어 가꿈. <표준>

예문: 신품종의 재배에 성공하다. <표준>

(243) 중국어 ‘栽培’

가. 의미: (动) 种植, 培养。(심어 가꾸다) <現漢: P1628>

예문: 栽培果树。(과수를 재배하다) <現漢: P1628>

나. 의미: (动) 比喻培养、造就人才。(인재를 배양하다고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現漢: P1628>

예문: 感谢老师的栽培。(선생님의 배양에 감사드립니다.) <現漢: P1628>

다. 의미: (动) 官场中比喻照顾、提拔。(관리사회에서 돌봄과 등용을 비유하는 말.) <現漢: P1628>

예문: 今后望您多多栽培。(앞으로 많이 타일러 주세요.)

‘재배(栽培)-栽培’는 “식물을 심어 가꿈”이라는 기본의미로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모두 쓰인다. ‘난초 재배(栽培兰花)’, ‘작물 재배(作物栽培)’와 같이 그 쓰

53) 한편, 중국어 ‘材料’가 지시하는 대상이 한국어보다 많기 때문에 이는 한중 지시 대상의 차이로 볼 수도 있다.

임도 대응될 수 있다. 한국어에는 이런 기본의미로만 나타나지만 중국어에는 파생의미로도 나타난다. ‘栽培人才’와 같이 “인재를 배양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챙기거나 등용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후자는 주로 관료사회에서 윗사람에게 챙겨달라고 하는 의례적인 말로 많이 나타난다.<sup>54)</sup>

(244) 한국어 ‘질량(質量)’

의미: (명) 물체의 고유한 역학적 기본량.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이 있다. <표준>

예문: 오늘 과학 시간에는 질량에 중력이 가해지면 무게가 된다는 사실을 배웠다. <고려>

(245) 중국어 ‘质量’

가. 의미: (名) 表示物体惯性大小的物理量。(물체의 관성 크기를 나타내는 물리적인 양.) <現漢: P1689>

예문: 天平是测质量的常用工具。(천칭은 질량을 측정할 때 항상 사용하는 도구이다.) <現漢: P1689>

나. 의미: (名) 产品或工作的优劣程度。(제품이나 업무의 좋고 나쁨의 정도.) <現漢: P1689>

예문: 提高服务质量。(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킨다.) <現漢: P1689>

‘질량(質量)-质量’의 물리학적 의미는 한국어와 중국어가 동일하다. 그 외에, 중국어는 사회학적인 의미로 파생되어 (245가) “제품이나 업무의 좋고 나쁨의 정도”를 이르기도 한다. ‘服务质量(서비스 수준)’, ‘产品质量(제품 품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 ‘수준’이나 ‘품질’라는 말에 대응될 수 있다.<sup>55)</sup>

54) 한국어 ‘재배(栽培)’는 “식물을 심어 가꿈”이라는 행위만 가리키지만 중국어 ‘栽培’는 그런 의미 외에, ‘인재를 배양하다’, ‘챙기고 등용하다’라는 행위를 가리키기도 한다. 따라서 이는 한·중 지시 행위의 차이로 볼 수도 있다.

55) 중국어 ‘质量’이 지시하는 대상이 한국어보다 많기 때문에 이는 한중 지시 대상의 차이로 파

(246) 한국어 ‘합계(合計)’

의미: (명) 한데 합하여 계산함. 또는 그런 수효. <표준>

예문: 이 물건들의 합계가 얼마입니까? <표준>

(247) 중국어 ‘合计’

가. 의미: (动) 合在一起计算。(한데 합하여 계산하다.) <現漢: P524>

예문: 两处合计六十人。(두 군데 합계 육십 명이다.) <現漢: P524>

나. 의미: (动) 盘算。(타산하다.) <現漢: P524>

예문: 他心里老合计这件事。(그는 마음속으로 늘 이 일을 타산한다.) <現漢: P524>

다. 의미: (动) 商量。(의논하다.) <現漢: P524>

예문: 大家合计合计这事该怎么办。(이 일을 어떻게 할지 모두들 의논해 봅시다.) <現漢: P524>

‘합계(合計)-合计’는 “한데 합하여 계산함. 또는 그런 수효”라는 의미는 한국어 (246)와 중국어 (247가)가 일치한다.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이 기본의미로만 나타나는 반면, 중국어에서는 “타산하다”와 “의논하다”라는 파생의미도 가진다. 따라서 한국어와 달리 중국어 ‘合计’가 의미 확장이 되었다.<sup>56)</sup>

(248) 한국어 ‘해결(解決)’

의미: (명) 제기된 문제를 해명하거나 얽힌 일을 잘 처리함. <표준>

예문: 친구 간에 생긴 문제의 해결은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한다. <표준>

(249) 중국어 ‘解决’

---

악할 수도 있다.

56) 한편, 한국어 ‘합계(合計)’는 “한데 합하여 계산함”이라는 행위만 지시한 것과 달리, 중국어 ‘合计’는 그런 행위 외에, ‘타산하다’, ‘의논하다’라는 행위도 지시한다. 따라서 이는 한·중 지시 행위의 차이로 볼 수도 있다.

가. 의미: (动) 处理问题使有结果。(결과가 나도록 문제를 처리하다.)

〈現漢: P669〉

예문: 解决困难。(어려움을 해결한다.)

나. 의미: (动) 消灭(坏人)。(나쁜 사람을 없애다.) 〈現漢: P669〉

예문: 残余匪徒全给解决了。(잔여 비적들이 모두 없애 버렸다.)

〈現漢: P669〉

‘해결(解決)-解决’는 “제기된 문제를 해명하거나 얽힌 일을 잘 처리함”이라는 의미로 ‘문제 해결(解决问题)’, ‘어려움 해결(解决困难)’과 같이 한·중 의미와 용법이 일치한다. 그 외에, 중국어에서 “없애 버리다”라는 파생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이때의 목적어는 (249가)와 같은 부정적인 가치 의미를 가지는 ‘문제’나 ‘어려움’이 아니라 (249나)와 같이 사람이나 사물로 많이 나타난다.<sup>57)</sup>

#### 4.2.3. 한국어와 중국어 의미 교집합을 이루는 경우

동자 부분이의어는 교집합을 이루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한국어의 의미와 중국어의 의미가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서 동시에 각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250) 한국어 ‘가도(街道)’

가. 의미: (명) 큰 길거리. 〈표준〉

예문: 그 가도에는 봄철마다 벚꽃을 구경하러 온 인파로 넘쳐난다.

〈고려〉

나. 의미: (명) 도시와 도시 사이를 잇는 큰길. 〈표준〉

57) 중국어 ‘解决’는 한국어 ‘해결(解決)’이 지시하는 행위 외에, ‘나쁜 사람을 없애다’라는 행위도 지시하기 때문에 한중 지시 행위의 차이로 볼 수도 있다.

예문: 우리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경춘 가도를 달렸다. <표준>

다. 의미: (명) 막힘이 없이 탄탄한 진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예문: 승진 가도를 위해서는 평소에 인간관계를 잘해 두어야 한다.

<표준>

(251) 중국어 ‘街道’

가. 의미: (名) 旁边有房屋比较宽阔的道路。(옆에 건물이 있고 보다 넓은 길.) <現漢: P663>

예문: 街道两旁, 绿柳成荫。(도로 양쪽에는 푸른 버드나무 그늘이 우거진다.)<BCC>

나. 의미: (名) 指街道办事处。(동 사무소.) <現漢: P663>

‘가도(街道)-街道’는 한국어 (250가)와 중국어 (251가)는 일치하는 의미인데 모두 차나 사람이 다니는 길거리이다. 그 외에, 한국어 ‘경춘 가도’와 같이 “도시와 도시 사이를 잇는 큰길”을 가리키기도 하고, 파생의미로 “탄탄한 진로”도 있다. 그리고 중국어는 동 사무소나 주민센터를 이르기도 하는데 흔히 ‘街道办事处(동 사무소)’와 같이 나타난다.

(252) 한국어 ‘결속(結束)’

가. 의미: (명) 한 덩어리가 되게 묶음. <표준>

예문: 벼를 단으로 결속한다. <표준>

나. 의미: (명) 뜻이 같은 사람끼리 서로 단결함. <표준>

예문: 김 부장은 부서원의 결속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고려>

다. 의미: (명) 여행을 떠나거나 싸움터에 나설 때에 몸단속을 함. <표준>

예문: 행장을 결속한다. <표준>

라. 의미: (명) 하던 일이나 말을 수습하고 정리하여 끝맺음. <표준>

예문: 의견을 종합하여 결속을 지었다. <표준>

마. 의미: (명) 전선 따위를 서로 통할 수 있도록 연결함. <표준>

예문: 이 제품은 공구 없이도 전선의 결속이 가능하다. <표준>

(253) 중국어 ‘結束’

의미: (动) 发展或进行到最后阶段, 不再继续。(발전과 진행이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여, 더 이상 지속되지 않다. ㄴ끝나다.) <現漢: P667>

예문: a. 秋收快要结束了。(가을걷이가 곧 끝난다.) <現漢: P667>

b. 代表团结束了对北京的访问。(대표단은 북경 방문을 마쳤다.)  
<現漢: P667>

한국어 ‘결속(結束)’은 다섯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의미는 (252나)이다. 현대 문어 말뭉치에서 ‘결속’이 나타난 문장 38개 중에 (252나)의 의미로 쓰이는 문장은 25개 내외나 된다. 예를 들어 ‘종업원들의 결속’, ‘당내 결속 강화’ 등과 같다. 그만큼 현대 한국어에서 ‘결속’이 여러 의미를 갖지만, 빈도수가 높게 쓰이는 의미는 오직 (252나)뿐인 것을 볼 수 있다. 나머지의 의미들은 많이 쓰이는 의미가 아니다.

중국어 ‘結束’는 “최종 단계에 진행된다. 계속되지 않다”라는 의미로 풀이되는데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의미는 한국어 ‘끝나다’와 ‘마치다’라는 말에 대응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결속(結束)’의 “하던 일이나 말을 수습하고 정리하여 끝맺음”이라는 의미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할 수 없지만 유사해 보이고 ‘結束工作’는 ‘일을 결속짓다’와 같이 용법이 대응될 때도 있어 보인다. 나머지 의미는 한·중 공통된 부분이 없다. 다시 말해 ‘결속(結束)-結束’는 “끝내다”라는 의미는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공통으로 쓰이는데 그 외에 중국어는 “끝나다”

라는 의미를 더 가지고 있고, 한국어도 중국어에 없는 의미 몇 가지를 더 가지고 있다. 范琦慧(2002)와 곽박림(2013)은 한·중 ‘동형 완전이의어’로 보았는데 이는 한국어 ‘결속’의 (252가, 나)의 의미만 가지고 대조한 결과이다. 본고는 사전에서 나타난 의미를 중심으로 대조하고 언어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낮은 의미도 제외시키지 않는다. 文蓮姬(2007)과 馬今善(2012)에서는 본고와 같이 ‘동형 부분 이의어’로 보았으나 한국어의 의미가 더 포괄적이라고 지적하였다.

한·중 동자이의어 ‘결속(結束)-結束’가 이와 같은 의미 차이를 갖게 된 것은 현대 이전의 자료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254) 『조선시대 한글편지 어휘사전』(P.323)의 ‘결속’

결속(結束) 명. 결속(結束.) 복식(服飾.)〈고〉

【결속】 흥딤 디바회 바틀 솟작동이 지서 먹는다 흥다 받자리 쉬 굴믹 실도리라 흥는다 바치 크다 호딤 마수 지기를 모르는다 광쳐리라 흥는 노미 아는다 흥드다 {결속} 바느질 아들내 시기니 바느지리 수이 묻히야 보내로라 알고 잇거라〈전주하씨묘-077/곽씨-115, 17세기 전기, 진주하씨(어머니)→현풍곽씨(딸)〉

(255) 『고어대사전』(P. 278)의 ‘결속-흥-’

【결속-흥-】 동. ((복식) 결속(結束)하다.) 착용하다. 옷 매무새하다. 여행을 떠나거나 싸움터에 나설 때의 몸단속을 하다.

도라가 신성홀노다 흥고 인흥여 의관을 슈습흥여 결속흥미 요해 쏘 실망흥나 부득이 의상을 거두거늘 〈벽허담18:27〉

위의 자료에 나타난 ‘결속’은 ‘복식’에 관련된 말이라고 해석되어 있다. 즉 근대 한국어에서 ‘결속’이 주로 쓰인 의미는 현대 한국어 (252다)로 발달되었다고

추정된다. 단, 현대 한국어에 와서 이런 의미는 많이 쓰이지 않게 되었다.

(256) 한국어 ‘계산(計算)’

가. 의미: (명) 수를 헤아림. <표준>

예문: 그 은행원은 계산을 잘못하여 모자란 금액을 자기 월급으로 채웠다. <표준>

나. 의미: (명) 어떤 일을 예상하거나 고려함. <표준>

예문: 비행시간을 계산에 넣고 여정을 짰다. <표준>

다. 의미: (명) 값을 치름. <표준>

예문: 계산을 치르고 호텔을 떠났다. <표준>

라. 의미: (명) 어떤 일이 자기에게 이해득실이 있는지 따짐. <표준>

예문: 이번 정계 개편은 내각제로의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여당의 계산이 깔려 있다. <고려>

(257) 중국어 ‘计算’

가. 의미: (动) 根据已知量算出未知量。(기지수를 기준으로 미지수를 구하다. ≍ 계산하다.) <現漢: P614>

예문: 计算人数。(광속을 계산하다.) <現漢: P614>

나. 의미: (动) 考虑; 筹划。(고려하다. 계획하다.) <現漢: P614>

예문: 做事要先计算一下。(일을 하기 전에 계획해야 한다.) <現漢: P614>

다. 의미: (动) 暗中谋划损害别人。(남몰래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음모하다.) <現漢: P614>

예문: 当心被小人计算。(소인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現漢: P614>

한국어 ‘계산(計算)’은 네 가지의 의미가 있고 중국어 ‘计算’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한국어 (256가)는 중국어 (257가)에 대응된다. ‘계산을 잘못하다’는 ‘计算错误’로, ‘计算光速’는 ‘광속을 계산하다’로 옮길 수 있다. 그리고 한국어 (256나)와 중국어 (257나)에 대응된다. 이 두 가지 공통된 의미 외에, 한국어 (256다, 라)의 의미는 중국어에 없다. 예컨대 ‘계산을 치르고 호텔을 떠났다’라는 표현은 중국어에 없는 의미이다. 그리고 중국어에는 부정적인 가치 의미로 쓰이는 (257다)가 한국어에는 없다. 이상으로 ‘계산(計算)-计算’은 한·중 공통된 의미 외에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258) 한국어 ‘과연(果然)’

가. 의미: (부)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주로 생각과 실재가 같음을 확인할 때에 쓰다. <표준>

예문: 작품을 보니 소문에 들던 대로 이 사람은 과연 훌륭한 예술가로구나. <표준>

나. 의미: (부) 결과에 있어서도 참으로. <표준>

예문: 그 실력으로 과연 취직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표준>

(259) 중국어 ‘果然’

가. 의미: (副) 表示事实与所说或所料相符。(사실이 말한 바와 부합되다. ≒정말로.) <現漢: P500>

예문: 果然名不虚传。(정말로 명실상부이다.) <現漢: P500>

나. 의미: (连) 假设事实与所说或所料相符。(가정한 사실과 말하거나 예상한 대로 들어맞다. ≒정말.) <現漢: P500>

예문: 你果然爱她, 就该帮助她。(네가 그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도와주어야 한다.) <現漢: P500>

‘과연(果然)-果然’은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모두 부사로 쓰이는데 한국어 (258가)와 중국어 (259가)와 같이 생각과 실체의 같음을 확인할 때 동일하게 쓰일 수 있다. 그 외에, 한국어 (258나)와 같이 “결과에 있어서도 참으로”라는 의미도 가지는데 주로 의문문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중국어 (259나)의 “만약 정말이라면”이라는 가정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260) 한국어 ‘구속(拘束)’

가. 의미: (명) 행동이나 의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속박함. <표준>

예문: 우리는 아무런 구속이 없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한다.

<표준>

나. 의미: (명) 『법률』 법원이나 판사가 피의자나 피고인을 강제로 일정한 장소에 잡아 가두는 일. <표준>

예문: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려>

(261) 중국어 ‘拘束’

가. 의미: (动) 对人的言语, 行动加以不必要的限制, 过分约束。(사람의 말과 행동을 속박하고 제한하다.) <現漢: P702>

예문: 不要拘束孩子的正常行动。(아이의 정당한 행동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마.) <現漢: P702>

나. 의미: (形) 过分约束自己, 显得不自然。(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속박하여 어색해 보인다.) <現漢: P702>

예문: 她见了生人, 显得有点儿拘束。(그녀는 낯선 사람을 만나서 다소 어색해 보인다.) <現漢: P702>

한국어 ‘구속(拘束)’은 (260가)처럼 ‘지나친 구속’, ‘구속이 심하다’ 등과 같은

표현에서 쓰여 중국어 ‘拘束’의 (261가)의 의미와 일치하고 ‘过分拘束’, ‘严重拘束’에 대응된다. 한국어 ‘구속’은 법률 용어로 쓰이기도 하는데 ‘구속 조치’ 또는 ‘경찰에게 구속을 당하다’와 같이 나타나 중국어 ‘拘留’나 ‘拘捕’라는 말에 대응된다. 한편 중국어 ‘拘束’는 (261나)처럼 형용사로도 쓰이고 한국어 ‘어색하다’라는 말에 대응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 차이를 갖게 된 것에 대해 현대 이전의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62) 『현대어로 보는 한불사전』 (P.166)의 ‘구속하다’

구속하다 [KOU-SOK-HĀ-TA] (拘束)

불 : empêcher de sortir; retenir à la tâche; réduire en esclavage.

한 : 나가지 못하게 막다. 일에 붙잡아 놓다. 노예로 만들다.

19세기 ‘구속하다’는 “나가지 못하게 막다. 일에 붙잡아 놓다. 노예로 만들다”라고 번역되었는데 이 중의 “나가지 못하게 막다”라는 의미가 현대 한국어 (260가)로 발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60나)는 19세기에 없는 의미였고 19세기 이후에 새로 생긴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263) 한국어 ‘근본(根本)’

가. 의미: (명) 사물의 본질이나 본바탕. <표준>

예문: 우리 경제가 불황 상태에 있는 것이 주가 하락의 근본 원인이다. <표준>

나. 의미: (명) 자라 온 환경이나 혈통. <표준>

예문: 그는 근본이 좋은 사람이다. <표준>

(264) 중국어 ‘根本’

가. 의미: (名) 事物的根源或最重要的部分。(사물의 근원이나 가장 중요한 부분.) 〈現漢: P444〉

예문: 应该从根本上考虑解决问题的方法。(마땅히 근본적인 방면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現漢: P444〉

나. 의미: (形) 主要的; 重要的。(주요한 것, 중요한 것.) 〈現漢: P444〉

예문: 不要回避最根本的问题。(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지 마라.) 〈現漢: P444〉

다. 의미: (副) 本来; 从来。(본래, 여태껏.) 〈現漢: P444〉

예문: 这话我根本没听过。(이 말은 나는 여태껏 들어본 적 없다.) 〈現漢: P444〉

라. 의미: (副) 从头到尾; 始终; 全然。(머리에서 발끝까지, 시종, 완전히. ≒ 애초부터.) 〈現漢: P444〉

예문: 我根本就不赞成这种做法。(나는 애초부터 이런 방법을 찬성하지 않았다.) 〈現漢: P444〉

마. 의미: (副) 彻底。(철저히) 〈現漢: P444〉

예문: 问题已经根本解决。(문제는 철저히 해결되었다.) 〈現漢: P444〉

한국어 ‘근본(根本)’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는데 “사물의 본질이나 본바탕”이라는 의미로 ‘근본 원칙’, ‘근본 원인’으로 쓰이고 중국어 ‘根本’의 (264가, 나)의 의미에 대응된다고 본다. 중국어 ‘根本原则’, ‘根本原因’이라는 표현에 대응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통된 의미 외에, 한국어는 ‘근본이 좋은 사람’과 같이 나타나 “자라 온 환경이나 혈통”을 가리키기도 하고, 중국어는 “여태껏”, “애초부터”와 “철저히”라는 의미로 쓰여 부사로 기능하기도 한다.

(265) 한국어 ‘대개(大概)’

가. 의미: (명) 절반이 훨씬 넘어 전체량에 거의 가까운 정도의 수효나 분량. <표준>

예문: 문호의 작품들은 대개가 직접 체험과 연관을 맺고 있더군요.  
<표준>

나. 의미: (명) 자세하지 않은, 기본적인 부분만을 따 낸 줄거리. <표준>

다. 의미: (부) 일반적인 경우에. <표준>

예문: 씨앗은 대개 이른 봄에 뿌린다. <표준>

(266) 중국어 ‘大概’

가. 의미: (副) 表示不很准确的估计。(정확하지 않는 추측을 나타낸다.)  
<現漢: P240>

예문: 那道题大概很难。(그 주제는 아마 매우 어려운가 보다.) <現漢: P240>

나. 의미: (形) 不十分精确或不很详尽。(매우 정확하거나 상세하지 않다. ≍대강) <現漢: P240>

예문: 这件事我记不太清, 只有个大概的印象。(이 일은 내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대강의 인상만 남아 있어.) <現漢: P240>

다. 의미: (名) 大致的内容或情况。(대체적인 내용이나 상황.) <現漢: P240>

예문: 他嘴上不说, 心里却琢磨了个大概。(그는 입으로는 말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는 대체적인 생각을 해냈다.) <現漢: P240>

‘대개(大概)-大概’는 (265나)와 (266나, 다)에서 보듯이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대강”이라는 의미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이런 의미, 즉 “자세하지 않은, 기본적인 부분만을 따 낸 줄거리”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흔히 ‘대강’이라는 말이 쓰인다. 즉 ‘대개’의 (265나)의 의미는 흔히 쓰이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나 중국어에서 (266나)는 부사로 쓰이고, (266다)는 명사로 쓰이며 “대강”이라는 의미는 흔히 쓰이는 의미이다. 한편, 공통된 의미 외에, 한국어는 (265가)와 같이 “대부분”이라는 의미를 가진 명사로도 쓰이고, (266다)와 같이 부사로도 쓰인다. 중국어는 (266가)에서 보듯이 “추측”을 나타내기도 한다.

(267) 한국어 ‘대리(代理)’

가. 의미: (명) 남을 대신하여 일을 처리함. 또는 그런 사람. <표준>

예문: 삼촌이 아버지 대리로 모임에 참석했다. <표준>

나. 의미: (명) 은행이나 회사 따위의 집단에서 부장, 지점장, 과장 등의 직무를 대신하는 직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 흔히 유사시 과장의 직무를 대신할 수 있는, 과장 바로 아래의 고정된 직위를 이르기도 한다. <표준>

예문: 그는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입사 일 년 만에 대리로 승진하였다. <고려>

(268) 중국어 ‘代理’

가. 의미: (动) 暂时代人担任某个职务。(임시로 남을 대신하여 어떤 직무를 맡다.) <現漢: P249>

예문: 在推举新总统之前, 担任临时代理总统。(새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그는 대통령권한 대행자를 맡았다.) <BCC>

나. 의미: (动) 受当事人委托, 代表他进行诉讼·纳税·签订合同等活动。(당사자의 위탁으로 소송·세금납부·계약체결 등을 대신하여

하다.) 〈現漢: P249〉

예문: 律師代理他处理这个事。(변호사가 그를 대신하여 이 사건을 처리한다.) 〈BCC〉

한국어에서 (267나)에 해당하는 ‘대리(代理)’는 직무 명칭으로 ‘대리’는 ‘김 대리’, ‘최 대리’와 같이 나타난다. 이런 직무 명칭을 중국 회사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 외에도 한국어에서는 “남을 대신하여 일을 처리함. 또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로 ‘대리 근무’와 같이 나타나는데, 이는 중국어 ‘代理’의 (268가)의 “잠시 남을 대신하여 어떤 직무를 맡다”라는 의미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본다. 중국어에서는 주로 ‘직무’를 대행할 때 쓰이지만 한국어는 모든 일을 대신 처리할 때 쓰인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는 ‘대리 출석’이나 ‘대리 시험’도 가능하다. 한편, 중국어 ‘代理’는 (268나)의 의미로도 쓰여 법적으로 대신하여 일을 처리한다는 뜻으로 ‘代理人’과 같이 나타난다.

(269) 한국어 ‘대체(大體)’

가. 의미: (명) 일이나 내용의 기본적인 큰 줄거리. 〈표준〉

예문: 그 현상을 학문의 여러 부분의 도움을 얻어 많은 노력을 한 후 오늘날처럼 대체를 알 수 있게 되었다. 〈표준〉

나. 의미: (명) 도대체. 〈표준〉

예문: 잃은 돈이 대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다. 〈표준〉

(270) 중국어 ‘大体’

가. 의미: (名) 重要的道理。(중요한 도리.) 〈現漢: P245〉

예문: 顾大局, 识大体(전반 국면을 돌보고, 중요한 이치를 안다.)  
〈現漢: P245〉

나. 의미: (副) 就多数情形或主要方面而言。(대부분 상황이나 혹은 주

요 방면에 있다. ≒대체로) 〈現漢: P245〉

예문: 我们的看法大体相同。(우리 둘의 견해는 대체로 같다.) 〈現漢: P245〉

한국어 ‘대체(大體)’는 명사와 부사로 두루 쓰인다. ‘대체를 알다’의 ‘대체’는 명사인데 “일이나 내용의 기본적인 큰 줄거리”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부사로 쓰일 때는 “도대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중국어 ‘大体’는 명사인 ‘识大体(전체 국면을 돌보다)’의 “중요한 도리”라는 의미와, 부사인 “대체로”라는 의미를 가진다. (269가)와 (270나)의 의미는 같다고 볼 수 있지만 한국어는 명사로 쓰이고 중국어는 부사로 쓰여 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보인다.

(271) 한국어 ‘등기(登記)’

가. 의미: (명) 『법률』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 또는 적어 놓은 것.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의 요건이 된다. 〈표준〉

예문: 동사무소에 가서 집 등기를 뗐다. 〈표준〉

나. 의미: (명) 편물 특수 취급의 하나.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안전한 송달을 보증 하기 위하여 우편물의 인수·배달 과정을 기록한다. 등기 우편. 〈표준〉

예문: 편지를 등기로 부쳤다. 〈표준〉

(272) 중국어 ‘登记’

의미: (动) 把有关事项写在特备的表册上以备查考。(관련 사항을 앞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특별히 준비된 장부에 적어 놓다.) 〈現漢: P274〉

예문: 来客请到传达室登记。(방문한 손님이 경비실에 와서 등록하세요)

요.) 〈現漢: P274〉

중국어 ‘登記’는 “관련 사항을 앞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특별히 준비된 장부에 적어 놓다”라는 의미인데 ‘在名單上登記(명단에서 이름을 적다)’와 ‘婚姻登記(혼인신고를 하다)’와 같이 나타난다. 한국어 ‘등기’는 (271가)의 의미로 ‘집 등기’, ‘토지나 땅을 등기하다’와 같이 쓰이고, (271나)의 의미로 “등기 우편”이라는 의미이다. (271가) 부동산에 관련된 사항을 법적으로 적어 놓다는 의미는 중국어 ‘登記’에 포함된 의미로 보인다. 중국어 ‘登記’는 부동산·혼인·사업 등을 포함한 모든 정식적 기록에 기재하는 일을 이르는데 의미는 매우 포괄적이다. ‘집 등기’는 ‘住宅登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등기(登記)-登記’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의미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한국어와 중국어에는 각자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 것이다.

(273) 한국어 ‘마비(麻痺)’

가. 의미: (명) 『의학』 신경이나 근육이 형태의 변화 없이 기능을 잃어버리는 일. 감각이 없어지고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된다. 〈표준〉

예문: 약이 들어가기가 무섭게 입술에 마비가 오면서 감각이 무디어져 갔다. 〈표준〉

나. 의미: (명) 본래의 기능이 둔하여지거나 정지되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표준〉

예문: 직원들의 집단 사표로 업무가 마비 상태다. 〈표준〉

(274) 중국어 ‘麻痺’

가. 의미: (动) 神经系统病变引起的身体某一部分知觉能力的丧失或运动机能的障碍。(신경계 병리적 변화로 일으킨 신체 한 부

분의 감각 능력 상실이나 운동 기능 장애를 이른다.) 〈現漢: P865〉

예문: 感觉全身**麻痹**。(전신 마비를 느껴진다.) 〈BCC〉

나. 의미: (形) 失去警惕性。(경계심을 잃거나 잃게 하다. ≒소홀하다.) 〈現漢: P865〉

예문: 工作中千万不可**麻痹大意**。(일할 때 소홀하면 안 된다.)

다. 의미: (动) 使失去警惕性; 使疏忽。(경계심을 잃게 하고, 소홀하게 하다. ≒회유하다.) 〈現漢: P865〉

예문: **麻痹敌人**。(적을 회유한다.) 〈現漢: P865〉

‘마비(麻痹)-**麻痹**’는 의학 용어로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의미가 일치하고 ‘하지 마비(下肢**麻痹**)’, ‘전신 마비(全身**麻痹**)’와 같이 대응된다. 의학 용어가 아닐 때에는 두 언어에서 모두 파생적인 의미가 쓰이는데 한국어는 ‘교통의 마비’, ‘업무의 마비’와 같이 나타나 “본래의 기능이 둔하여지거나 정지되는 일”을 이르고, 중국어는 흔히 ‘**麻痹大意**(소홀하다)’로 나타나 “경계심을 잃다”라는 뜻과, ‘**麻痹敌人**(적을 회유하다)’와 같이 “경계를 잃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와 같이 ‘마비(麻痹)-**麻痹**’의 중국어와 한국어에서 각각 다른 의미가 파생되어 쓰이는 것이다.

(275) 한국어 ‘매장(埋葬)’

가. 의미: (명) 시체나 유골 따위를 땅속에 묻음. 〈표준〉

예문: 매장을 할 때에는 미리 의사의 사망 진단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하고 매장 인가를 얻어야 한다. 〈고려〉

나. 의미: (명) 어떤 사람을 사회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거나 용납하지 못하게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표준〉

예문: 그렇게 비열한 인간은 사회에서 매장을 시켜야 한다. <표준>

(276) 중국어 ‘埋葬’

가. 의미: (动) 掩埋尸体。(시체를 땅속에 묻다.) <現漢: P870>

예문: 他死后, 埋葬在公墓里。(그가 죽은 후, 공동묘지에 매장되었다.) <現漢: P870>

나. 의미: (动) 消灭; 消除。(소멸하다. 없애 버리다.) <現漢: P870>

예문: 埋葬旧世界。(낡은 세계를 없애 버린다.) <現漢: P870>

‘매장(埋葬)-埋葬’의 기본의미는 “시체를 땅속에 묻다”인데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일치하고 모두 쓰인다. 그 외에, 서로 다른 파생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국어는 “어떤 사람을 사회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거나 용납하지 못하게 함”이라는 의미이고 중국어는 “소멸하다, 없애 버리다”라는 의미이다.

(277) 한국어 ‘분별(分別)’

가. 의미: (명) 서로 다른 일이나 사물을 구별하여 가름. <표준>

예문: 지금은 귀천의 분별이 없어졌다. <표준>

나. 의미: (명) 세상 물정에 대한 바른 생각이나 판단. <표준>

예문: 그는 분별이 없는 사람이다. <표준>

다. 의미: (명) 어떤 일에 대하여 배려하여 마련함. <표준>

예문: 외딴 암자에 내가 혼자 머무는 걸 염려한 그의 분별로 동네 아낙들이 함께 와서 있었다. <고려>

(278) 중국어 ‘分別’

가. 의미: (动) 离别。(헤어지다.) <現漢: P381>

예문: 分別的时候, 大家都依依不舍。(헤어질 때 다들 섭섭하다.) <BCC>

나. 의미: (动) 辨别。(변별하다.) <現漢: P381>

예문: 分別是非。(시비를 변별한다.) <現漢: P381>

다. 의미: (名) 不同。(차이.) <現漢: P381>

예문: 看不出有什么分別。(차이가 안 보인다.) <現漢: P381>

라. 의미: (副) 分头, 各自。(제각기, 따로따로.) <現漢: P381>

예문: 这两件事应该分別叙说。(이 두 일은 따로따로 기술해야 한다.) <BCC>

마. 의미: (副) 按不同方式; 有区别地。(다른 방식으로. 구별적으로.) <現漢: P381>

예문: 这两件事情要分別处理。(이 두 가지의 일은 구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現漢: P381>

한국어 ‘분별(分別)’은 세 개의 의미를 가진다. 그 중에 ‘귀천의 분별’에서는 “서로 다른 일이나 사물을 구별하여 가름”이라는 의미로 중국어 (278나, 다)의 의미와 같아 보인다. ‘귀천의 분별’은 중국어 ‘贵贱的分別’나 ‘贵贱的不同’과 같이 그 쓰임이 대응되기도 한다. 그 외에, 한국어 ‘분별’은 ‘분별없는 사람’이나 ‘분별 있게 행동하다’와 같이 나타나 “세상 물정에 대한 바른 생각이나 판단”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에 대하여 배려하여 마련함”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중국어 ‘分別’는 “헤어지다”라는 의미로 ‘与你分別(그대와 헤어지다)’와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제각기, 따로따로”라는 의미로 ‘分別叙说(따로따로 기술하다)’와 같이 나타나거나 “다른 방식으로. 구별적으로”라는 의미로 ‘分別处理(구별적으로 처리하다)’와 같이 부사로 나타나기도 한다.

(279) 한국어 ‘분분(紛紛)’

‘분분하다’의 어근.

가. 의미: (형) 떠들썩하고 뒤숭숭하다. <표준>

예문: 나라 안팎이 분분하다. <표준>

나. 의미: (형) 여럿이 한데 뒤섞여 어수선하다. <표준>

예문: 길거리에 떨어진 낙엽들이 몹시 분분했다. <고려>

다. 의미: (형) 소문, 의견 따위가 많아 갈피를 잡을 수 없다. <표준>

예문: 그가 총리직을 사임한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했다. <고려>

(280) 중국어 ‘纷纷’

가. 의미: (形) 多而杂乱。(많고 어수선하다.) <現漢: P384>

예문: a. 议论纷纷。(의논이 분분하다.) <現漢: P384>

b. 落叶纷纷。(낙엽이 분분하게 떨어진다.) <現漢: P384>

나. 의미: (副) 许多人或事物接二连三地。(많은 사람이나 물건이 잇따라) <現漢: P384>

예문: 大家纷纷提出问题。(사람들이 잇따라 질문을 한다.) <現漢: P384>

한국어 ‘분분(紛紛)’은 ‘분분하다’의 어근인데 세 가지의 의미가 있고, 중국어 ‘纷纷’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대조해 보면 어떤 물건, 또는 볼 수 없는 소문이나 의논 등이 어수선하다는 상태를 나타내 중국어의 (280가)가 한국어의 (279나, 다)에 대응된다. ‘낙엽이 분분하다(落叶纷纷)’, ‘소문이 분분하다(流言纷纷)’과 같이 그 쓰임에 있어서도 대응될 수 있다. 이런 공통 의미 외에 한국어는 (279가) “떠들썩하고 뒤숭숭하다”라는 의미를 더 갖고 있고, 중국어는 (280나)와 같이 “许多人或事物接二连三地(많은 사람이나 물건이 잇따라)”라는 의미를 더 갖고 있다.

(281) 한국어 ‘불편(不便)’

가. 의미: (명) 어떤 것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거북하거나 괴로움. <표준>

예문: 해역에는 안개가 자주 끼어 해상 교통에 불편을 주기도 한다.  
<표준>

나. 의미: (명) 몸이나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괴로움. <표준>

예문: 몸의 불편을 무릅쓰고 일을 했다. <표준>

다. 의미: (명) 다른 사람과의 관계 따위가 편하지 않음. <표준>

예문: 그와 함께 있을 때는 심한 불편을 느끼곤 한다. <표준>

(282) 중국어 ‘不便’

가. 의미: (形) 不方便。(편리하지 않다.) <現漢: P105>

예문: 边远山区, 交通不便。(변두리 지역이라 교통이 불편하다.)  
<現漢: P105>

나. 의미: (动) 不适宜。(적합하지 않다.) <現漢: P105>

예문: 他不愿讲, 我也就不便多问。(그는 말하기가 싫으니 나는 더 물어보기가 적합하지 않다.) <現漢: P105>

다. 의미: (形) 指缺钱用。(쓸 돈이 모자라다.) <現漢: P105>

예문: 手头不便。(수중에 돈이 부족하다.) <現漢: P105>

‘불편(不便)-不便’은 한국어 (281가)와 중국어 (282가)가 일치하는 의미를 가지고 ‘교통 불편-交通不便’과 같이 용법도 대응된다. 그 외에, 한국어는 ‘몸의 불편’ 또는 ‘마음이 불편하다’와 같이 나타난 (281나)의 의미와, ‘그와 있을 때 불편을 느끼다’와 같이 나타난 (281다)의 의미를 더 가지고 있다. 중국어는 ‘不便多问(더 물어보기가 적합하지 않다)’라는 (282나)의 의미와, ‘手头不便(수중에 돈이 부족하다)’라는 (282다)의 의미를 더 가지고 있다.

(283) 한국어 ‘사업(事業)’

의미: (명)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함. 또는 그 일. <표준>

예문: a. 이 부장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표준>

b. 정부는 산림 복구 사업을 추진했다. <표준>

(284) 중국어 ‘事业’

가. 의미: (名) 具有一定目标, 规模和系统而对社会发展有影响的 활동。 (일정한 목표, 규모와 체계를 가져 사회의 발전에 영향이 있는 활동을 이르다.) <現漢: P1194>

예문: 他热衷公益事业。(그는 공익사업에 열중한다.) <BCC>

나. 의미: (名) 特指没有生产收入, 由国家经费开支, 不进行经济核算的 事业(区别于企业)。(수입이 없고 나라의 공공경비에 의지하며 결산을 하지 않는 부문. 특별히 기업체와 구별되다.) <現漢: P1194>

예문: 毕业后想进事业单位。(졸업한 후 정부기관을 지원하고 싶다.) <BCC>

한국어 ‘사업(事業)’은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함. 또는 그 일”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표현에서 보면 (283a)의 ‘사업’은 ‘비즈니스’에 해당하는 의미이고, (283b)의 ‘사업’은 중국어 (284가)의 의미와 같아 보인다. 중국어 ‘事业’ (284가)는 ‘公益事业’, ‘环保事业’ 등과 나타나는데 한국어의 ‘공익사업’, ‘환경보호 사업’에 대응되므로 (284가)는 한국어 ‘사업’의 의미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한국어는 중국어와 일치하는 의미 외에 “비즈니스”라는 의미를 더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중국어는 이런 공통된 의미 외 ‘事业单位(정부기관)’과 같이 기업체

와 구별되는 공공기관을 이르기다 한다.

(285) 한국어 ‘수평(水平)’

가. 의미: (명) 기울지 않고 평평한 상태. <표준>

예문: 환자를 들것으로 운반할 때는 항상 수평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고려>

나. 의미: 지구 중력의 방향과 직각을 이루는 방향. <표준>

예문: 헌병은 착검한 카빈총을 수평으로 쳐든 채 청년의 호소는 들었는지 말았는지 킁킁한 어둠 속에 말뚝처럼 서 있을 뿐이다. <표준>

(286) 중국어 ‘水平’

가. 의미: (形) 跟水平面平行的。(수평면과 평행한 것.) <現漢: P1227>

예문: 水平方向(수평선) <現漢: P1227>

나. 의미: (名) 在生活, 思想, 文化, 艺术等方面所达到的高度。(생활, 사상, 문화, 예술 등에서 도달하는 고도. ≍수준.) <現漢: P1227>

예문: 提高思想水平和业务水平。(사고 수준과 업무 수준을 향상시킨다.) <現漢: P1227>

중국어 ‘水平’의 “수평면과 평행하다”라는 의미와 한국어 ‘수평(水平)’의 (285나)의 의미는 모두 방향성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의미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한국어 ‘수평’은 ‘수평이 유지되다’와 같이 “기울지 않고 평평한 상태”를 이르기다 한다. 중국어 ‘水平’은 (286나)와 같은 파생적 의미로도 쓰이는데 한국어 ‘수준’이라는 말에 대응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중 ‘수평(水平)-水平’의 의미는 공통되는 부분도 있고, 각각 다른 의미로도 쓰인다.

(287) 한국어 ‘시각(時刻)’

가. 의미: (명) 시간의 어느 한 시점. <표준>

예문: 약속한 시각에 맞추어 모임 장소에 나간다. <표준>

나. 의미: (명) 짧은 시간. <표준>

예문: 이 일은 시각을 지체할 수 없는 일이다. <고려>

(288) 중국어 ‘时刻’

가. 의미: (名) 时间(시간) <現漢: P1184>

예문: 到一定的时刻药力就会起作用(일정한 시간이 되면 약은 효력이 나기 시작한다.) <BCC>

나. 의미: (副) 每时每刻; 经常; 时时刻刻(시시각각, 늘) <現漢: P1184>

예문: 要时刻注意。(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시각(時刻)-时刻’의 한·중 공통된 의미는 (287가)와 (288가)인데 “시간의 어느 한 시점”을 가리킨다. 그 외에 한국어는 “짧은 시간”을 뜻하기도 하는데 ‘시각을 지체하다’와 같이 나타나 중국어 ‘一分一秒’라는 표현에 대응될 수 있다. 중국어 ‘时刻’는 부사로 쓰여 “시시각각, 늘”이라는 의미도 있다.

(289) 한국어 ‘시대(時代)’

가. 의미: (명) 역사적으로 어떤 표준에 의하여 구분한 일정한 기간.  
<표준>

예문: 봉건적 시대 <표준>

나. 의미: (명) 지금 있는 그 시기. 또는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시기.  
<표준>

예문: 비전이 있는 사람만이 시대를 앞서간다. <표준>

(290) 중국어 ‘时代’

가. 의미: (名) 指历史上以经济、政治、文化等状况为依据而划分的某个时期。(역사적으로 경제·정치·문화 등에 의하여 구분되는 시기.) <現漢: P1183>

예문: 在封建时代, 女人是没有社会地位的。(봉건적 시대에 여자가 사회적 지위가 없었다.) <BCC>

나. 의미: (名) 指个人生命中的某个时期。(인생의 어떤 시절.) <現漢: P1184>

예문: 学生时代的照片。(학생 시절의 사진) <BCC>

한국어 ‘봉건적 시대’에서 ‘시대(時代)’는 (289가)의 의미인데 이는 중국어 (290가)의 의미와 일치한다. ‘봉건적 시대-封建时代’, ‘석기시대-石器时代’와 같이 용법도 대응된다. 그 외에 한국어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지다’, ‘시대에 앞서가다’와 같이 “지금 있는 그 시기. 또는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시기”라는 의미를 더 가지고 있다. 중국어에서는 ‘学生时代(학생 시절)’와 같이 “인생의 어떤 시절”이라는 의미를 더 가지고 있다.

(291) 한국어 ‘신경(神經)’

가. 의미: (명) 『의학』 신경 세포의 돌기가 모여 결합 조직으로 된 막에 싸여 끈처럼 된 구조. 뇌와 척수 그리고 우리 몸 각 부분 사이에 필요한 정보를 서로 전달하는 구실을 한다. <표준>

예문: 처음엔 우리들은 그곳에 꽂어앉은 채 발뒤꿈치의 신경이 마비되도록 앉아 있어야만 했다. <표준>

나. 의미: (명) 어떤 일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표준>

예문: 그가 하는 말이 자꾸 신경을 건드린다. <표준>

(292) 중국어 ‘神经’

가. 의미: (名) 医学用语(의학용어. 한국어와 같음.) <現漢: P1162>

나. 의미: (名) 指(精神)失常。(실성하다.) <現漢: P1162>

예문: 他总神经兮兮的。(그는 늘 신경질적이다.) <現漢: P1162>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의학용어로서의 ‘신경(神經)-神经’은 의미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 한국어에서는 ‘신경을 쓰다’, ‘신경이 예민하다’ 등과 같이 나타나는 “어떤 일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이라는 파생적 의미를 더 가지고 있다. 중국어에서는 “실성하다”라는 파생적 의미를 더 가지고 있는데 ‘神经兮兮(신경질적이다)’와 같이 나타나 부정적 가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신경(神經)-神经’은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공통된 의미 이외에 각각 다른 파생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293) 한국어 ‘실수(失手)’

가. 의미: (명) 조심하지 아니하여 잘못함. 또는 그런 행위. <표준>

예문: 실수로 아버지께서 아끼시는 도자기를 깨뜨렸다. <표준>

나. 의미: (명) 말이나 행동이 예의에 벗어남. 또는 그런 말이나 행동.

상대의 양해를 구하는 인사로 쓰는 경우가 많다. 실례. <표준>

예문: 어제는 실수가 많았습니다. <표준>

(394) 중국어 ‘失手’

가. 의미: (动) 手没有把握住而造成不好后果。(손에서 놓쳐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다.) <現漢: P1177>

예문: 一失手把碗摔破了。(실수해서 그릇을 깨뜨렸다.) <現漢: P1177>

나. 의미: (动) 指失利(多指意外的)。(패배하다. 지다. 주로 의외적인 것을 가리킨다.) <現漢: P1177>

예문: 赛场失手。(경기장에서 의외로 졌다.) <現漢: P1177>

중국어 ‘失手’는 기본의미가 “손에서 놓치다”인데 보통 “의외적인 결과”가 초래된다. 이런 기본의미보다 의외로 경기나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지다”라는 의미가 더 많이 쓰인다. ‘赛场失手(경기장에서 의외로 지다)’나 ‘战场失手(전쟁터에서 의외로 패배하다)’와 같이 나타난다. 한국어 ‘실수(失手)’의 (293가)의 의미는 중국어 ‘失手’의 (294가)의 의미보다 영역이 더 포괄적이다. ‘실수 없는 말’, ‘실수를 저지르다’와 같이 쓰여 모든 조심하지 않은 잘못된 행위는 모두 ‘실수’라고 한다. 그 외에, “실례”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현대 이전의 자료에 나타난 ‘실수’를 살펴보면 19세기 ‘실슈하다(실수하다)’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번역된 바 있다.

(295) 『현대어로 보는 한불자전』 (P.759)의 ‘실슈하다’

실슈하다 [SIL-SYOU-HĀ-TA] (失手)

불 : Perdre ses mains. Perdre son adresse; manquer son coup; faire fiasco. La fin ne répond pas à l'attente. Setromper; laisser échapper une sottise sans s'en apercevoir, par distraction.

한 : 자신의 숨씨를 잃다. 자신의 재주를 잃다.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다. 완전히 실패하다. 결과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다. 잘못 생각하다. 깨닫지 못하고 부주의로 어리석은 말을 입 밖에 내다.

19세기에 ‘실슈하다(실수하다)’의 위와 같은 의미들은 현대 한국어에서 모두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단 “깨닫지 못하고 부주의로 어리석은 말을 입 밖에 내다”라는 의미와 현대 한국어 “조심하지 아니하여 잘못함”라는 의미는 유사해 보인다.

(296) 한국어 ‘의뢰(依賴)’

가. 의미: (명) 굳게 믿고 의지함. <표준>

예문: 옆집 아이가 부모를 여의고 삼촌에게 의뢰를 해서 산지도 어느덧 3년이 되었다. <고려>

나. 의미: (명) 남에게 부탁함. <표준>

예문: 새 영화 음악의 의뢰가 들어왔는데 나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다. <고려>

(297) 중국어 ‘依賴’

가. 의미: (动) 依靠別的人或事物而不能自立或自給。(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의지하여 독립하거나 자급할 수 없다.) <現漢: P 1534>

예문: 不依賴別人。(남을 의뢰하지 않는다.) <現漢: P1534>

나. 의미: (动) 指各个事物或现象互为条件而不可分离。(사물과 현상들이 서로 조건이 되고 갈라질 수 없다. ≍ 의존하다.) <現漢: P1534>

예문: 工业与农业互相依賴。(공업과 농업은 서로 의존하다.) <現漢: P1534>

한국어 ‘의뢰(依賴)’의 “굳게 믿고 의지함”이라는 의미는 중국어 ‘依賴’의 (297가)의 의미와 일치한다고 본다. 남을 의지한다는 의미로 ‘남편을 의뢰하다’, ‘남을 의뢰하다’는 중국어 ‘依賴別人’, ‘依賴丈夫’와 같이 대응된다. 그 외에, 한

국어는 ‘협조 의뢰’, ‘음악 의뢰’와 같이 나타나 “남에게 부탁함”이라는 의미를 더 가지고 있고, 중국어는 “의존하다”라는 의미도 있어 ‘互相依赖(서로 의존하다)’와 같이 나타난다.

(298) 한국어 ‘일시(一時)’

가. 의미: (명) 잠깐 동안. <표준>

예문: 어머니는 일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표준>

나. 의미: (명) 같은 때. <표준>

예문: 시험에 떨어질 것이라는 불안한 생각이 일시에 고개를 쳐든다. <표준>

다. 의미: (부) 어느 한 시기의 짧은 동안에. <표준>

예문: 나는 그녀와 일시 사귄 적이 있다. <표준>

(299) 중국어 ‘一时’

가. 의미: (名) 一个时期(한때.) <現漢: P1537>

예문: 那个舞蹈曾经风靡一时。(그 춤은 한때 붐을 이루었다.)  
<BCC>

나. 의미: (名) 短时间。(잠깐 동안.) <現漢: P1537>

예문: 这是一时的现象。(이것은 불과 일시의 현상일 뿐이다.) <現漢: P1537>

다. 의미: (副) 临时; 偶然。(잠시, 우연히.) <現漢: P1537>

예문: 一时想不起他是谁。(잠시 그가 누군지 생각 안 난다.) <現漢: P1537>

라. 의미: 时而。(가끔) <現漢: P1537>

예문: 一时晴, 一时雨。(가끔 개기도 하고, 가끔 비오기도 한다.)  
<現漢: P1537>

한국어 ‘일시(一時)’의 “잠깐 동안”이라는 의미는 중국어 (299나)의 의미와 일치하고 ‘一时的现象-일시의 현상’과 같이 용법도 대응된다. 그리고 “어느 한 시기의 짧은 동안에”라는 의미는 중국어 (299가) “한때”라는 의미와 일치한다. 그 외에는 한국어에서는 “같은 때”라는 의미를 더 가지고 있고, 중국어는 “임시로. 우연히”와 “가끔”이라는 부사로 쓰이는 의미가 더 있다.

(300) 한국어 ‘형세(形勢)’

가. 의미: (명) 살림살이의 형편. <표준>

예문: 옆집은 큰아들이 취직을 하게 되면서 형세도 차츰 나아졌다.  
<표준>

나. 의미: (명) 일이 되어 가는 형편. <표준>

예문: 아무래도 사람의 수요가 너무 적어 이런 형세로는 승산이 없습니다. <표준>

다. 의미: (명) 기운차게 뻗치는 모양이나 상태. <표준>

예문: 적군은 맹렬한 형세로 서울을 향해 진군해 오고 있다. <표준>

(301) 중국어 ‘形勢’

가. 의미: (名) 事物发展的状况。(사물이 발전해 나가는 상황.) <現漢: P1467>

예문: 形勢好转。(형세가 좋아졌다.) <現漢: P1467>

나. 의미: (名) 地势。(땅의 형세, 지세.) <現漢: P1467>

예문: 形勢险要。(지세가 험요하다.) <現漢: P1467>

한국어 (300나)의 “일이 되어 가는 형편”이라는 의미와 중국어 (301가)의 “사물이 발전해 나가는 상황”이라는 의미는 같아 보이고 ‘国际形势(국제형세)’,

‘形势不利(형세가 불리하다)’와 같이 대응된다. 그 외, 중국어는 ‘山川形势(산천 지세)’와 같이 “지세”라는 의미를 더 가지고 있고, 한국어는 “기운차게 뻗치는 모양이나 상태”와 “살림살이의 형편”이라는 의미를 더 가지고 있다. 이는 각각 ‘형세가 곤궁하다’, ‘적의 무서운 형세’와 같이 나타나 중국어 ‘家境’이나 ‘势头’라는 말에 대응될 수 있다.

### 4.3. 동자이의어 가치 의미(價值 意味) 대조

가치 의미는 흔히 가치론(axiology)<sup>58)</sup>의 관점에서 쓰이는 언어학 용어로서 어떤 어휘가 지니는 의미가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가치 의미를 가진다고 하고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가치 의미를 지닌다고 한다. 가치 의미는 어휘적인 측면과 구별되는 어휘 외적인 측면, 또는 어휘의 주관적 의미로 보이기도 하는데 좋아함이나 증오함, 아쉬움이나 슬픔 등의 감정을 표현한다. 본고의 앞부분에서 언급한 개념적 의미, 문법적 의미, 부가적 의미 중의 부가적 의미에 포함된다.

중국어에서 가치 의미는 어휘의 ‘感情色彩義’라고 하는데<sup>59)</sup> 이에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色彩義’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로 章炎(1983), 曹炜(1991), 杨振兰(1996)과, ‘色彩義’의 변천에 대한 연구로 邹韶华(2001, 2004), 杨振兰(2003), 刁晏武(2007)을 들 수 있다. 한국어에서 가치 의미에 대한 관심은 沈在箕(1968)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조항범(2004), 최형용(2007), 강범모(2011), 임지룡(2012) 등은 어휘의 가치론적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沈在箕(1968)에서 어휘의 가치 의미 변화를 크게 ‘경멸적(輕蔑的) 의미 변화’와 ‘개량적(改良的) 의미 변화’로 나누었다. 즉, 긍정적 의미에서 부정적 의미의 방향으로 변화할 때 경멸적 변화로, 부정적 의미에서 긍정적 의미의 방향으로 변화

58) 그리스 시대 이래 가치에 대한 철학적 연구방법론(임지룡 2012: 379).

59) 중국어에서 이를 흔히 ‘色彩义’라고 하기도 하지만 광의적인 ‘色彩义’는 개념적 의미, 문법적 의미와 대등한 부가적 의미를 이르는데 ‘感情色彩’, ‘语体色彩’, ‘形象色彩’로 나눈다(孟凡浩 2015: 2). ‘협의적인 ‘色彩义’는 이중의 ‘感情色彩’만 가리킨다.

할 때 개량적 의미 변화로 보는 것이다. 한편, 崔銀日(1995)는 언어 사용자를 중심으로 한 주관적 의미 중 부정 가치 의미에 초점을 두어 한국어의 부정 가치어(否定 價値語)를 연구하였다. 부정 가치어 형성의 원인을 살펴보고, 부정 가치어의 유형을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 및 보조 용언, 조사, 어미 등으로 나누어 목록을 추출하여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한국어의 가치 의미에 대한 폭넓은 연구로 보인다.

한·중 한자어 대조 연구에서 맹주역(2005), 尹翡翠(2007), 崔娟華(2008), 정 의화(2008), 유림(2009), 왕배배(2011), 사운(2012), 임배리(2013), 范晨星(2017) 등은 동자어의 뉘앙스 대조(왕배배 2011), 어감 대조(임배리 2013), 정서적 의미 대조(尹翡翠 2007)를 하였는데, 이러한 연구는 본고의 가치 의미 연구와 관련이 있으나 같은 차원이 아니다. ‘정서적 의미’는 의미론의 용어로 ‘affective meaning’이라고 이르는데 청자 및 화제에 대한 태도 등이 포함된 개인적 감정은 반영된다고 하였다(임지룡 2011: 37). 개인적 감정이라고 하여 어휘의 의미로 보기가 어려워 본고에서 말한 가치 의미의 내포와 다르다. 한편, ‘언어의 뉘앙스’는 ‘어감’과 같은 의미로 쓰였는데 어감은 말투나 말소리의 차이에 따라 말이 주는 느낌을 뜻하여 본 연구의 논의 범위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인다. 한편, 崔娟華(2008)에서는 ‘의미가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중심어가 ‘가치’이므로 ‘의미’보다는 ‘의미의 가치’를 논한 것이다. 용어가 다르지만 이상의 연구들은 모두 어휘를 중심으로 그 어감이나 뉘앙스나 가치 등에 대한 연구들이기 때문에 본고에서 다룰 가치 의미 연구와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한·중 가치 의미 대조는 사전에 등재된 의미도 참조하지만 대규모의 말뭉치 자료를 참조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전에 등재된 의미와 실제 언어 활용의 양상을 참조하여 가치 의미를 판단할 것이다.

기존의 가치 의미 대조연구에서 沈在箕(1968)의 방향성 분류 방법을 적용한 것이 있는데 가치 의미의 ‘향상(向上)’, ‘하락(下落)’, ‘저하(低下)’라는 용어도

쓰였다.<sup>60)</sup> 그러나 본고는 한국어와 중국어 두 언어 간의 가치 의미를 공시(共時)적으로 대조하는 연구로서는 이런 분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는 기존의 ‘긍정’, ‘부정’이라는 방향성이 없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한편, 기존 연구의 가치 의미 대조에서 다른 한·중 동자어 중에 본고에서 제외한 어휘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첫째, 동자어로 볼 수 없는 어휘로 이런 어휘는 한 언어에서 단어로서의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간과(看過)’는 한국어에서는 단어이지만 중국어에서는 동사 ‘看’과 과거시태 표지인 ‘過’의 문법적 결합 구성이고 단어가 아니다. 따라서 이는 한·중 동자‘어’로 볼 수 없으므로 논외로 본다. 그리고 ‘극성(極盛)’, ‘정체(正體)’<sup>61)</sup>와 같은 어휘도 본 논의에서 제외한다. 둘째, 가치 의미가 동일한 동자어는 본고에서 논의하지 않겠다. 가령 ‘비판(批判)’<sup>62)</sup>, ‘도망(逃亡)’<sup>63)</sup>은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부정적 가치 의미인데 중국어에서 부정이라는 감정이 더 강할 뿐이지 가치의 의미가 다르지 않다. 이런 경우는 가치 의미가 동일하여 대조하지 않기로 한다. 셋째, 연구자 직관에 따라 가치 의미가 다르게 판단되는 어휘들이 있다. 예를 들어 ‘연세(年歲)’가 崔娟華(2008)은 한국어의 의미가치의 향상으로 보았는데, 즉 중국어에서 중립적이고 한국어에는 긍정적이며 중국어보다 향상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본고는 중국어에서 ‘年歲’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대화문에서 쓰인 어휘로서 존경하는 태도가 보이고 역시 한국어와 같이 높임말로 보여 가치 의미가 동일하다고 본다. 이런 어휘는 ‘형제(兄弟)’, ‘효도(孝道)’ 등을 더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가치 의미가 한국어는 긍정이고 중국어는 부정인 경우와, 한국어는 부정이고 중국어는 긍정인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60) 崔娟華(2008)과 사운(2012)에서 이런 용어를 사용했다.

61) 왕배배(2011), 임배리(2013)에서 세 어휘를 동형어로 보아 가치 의미를 대조하였다.

62) 范晨星(2017: 189)에서 ‘感情色彩引起的意义差异’로 대조하였다.

63) 사운(2012)은 의미가치의 향상, 즉 한국어가 중국어보다 긍정적이라고 보고, 맹주역(2005)은 한국어는 중성(중립)과 긍정, 중국어는 부정으로 보았다. 본고는 한국어 ‘도망’의 가치 의미도 부정으로 보았다.

#### 4.3.1 한국어 긍정이고 중국어 부정인 경우

한·중 동자이의어가 한국어에서는 긍정적 가치 의미로 나타나고 사용되지만 중국어에서는 부정적인 가치 의미를 가지고 부정적 문맥에서 쓰이는 경우가 있다.

##### (302) 한국어 ‘여류(女流)’

의미: (명) 어떤 전문적인 일에 능숙한 여자를 이르는 말. <표준>

예문: 여류 소설가는 못되었지만 예쁜 아이니까 미국에 가서 잘 살리라는 나의 기대는 확실한 것 같았다.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

##### (303) 중국어 ‘女流’

의미: (名) 妇女, 多含轻蔑意。(아녀자, 경멸적의 어감이다.) <現漢: P 964>

예문: 女流之輩。(아녀자들) <現漢: P964>

‘여류(女流)-女流’가 “여자”라는 의미인 것은 한국어와 중국어는 일치한다. 한국어 ‘여류(女流)’는 ‘여류 작가’, ‘여류 시인’, ‘여류 소설가’, ‘여류 화가’ 등과 같이 쓰이는데 “어떤 전문적인 일에 능숙한 여자”를 가리키고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그리고 예문 (302)처럼 긍정적인 문맥에서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가치 의미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반면, 중국어 ‘女流’는 주로 “아녀자”라는 의미로 ‘柔弱女流(힘없는 아녀자)’, ‘女流之輩(아녀자들)’, ‘一介女流(일개 아녀자)’와 같이 나타나<sup>64)</sup> 경멸적인 어감을 드러내고 주로 부정적인 결합관계에서만 나타난다. 이에 중국어 ‘女流’의 가치 의미는 부정적으로 보인다. 이는

64) <BCC>의 ‘女流’가 나타난 문장에서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결합관계로 나타났다.

남존여비(男尊女卑)라는 봉건적 사상을 가진 고대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경멸을 표시하기 위해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대 중국어에서는 흔히 쓰이지 않는다. 崔娟華(2008), 임배리(2013)에서도 중국어 ‘女流’의 부정적 가치 의미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sup>65)</sup> 한국어 ‘여류(女流)’에 대해서 崔娟華(2008)은 ‘향상’이라고 하지만 임배리(2013)에서는 ‘여성 전문가에게 존칭하는 중성적인 의미’라고 하였다(임배리 2013: 59). 그러나 ‘여류 작가’라고 하면 ‘여작가’라는 표현보다 높게 평가하려는 감정적인 경향이 보인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한국어 ‘여류’는 긍정적 가치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304) 한국어 ‘원활(圓滑)’

가. 의미: (명) 모난 데가 없고 원만함. <표준>

예문: 인간관계의 원활은 한 사람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표준>

나. 의미: (명) 거침이 없이 잘되어 나감. <표준>

예문: 적당한 운동은 체내 대사의 원활을 도모한다. <표준>

(305) 중국어 ‘圓滑’

의미: (形) 形容人善于敷衍讨好, 不讲原则。(사람이 적당히 얼버무리고 남에 비위에 잘 맞추고 원칙이 없는 것을 형용.) <現漢: P1612>

예문: 八面玲珑, 处事圓滑。(팔방미인으로서 처세에 능하다.) <現漢: P1612>

한국어 ‘원활(圓滑)’은 명사로도 나타나지만 형용사 ‘원활하다’나 부사 ‘원활히’의 어근으로 더 많이 나타난다. 흔히 ‘인간관계가 원활하다’, ‘회전을 원활히

65) 崔娟華(2008)은 중국어 ‘女流’의 ‘의미가치 저하’라고 하였다. ‘향상’, ‘저하’라는 용어와 본고의 ‘긍정’, ‘부정’ 용어의 차이는 앞에서 논의했으니 여기서 중언부언하지 않겠다.

하다’, ‘일이 원활히 진행된다’와 같이 사용되며 긍정적인 가치 의미를 지닌다. 반면, 중국어 ‘圓滑’는 ‘世故圓滑(처세술이 능하고 뻘질하다)’라는 표현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sup>66)</sup> 한편, 현재 중국어에서 ‘圓滑’는 대인관계에서 하나의 능력으로 인정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언중도 있지만 ‘圓滑’ 자체가 가지는 가치 의미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없다.

(306) 한국어 ‘편달(鞭撻)’

의미: (명) 경계하고 격려함. <표준>

예문: a. 애정 어린 지도와 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표준>

b. 여러 스승들의 지지와 격려 속에서 사랑의 편달(鞭撻)은 계속 된다. <마이너리그>

c. 우리는 종래식(從來式)의 이런 문화운동을 지양하고 정부를 편달(鞭撻)하여 민족문화건설에 대한 좀더 크고 항구적인 정책을 세우고... <지훈전집5>

d. 당동별이(黨同伐異)하지 말고 이해와 편달(鞭撻)로써 새로운 동도위봉(同道爲朋)의 선명하고 점잖은 유파운동(流派運動)을 했으면 좋겠다. <지훈전집3>

(307) 중국어 ‘鞭撻’

의미: (动) 鞭打, 比喻抨击. (채찍질하다. ‘비난하다. 규탄하다’라고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現漢: P78>

예문: 这部作品对社会的丑恶现象进行了无情的揭露和鞭撻。(이 작품은 사회의 추악한 현상에 대해 무정하게 폭로하고 비난한다.) <現

66) 엄성호(2015)에서는 ‘원활(圓滑)’을 ‘한·중 의미 범위 차이(교집합을 이룸)’로 보았다.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것은 중국어 ‘圓滑’에 대해 본고에서 제시된 의미 외에 “통통하고 매끄럽다”라는 의미를 더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她的体型很圓滑. (그녀의 체형은 통통하고 매끄럽다.)’와 같은 예문을 들었으며 “통통하고 매끄럽다”라는 의미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런 의미는 현대 중국어에서 흔히 쓰이지 않는 의미이고 『現代漢語詞典』에서 등재되지 않는 의미이다. 따라서 본고의 현대 한국어와 중국어 대조하는 데에 이런 의미를 제외하였다.

‘편달(鞭撻)-鞭撻’는 “채찍질함/하다”라는 의미인데 한국어와 중국어는 모두 이 의미에서 파생된 의미가 사용되고 있다. 한국어 ‘편달(鞭撻)’은 예문 (5a, b, c, d)에서 보는 것처럼 ‘지도와 편달’, ‘사랑의 편달’, ‘이해와 편달’이라는 긍정적인 결합관계에서 나타나 가치 의미가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어 ‘鞭撻’는 <BCC>에서 주로 ‘鞭撻学术腐败(학술 부패행위를 비난하다)’, ‘鞭撻现实社会(현실사회를 규탄하다)’, ‘对假恶丑的鞭撻(가·악·추에 대한 비난)’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결합관계로 나타나 가치 의미가 부정적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유림(2009)와 임배리(2013)도 본고와 같다.

한편, 한국어에서는 긍정적인 가치 의미만 가지고 쓰이나 중국어에서는 긍정적, 부정적 가치 의미로 동시에 쓰이는 동자이의어도 있는데 ‘사수(死守)-死守’를 들어 살펴보겠다.

(308) 한국어 ‘사수(死守)’

의미: (명) 죽음을 무릅쓰고 지킴. <표준>

예문: a. 조국 사수의 결의를 다짐하다. <표준>

b. 나는 마치 사수(死守)해야 할 비밀을 누설한 것처럼 허탈하고 처량했다. <한 말씀만 하소서>

(309) 중국어 ‘死守’

가. 의미: (动) 拼命守住。(죽음을 무릅쓰고 지키다.) <現漢: P1239>

예문: 死守阵地。(진지를 사수하다.) <現漢: P1239>

나. 의미: (动) 固执而不知变通地遵守。(고집스럽고 융통성 있게 지키지 못하다.) <現漢: P1239>

예문: 死守老规矩。(종래의 관습을 고수한다.) <現漢: P1239>

한국어 ‘사수(死守)’는 ‘사수하다’의 어근으로도 쓰여 ‘문화재를 사수하다’, ‘조국을 사수하다’와 같이 사용되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지킴”이라는 의미로 어떤 정신을 찬양하는 감정이 드러나므로 가치 의미는 긍정적으로 보인다. 중국어 ‘死守’의 (309가)는 한국어와 같은 의미이고 가치 의미도 긍정적이다. 그런데 중국어에서는 ‘死守陈规(종래의 관습을 고수하다)’, ‘死守传统(전통을 고수하다)’와 같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때 “고집스럽고 융통성 있게 지키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 비판하는 감정이 드러나므로 부정적인 가치 의미를 지닌다.

#### 4.3.2. 한국어 부정이고 중국어 긍정인 경우

다음으로 4.3.1.과 반대로 되는 경우, 한국어에서는 부정적 가치 의미로 나타나고 쓰이는데 중국어에서는 긍정적인 가치 의미를 가지고 긍정적 문맥에서 쓰이는 경우를 살펴보겠다.

##### (310) 한국 ‘객기(客氣)’

의미: (명) 객쩍게 부리는 혈기(血氣)나 용기. <표준>

예문: a. 취중 객기로 나도 평양을 가겠다고 벌떡 일어섰다. <표준>

b. 길 안 든 마음을 다스리려거든 먼저 마음속의 객기(客氣)를 바로잡으라. <지훈전집9>

c. 불고기 굽는 냄새와 술꾼들의 왁자지껄하는 웃음과 객기 어린 말들이 넘치는 골목을 지나서 태자관 앞으로 갔다. <폭군과 강아지>

d. ‘길 안든 마음’을 제어하려면 먼저 마음속의 객기(客氣)를 제

어하라. <지훈전집9>

(311) 중국어 ‘客气’

가. 의미: (形) 对人谦让、有礼貌。(겸양하고 예의가 바르다.) <現漢: P741>

예문: 说话挺客气。(말을 예의 바르게 한다.) <現漢: P741>

나. 의미: (动) 说客气的话; 做客气的动作。(예의바른 말을 하거나 사양하는 행위.) <現漢: P741>

예문: 他客气了一番, 把礼物收下了。(그는 한바탕 사양을 하고 선물을 받았다.) <現漢: P741>

한국어 ‘객기(客氣)’는 (310a, b, c, d)에서 보는 것처럼 “객적게 부리는 험기나 용기”라는 의미로 ‘취중의 객기’, ‘객기 어린 말’, ‘마음속의 객기를 바로잡다’라는 표현과 같이 부정적인 결합관계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그 가치 의미는 부정적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중국어 ‘客气’는 ‘对人客气(남을 겸양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다)’, ‘别客气(사양하지 마라)’ 등 표현으로 쓰여 긍정적 가치 의미로 보인다. 尹翡翠(2007), 정의화(2008), 유림(2009), 왕배배(2011), 임배리(2013)에서 ‘객기(客氣)-客气’의 가치 의미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었는데 모두 본고와 같이 한국어는 부정적, 중국어는 긍정적 가치 의미로 보았다.

그러나 ‘客气’는 고대 중국어에서는 부정적으로 쓰였다.

(312) 『古代汉语词典』(P.822)의 ‘客气’

의미: (名) 一时的意气, 偏激的情绪。(일시의 객기, 과격한 정서.)

예문: 今滋數乘客氣以傲使人, 爭小勝以挑強胡。 - 司馬光《趙滋劄子》

(지금은 몇 번의 일시적인 객기로 인하여, 사신을 경시하고 일시의 말의 이김으로 강대한 적을 도전한다.)

‘客氣’는 고대 중국어의 “일시적 객기, 과격한 정서”라는 의미로 풀이되었고 예문 (312)에서 보는 것처럼 부정적 가치 의미로 나타난다. 그러나 현대 중국어에 와서 긍정적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와 같은 부정적 가치 의미는 쓰이지 않는다.

(313) 한국어 ‘도모(圖謀)’

의미: (명)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대책과 방법을 세움. <표준>

예문: a. 부원들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해 주말에 야유회를 가기로 했다.

<표준>

b. 7·4 공동성명이 밝힌 “이념·사상·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는 일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한국현대사>

(314) 중국어 ‘圖謀’

의미: (动) 暗中谋划(多含贬义)。(암중에 꾀하다. 주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現漢: P1325>

예문: a. 就像所有在病人身边的人一样, 总是要圖謀他们的遗产的。(환자 옆에 있는 사람들처럼 줄곧 남의 재산을 꾀하고 있다.)

<BCC>

b. 国王就一门心思地考虑如何用武力对付他的那位圖謀不轨的兄弟。(국왕이 일심전력으로 어찌 그의 반란을 꾀하는 형제를 무력적으로 대처할지를 생각하고 있다.) <BCC>

한국어 ‘도모(圖謀)’는 주로 ‘친목 도모’, ‘편의 도모’, ‘단결 도모’, ‘경제 발전 도모’, ‘인건비 절감 도모’ 등 긍정적 표현과의 결합관계에 나타나는데 ‘친목, 편의, 단결’ 등과 같은 좋은 일을 이루기 위하여 대책과 방법을 세움이라는 뜻

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모(圖謀)’의 가치 의미도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중국어 ‘圖謀’는 “암중에 꾀하다. 또는 그런 꾀”라는 의미로 ‘圖謀别人的财产(남의 재산을 꾀하다)’, ‘危害国家的圖謀(나라에 해치는 획책)’과 같은 부정적 어휘와 결합하고 사용하여 부정적인 가치 의미로 나타난다. 그러나 기존의 崔娟華(2008), 왕배배(2011), 임배리(2013)는 한국어 ‘도모’는 ‘중성적’ 의미로 보았다. 본고의 가치 의미 편별은 어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만 보지 않고 단어가 어울려서 쓰이는 말이 모두 긍정적이면 그 언어의 가치 의미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반대로 결합한 말이 모두 부정적이면 그 어휘의 가치 의미도 부정적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도모’의 의미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대책과 방법을 세움”인데 주로 긍정적인 문맥에서 쓰이므로 가치 의미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 반대로 중국어 ‘圖謀’는 흔히 부정적 뜻을 가지는 단어(예컨대 ‘나라에 해치다’)나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는 말과(예를 들어 ‘남의 재산’) 어울려 쓰이므로 그 가치 의미도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315) 한국어 ‘방심(放心)’

의미: (명) 마음을 다잡지 아니하고 풀어 놓아 버림. <표준>

예문: a. 적은 우리의 방심을 틈타 기습해 올지도 모른다. <표준>

b. 아주 사소한 실수나 방심 하나가 그날 게임의 흐름을 좌우하는 결정타가 되버리기 일쑤고... <스포츠서울 98-10 야구>

(316) 중국어 ‘放心’

의미: (动) 心情安定, 没有忧虑和牵挂. (마음이 안정적이니 우려나 걱정이 없다.) <現漢: P373>

예문: a. 请你放心, 我可以负完全责任.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전부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BCC>

b. 只在亲密朋友当中才感到放心. (친한 친구와 같이 있을 때만

마음이 안정적이다.) <BCC>

‘방심(放心)-放心’은 “마음을 놓다”인데 한국어 ‘방심(放心)’은 ‘실수와 방심’, ‘부주의와 방심’처럼 부정적인 표현인 ‘실수’, ‘부주의’ 등과 병렬 관계를 가지고 쓰여 부정적 가치 의미로 나타나는데 “마음을 다잡지 않고 풀어 놓은” 상태를 이른다. 그러나 중국어 ‘放心’은 ‘安全放心(안전하고 안심하다)’, ‘请放心(걱정하지 마라)’와 같이 나타나 긍정적인 가치 의미를 지닌다. “마음이 안정적이고 우려나 걱정이 없다”라는 의미로 풀이되는데 한국어와 구별된다. 尹翡翠(2007), 유림(2009), 임배리(2013)도 본고와 같이 한국어는 부정적, 중국어는 긍정적으로 보았다. 그러나 고대 중국어에서는 ‘放心’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317) 朝夕出入起居，未嘗不在禮樂之間，以收其放心，檢其慢誌，此禮樂之所以為用也。 - 宋 司馬光 《答景仁論養生及樂書》

(날마다 출입과 일상생활은 모두 예악의 영역에 있다. (예악은) 방종한 마음을 거두어들이고 태만한 의지를 검사하며 이것이 바로 예악의 역할이다. -송 사마광 《답경인논양생급약서》)

이때의 ‘放心’은 현대 중국어와 달리 “자아 방종한 마음”이라는 의미로 부정적인 가치 의미로 보인다. 이와 같은 부정적 가치 의미는 현대 중국어에서 남아 있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318) 한국어 ‘방조(幫助)’

의미: (명) 『법률』 형법에서, 남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 정범(正犯)의 범죄 행위에 대한 조언, 격려, 범행 도구의 대여, 범행 장소 및 범행 자금의 제공 따위가 있다. <표준>

예문: a. 그는 그 사건을 방조한 혐의로 수배 중이다. <표준>

b. 자살의 방조를 살인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의 토론 주제이다. <고려>

(319) 중국어 ‘帮助’

의미: (动) 替人出力、出主意或给以物质上、精神上的支援。(남을 위해 힘을 다해서 물질적이거나 정신적인 지원을 주다. ≒돕다. 도움.)

<現漢: P40>

예문: 他在我最困难的时候帮助了我。(그는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나를 도와주었다.) <BCC>

‘방조(幫助)-帮助’는 “돕다/도움”라는 의미인데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서로 다른 가치 의미로 나타난다. 한국어 ‘방조(幫助)’는 남의 범죄 행위에 ‘도와줌’의 의미로 ‘자살의 방조’, ‘범죄 방조’, ‘불법 행위에 방조’와 같은 부정적인 결합관계로 나타난다. 따라서 한국어 ‘방조’의 가치 의미가 부정적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중국어 ‘帮助’는 ‘无私帮助(아낌없이 도와주다)’, ‘老师的帮助(선생님의 도움)’과 같이 <BCC>에서 모두 긍정적인 문맥에만 나타난다. 이에 중국어 ‘帮助’는 한국어와 달리 긍정적인 가치 의미로 사용된다. 이에 대해서 崔娟華(2008), 왕배배(2011), 임배리(2013)도 본고와 일치하지만 정의화(2008)과 유림(2009)은 중국어 ‘帮助’는 중성적 의미로 보았고 특별한 부연 설명이 없었다. 중국어 ‘帮助’는 말하는 이의 태도가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즉 돕는 일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말하는 이는 주관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로 ‘帮助’가 쓰였다고 본다.

(320) 한국어 ‘소심(小心)’

‘소심하다’의 어근

의미: (형) 대답하지 못하고 조심성이 지나치게 많다. <표준>

예문: 희주는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꾸중으로 인해 소심한 아이로 자라났다. <고려>

(321) 중국어 ‘小心’

가. 의미: (动) 注意; 留神. (주의하다; 조심하다.) <現漢: P1444>

예문: 小心路滑. (미끄럼에 주의하세요.) <現漢: P1444>

나. 의미: (形) 谨慎. (신중하다.) <現漢: P1444>

예문: 他做事一向很小心. (그는 늘 신중하게 행동한다.) <現漢: P1444>

한국어 ‘소심(小心)’은 형용사 ‘소심하다’의 어근인데 ‘소심한 성격’은 “대답하지 못하고 조심성이 지나치게 많은 성격”을 뜻한다. 부정적인 문맥에서 나타난 예문 (320)은 ‘소심하다’라는 부정적 가치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따라서 ‘소심’은 한국어에서 부정적인 가치 의미로 보인다. 중국어 ‘小心’은 “조심하다. 주의하다”, “신중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小心路滑(미끄럼 주의)”처럼 나타났듯이 흔히 좋은 마음으로 경계를 하는 의미를 나타내 긍정적인 가치 의미로 보인다.

중국 전적 《国语·晋语一》: “其为人也, 小心精洁(그는 소심하고 깔끔한 사람이다)”에서 나온 ‘小心’은 “두려워하고 꺼리다. 근심하다”라는 의미로 풀이되는데 부정적 가치 의미로 보인다. 이는 현대 한국어 ‘소심’의 의미와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 의미는 현대 중국어에서 소멸되었다. 다시 말해 중국어 ‘小心’은 부정적 가치 의미에서 긍정적 가치 의미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322) 한국어 ‘심각(深刻)’

‘심각하다’의 어근.

의미: (형) 상태나 정도가 매우 깊고 중대하다. 또는 절박함이 있다.

〈표준〉

예문: a. 환자의 건강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 〈표준〉

b. 심각하게 우려할 일은 아니다. 〈표준〉

(323) 중국어 ‘深刻’

가. 의미: (形) 达到问题或事情的本质的。(문제나 사건의 본질에 도달하다.) 〈現漢: P1160〉

예문: 这篇文章内容深刻, 见解精辟。(이 글은 내용상으로 깊이가 있고, 견해가 치밀하다.) 〈現漢: P1160〉

나. 의미: (形) 内心感受程度很深的。(마음속에 느끼는 정도가 깊다.) 〈現漢: P1160〉

예문: 印象深刻。(인상이 깊다.) 〈現漢: P1160〉

한국어 ‘심각(深刻)’은 주로 ‘심각한 고민’, ‘심각한 문제’, ‘심각한 위기’, ‘심각한 표정’, ‘심각한 피해’와 같은 결합관계로 나타난다. 이들 모두 “절박하다. 중대하다”라는 의미로 부정적인 가치 의미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어 ‘深刻’는 ‘深刻的道理(심오한 도리)’, ‘深刻的印象(깊은 인상)’, ‘深刻认识到(깊이 깨닫다)’와 같은 결합관계에서 보이는 것처럼 “심오하다”나 “깊다”라는 뜻이고 긍정적인 가치 의미를 지닌다.

(324) 한국어 ‘환락(歡樂)’

의미: (명) 아주 즐거워함. 또는 아주 즐거운 것. 〈표준〉

예문: 술에 은근히 취해 가는 원영이의 기분은 한층 더 환락에 젖어 들어가는 것을 깨달았다. 〈표준〉

(325) 중국어 ‘欢乐’

의미: (形) 快乐(多指集体的)。(즐겁다. 주로 집단적임을 가리킨다.)

〈現漢: P566〉

예문: 广场上欢乐的歌声此起彼伏。(광장에서 즐거운 노래 소리가 여기 저기서 일어난다.) 〈現漢: P566〉

‘환락(歡樂)-欢乐’는 “즐거움/즐겁다”라는 의미인데 한국어에서 주로 ‘환락에 빠지다’, ‘환락을 탐하다’, ‘환락을 쫓다’와 같이 나타나 ‘부도덕하게 감각적인 즐거움을 쫓다’라는 의미가 부가되어 있어서 대체로 폄하하는 부정적 어감을 나타낸다(맹주익 2005: 405). 이와 달리, 중국어에서 ‘欢乐’는 ‘欢乐的歌声(즐거운 노래 소리)’와 같이 긍정적인 가치 의미로만 쓰인다. 이에 대해 정의화(2008), 유림(2009), 임배리(2013)도 본고와 같은 입장이다.

(326) 한국어 ‘흥분(興奮)’

의미: (명) 어떤 자극을 받아 감정이 북받쳐 일어남. 또는 그 감정. 〈표준〉

예문: a. 그는 사람들이 부모님에 대해 안 좋은 소리를 하자 흥분하기 시작했다. 〈표준〉

b. 그는 별것도 아닌 일에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다. 〈고려〉

(327) 중국어 ‘兴奋’

의미: (形) 振奋; 激动。(분발하다; 설레다.) 〈現漢: P1462〉

예문: a. 听到这个好消息, 他兴奋得一个晚上没有睡好觉。(이 좋은 소식을 듣고 난 그는 신나게 되어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BCC〉

b. 孩子对自己感兴趣的東西, 会显得好奇兴奋。(아이들은 자기가 관심있는 것을 보게 되면 궁금해지고 신나게 된다.) 〈BCC〉

‘흥분(興奮)-兴奋’는 “어떤 자극을 받아 감정이 북받쳐 일어남. 또는 그 감정”이라는 의미는 한국어와 중국어는 공유하는데 가치 의미는 서로 다르다. 한국어 ‘흥분’은 (326a, b)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흔히 부정적인 자극, 다시 말하면 원하지 않는 일을 접할 때 감정이 북받치는 상태를 이른다. ‘공포와 흥분’,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다’, ‘긴장과 흥분’ 등 결합관계에서 많이 나타나 가치 의미는 부정적이다. 그러나 중국어 ‘兴奋’은 (327a, 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신난 일이나 좋은 일로 감정이 북받치게 되는 상태를 나타내 긍정적 가치 의미를 지닌다. 이에 대해서 왕배배(2011), 임배리(2013)도 본고와 같은 견해이다.

한편, 한국어는 부정적 가치 의미로 나타나고, 중국어는 부정적, 긍정적 가치 의미로 모두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집착(執著)-执着’를 예를 들어 살펴보자.

(328) 한국어 ‘집착(執著)’

의미: (명)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 잊지 못하고 매달림. <표준>

예문: a. 그는 권력에 대한 집착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표준>

b. 그 농부는 땅에 대한 강한 집착을 드러내 보였다. <고려>

(329) 중국어 ‘执着’

의미: (形) 固执或坚持不懈。(고집스럽거나 끝까지 견지해 나가다.)

<現漢: P1680>

예문: a. 不要执着于生活小事。(생활 속의 사소한 일에 집착하지 마라.) <現漢: P1680>

b. 执着地献身于祖国的教育事业。(조국의 교육 사업에 꾸준히 헌신하다.) <現漢: P1680>

한국어 ‘집착(執著)’은 흔히 ‘집착에 빠지다’, ‘집착에서 벗어나다’, ‘집착을 버

리다’와 같은 표현에서 나타나 부정적인 가치 의미를 지닌다. 가령 한국어 ‘재산에 대한 집착’, ‘권력에 대한 집착’은 중국어로 ‘执着于财产’, ‘执着于权利’라는 표현에 대응된다. 따라서 이런 의미로 나타난 중국어 ‘执着’도 역시 부정적 가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맹주역(2005)에서는 이런 의미로 쓰인 중국어 ‘执着’는 중성적 어감으로 파악되는 것으로 보아 본고와 다른 입장이다. 중성적인 ‘财产(재산)’이나 ‘权利(권력)’, 또는 (329a)의 ‘小事(사소한 일)’은 ‘执着’와 어울려서 부정적 의미가 되었다. 때문에 이때의 ‘执着’의 가치 의미는 부정적으로 보인다. 그 외에, 중국어 ‘执着’는 (329b)와 같이 “꾸준히 버티다”라는 의미로 긍정적인 가치 의미로도 쓰인다. 흔히 ‘执着地追求(꾸준히 추구하다)’, ‘执着地追求真理(진리를 꾸준히 추구하다)’, ‘对爱情的执着(사랑에 대한 꾸준한 추구)’와 같이 사용된다.

#### 4.4. 소결

본장은 한·중 동자이의어의 의미 대조를 중심으로 논하였다. 1절과 2절에서는 의미 영역에 따라 동자 완전이의어와 동자 부분이의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3절은 한·중 동자이의어의 가치 의미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중 동자 완전이의어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의미가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을 지시 대상의 차이와 지시 행위·상태의 차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지시 대상의 차이는 한·중 동자이의어가 같은 상하관계에 속하지만 가리키는 대상물이 다른 경우이다. 예를 들어, ‘생수(生水)’는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모두 ‘물’이라는 상하관계에 속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샘구멍에서 솟아 나오는 맑은 물”, 중국어에서는 “끓이지 않은 물”을 가리켜 그 지시 대상이 다르다. 그리고 지시 행위·상태의 차이는 가리키는 동작이나 상태가 다른 경우이다. 지시하는 대상이 다르거나 지시하는 행위나 상태가 다른 동자이의어

중에 의미의 취사가 다르거나 의미의 투명성이 다른 데에 기인한 동자이의어가 있었다. 의미 취사가 다른 것은 한국어와 중국어가 한자의 다른 뜻을 취하기 때문에 생긴 의미 차이로 보인다. 이에 해당하는 동자이의어는 ‘간병(看病)-看病’, ‘경주(競走)-竞走’, ‘구인(求人)-求人’, ‘납입(納入)-纳入’, ‘과년(過年)-过年’, ‘병고(病故)-病故’, ‘산발(散發)-散发’, ‘섭외(涉外)-涉外’, ‘처자(妻子)-妻子’, ‘타점(打點)-打点’, ‘편벽(偏僻)-偏僻’ 등이 있다. 예를 들어, ‘경주(競走)-竞走’는 한국어에서는 ‘주(走)’자의 “달리다”라는 의미를, 중국어에서는 “걷다”라는 의미를 취했기 때문에 어휘 의미의 차이가 생긴 것이다. 한편, 전체 어휘를 구성하는 개별 한자의 훈과 전체 어휘 의미의 연관성을 투명성이라고 하는데, 한·중 동자이의어의 투명성이 다른 것으로 ‘공과(功課)-功课’, ‘실재(實在)-实在’, ‘제시(提示)-提示’, ‘질문(質問)-质问’ 등을 살펴보았다.

동자 부분이의어는 의미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인데 세 가지의 부류로 나누어 의미 대조를 하였다. 한국어의 의미 영역이 더 큰 경우, 중국어의 의미 영역이 더 큰 경우, 그리고 의미 영역이 교집합을 이루는 경우가 있었다. 의미 차이가 나는 양상을 유형화하여 검토하였다. 한국어의 의미 영역이 더 큰 경우와 중국어의 의미 영역이 더 큰 경우는 지시 대상의 차이, 지시 행위·상태의 차이 그리고 의미 확장 양상의 차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중 의미 확장 양상의 차이는 한 언어에서는 기본의미만 쓰이고 다른 한 언어에서는 기본의미와 파생의미가 모두 쓰여 생기는 의미 차이와, 두 언어 모두 파생의미가 있는데 한 언어의 파생의미가 더 많아서 생기는 의미 차이가 있다.

3절은 한·중 동자이의어의 가치 의미 차이를 중심으로 대조하였다. 어휘의 긍정적·부정적 가치의미도 어휘 의미의 일부분으로 어휘 파악 및 활용에서 큰 기여를 한다. 동자이의어의 가치 의미에 대한 검토는 두 언어 의미 대조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대조는 어휘의 실제 사용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인 사용 문맥, 결합관계에 의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한국어는 긍정적이고

중국어는 부정적인 가치 의미를 지닌 동자이의어는 ‘여류(女流)-女流’, ‘편달(鞭撻)-鞭撻’, ‘사수(死守)-死守’를 살펴보고, 한국어는 부정적이고 중국어는 긍정적인 가치 의미를 지닌 동자이의어는 ‘객기(客氣)-客气’, ‘도모(圖謀)-图謀’, ‘방심(放心)-放心’, ‘방조(幫助)-帮助’, ‘소심(小心)-小心’, ‘심각(深刻)-深刻’, ‘환락(歡樂)-欢乐’, ‘흥분(興奮)-兴奋’, ‘집착(執著)-执着’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가치 의미의 차이도 의미 차이의 한 부분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장에서 몇몇 어휘의 의미 차이가 나타난 과정이나 시점에 대한 역사적 고찰로서 ‘가사(家事)-家事’, ‘문장(文章)-文章’, ‘사정(事情)-事情’, ‘신문(新聞)-新闻’, ‘세수(洗手)-洗手’, ‘신랑(新郎)-新郎’, ‘시험(試驗)-试验’ 등을 살펴보았다. 고대나 근대 문헌에 나타난 일부 어휘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어휘 의미가 역사적으로 변천하는 모습을 엿보았다.

## V. 결론

본 연구는 주로 의미를 중심으로 한·중 2음절 동자이의어(同字異義語)를 대조하고 그 차이점을 체계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I 장 서론 부분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 선행 연구 및 연구 대상과 연구 자료에 대해 살펴보았다.

II 장은 한자어의 범위를 규명하고, 동자(同字)와 이의(異義)에 대한 판별 기준을 제시하였다. 1절에서는 한자로 적힐 수 있고 한국 한자음으로 읽힐 수 있는 것은 모두 한자어로 본다는 한국 한자어 범위 설정을 하였다. 이에 ‘배추(〈白菜〉), ‘상추(〈生菜〉), ‘김치(〈沈菜〉) 등과 같은 형태 변화를 겪은 단어 및 ‘상투(〈上頭), 쾌자(〈褂子), 자장(〈炸醬〉)과 같이 일부가 한국 한자음으로 읽히지 않는 단어는 한자어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2절에서는 우선 ‘동자어’가 같은 글자를 가진 단어임을 밝혔다. 즉 자형이 같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동자어’라는 용어는 기존의 ‘동형어’라는 용어보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자형의 차이를 간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대조한 동자어는 현대 중국어 사전에 올라 있는 어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즉 현대어에서 어휘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실제 쓰이는 단어여야 한다. 이에 기존 연구에서 동자어로 다룬 ‘가난(家難)-家難’, ‘양복(洋服)-洋服’ 등은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이의어에 대한 판별에 대해 논의했는데 동자이의어란 의미가 다른 부분이 물론 있어야 되지만 의미가 일치하는 부분도 존재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의미를 대조할 때는 사전에 등재된 의미를 중심으로 하고 중국어는 『現代漢語詞典』, 한국어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의미를 중심으로 대조한다는 것도 강조하였다.

III 장은 한·중 동자이의어의 품사 대조를 하였다. 2음절 한국 한자어가 주로 명사나 부사인 것과 달리, 대응되는 동자이의 중국어의 품사는 유동적이고 다

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는 중국어가 한국어와 달리 형태 변화가 없어도 품사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어 명사인 경우와 부사인 경우에 대응되는 중국어의 다양한 품사 유형을 살펴보았다. 우선 한국어가 명사이고 중국어도 명사인 경우, 한국어가 명사이고 중국어는 동사인 경우, 한국어가 명사이고 중국어는 형용사인 경우, 한국어가 명사이고 중국어는 부사인 경우를 대조하였고, 한국어가 명사이고 중국어는 명사와 동사로 모두 나타난 경우, 한국어가 명사이고 중국어는 명사와 형용사인 경우, 한국어가 명사이고 중국어는 명사, 부사 등으로 나타난 경우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중국어의 품사 양상은 복잡하고 다양하며 한국어보다 넓은 의미 영역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국어가 부사로 기능하고 중국어는 대명사, 부사로 나타난 것과, 한국어는 명사와 부사로 모두 나타날 때 대응되는 중국어의 복잡한 품사 양상도 살펴보았다. 한·중 동자이어의 품사적 차이는 문법적으로 그들의 같고 다름을 살펴볼 수 있다. 다른 품사로 나타나면 문장에서 하는 역할도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대조 연구가 문법적 연구의 일부로서, 예컨대 한국 한국어의 서술성 연구나, 기능동사 결합형 연구까지 더욱 넓은 영역에서 동자이의어의 문법 대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의 추후 연구 방향으로 삼을 것이다.

IV장에서는 한·중 동자이의어의 의미를 대조하였다. 1절과 2절에서는 의미 영역의 다름에 따라 동자 완전이의어와 동자 부분이의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3절은 한·중 동자이의어의 가치 의미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동자 완전이의어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이는 지시 대상의 차이와 지시 행위·상태의 차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지시 대상의 차이는 한·중 동자이의어는 같은 상하관계에 속하는데 가리키는 대상물이 다른 것이고, 지시 행위·상태의 차이는 가리키는 동작이나 상태가 다른 것이다. 지시 대상, 행위, 상태가 다른 것을 논의하면서 의미의 취사가 다르거나 의미의 투명성이 다른 양상도 함께 살펴보았다. 의미 취사가 다른 것은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한자의

다른 뜻을 취하는 것이고 의미의 투명성이 다른 것은 전체 어휘를 구성하는 개별 한자의 훈과 전체 어휘 의미의 연관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차이가 동자이의어의 의미 차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동자 부분이의어는 의미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인데 세 가지의 부류로 나누어 의미 대조를 하였다. 한국어의 의미 영역이 더 큰 경우, 중국어의 의미 영역이 더 큰 경우, 그리고 의미 영역이 교집합을 이루는 경우가 있다. 의미 차이가 나는 양상을 유형화하여 검토하였다. 한국어의 의미 영역이 더 큰 경우와 중국어의 의미 영역이 더 큰 경우는 지시 대상의 차이, 지시 행위·상태의 차이, 그리고 의미 확장 양상의 차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중에는 의미 확장 양상의 차이는 한 언어에서는 기본의미만 쓰이고 다른 한 언어에서는 기본의미와 파생의미가 모두 쓰여 생기는 의미 차이와, 두 언어에서 모두 파생의미가 있지만 한 언어에서 파생의미가 더 많아서 생기는 의미 차이가 있다. 한편, 동자 완전이의어와 동자 부분이의어의 의미 대조를 하면서 고대나 근대 문헌에 나타난 어휘의 양상을 일부 살펴봄으로써 몇몇 어휘의 의미 차이가 나타난 과정이나 시점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해 보았다. 이로써 어휘 의미가 역사적으로 변천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3절에서는 한·중 동자이의어의 가치 의미 차이를 중심으로 대조하였다. 어휘의 긍정적·부정적 가치의미도 어휘 의미의 일부분으로 어휘 파악 및 활용에서 큰 기여를 한다. 동자이의어의 가치 의미에 대한 검토는 두 언어 의미 대조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동자이의어의 가치 의미 대조는 어휘의 실제 사용 양상을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인 사용 문맥, 결합관계에 의하여 판단한다. 이는 한국어는 긍정적이고 중국어는 부정적인 경우와, 한국어는 부정적이고 중국어는 긍정적인 경우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2음절 한·중 동자이의어를 수량적으로 최대한 추출하여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의미 차이의 양상을 특징별로 유형화 하고 대조하였으며 근대어나 고대어의 의미 양상을 검토하기도 함으로써 현대 한국어

와 중국어의 의미 차이가 일어난 시점이나 과정을 적으나마 추적해 보았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통시적 연구를 전면적이고 계열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이라 한국어의 사전에 등재되는 의미의 실제 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말뭉치에만 의존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어휘 차이의 양상 부류를 더 유형화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의 연구를 통해서 보완하도록 힘쓰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LUO TING(2014), 한·중 한자어 술어명사의 대조 연구-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WANG XINLE(2016), 한·중 동소 한자어 비교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범모(2011), 형용사와 명사의 의미운율, 《언어》 36(1), 한국어언어학회, 1-23.
- 姜漢植(2008), 現用하는 韓·中 同形異義語 對照 研究,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곽박림(2013),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중 한자어의 의미 대조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숙(2014), 중·한 대조분석을 통한 동형이의어 지도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희(2004), 중국인 초급학습자를 위한 어휘 교육-기본어휘에 나타난 한자어휘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9, 65-86.
- 金亮鎭(2011), 國語辭典 속의 吏頭式 漢字語 研究, 《어문연구》 39-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63-85.
- 金亮鎭(2013), 國語의 同字同義異音 漢字語 研究, 《어문연구》 441-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33-60.
- 金洪振(2007), 현대 한·중 한자어의 동형이의어·이형동의어 비교 연구-HSK 8822 甲·乙급 어휘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명애(2013), 한국어 동작성 서술 명사 교육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노명희(1990), 漢字語의 語彙形態論的 特性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명희(2008), 한자어의 구성성분과 의미 투명도, 《국어학》 51, 국어학회, 89-113.
- 馬今善(2012),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자어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맹주억(2004), 한국어와 중국어 사이의 어휘 간섭 요인 박쥐말(I), 《외국어교육》 12(3), 한국외국어교육학회, 401-416.
- 맹주억(2005), 한국어와 중국어 사이의 어휘 간섭 요인 박쥐말(II), 《외국어교육》 11(4), 한국외국어교육학회, 475-488.
- 맹훈(2014), 한·중 동형어의 한자어 대조 분석을 통한 학습전략,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文蓮姬(2007), 韓·中 漢字語 意味 對比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민영란(2002), 韓·中 漢字語의 意味變化類型, 《국제언어문학》 16, 國際言語文學會, 63-96.
- 반굉위(2016),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한자어 교육 연구 -한·중 한자어 “동형어의어”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范琦慧(2002), 韓中 同形 漢字 語彙에 대한 比較 考察,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範晨星(2017), 韓中“同形異義”漢字詞意義對比研究,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사윤(2012),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중 동형 한자어의 의미대조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尙佳寧(2017), 韓·中 同形異義語를 통한 韓國語教育方案 研究,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成元慶(1977), 韓中 兩國에서 現用하는 漢字語彙 比較攷: 中國語의 特殊語彙

- 를 中心으로, 《省谷論業》8, 서울: 省谷學術財團.
- 宋基中(2007), 東洋 三國 漢字 語彙 鳥瞰, 『국어학』 49, 국어학회, 315-334.
- 宋敏(1990), 어휘 변화의 양상과 그 배경, 《국어생활》1, 국어연구소, 42-57.
- 송지혜(2014), ‘이상하다’의 가치 의미의 변화 연구, 《국어사연구》18, 국어사학회, 329-361.
- 沈在箕(1968), 평가상으로 본 국어의 의미 변화, 《이승녕 박사 송수기념논총》, 321-222; 심재기(1982), 《국어어휘론》, 집문당 재수록.
- 沈在箕(1987), 한자어의 구조와 그 조어력, 《국어생활》8, 국어연구소, 25-39.
- 沈在箕(1989), 漢字語 受容에 關한 通時的 研究, 《국어학》18, 국어학회, 89~109.
- 심재기 외(2011), 《국어 어휘론 개설》, 지식과교양.
- 신현숙·김영란(1999), 《의미와 의미 분석》, 푸른사상.
- 엄성호(2015), ‘한자어 어근·하다’ 형용사 의미 연구 -‘한자어 어근’과 동형 중국어 어휘 대조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王克全(1994), 韓·中 漢字語에 關한 比較研究: 現代國語를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왕배배(2011), 한·중 동형어의 한자어 대조 연구 -한국 각 한국어교육기관 교재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왕페이(2017), 한·중 동형어의 한자어의 교육 방안 연구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충북대 교육 박사학위논문.
- 유림(2009), 한국 한자어와 중국어의 긍정·부정적 어휘 의미 대조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서천(2011),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한자어 어휘 학습 전략의 연구 -한·중 한자어 의미 대조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승국(2012), 합성동사(合成動詞)의 다의(多義) 형성과정(形成過程)에 대한 고

- 찰(考察) - 기본의미(基本意味)와 파생의미(派生意味) 간(間)의 의미관계(意味關係)를 중심(中心)으로 -, 《어문연구》 40, 한국어문교육연구회, 33-56.
- 尹翡翠(2009), 한·중 동원관계 한자어 이질화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득춘(1994), 한국 한자어와 중국어의 대조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및 의미적 차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19,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27-39.
- 이병규(2001), 국어술어명사문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李思皎(2014), 한국어 한자어 반의어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선웅(2005), 《국어 명사의 논항구조 연구》, 월인.
- 이쌍건(2012),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한자어 교육 방안,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용교(2014), 한·중의 고빈도 사용 한자어 비교 연구 -2음절 한자어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李海慈(2001), 韓國 漢字語와 中國語의 對照 研究,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호승(2003), 통사적 어근의 성격과 범위, 《국어교육》 112, 한국어교육학회, 373-397.
- 이호승(2008), 서술성 명사의 판별과 관련된 몇 문제, 《어문연구》 58, 어문연구학회, 115-136.
- 임배리(2013), 한·중 동형 한자어의 어감 대조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지룡(2011), 《국어의미론》, 탑출판사.
- 임지룡(2012), 현대 국어 동물 속담의 인지언어학적 가치론, 《국어교육연구》 50, 한국어교육학회, 377-404.
- 鄭恩惠(1998), 韓·中 漢字語의 異質化 研究 -意味와 形態를 中心으로, 이화

- 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程崇義(1987), 韓·中 漢字語의 變遷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의화(2008), 한·중 박쥐말의 긍정적·부정적 어감 대조연구, 《中國研究》,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중국연구소, 101-114.
- 조항범(2004), 《정말 궁금한 우리말 100가지》 1, 예담.
- 채옥자(2004), 韓國한자어와 中國現代漢語語彙의 비교 연구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의 어휘 목록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24, 이중언어학회, 267-278.
- 崔金丹(2007), 현용 한국 동사 한자어와 이에 AB:AB:AB型으로 대응되는 현대 中·日 同形同素語의 部分 異義에 대한 고찰 -[명사성 어근+동사성 어미(~하다)]유형의 현용 초등학교 교육용 한자어를 대상으로-, 《국어학》 49, 국어학회, 355-399.
- 崔娟華(2008), 한·중 동형이의어의 대조연구-의미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崔銀日(1995), 國語 否定 價値語 研究,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형용(2007), 가치평가에서의 의미 변화에 대하여 -말뭉치 텍스트의 ‘점입가경(漸入佳境)’과 ‘타산지석(他山之石)’의 용례를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22,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1-221.
- 夏琪(2015), 한·중 서술성 명사의 대조연구 -동일 한자어를 대상으로-,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韩在均(2013), 同字異義反序詞在漢語與韓語中的差異表現, 《중국어언어연구》 44, 한국중국어언어학회, 239-267.
- 홍재성(1996), 기능동사 구문 연구의 한 시각: 어휘적 접근, 《人文論業》 41,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35-173.
- 金蓮正(2009), 中韓同形詞對比研究, 東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金珍玉(2008), 韩国语中汉字词及其与汉语词的对比研究-对名词和动词的浅论, 南开大学硕士学位论文.

陆丙甫(1988.) 从语义, 语用看语法形式的实质, 《中国语文》(5), 1-15.

全金钟(2010), 刍议现代汉语词汇色彩意义的变化, 《前沿》(8), 180-182.

孟凡浩(2015), 词的色彩意义与对外汉语词汇教学, 河南大学硕士学位论文.

荀恩东·饶高琦·肖晓悦·臧娇娇(2016), 大数据背景下BCC语料库的研制, 《语料库语言学》(3-1), 93-110.

杨文全(2010), 《现代汉语》, 重庆大学出版社.

杨振兰(1996), 《现代汉语词彩学》, 山东大学出版社.

刘静园(2009), 论褒贬义词和带褒贬义色彩的词, 《泰山学院学报》31(4), 116-121.

章炎(1983), 浅谈词语的感情色彩, 《辽宁大学学报》(5), 92-96.

刁晏斌(2007), 现代汉语词义感情色彩的两次大规模变迁, 《文化学刊》(6), 49-58.

曹炜(1991), 语言和言语的感情色彩刍议, 《镇江师专学报》(3), 38-41.

朱庆之(2013), 对‘来日’一语的汉语史和文学史考察, 《语言科学》12(1), 32-50.

朱德熙(1982), 《语法讲义》, 商务印书馆.

朱德熙(1985), 现代书面汉语里的虚化动词和名动词, 《北京大学学报》(5), 10-16.

邹韶华(2004), 语频·语义·语法, 《汉语学习》(2), 6-9.

许璧(1991), 朝鲜语中的汉字词: 论汉语和日语对朝鲜语的影响, 《汉语学习》(62), 37-41.

국립국어원(1993), 《15세기 한자어 조사 연구》, 국립국어원.

박재연 외(2010), 《필사본 고어대사전》, 선문대학교, 학교방.

이은령·김영주·윤애선 옮김(2014), 《현대 한국어로 보는 한불사전》, 소명출판.

조남호(2002),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결과 보고서》, 국립국어원.

홍운표 외(1995), 《17세기 국어사전》, 한국전신문학연구원, 태학사.

황문환·김주필·배영환·신성철·이래호·조정아·조항범(2017), 《조선시대 한글편지 어휘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역락.

황호덕·이상현 편(2012), 《한국어의 근대와 이중어사전》, 박문사.

吕淑湘·丁声树(2016), 《现代汉语词典》제7판,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 商务印书馆.

陈复华·楚永安·张双棣·殷国光 외(2014), 《古代汉语词典》, 商务印书馆.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웹, 고려대민족문화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웹, 국립국어원.

〈21세기 세종계획 최종 성과물〉(2011),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

〈北京語言大學語料庫中心〉, 北京語言大學.

# ABSTRACT

## A Contrastive Study of Disyllabic Homographs in Chinese and Korean

LI DA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lies in systematically elucidating differences, especially semantic differences, between Chinese (Mandarin) and Korean in disyllabic homographs.

Because of historical relatedness between the two nations, there are many commonalities in morphological, syntactic, and semantic characteristics between the Sinoxenic lexicon in Korean (Sino-Korean lexicon) and the Chinese lexicon. Having undergone disparate historical changes and developed in disparate social environments, however, the modern or contemporary varieties of the two languages inevitably have differences in grammatical characteristics, especially semantic characteristics. In order to elucidate such differences, the present study contrasted homographs in Korean and Chinese. To accomplish this, homographs were extracted from the 58,437 lexemes in “The Results of an Investigation of Usage Frequency in Contemporary Korean” (2002; *Hyeondae Gugeo Sayong Bindo Josa Gyeolgwa* 現代 國語 使用 頻度 調查 結果)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NIKL; *Gungnip Gugeowon* 國立 國語院),

with the definitions listed in dictionaries as the standards.

Chapter II defines the scope of Sinoxenic words as words that can both be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and be read according to Sino-Korean pronunciations and presents the standards for determining homographs. “Same-character words” refers to an oppositional pair of words with identical graphemes. Because the present study contrasts contemporary Korean and Chinese, lexemes not used in contemporary varieties of these languages were excluded from the contrastive study. In addition, distinctions among words with disparate meanings are discussed in this chapter. “Homographs” refers to words that, of course, must have partial semantic differences but also can partly agree in meaning. On the other hand, when contrasting meanings, the task was performed with a focus on definitions in dictionaries, especially those in the *Contemporary Chinese Dictionary* (*Xiandai Hanyu Cidian* 现代汉语词典) for Chinese and in the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Pyojun Gugeo Daesajeon* 標準國語大辭典) for Korean, respectively.

Chapter III contrasts Korean and Chinese with a focus on the lexical classes (parts of speech) of homographs in the two languages. Disyllabic Sinoxenic words in Korean consist mostly of nouns, with some being adverbs and pronouns. Because, in Chinese, lexical class switches are possible without changes in morphology, lexical classes are fluid. Consequently, disyllabic Sinoxenic words in Korean were distinguished between nouns and adverbs and contrasted with corresponding homographs in Chinese in terms of their respective lexical classes.

Chapter IV contrasts the meanings of homographs in Korean and Chinese. It classifies these words into full homographs and partial homographs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semantic fields. First, Section 1 contrasts full homographs in the two languages. Full homographs are homographs that differ completely from each other in meaning, with no semantic overlap or agreement whatsoever. In order to grasp patterns in semantic differences between full homographs systematically, characteristic lexemes were grouped by type and examined in terms of differences in their referents, acts of reference, and states of reference. The contrast of partial homographs was performed in terms of semantic fields: cases where Korean lexemes were larger in semantic fields; cases where Chinese lexemes were larger in semantic fields; and cases where Korean and Chinese lexemes intersected in semantic fields, respectively. The first two types were contrasted after being classified according to differences among referents in identical hierarchical relations, differences in acts of reference and states of reference, and differences in patterns of semantic extension. Section 3 contrasts the value meanings of homographs in Korean and Chinese. Here, whether a value meaning is positive or negative is determined mainly according to the combination relations and contexts of lexemes.

Keywords: Homographs in Korean and Chinese, disyllables, lexical class contrast, semantic contrast, value meanings, referents, acts of reference, states of reference, patterns in semantic extension, derived meanings